

중장기 통일 교육 발전 방안

연구책임자 고정식(배재대학교)

공동연구자 오일환(한양대 아태연구소)

독고순(한국국방연구원)

이 보고서는 2003년도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통일부의 공식전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I. 연구목적과 기존 연구현황

중장기적인 통일교육원 발전방안에 대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보다는 통일교육원의 중장기 통일교육 발전시스템의 전개가능성을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용역보고서에서 진행된 것과 같은 개별적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해나간 것이라기 보다는 연구된 각 부분의 내용을 통일교육원 중장기적 통일교육 운용방안이라는 시각의 틀속에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남북관계 발전방향, 통일교육전달 매체의 변화, 남한사회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통일교육원의 중장기적인 역할 및 기능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II. 통일교육의 위상과 통일교과 프로그램 분석

통일교육 대상자 분석에 따르면 향후에는 남북교류관련 통일교육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대상자가 통일교육의 주요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는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고,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동해선 등의 철도, 도로연결, 북한 금강산, 평양 등의 방문허용 등은 경제, 문화 관광부분에서의 교류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의 추진과 느슨한 체제의 유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두부분에서 발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크게 확대개편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2003년에는 사회통일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원의 장기적 교육방향이 남북한 사회통합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해 볼 때 통일교육원의 교과목도 이와 관련된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통일교육원의 주요 역할과 기능이 남북한 사회통합, 북한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 이에 대한

교육기능과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현재의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과목을 분석해 볼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내용은 남북관계 진전의 초기단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북한의 개혁개방이 초기단계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도 크지 않고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도 분단국 사례, 즉 과거 통일이전의 동서독과 현재의 대만과 중국간의 교류수준에 비교해 볼 때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통일교육 내용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들어 남북교류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반, 북한이탈주민과 그 담당자반 등이 신설되어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의 변화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남북의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남북한 통일과 같은 유사단계에 이르게 될 경우 통일교육원의 교과목과 역할은 현단계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준비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 통일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1. 인터넷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연구

통일교육원의 사이버통일교육은 교과목의 일부를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하는 원격교육의 초보형태 내지 일단계 형식으로 평가되며, 실질적으로 원격통일교육센터로 기능 및 역할을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몇 가지 원격교육 형식을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의 본격적인 원격교육은 사이버대학교의 원격강의 기능과 구성을 갖추고, 교육대상만 특정 교육생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포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일방향적 교육전달시스템으로 양방향과 평가시스템, 참여교육생

들의 교육내용 습득수준과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함으로써 부분적인 사이버 통일교육 수준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이며, 양방향적인 사이버 통일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격통일교육센터로 시스템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원격통일교육센터의 구성은 통일교육원 교수, 각 기관단체의 통일교육 관리운영자, 통일교육에 참여해왔던 각종 피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각종 창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종합하여 개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는 학습자 수준과약 미흡, 제한적인 상호작용, 콘텐츠 업데이트와 확장이 다루어졌으며, 통일교육 콘텐츠 관리방식 개편에서는 관리방식개선의 필요성, 전문가 통일교육과정 개설지원, 커뮤니티 기능지원, 통일교육관련 학습 기능, 디자인 및 기타기능, 메일링시스템, 채팅방 구축이 분석되었다

2. 인터넷 통일교육방송 활용성 검토

인터넷 통일방송국은 통일교육 전달방식의 개선, 사이버통일교육 기능의 보완, 조직의 유기적 참여확대, 통일교육생의 능동적 교육참여 유도, 통일교육 전달내용의 다양화, 전달내용 수량의 대폭 증대, 다른 장르의 문화적 표현수단들과의 결합 등 기존의 통일교육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와 통일교육 효과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사이버통일교육 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일정수준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인터넷 통일방송이 개국될 경우 조직과 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에는 KBS, MBC, SBS 등 기존방송에는 없는 디지털화나 인코딩과 같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장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 방송이 요구하는 큰 설비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터넷 통일 방송국 개설은 어렵지 않다. 특히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경우 기존 설비와 조직, 운영 노하우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지 않은 예산으로 추가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직 관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전반관리 팀장, 촬영스케줄 관리 및 통일교육 강좌 방송담당 PD, 방송편집 및 오프라인 통일교육 방송 담당 PD, 통일교육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통일교육정보공유체제 담당, 홈페이지 운영 및 서버관리담당자, 기술감독 방송장비 및 스튜디오 관리자, EOD편집과 통일 및 남북관계 강좌 혹은 각종 활동 현장 담당자, EOD편집보조, 방송장비 관리자, 방송보조 및 문서업무 담당자 등이다. 이는 업무의 중복 부분은 일인이 동시에 담당하는 것도 가능한데, 1단계에서는 1명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PD가 다양한 장르의 PD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팀장의 책임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단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본격화될 경우 세부적인 기능을 담당할 인력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터넷 방송국의 좋은 사례들은 향후 인터넷 통일방송국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중에서도 제주 교육청 인터넷 방송국, 경찰청 인터넷 방송국,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KBS 인터넷 방송으로서의 아름다운 통일은 통일교육원이 인터넷 통일방송을 운영할 경우 참고할만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IV. 통일방송국의 필요성과 개국 가능성 검토

1. 지상파 방송사 제작프로그램의 통일교육 활용방안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국내 방송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북한과 방송교류 등을 통한 통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방송사 대표, 통일부 등의 관계기관, 언론학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방송 교류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일교육원은 기존방송사가 기획 제작하는 통일교육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원은 통일방송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 방송사들의 통일 및 북한 프로그램 제작진, 이와 관련된 조직과의 밀접한 네트워크 관계구축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방송사의 통일관련조직이나 전문인력과 협력함으로써

써 통일교육원에서의 방송 통일 프로그램 자료 확보 및 공동이용, 북한 및 통일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과정의 참여, 인터넷 통일방송 활용과 이용과정의 효율성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사가 기획제작한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원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나 이후 확충될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등에서 활용하게 될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이용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 통일교육 위성방송국 설치가능성 검토

다채널 위성방송 시대의 도래와 공익성의 추가라는 시각에서 통일교육원의 통일위성방송 개국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위성방송은 기존 방송국의 설비와 조직, 노하우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방송의 대안적 형태로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교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통일위성방송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위성방송은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남한내 주민을 대상으로 방송하게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방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전되고 북한내 방송의 개방성이 높아진다고 보았을 때 북한의 방송 청취 방식은 케이블 방송 형태보다는 위성방송 형태의 수신이 더욱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앞장에서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간의 관계에서 분석되었듯이 케이블망의 확충속도보다 위성방송 수신기를 통한 방송전파가 더욱 빠르다는 것이 후발 개도국의 경험사례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다.

3. 케이블 통일방송 개설 가능성 연구

통일교육원에서 케이블 TV 영역에 진출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공급자(PP)로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종교계에서 불교방송, 카톨릭의 평화방송, 개신교의 기독교방송이 PP 사업자로 케이블 TV 방송 영역에 진출해 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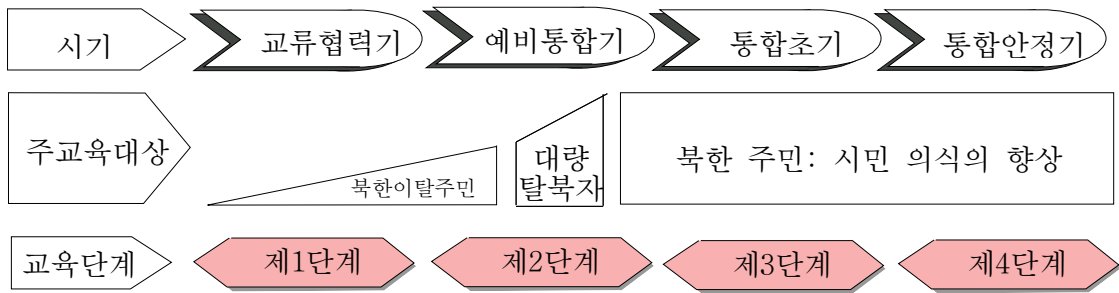
특성화한 만화 케이블TV인 투니버스, 공공성을 지향하는 방송대학 TV, 아리랑 TV, K-TV 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케이블 TV의 프로그램공급사는 특화된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각 장르를 보면 영화, 드라마, 스포츠, 음악, 연예 및 오락, 만화, 종교, 홈쇼핑, 여성, 생활 및 취미, 어린이, 정보, 공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일교육원이 프로그램공급자로서의 케이블 TV 방송영역에 진출한다면 공공 혹은 정보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 내용을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공급사로서 방송을 제작하고, 케이블 TV방송국에 공급할 경우 수익성과 고객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케이블 TV 공급권을 가진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통일교육의 케이블 TV 프로그램공급사로서의 방송국을 설립하여 단일 채널로서 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방송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되어진다.

V.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북한(이탈)주민 통일 교육 방안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는 이들의 부적응이 남한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된다거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순조로운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연한 현실적 고려만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하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은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여러 문제점을 예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 통합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 교차적 적응 경험이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 이탈 주민은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문화권에 진입한 문화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북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고 남북한 문화가 교차하였을 때 발생할 수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관한 예측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대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 남한 사회 적응 문제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대규모 발생 단기간에 남한 체제 이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주민의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 이해 부족 및 미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주민의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강화
교육 목표와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간에 효율적인 체제이해, 생활안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주민의 새로운 체제 이해 및 적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의 사회 통합 구성 능력 강화
주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안정교육 체제이해교육 문화적응교육 기초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제동화교육 생활안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제이해교육 문화적응교육 민주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사회문화체제교육 시민역량강화프로그램

V. 통일교육원 조직 발전방안

기존의 통일부 조직의 경우 향후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 기능이 강화 확대되어 갈 경우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즉, 앞에서 분석한 남북관계의 2단계, 3단계의 진입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교육, 남북교류요원 교육, 방북자 교육, 인터넷 통일방송 교육, 통일위성방송 교육, 원격통일교육, 북한 주민 대상 인터넷 혹은 위성방송 통일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기존 지상파 방송국과의 네트워크 협력관계 구축 등의 업무가 새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일반대학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 모델인 것이다. 이러한 역할 변화가 필요한 통일교육 시스템으로의 수용 내지 적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인터넷 환경과 방송 시스템과 같은 전문분야로의 적용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분야이며,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단계별 적응과 수용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의 준비와 훈련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통일교육원 조직하에서의 교수들의 활동은 오프라인 통일교육을 핵심으로 하면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통일교육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오프라인 통일교육에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통일교육원 교수의 역할이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변화에 따라 새롭게 확대되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교육원의 예산규모와 예산추이를 보면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이 잘 드러난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의 뒷받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받으라고만 하였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적 뒷받침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있어서 1998-2000년 기간은 국민적 갈등이 가장 증폭되었던 시기이며, 국민적 합의와 여론조성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통일교육원의 예산은 반비례하여 최소규모로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이론적으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언급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상의 예산적 지원은 오히려 삭감하도록 결정하였다.

향후 통일교육원이 남북관계의 교류협력 발전,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기능의 확대, 원격통일교육시스템의 도입, 인터넷 통일교육방송, 통일위성방송, 지상파방송국과의 통일교육 연계 프로그램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원의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목 차

요약

I. 연구 목적과 기존 연구 현황	1
1. 연구 목적	1
2. 기존 연구 현황	3
II. 통일교육의 위상과 통일교과 프로그램 분석	7
1. 통일교육의 현황과 미래	7
(1) 시민사회 발전과 통일교육 방향	7
(2) 정부 통일교육의 특성과 과제	13
(3) 분단국 통일교육의 경험과 한국 통일교육의 비교	21
(4) 대북정책의 주요쟁점과 통일교육의 과제	29
(5) 대북정책이 한국사회 내부갈등에 미친 영향	36
(6)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단계별 통일교육 발전 방안	39
2. 중장기 통일교육원 교과목 편성 방안	48
(1) 통일교육원 교과목 구성의 변화와 특징	48
(2) 통일교육원 교육대상자 변화 추이	51
(3) 통일교육원의 교과목 현황과 특징	56
(4) 사회 통일교육단체 교과목과의 비교분석	58
(5) 통일교육원 프로그램과의 종합적인 비교	76
(6) 남북관계 단계별 발전에 따른 통일교육 중점 방향과 주제	79

Ⅲ.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 통일교육 시스템 분석	87
1. 인터넷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87
(1) 인터넷 원격통일교육의 필요성 운영방식	87
(2)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기능 확장	90
(3) 원격통일교육 설비시스템	102
(4) 원격통일교육 운영 및 조직	104
(5) 운영시스템 고려사항과 운영전략	111
(6) 원격통일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 운영	120
(7) 통일교육 교육생 관리	122
(8) 원격통일교육 효과 평가 절차	127
(9) 원격교육기관 인가과정	130
2. 인터넷 통일교육방송 활용성 검토	133
(1) 인터넷 방송의 개념과 특징	133
(2) 인터넷 통일의 필요성과 과급효과	138
(3) 인터넷 방송의 종류	141
(4) 인터넷 방송의 장비와 기술 형태	145
(5) 인터넷 방송의 사례	150
(6) 인터넷 통일방송국 발전방안	164
Ⅳ. 통일방송국의 필요성과 개국 가능성 검토	173
1. 지상파 방송사 제작프로그램의 통일교육 활용방안	174
(1) 지상파 통일방송국 개국의 제약조건	174
(2) 통일관련 방송기획단계에의 참여	178
(3) 통일 및 남북한 프로그램 제작진 네트워크 관리	182
(4) 제작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방안 모색	184
(5) 통일교육 방송체제의 운영 및 발전 방안	199

2. 통일교육 위성방송국 설치가능성 검토	204
(1) 디지털 위성방송 개념	204
(2) 위성방송 준비 현황	205
(3) 위성방송 서비스의 현황	208
(4) 위성방송의 다채널 편성과 활용방안	211
(5) 통일교육 위성방송 개국의 필요성과 가능성	216
3. 케이블 통일방송 개설 가능성 연구	219
(1) 케이블 방송의 개념	219
(2) 케이블 방송 현황 분석	220
(3)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시스템	221
(4) 케이블 통일방송국의 개국 가능성	225
V.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북한(이탈)주민 교육 방안	228
1. 중장기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의 필요성	228
(1)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과 통일교육 정책적 함의	228
(2) 사회 통합의 관점	234
(3) 문화 적응의 관점	235
(4) 평생 교육의 관점	237
2.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시각과 교육 현황	240
(1)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각	240
(2) 하나원의 교육 프로그램	245
(3) 민간 부문의 프로그램	248
(4) 소결론	250
3. 남북관계 단계별 사회 적응 교육 방안 구상	254
(1) 단계의 구분과 특성	254
(2) 교류 협력기의 사회 적응 교육	256

(3) 예비 통합기의 사회 적응 교육	264
(4) 통합 초기의 사회 적응 교육	267
(5) 통합 안정기의 사회 적응 교육	270
4. 통일교육원의 사회 통합 교육 정책 발전	273
(1) 단계별 통일교육원의 역할 구상	273
(2) 통일 교육 발전 여건 조성	276
(3) 통일 교육 수월성 추구	278
VI. 통일교육원 조직 발전방안	285
1. 통일교육원 조직체계 변화 요인	285
2. 현단계의 통일교육원 조직	287
3. 미래 통일교육원 조직 예상 체계	289
4. 통일교육원 예산	294

표 목 차

표1. 기존 통일교육원의 연구과제 현황	6
표2. 통일교육 교과목 비교	48
표3. 통일교육원 교과목 기본구성 내용	50
표4. 통일교육실시 현황(1992년)	52
표5. 연도별 통일요원 과정 교육생 현황	53
표6. 연도별 남북교류 협력과정 교육생 현황	54
표7. 통일교육원 교육대상별 교과목 현황	57
표8. 서울시 초등학교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2003년)	60
표9. 통일교육원 초등교사 통일교육교과목 (합숙, 15시간)	62
표10. 서울시 중등 통일교육 직무연수(2002)	64
표11. 대전시 교원연수원 통일교육 프로그램(2002년)	66
표12. 경남대 사이버 통일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69
표13. 동국대 통일교육 교과목 프로그램	70
표14. 고려대 북한학과 통일교육 교과목 현황	71
표15. 각 대학의 북한 및 통일관련 교양강좌 현황	72
표16. 통일교육원 대학생 정치교육 프로그램(북한·정치학과생, 합숙)	73
표17. 한국자유 총연맹 통일교육 프로그램 현황	74
표18. 경실련 통일협회 제14기 민족화해아카데미 프로그램	75
표19. 좋은 벗들 제13기 통일대회마당 프로그램	76
표20. 통일교육기관별 교과 프로그램 특성 비교	78
표21. 남북관계 단계별 발전에 따른 통일교육 중점 방향	80
표2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82
표23. 통일교육 기본 교과목 설정 사례(남북관계 2단계 혹은 3단계)	84
표24. 통일교육 공동체 사이트의 공간 마련	96
표25. 메일링 시스템 주요 기능 모듈	101
표26.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하드웨어 사양	103

표27. 사이버 대학 하드웨어 사양 및 시스템(사례 1)	103
표28. 아웃소싱 판단 기준	110
표29. 원격통일교육 운영시스템 선정시 고려사항	113
표30. 교원원격연수기관 현황	115
표31. 민간 기관의 원격연수기관 현황	116
표32. 대학 부설 원격교육기관 현황	116
표33. 원격통일교육 운영진 구성	120
표34. 교육생별 주요 업무 및 고객 창구	123
표35. 각 원격통일교육 교과목의 교육생별 게시판 운영 파악(예시)	124
표36. 통일교육 효과 평가 요소	128
표37. 통일교육 평가 내용의 통계적 파악 방식(교원에 대한 사례)	128
표38. 온라인 설문조사 영역	130
표39. TV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기술과 요구조건	136
표40. 인터넷 방송의 특성	138
표41. 경영주체별 인터넷 방송 분류	143
표42. 독립인터넷 방송국 분류	143
표43. 인터넷 방송의 서비스 유형별 특징	144
표44. 인터넷 방송 기본 장비	146
표45. 주요 지상파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152
표46. 기타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153
표47. PC통신 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155
표48. 사이버 경찰청 인터넷 방송 사례	159
표49. 기존 방송사가 제공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사례	160
표50. 청소년 인터넷 방송채널 현황	163
표51.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장비	166
표52. 단순한 형태의 인터넷 방송 설비	167
표53. 인터넷 방송 강의 제작 비용 견적 예 (1시간용)	168
표54. 기존 인터넷 방송국이 인터넷 통일방송 운영에 주는 시사점	170
표55. EBS의 연도별 예산 추이	176
표56. 백두에서 한라까지 제작과정	179

표57. KBS 특별기획 제작과정	180
표58. 북한 및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PD(KBS)	184
표59. KBS 역사스페셜 북한관련 프로그램	185
표60. 일요스페셜 통일 및 남북문제관련 프로그램	186
표61. KBS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일반 프로그램 제작 목록	188
표62. MBC 프로덕션 통일관련 프로그램 목록	190
표63. 100분 토론 코너의 통일 및 남북문제관련 프로그램 목록	193
표64. 시사토론 코너의 통일 및 남북문제관련 프로그램 목록	194
표65. EBS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	196
표66. EBS 통일 및 북한관련 VOD/AOD 프로그램 목록	197
표67. KDB 채널구성 현황	210
표68. 프로그램 공급사 현황(PP)(45개 채널)	221
표69. PP별 1일 방송 시간(2001년말 기준)	221
표70.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법의 변천 과정	231
표71. 연도별 교육생 현황	245
표72. 계층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247
표73. 단계별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교육	255
표74. 1단계에서의 교육 목표 및 주요 내용	256
표75. 수입 정도와 적응 유형	262
표76. 학력과 적응 유형	262
표77. 보완 요구 프로그램	264
표78. 2단계에서의 교육 목표 및 주요 내용	264
표79. 초기 적응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5
표80. 고용자라면 탈북자를 고용하겠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	266
표81. 3단계에서의 교육 목표 및 주요 내용	267
표82. 4단계에서의 교육 목표 및 주요 내용	270
표83. 통일교육원의 기능 변화	274
표84. 탈북(북한) 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원의 역할	275
표85. 관련 부처간 협력 기반 구축	276
표86. 가치 체계의 내면화를 위한 개념틀	279

표87. 가치 체계 공유를 위한 기본 지식 체계	281
표88. 통일교육원 주요 부서 업무 내용	288
표89. 통일교육원 교수 역할 모델의 다원화와 유형별 특징	292
표90. 통일교육원 예산 추이	294
표91. 통일교육원 단계별 추진내용과 잠정 소요 예산	297

그림목차

그림1. 통일요원 교육생 수	54
그림2. 연도별 남북교류협력 교육생 추이	54
그림3. 원격교육대학 모임공간 초기화면 사례	97
그림4. 원격교육대학 모임공간 관리자 화면 사례	98
그림5. 원격교육대학 메일링 시스템 교수화면 사례	100
그림6. 원격교육인허가 과정	131
그림7.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서 인터넷 방송	134
그림8. 인터넷 방송 서비스 흐름도	142
그림9. 인터넷 방송국 시스템 구축 비용	146
그림10. VOD 서비스	149
그림11. Live Webcasting	150
그림12. 위성방송의 방송송신 시스템	209
그림13. 문화 적응 과정	236
그림14. 의식의 구조화 과정	238
그림15. 모호성에 대한 거부감	258
그림16.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주민의 집단주의/개인주의 비교	259
그림17.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	261
그림18. 주요 영역별 적응 기간	263
그림19. 이념적 스펙트럼과 통일 교육 대상	273
그림20. 사회 변화에 따른 통일 교육 대상의 확대	274
그림21. 통일 교육 체제 통합 모형	277
그림22. 현행 통일교육원 조직 체계와 역할	287
그림23. 미래 통일 교육원 조직 체계(예상)	290
그림24. 통일교육원 예산비중 추이	295

I. 연구 목적과 기존 연구 현황

1. 연구 목적

남북관계의 변화,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핵문제 제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 등은 통일교육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이래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환경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등을 위하여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은 한편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북한의 핵문제 제기와 서해안의 도발,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빈번한 약속이행 위반 등은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대북포용정책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이 남한의 일관된 통일정책의 기초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했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로 인하여 대북교류인원의 대폭적인 증가는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대상과 역할에 대하여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방북자에 대한 통일교육의 대폭 증가, 남북교류협력 담당자 교육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현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지속 혹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의 교육대상자와 교육기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전망된다.

또한 교육의 전달매체나 수단의 변화도 통일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IT산업의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교육기능과의 결합은 통일교육의 교육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통일교육원은 사이버통일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 통일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초보적 원격강의도 실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온라인 통일교육을 결합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통일 및 남북관련 자료의 광범위한 제공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통일교육의 공급은 통일교육원이라는 공간과 특정시간에 묶여 있던 통일교육의 장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미 인터넷의 교육기능과의 결합은 사이버대학, 원격강의,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별히 교육기능의 인터넷과의 결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에 강한 영향을 받아오던 평생교육, 일반인 대상교육의 영역에서 더욱 수요가 크며, 이런 측면에서 평생교육과 일반교육의 특성을 모두 지닌 통일교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남북경제교류의 확대 등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통일교육 환경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교류의 큰 진전은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급증과 북한 이탈주민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북한사회에 대한 정보와 생활상도 일상적인 일처럼 남한사회에 공개되고, 개방되어 남한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한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이해 부분의 통일교육은 전달방식과 해석 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사회 생활상의 설명을 위한 질의답변식 교육시간은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단순한 북한사회 소개의 내용도 교육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북한의 불합리한 의사결정방식과 신뢰손상 등으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남남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이 추진과 인도적인 북한지원,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정은 남남갈등과 의견충돌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계된 남남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고, 나아가 남북주민간 발생하게 될 사회적 갈등도 중화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남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화 수준의 진전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의견전달 과정과 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남한사회의 남북관계를 둘러싼 논의의 진전정도는 그 수준과 논의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일방적인 의견의 제공과 설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통일관련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의견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단계에 와있다. 남한사회의 다양한 의견표출과 집단행동은 제도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장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와 역할 및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과제이다.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통일교육환경의 변화와 당면 과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다. 이것은 향후 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및 조직의 운영을 전망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관계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전제로하여 통일교육 방향과 시스템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해보는 것이다. 현재의 통일교육 교과목을 분석하고, 남북단계 발전에 따른 통일교육대상자의 변화, 통일교과목의 새로운 설정 필요성을 연구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전달 및 수단이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크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통일교육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모색해본다. 여기서는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교육방송(EBS)와 같은 독립적인 통일교육방송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 등이 검토된다. 넷째, 통일교육원은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발전된 형태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역할변화를 예측하고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는 현재 통일교육원의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의 역할을 평가하고, 미래에 전개될 통일교육원의 사회통합 교육을 위한 방법과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상기분석을 토대로 통일교육원의 미래조직과 역할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중장기적 통일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보다는 통일교육원의 중장기 통일교육 발전시스템의 전개가능성을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용역보고서에서 진행된 것과 같은 개별적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해나간 것이라기 보다는 연구된 각 부분의 내용을 통일교육원 중장기적 통일교육 운용방안이라는 시각의 틀속에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남북관계 발전방향, 통일교육전달 매체의 변화, 남한사회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통일교육원의 중장기적인 역할 및 기능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2. 기존 연구 현황

그동안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은 통일 및 북한관련 통일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과제

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통일교육의 내용, 방법, 지침 등 통일교육 전반에 걸쳐 필요한 주제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국내 통일교육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많이 연구되었다. 또한 외국의 통일교육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내용과 관련되어 연구되거나 발간되어 온 주제들이다. 북한이해,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의 내용으로서 북한 이해 부분과 통일문제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지적되거나 국내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내놓은 자료집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통일부에서 많은 논문과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둘째, 통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가 통일교육원의 용역과제 혹은 자체연구과제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통일교육 발전워크숍자료집(1차-7차),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중점방향 모색(2002), 여성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방향 모색(2002),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2002),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2002), 통일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2002), 통일/북한 관련 사이트 현황(2001) 등은 통일교육의 방법을 발전시키고, 통일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들이다. 나아가 통일교육 대상별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이기도 하다. 사회통일교육, 여성통일교육,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등은 통일교육이 필요한 대상과 단체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들이다.

셋째, 통일교육원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진행된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원의 인터넷 통일교육의 발전방안 등을 수립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그것이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 활용핸드북(2002), 통일/북한관련 사이트 현황(2001), 사이버 통일교육 :분석과 전망(2002) 등의 연구와 자료집 발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2003), 탈북 학생 사회·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2002) 등은 북한사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일교육 대응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들이다.

다섯째, 통일교육의 방송과의 연계가능성, 남북한 방송프로그램의 통일교육 활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영상자료의 통일교육 활용을 위한 분석(2002), 방송을 통한 국민통일의식 제고방안 연구(2001)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외에도 통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분단국 통일교육에 대한 사례연구도 진행되었다. 특히 동서독의 분단상황과 통일이후에 진행된 서독에서의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연구하여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행된 과제는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분석(2003) 등이 있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객관적인 진행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북한 쌀제공 해설자료, 국민의 정부 5년-평화와 협력의 실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일교육원에서 발주하거나 자체연구한 과제는 통일교육을 발전보완시킨다는 관점에서 개별적인 분야에서 상당수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주제들은 대부분 현 시점에서 분야별로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통일교육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통일교육원의 분야별로 통일교육 내용과 시스템 개선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의 발전단계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통일교육 발전방향과 통일교육 시스템과 체계를 계획하는 연구이다. 즉,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획기적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화해협력 단계를 거친이후 전개될 통일진입단계 등을 전제로 하여 통일교육원의 중장기적인 통일교육 진행경로를 설정하고, 이러한 중장기적인 진행방향 위에서 통일교육 내용, 시스템, 조직과 기능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연구를 종합화하는 작업이다. 세부적인 과제의 연구는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왔는데, 이들을 일정한 관점과 시각, 즉, 통일교육의 중장기적 패러다임 안에서 종합화함으로써 통일교육원의 전체적인 발전틀을 제시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물론 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된 과제중에는 통일교육 발전방안연구(2002)이라는 연구결과물도 있으나 이는 통일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통일교육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통일교육 시스템, 통일교육 매체환경적 변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교육방향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표1. 기존 통일교육원의 연구과제 현황

연구주제	연구일정	연구발주기관
북한이해	2003-03-10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3-03-03	통일교육원
2003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2002-12-16	통일교육원
<u>북한이탈 주민 적응실태와 과제</u>	2003-06-25	통일교육원
<u>대북 쌀 제공 관련 해설자료</u>	2003-05-29	통일교육원
<u>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u>	2003-02-26	통일교육원
국민의 정부 5년-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3-02-11	통일교육원
<u>가상체험학습을 통한 남북한 이해 프로그램(2002년 교육부</u>	2003-02-03	교육부
<u>제7차 통일교육발전워크숍자료집</u>	2002-12-16	통일교육원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2002-12-23	통일교육원
<u>사이버통일교육센터 활용핸드북(통일교육원)</u>	2002-10-31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모색(제4차 통일교육발전워크숍자료)	2002-09-30	통일교육원
중고교생 통일교육 설문조사결과(민주평통사무처)	2002-09-09	민주평통
사이버 통일교육 -분석과 전망-	2002-07-22	통일교육원
<u>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 창출을 위한 분야별 실천과제</u>	2002-07-22	통일교육원
화해협력시대의 여성 통일교육	2002-06-28	통일교육원
<u>북한영상자료의 통일교육 활용을 위한 분석</u>	2002-01-29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중점방향 모색(2001년 6차워크숍)	2002-01-04	통일교육원
<u>여성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방향 모색(2001년</u>	2002-01-04	통일교육원
<u>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의 역할(2001년 1차 워크숍</u>	2002-01-04	통일교육원
<u>'남북화해협력시대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u>	2002-01-04	통일교육원
<u><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민간단체 통</u>	2002-01-04	통일교육원
바람직한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방송의 역할(2000년 4차 워크숍)	2002-01-03	통일교육원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2002-01-03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종합 발전방안 연구	2002-01-03	통일교육원
통일/북한 관련 사이트 현황	2001-10-01	통일교육원
방송을 통한 국민통일의식 제고방안 연구	2001-10-31	통일교육원

II. 통일교육의 위상과 통일교과 프로그램 분석

1. 통일교육의 현황과 미래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현행 통일교육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여기서는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부 「2003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는 통일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목적을 가진 통일교육은 국민들이 통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는 한편,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토록 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 함양과 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통일국가 형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통일교육은 바람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한 자질을 가진 통일 추구형 인간 양성에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1) 시민사회 발전과 통일교육 방향

서구의 시민사회의 성장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적 경험,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유산과 같은 정치문화의 폐습, 급속한 근대화로 인한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만연, 군부독재, 그리고 분단상황으로 인한 냉전의식과

이분법적 사고 등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어 왔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는 사회 내에 각종 자발적 시민단체를 양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를 보다 다원적으로 변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우리 사회도 이른바 시민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진행되어온 시민사회의 발전은 자연히 통일교육의 방향과 질을 크게 변화시키게 마련이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다원화되고 성숙화됨에 따라, 그리고 국내외의 통일환경이 많이 바뀌게 됨에 따라, 국가 주도형의 통일교육에서 점차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통일교육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1) 통일교육시기의 도래(1992 ~)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일 통일과 소련의 해체와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 그리고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비롯하여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등 통일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통일안보교육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실제로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에서는 통일안보교육 대신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통일안보교육이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과 태도를 기르는데 주력했다면,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처럼 통일교육의 실시와 함께 이제 안보는 통일의 하위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통일교육은 민족통합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국내외적으로 한국사회는 복합체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체도의 강화, 시민사회 형성 등 민주화과정을 겪는 가운데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통일정책이나 북한의실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시민교육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면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남북한간의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에도 별반 이바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김영삼 정

부는 흡수통일을 반대한다고 언명하기는 했지만, 이 기간의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흡수통일을 예상하는 통일 대비교육의 성격이 짙었다.¹⁾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 들어 김영삼 정부 시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공식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통일의 3대 원칙을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② 북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으며, ③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두겠다고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전향적 통일·대북 정책에 맞추어 기존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재정립을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김대중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1999. 2. 5. 법률 제5752호) 및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1호) 등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도 마련, 통일교육의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통일환경과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 정립, 평화와 화해·협력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 인식 및 실천 의지의 형성 등에 두었다. 물론 이러한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통일교육 노력은 이른바 ‘남남갈등’의 빈발로 인해 빛이 바래기도 했다.

통일교육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대결대상이나 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동포애적인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시각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동포애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통일은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민족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즉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 극복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함과 더불어 남북한간의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 형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단순히 남북한 통일정책이나 북한의 실상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병행하는 등 그 내용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 단계의 통일교육은 수세적 입장에서 실시된 반공교육과는 달리 통일 달성 및 통일 후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 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1) 전복희(2000. 9), p.12.

2) 시민사회의 발전과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반공교육은, 물론 냉전시기이기는 했지만, 정권 강화 및 유지에 주안점이 두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역대 권위주의 정권이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반공 및 안보를 신성시하고 정권보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민주화 이전의 역대 권위주의 정부는 정권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사회 내적인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운동을 통제, 억압하고 통일정책과 통일 관련 교육을 일방적으로 독점함으로써 통일논의 과정에 민간 부문이나 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정부의 관변적이고 유연성이 부족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국민들의 냉담과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 내에 각종 자발적 시민사회단체가 양산되면서 시민사회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남한 통일정책의 질적인 변화는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골자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연합을 구성,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통일 관련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소련을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와 민주화로 인한 냉전 구도의 종식,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은 우리의 분단상황과 통일 관련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의 등장과 함께 과감한 정치적 민주화의 진행은 더욱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통일·대북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통일·대북 문제를 정권안보를 위해서 활용해 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갔으며,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의 압력이 통일 및 대북정책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반공교육은 통일교육으로 발전했으며, 이후 이러한 변화에 걸맞은 통일교육의 방향성 정립과 교육내용 체계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성숙은 역시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독점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영역의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은 국가주도적 통일교육관을 바꾸는 데 기여하게 마련이다.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회의 다원주의적이고 자율적인 성향은 증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개방적인 논의는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 사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버마스가 제안하고 있는 ‘체계’와 ‘생활 세계’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는 현대 사회의 변동 과정과 문제점을 추적해 나가기 위한 개념적 장치로 사회를 생활 세계와 체계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떤 사회를 생활 세계로만 파악하면 관리와 조정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사회를 체계로만 이해할 때는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타당성의 모습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후기 자본주의 사회 또는 조직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제는 상호 의존하고 있어야 할 체계와 생활 세계가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국가 개입주의, 대중 민주주의, 복지국가 정책 등을 통해 국가 개입이 강화되면서 서로 분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계가 생활 세계를 침투하여 생활 세계가 식민화된다는 데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식민화된 생활 세계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운동들은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패러다임과는 구분되고 있는데²⁾, 시민 사회에서 주요 관심을 갖고 제기하는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 운동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태계를 포함하는 환경의 문제, 인권과 여성 문제, 전쟁의 위협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 생산과 분배를 둘러싸고 대안적인 생활 방식을 제시하는 것 등이 있다. 추구하는 가치 측면에서 위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영역들이 공통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은

2) 클라우스 오펜도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구분	이전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행위자	• 집단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분배 문제를 초점으로 행위하는 사회 경제적 집단	• 이전처럼 행위하지 않고 귀속적 집합성을 대신해서 행위하는 사회 경제적 집단
제기하는 문제	• 경제 성장, 분배: 군사와 사회 안보, 사회 통제	• 평화 보전, 환경, 인권, 소외된 노동
가치	• 사적 소비의 자유와 보장, 물질적 진보	• 집중화된 통제에 반대하는 개인의 자율성, 정체 의식
행위양식	• 내적: 형식 조직, 대규모의 대표단 • 외적: 다언적, 조합주의적 이해중재; 정당의 정치적 경쟁, 다수의 통치	• 내적: 비형식성, 자발성, 수평 수직 분화 정도가 낮음 • 외적: 주장하는 구호에 나타나는 부정적 용어로 표명된 요구에 근거한 지향적 정치 행동

‘자율성’ 과 ‘정체 의식’ 이며, 이것과 연관되는 ‘분권화’ , ‘자치’ , ‘자조’ 등이며, ‘조작’ , ‘통제’ , ‘중속’ , ‘관료제화’ , ‘규제’ 등을 반대하고 나선다.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최근 시민단체들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과거에는 일부 시민단체,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사회시민연대, 흥사단민족통일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자유총연맹 등에서 부분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들어 시민사회 내에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각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교육시에는 다양한 접근 방향과 실천 방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민단체들이 재정적·기술적 한계 때문에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통일교육은 정부주도형에서 점차 정부지원 및 민간주도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 사회화과정으로서 통일교육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통일의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시민단체들간 편차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은 점차 해소될 것이며, 이들 시민단체들에 의한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벽’ 을 허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통일교육은 자연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기초하여 통일문제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시민의 인식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게 마련이다. 이를 통해 시민 스스로 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논의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어,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구성원들의 민주시민적 자질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우리 사회가 통일문제에 있어 내부적 화합과 단결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자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삶을 준비하는 데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편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렴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을 바로 잡는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시

민사회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 내에 통일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남남갈등’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갈등 및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 해결에 필요한 민주시민적 자질,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사회참여 기능, 비판적 기능을 지닌 시민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때, 통일은 보다 순조롭게 달성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에 걸맞은 통일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교육은 시민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통일문제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평가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주력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때 시민사회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시민들의 통일 역량도 그만큼 강화될 것이다. 서독의 정치교육이 서독 시민사회의 발전을 촉진시켜 내적 통일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우리는 기존의 통일교육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보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존과 공영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의 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론을 모으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역량을 얼마나 잘 결집해나가느냐에 통일교육의 성과가 달려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정부 통일교육의 특성과 과제

1) 정부 통일교육의 특성

지금의 정부 통일교육의 특성은 「2003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지침서는 먼저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의 목표로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의 신장,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안보관 정립, 남북한간의 평화와 협력의 자세 및 통일 실현의지 함양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의

과제로는 통일 실현의지의 확립,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 인식, 객관적 북한관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이해,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인식 등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는 통일 대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통일이후에 대한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2003 통일교육기본지침서」의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보면 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의 변화 이해, 통일환경의 변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통일국가의 실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등으로 비교적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내용 체계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교육은 통일이 달성되는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내적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의 통일교육 내용체계도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통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심리적인 차원의 내적 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 주민의 상호 적응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이 남한사회 적응교육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체제 안정과 유지를 도모하는 보수적 기능을 수행해온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시민교육과의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은 기존의 이념과 체제를 홍보하고 전달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는 교육 내용을 갖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통일교육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성과 신축성을 겸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형성될 때 보다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시민사회 구조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내용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부가 통일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통일부장관이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마땅히 중시돼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과 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의 지침 개발, 공공 및 민간사회 통일

교육의 촉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연계체제 구축,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처의 협력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기획, 연구, 교육, 연수실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타기관과의 협력·지원·평가 등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통일부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부터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정부가 통일교육의 혼란을 막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 지침서를 발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흔들려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각 기관은 자신들의 교육방법과 내용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길잡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정부 통일교육의 과제

① 통일교육 내용의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정부는 점점 다원화돼 가고 있는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통일교육 지침을 연구하고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야겠지만, 통일교육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둔 기본 방향 내지 목표는 정부 주도하에 통일성을 기해야 마땅하다. 물론 통일교육 내용은 정부와 정규교육기관,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되고 조율된 가운데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하고 각급 교육기관마다 제각기 자기 시각으로 교육 내용을 전파할 경우 이는 시민의 통일관 및 북한관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보완

현재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사회 내의 여야간에, 그리고 시민사회

내의 보혁세력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소비적인 논쟁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야 정치인 및 시민단체 대표가 통일교육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통일교육기본지침서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통일교육정책에 대한 여야 정치인사이의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효율적인 통일교육지원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교육은 그 본질적 특징상 가치지향적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북관과 통일관 등 기본적 통일정책과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정책에 대한 여야 정당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념적·사상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통일교육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교육지원법에 규정돼 있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위원들 가운데 여야 정치인 및 시민단체의 대표를 일정비율에 따라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③ 통일교육원의 위상 재정립

통일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법적·제도적 보장하에,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지침 정립은 물론,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이 점에서 기존의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원은 현재의 통일교육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사이버통일교육센터, 통일방송국 등을 설립하여 그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④ 통일교육기관의 연계성 강화

통일교육은 통일이 한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기관이나 사회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통일교육들이 전체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원 외에도 각급 학교기관, 교원연수원,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교육과 같은 사회통일 교육기관과 산업교육 연수기관, 시민사회단체, 청소년 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과 같은 민간 사회교육기관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전국민적 차원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주체가 더욱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주체의 다양화는 통일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교육주체간에는, 즉 정부, 정규학교교육기관, 공공 및 시민단체의 교육기관 등 서로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때 보다 바람직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데, 이를 모델로 하여 현행 통일교육원을 통일교육 센터로 삼을 필요가 있다.

⑤ 민족공동체의식 고양 강조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그만큼 민족공동체를 중시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서로 반세기가 넘도록 다른 체제 속에 살아오는 동안 상이한 이념과 체제의 반목 속에서 이질화가 심화되어 오면서 민족의 동질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민족 이질화 경향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통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정서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부분 공감대를 가졌던 기성세대와 달리 청소년층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통일의지가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의 상호이해를 통해 동질적 요소를 기초로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시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의 바탕 위에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화합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문화 등 사회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요소들을 강조하여 민족자존과 민족적 동질성 및 정체성을 일깨우고, 북한주민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토록 하며,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여 세계 속의 한민족공동체를 이룩하겠다는 통일의지를 함양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사회문화적, 심리적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국민적 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⑥ 통일 이후 대비 통일교육 강화

정부는 통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의 공동체적 삶에 대비하는 내용에 커다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통일교육은 이질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평화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교육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우선적으로 북한이해교육에 있어서 남북한 사회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두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은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념과 체제를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생활세계에 초점을 맞춰,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북한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서독 통일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은 남북한 통일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즉 반세기가 넘게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간의 정신적·심리적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정치 및 경제 통합에 무게중심을 둔 결과,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심리적인 차원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통일 이후의 내적 통합을 대비한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교육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통일시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일교육 준비를 미리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북한의 교육대상자를 세대별, 직업별, 지위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내용을 개발, 재사회화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통일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일은 남북한의 내적 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교육은 남북한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통일교육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⑦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연계 강화

우리의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추

구한다는 점에서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진정한 남북통합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은 통일 전 남한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시민 개개인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떳떳이 행사하며,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정치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균형 있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민주시민교육이란 정치교육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사회교육, 윤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비단 기존 민주사회에 잘 적응하는 시민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이상적인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세계관과 그에 합당한 자질을 양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에 적합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인의식, 자율성, 비판정신, 타협정신, 공동체의식, 준법정신 등을 함양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룩된 시민사회의 성숙은 ‘내부의 적’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나 ‘남남갈등’ 부추기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만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 또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포용력도 향상시켜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국민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성숙한 민주적 민족공동체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을 특별히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⑧ 정부의 통일교육 지원 체계 확립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통일교육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이 결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통일교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 교육자료 제공 등에

3) 유석렬,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한국정치교육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2호(1986), pp.191-192.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통일교육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통일교육원의 기능 및 역할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의 종합 지원센터로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부와 각종 교육기관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가교 역할이 잘 수행될 때 통일교육은 보다 큰 효과를 수반할 것이다. 한편 통일교육원은 각급 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전문가 교육자료 지원을 위한 각종 통일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बैं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언제든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통일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원에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기능확대, 인터넷 통일교육방송 시스템 등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통일교육은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고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 점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업과, 세대를 고려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각급 교육기관에 적시에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⑨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체계 확립

정부는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체계 확립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교육 전문가들의 시각 차이는 수강자들의 통일관 및 북한관의 차이를 가져오는 등 통일교육의 혼선은 물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한 북한 지역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과정에 돌입하거나 통일이 될 경우 통일교육 전문가의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통일교육원은 명실상부한 통일전문가 배출기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⑩ 적실성 있는 통일교육 자료의 배포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각종 교육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 교재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이해』는 대학생 및 성인용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기초로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

학생용도 수준에 맞게끔 따로 개발,⁴⁾ 각급 학교 도서관에 보급 비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북한 및 통일 관련 시청각 자료를 개발, 교육용으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시사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통일교육은 남북한관계, 동북아정세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과 주변국들 상호간에 끊임없이 전개되는 대립과 협력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종합분석하여 통일교육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배포해야 한다. 자료는 통일환경의 변화와 주요 남북관계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⑪ 다양한 교육매체의 활용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매체로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최대한 동원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수업이나 사회교육의 강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및 영상매체,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한 모든 매체와 수단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매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확보 또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시스템의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원격통일교육센터, 인터넷 통일교육방송, 통일위성방송국, 케이블위성방송센터 등 종합적인 인터넷과 통신, 방송이 융합된 통일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분단국 통일교육의 경험과 한국 통일교육의 비교

1) 독일의 정치교육 경험과 교훈

통일 이전에 서독의 통일교육은 민주시민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교육이란 시민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정치참여 능력과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즉 서독의

4) 이우영,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사회통일교육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통일부, 제7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2002. 12. 13), p.28.

정치교육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정치문제에 대한 이해를 일깨워주고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고취하는 데 있었다. 또 서독의 정치교육은 나찌즘의 망령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의식의 강화보다는 민주주의의 함양에 주력하여 민주주의의 정착을 촉진하였으며, 나아가 통일 이후에는 ‘내적 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독일의 정치교육의 목표는 국민 각자가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사실에 입각한 다원주의적·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며, 진정한 통일을 위해 대내외적 갈등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내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할 것이다.

① 기능주의적 통합접근과 통일교육으로서의 정치교육의 변화

서독의 동독정책과 통일정책을 살펴볼 때, 1969년 서독 수상에 취임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동방정책은 동서독간의 단절과 대립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통일의 기초를 다진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브란트는 이 정책을 통해 꾸준히 대 동독 접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마침내 그 결실로서 1972년에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후 통일시까지 동서독간에는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기능주의적 통합접근법이 독일 통일의 근간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전 서독의 통일교육을 살펴보면, 역시 동방정책이 큰 분기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방정책 이전과 이후 서독의 통일교육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동방정책 이전 동안은 동서독이 단절과 대립의 시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서독은 통일교육에서 반공 이념을 내세우면서 서독 정부만이 독일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동독 정부는 소련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통일은 서독 주도로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입장은 교육과정에서 서독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반면, 동독체제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었다. 물론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전에도 서독의 정치교육은 분단의 역사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우는 데 주력했다.

서독의 통일교육은 동방정책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서독의 일반적인 정치교육은 동독으로부터의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보교육의 측면보다는, 서독 국민 사이에 내재하는 반민주적 유산을 청산하며,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⁵⁾ 보다 구체적인 정치교육의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발전의 이해, 역사상이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나치와 같은 극우파파나 공산주의와 같은 극좌파에 대한 경계, 독일연방국의 합법성과 현실인식, 서독과 관계 있는 주변 및 세계 주요국가들에 대한 이해, 유럽공동체 및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실과 문제의 이해, 현재와 미래에 관한 비판적 의식의 고양과 설계 등을 포괄하고 있었지만,⁶⁾ 동서독 정상회담과 기본조약 체결은 동서독 국민들로 하여금 독일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달라진 통일환경은 통일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즉 통일교육은 냉전적 구도를 탈피하여 평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동독에 대한 비난보다는 동독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동독의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학교통일교육의 경우,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고, 동독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준 것은 물론 동독 및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⁷⁾ 서독 통일교육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특징, 동독의 경제현황, 생활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서독의 체제, 생활수준, 경제역량을 동독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물론 동독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도 객관적으로 교육시켰다. 서독은 상호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전달을 통해서 어느 체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사회적으로 더 우월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했다.

통일 이후에는 정치교육이 구 동독지역의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서독의 가치관을 이들에게 이식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주된 과업이다. 즉 과거의 전체주의적 의식구조로부터 민주시민 의식구조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다원주의적 가치관, 시장경제체제의 원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서독의 동독에 대한 흡수통일은 필연적으로 구 동독주민들을 하루빨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자본주의체제에 동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통일 이후 정치교

5)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1997. 11. 30), p.60.

6) 권오정, 『민주시민교육론』(서울: 탐구당, 1987), p.219-222.

7) 김창환, “통일 전 독일의 통일교육”, 『통일 그리고 북한과 독일의 교육현실』(한국교육개발원세미나 발표논문집, 2002. 11. 28), p.15.

육이 특별히 강조해온 내용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정치교육 외에도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을 인식시키기 위한 자본주의 교육이다. 이와 병행하여 구 동독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해 기술교육을 확대해 왔다.⁸⁾

② 정치교육에서의 정치교육센터의 역할

분단 직후 서독 정부는 국가의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중앙 단위의 연방정치교육센터 및 지방 단위의 주정치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정치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내독성의 사업부에 속하며 업무는 감시국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감시국은 이 센터의 업무가 독립되고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감시한다.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재정은 국가예산으로 충당되지만, 정부의 중립정책에 따라 업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보다 효과적인 정치교육 수행을 위하여 교수법과 방법론의 계속적인 발전의 도모는 물론, 정치교육 종사자들의 양성 및 재교육, 정치교육업무에 적절한 출판물의 장려 및 보급, 정치교육과 관련한 세미나와 회의의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에는 주정치교육센터가 존재한다. 이들 지방정치교육센터는 연방정치교육센터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각 센터간에는 자발적인 원칙에 의해 협력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정치교육센터는 기본 사업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이념의 홍보, 시민의 정치참여 촉진, 정치교육을 위한 물적 지원, 정치교육 담당기관간의 협조체제 형성, 다양한 정치교육자료 발간, 정치교육 담당자의 연수 등을 수행한다.

연방정치교육센터와 주정치교육센터의 지원에 따라 각 정당, 각급 학교, 그리고 교회,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 의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정부는 정치교육의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할 뿐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사회단체들이 주관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했다. 바로 이 점에서 서독의 정치교육체계는 다원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정치교육에서의 정당의 역할

8) 오일환,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2호(1995), p.532.

독일의 정치교육은 각 정당의 재단—사회민주당(SPD)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기독교민주당(CDU)의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자유민주당(FDP)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기독교사회당(CSU)의 한스 자이텔 재단, 녹색당의 하인리히 뵐재단 등—을 통한 정치교육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통일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양상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다. 각 정당 재단들은 기본적으로 소속 정당의 이념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으나, 공공성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다. 정치교육과 관련하여 각 재단은 소속 정당의 이념적 색채를 완전히 탈색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정치교육의 기본체계나 개념, 방향, 내용구성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모든 재단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민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민주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며,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민주적 정치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정치교육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서독 내 정당은 좌우 정책정당의 스펙트럼을 유지했지만, 거의 전시기에 걸쳐서 중요한 국내 정치문제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분단·통일문제를 비롯하여 국내 정치적 의사형성에서의 정당들의 통합력 발휘는 사회 내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의 분단·통일문제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선택, 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비교적 뚜렷하게 상이한 정책강령을 대변했던 정당간의 선택에 의해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홍보하고 설득하는 데 필요한 광범한 기구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적었다.

④ ‘동독 실태 교육’ 중심의 정치교육

특히 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양독의 통일을 사실상 포기하고, 양측의 평화적 병존을 제도화하는 대신, 민족적 소속감을 보존하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정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문제와 관련한 서독의 정치교육은 이러한 정책 정향을 반영하여 통일 지상주의적 교육을 포기하는 대신, ‘동독 실태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독일인의 자유와 자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규범적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미 서독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동독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간주되었던 자유로운 결정하에서 독일인의 자유와 인권의 실현이 된다면 비록 별개 국가로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독일통일의 완수라

간주했으며, 이러한 인식에서 동독 주민에 대한 민족적 연대와 보호의무,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지향했다. 한마디로 통일 이전 동독과 관련한 서독의 정치교육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동독주민의 인권 유린과 자결권 침해를 상기시키면서 동독주민의 실태를 인지시키고 연대감 고취에 목적을 둔 ‘동독 실태 교육’이 중심이었다.

⑤ 내적 통일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에 입각한 정치교육

서독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 중점을 둔 결과 통일 이후 내적 통일의 기반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상대방의 다른 사고를 존중해주고,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은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주적인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 주민들간 정신적·문화적 이질성 극복하고 심리적 일체감을 실현하기 위해 서독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통일이 되어야 했던 당위적 배경과 함께 동·서독의 통합 이해, 통합의 역사적 의의, 서독지역 주민의 물질적 희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독일의 정치·경제체제를 이해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잔재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⁹⁾ 무엇보다도 독일 통일 이후 분단 시기 동안 서독에서 정착된 정치교육의 틀이 동독에 이전됨으로써 동독의 민주화는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치적·제도적 통일은 완료된 지 10여 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동서독지역 주민간의 ‘마음의 벽(Mauer im Kopf)’, 즉 심리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서독지역 주민들간에는 정신적·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마음의 벽’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지역 주민의 국가관, 생활방식, 가치·경험체계 등이 상이하어 동독지역 주민들이 아직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치·경제·문화제도 및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독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적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 독일의 정치교육이 한국의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9)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31.

① 기능주의적 통합접근과 통일교육의 강화

독일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볼 때,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입각한 점진적 방식의 접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의 첩경은 무엇보다도 양 체제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 과정에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며 점차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햇볕정책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도, 서독이 동방정책 이후 그랬던 것처럼, 폭넓은 시민정치교육 차원의 통일교육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통일교육에서의 통일교육원의 위상 변화 모색

한국의 경우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와 주정치교육센터와 같은 수준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일교육원의 비공식 지방조직의 하나인 통일교육협의회 등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각 지방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조직, 기관과의 연계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통일교육에서의 정당의 역할 강화

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정당들의 정치적 의사형성 능력과 통합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대중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통일교육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 때문에 종종 정치권이 ‘남남갈등’의 발원지가 되기 일쑤이다. 각 정당이 진정한 의사형성 및 통합 능력을 가지고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그 만큼 통일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남남갈등’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완전히 해체되거나 명목상의 소수정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대신 남한에 연고를 둔 정당들이 북한지역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중도좌파 성향의 새로운 정당들이 결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북한지역도

유일당지배체제가 아니라, 경쟁적 정당체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에서의 정당은 남북한에 존재하는 정치세력들간의 서로 다른 견해와 갈등요소를 물리적인 투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정치세력들을 새로운 통일한국체제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통일 이후 정당은 이러한 정치세력들에 대한 통합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내적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해야만 한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은 시민정치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는 각 정당들이 자체 내에 설립되어 있는 재단을 통해 통일 이후에 동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 기능을 수행, 양독주민의 내적 통합을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의 정당들도 독일 정당들의 이와 같은 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④ ‘북한 실태 교육’ 차원의 통일교육 강화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독과 관련한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독일문제 교육은 동서독간의 상호 이념과 체제의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통일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동독주민의 부자유와 인권문제를 상기시키면서 동독주민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인지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서독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체제와 경제발전의 우월성을 확신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적용했던 것이다. 우리 역시 북한과 관련한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체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남북간의 비교우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남한이 우월한 체제라는 사실을 인지토록 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북한의 자유 및 인권 침해를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통일교육도 북한의 이념 및 체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북한의 실태를 바로 알리고, 우리 국민이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된다면, 이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 (de facto unification)을 실현하는 것이다.

⑤ 민주시민교육에 입각한 통일교육의 강화

우리의 통일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독일의 정치교육이 예증하고 있듯이, 통일문제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폭넓게 수용할 때 가능한 일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르쳐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도모하는 토대가 될뿐더러 통일 이후 북한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에 의한 민주시민의 육성은 우리 국민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독일통일은 이미 완료된지 오래되었으나, 동서독 주민간의 ‘마음의 벽’은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다. 우리보다 양체제간에 교류협력이 훨씬 활발했던 통일독일의 경우가 이러할진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할 경우 그 후유증은 실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있어 통일교육을 통한 이질성의 극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

(4) 대북정책의 주요쟁점과 통일교육의 과제

1) 대북정책의 주요 쟁점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결과 이루어진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기존의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당국자간 대화는 물론 경제·문화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찾기 등 다방면에 걸친 인적·물적 차원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기존 대북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의 평화번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 이후 우리 사회 내에는 다양한 통일논의와 함께 일부 대북정책은 ‘남남갈등’ 양상까지 빚고 있는 실정이다.

① 대북 지원 문제

끓주리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퍼주기’ 논란이 발생해왔다. 남한의 보수정당과 여론은 남한정부와 기업의 대북 지원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정권 유지 비용으로, 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한사회 내에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향후에도 그러나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의 현물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② 남북 경제 교류협력 강화 문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는 체제생존에 연연하고 있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인, 결국 체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이는 타 영역의 교류협력도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남북간에 정치·군사적 관계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욱이 북한 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¹⁰⁾는 점에서 가능한 한 폭넓게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2000년 11월 11일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에서 채택되고, 2003년 8월 20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4개 경제협력합의서의 실질적인 발효가 급선무이다. 이 경우 상호 호혜적인 경제 이익 창출과 함께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가 보다 심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다.

한편 남북경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난을 극복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협의 실질적 주체인 남한기업에도 경제적인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때 확대·발전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남북한 모두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북한에만 이익이 되고 남한에는 손해를 끼치는 경제협력이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경협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가져오게 돼 그만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남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환경이

10) 김학성,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102.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체제수렴을 통한 통일의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③ 안보 문제

북한이 분명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은 필수적이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가 튼튼할 때 대북 협상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중시의 ‘선군정치’ 기치하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증거는 2002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부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북시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주목적은 북한체제의 안보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아직은 북한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전 및 비정규전 형태의 모든 전쟁 양상에서 독자적으로도 능히 북한의 군사력을 제압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할 때라야 북한의 각종 도발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역시 도발의 무모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일 때 국민의 안보불안은 크게 해소될 것이며, 그만큼 대북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다.

④ 국제 공조체제 문제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서독 통일과정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냉혹한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공고한 한미 공조체제 확립을 비롯,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한은 2002년 10월 이후 북핵 사태가 재연되자, ‘조선민족 대 미제국주의’ 대결구도로 설정하고 ‘민족공조’ 구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남한에서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

미군의 철수를 겨냥, 반미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대남 선전·선동의 일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북한의 ‘민족공조’ 구호를 통한 반미 선전·선동은 한·미 관계의 ‘수평적이고 균형적인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 등장 이후 한·미간 갈등을 조장할 목적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북한은 ‘민족공조’론을 통해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에 혼선과 마찰을 유발시키고, 한미 공조체제의 균열을 도모하며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분단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제공조를 대북 정책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시각차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미국을 설득하기보다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역할 보완을 통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¹⁾ 북한의 대남 정책이 뚜렷하게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 동맹관계가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공조의 수준을 둘러싸고 국내여론과 한미정부간의 긴장과 협력관계가 상황에 따라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 통일교육에 중요현안 주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⑤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이다. 장차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기반이 되는 통일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도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북한당국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내정간섭 혹은 주권침해라며 반박하고 있다. 북한헌법 역시 마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기본권 보장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유일체제를 보위하는 한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결국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은 장식적·선전적 규정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억압적인 정치적·사회적 통제 장치, 그리고 상호감시망과 밀고체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철저히 억압받

11) 홍용표, “한국과 미국의 포괄적 접근과 북한의 대응”, 『중소연구』 제26권 4호(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p.166.

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인권의 불모지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이 문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북한탈북자 문제 등을 포함하여 국제사회나 인권단체들을 문제제기가 계속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북한과 협력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대한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2) 대북정책의 주요쟁점에 대한 통일교육의 과제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에 걸맞은 통일교육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북 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한 통일교육에 있어서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 강조

북한주민들은 지금 극심한 식량난 등 총체적 경제난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같은 동족인 이들에 대해 구호의 손길을 뻗치는 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북한주민들이 대북 지원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될 때, 이들의 대남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며, 이는 북한체제의 변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북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강조하는 통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막대하게 소요될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통일 기피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결코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통일비용을 소모적 비용이 아닌, 투자비용으로 설명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일비용이 막대한 국방비 소요 등 분단비용보다 적게 든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통일과정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희생과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이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일도 당연히 중시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대북지원이 그 동안 쌓여온 남북한간의 불신을 완화하여 남북경협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는 나아가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통일 투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② 남북 경제 교류협력 활성화 강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서게 하고,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점진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남북 경협 강화는 자연히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져와 점진적으로 정치·군사 등 타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파급효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체제의 변화를 보다 용이하게 유도하게 되고, 이는 남북간의 체제상의 동질화를 가져오게 돼 그만큼 통일과정에서 혼란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통일교육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 활성화의 당위성을 꾸준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

③ 안보의 중요성 강조

북한은 냉전 종식 이후 사회주의 시장의 해체와 체제적 한계로 말미암아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내세우며, 핵무기 및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물론 체제생존 차원의 벼랑끝 외교전술의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서는 현실적인 안보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서해도발 등 현실적 군사적 위협은 결코 안보교육을 등한시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래 통일문제와 안보문제는 그 성격상 엄연히 구분되는 문제이면서도 불가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통일문제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는 문제라면, 안보문제는 현실로 당면해 있는 우리의 가치체계와 삶의 여건을 지키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통일교육은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전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안보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될 때라야 보다 자신감에 넘치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그만큼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처한 현재 상황 속에서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 통일교육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체제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남북 교류협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통일교육이 통일과 안보문제에 대하여 균형 잡힌 감각을 지닌 시민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

물론 안보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통일교육은 평화이념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한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 부재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적극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남북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공존 공영 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건으로서 평화이념의 추구는 큰 의미를 가진다.

④ 국제공조체제 강화 강조

통일교육은 분단구조가 민족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하다는 점에서 마땅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이 둘러싸고 있는 역내환경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구조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역내 국가들간의 관계는 현상변화보다는 상호경쟁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며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고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주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특히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독일통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임을 강조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가 주변 국제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⑤ 북한 인권문제의 강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수적인 자유와 인권의 존중은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북한주민에게도 자유와 인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촉구하는 것은 민족 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개선하는 일은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접근 방법보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NGO를 적극 활용하는 우회적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활발한 인권외교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북한의 인권 유린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5) 대북정책이 한국사회 내부갈등에 미친 영향

1) ‘남남갈등’ 유발

대북정책에 있어 남남갈등의 구조적인 배경은 탈이데올로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구조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내에 보혁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잔존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즉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을 반민족세력, 반통일세력, 수구냉전세력으로 간주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을 친북세력, 좌익세력, 용공세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 내의 이분법적 보혁세력구도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한국사회의 내부갈등, 즉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는 번번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사회 내부에 잠복해 있던 보혁세력간의 이념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국론분열이 쉽게 조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남남갈등 상황을 북한당국이 역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시장이 해체된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당면한 최고 목표는 체제 생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역시 가능한 한 이러한 목표 달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대북 포용정책에 의한 남북관

계의 진전과 함께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남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은 물론,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변화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 그들의 상투적인 대남 선전·선동과는 달리 기존의 대남 전술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북한의 대남 전술은 ‘공격적 성향’ 으로부터 점차 ‘방어적 성향’ 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¹²⁾ 더군다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경제회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미 및 대일 관계 진전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상당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불어닥칠 ‘자유화바람’ 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장’ 론을 내세우는 한편, 대남 차원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남남갈등’ 을 부추기는 일종의 이이제이 전술을 주도면밀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체제 생존의 논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한사회 내에서 야기되고 있는 보혁간의 갈등 양상을 이용, 사회적 반목을 조장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남남갈등’ 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혼란을 부추기며 국민통합을 해치고, 이를 교묘하게 북한체제 유지에 역이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호 관계를 진전시켜 왔지만,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이 심화될수록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체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때때로 남남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남한사회에서 북한의 행태에 따라 ‘남남갈등’ 이 쉽게 유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관계가 아직 적대관계와 화해협력관계가 병존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데다 국민들의 뇌리에 냉전의식과 탈냉전의식이 혼재하고 있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는 전례없이 호전되기 시작한 반면, 남한사회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 내부에 잠복해 있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간의 이념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여야 정치세력간에서 뿐만 아니라, 지식인사회 내, 그리고 사회 체세력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세력간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은 대북 정책에 대한 업적 부각에 치중한 나머지 야당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야당은

12) 허문영, “대남관”, 『김정일 연구: 리더쉽과 사상(1)』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214.

대북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지식사회에서나, 국민여론에 있어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이 체제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도적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통일전선 차원의 대남 선전·선동이나 각종 도발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2001년 ‘6·15 금강산 대토론회’ 나 ‘8·15 평양 축전행사’ 에 참여한 일부 남측 인사들이 정부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드는 돌출행위를 일으켜 북한에게 선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남남갈등이 유발된 것은 그 좋은 예에 속한다. 각종 대남 군사적 도발행위 역시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동원에 의한 체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은 잠수정 침투, 연평해전과 서해교전, 빈번한 북방한계선(NLL) 고의 침범 등 각종 도발을 일삼았으며, 그 때마다 어김없이 남남갈등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도발을 통한 북한의 긴장 고조책은 ‘남남갈등’ 유발 효과 외에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체제 내적 동요를 우려하여,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군부 단결은 물론 주민 동원기재로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남남갈등 유발을 통해 남한사회를 진보와 보수 세력의 대립으로 유도함으로써 통일전선전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그에 따른 반사회효과로서 내부 동요를 차단시키는 방향으로 체제 생존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통일교육에는 남남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통일교육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 강화

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통일교육 강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와 혁신의 대립 구도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남남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당한 절차와 투명성으로 접근하면서, 이를 근거로 초당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이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대북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정치적으로도 여야간에 사전조율을 도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같은 합의과정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루어짐으로써 총론적 수준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와 수행 방식 등 각론적 수준에서는 많은 갈등적 요소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³⁾ 앞으로 통일교육은 대북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공할 때 정부의 대북 협상력 제고는 물론, 북한 정권에 의한 남남갈등 조장책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대북 정책 수립과 수행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② 보혁세력간의 상호 이해력 증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요소 강화

먼저 우리의 국민통합을 달성할 수 있어야 우리가 남북통합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역량의 향상은 서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시민교육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개방적인 토론과 논쟁에 의해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렇게 도출된 합의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는 시민을 육성할 수만 있다면 ‘남남갈등’ 과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에 입각한 통일교육이 우리 사회 내의 냉전적 사고와 문화를 극복하고 남북한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때 남남갈등 현상은 현저히 완화될 것이다.

③ 현실주의적 통일관 유도

13) 손호철, “대북포용정책과 남남갈등”, 『남북한관계오기 회고와 전망』 (200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02. 7. 25~27), p.179.

감상주의적·통일지상주의적 통일관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쉽게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통일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통일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북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6)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단계별 통일교육 발전 방안

1) 통일 대비 통일교육

통일 대비 시기라함은 우리의 통일방안 과정인 화해협력(평화공존) → 남북연합(사실상의 통일) → 완전통일국가(법적 통일) 단계 중 1단계인 화해협력(평화공존) 단계에 속한다.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은 남북한 구성원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부딪힐 문제, 예컨대 남북한 사회구성원들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할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갈등 또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치관과 행동양식에서의 혼란 등을 예상하여, 그러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상태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통일 대비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분단 상황의 남북한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도록 하는 사회심리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 대비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함께 통일 후의 일상생활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제반상황과 통일 이후의 갈등과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 인식과 대응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통일 대비 단계에서의 통일교육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① 남북한 동질성 강조

통일 대비 통일교육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족동질성이야말로 민족공동체적 삶의 기본조건이며, 통일 이후 남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통합원리로서 역할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민은 오랜 기간 분단된 상태에서 살아오는 동안 상이한 이념과 사회체

제 내에서 가치관, 의식구조, 행동방식 등 기본적인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상호 편견과 불신 등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질화되었다. 이러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은 부정적인 통일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질화는 남북한을 객관적으로 상호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민주화의 성공으로 인해 더욱 다원화된 시민사회로 성숙해 가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적 유일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질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남북통합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남북한은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동질성을 발견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야 하고 이질화도 다양화 측면에서 인정하고 공존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과 특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이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북 동질성 확보와 관련한 통일교육에서는 남북한 이질화의 정도가 재결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며, 더 큰 뿌리는 여전히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상 및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비교를 통해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하기보다는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시키도록 하며, 우리와 다른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동질화시켜 나갈 것인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민주시민교육의 시행

통일 이후 온전한 내적 통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에 커다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통일을 성취하고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실현하려면 사전에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불신과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존속한다면, 통일의 길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설사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통일한국 사회는 갈등과 혼란에 휩싸이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속한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를 통해 화해의식과 포용력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우호적으

로 포용하는 가운데 내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③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 도모

무엇보다도 통일 대비 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대내외환경의 실상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통해 학습자가 남북한 체제의 차이를 스스로 발견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북한 주민에 대한 우월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내적 통합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통일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이념적 색채에서 벗어나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시각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④ 통일 의지의 함양

통일 대비 통일교육은 국민들이 민족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면화하고 가치화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 의지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라야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르는 희생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통일교육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라 함은 우리의 통일방안 과정에 있어서 남북연합(사실상의 통일) → 완전통일국가(법적 통일) 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통일교육은 주로 통일 대비 교육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사실상의 통일에 해당하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간 통합과정에도 커다란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우선 남한지역 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통합 이해, 통합의 역사적 의미, 북한지역 회생을 위한 물질적 희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체 가치를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지역의 통합과 관련한 통일교육으로 한정한다.

통일 이후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형성되어온 북한주민의 의식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남한주민들과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또 남북한 주민간의 현격한 소득격차가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열등감을 자아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북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할 것이다.¹⁴⁾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는 북한지역 주민들을 새로운 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해 민주 시민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살아온 가치관을 달리하는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설득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행동을 터득한 사람만이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우선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들이 통일이 되어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생활규범이 체질화되어야만 한다.¹⁵⁾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공통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통일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 미래의 남북한 통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 적응교육과 시민사회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자유민주주의의 제 가치 내면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가 붕괴하게 되면 심리적인 정체감을 상실하고 좌절감과 당혹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한간의 내적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가지는 제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통일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때 남북한 내적 통합의 과제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이해 시키면서 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할 것이

14) 황병덕(1997), p.2.

15) 황두환, “통일교육의 방향”, 이병희 외, 『민족의 분단과 통일: 한반도 통일과 통일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p.281-282.

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 내용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강조돼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조돼야 한다. 맹목적 집단주의를 강요하는 전체주의 체제주의적 생활에 익숙해져 수동적이고 형식주의적으로 행동해온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은 유일사상체제하에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원칙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면서 폐쇄적인 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성은 당과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집단적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대신, 자연히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성과 창의성을 상실케 하는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재정치사회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북한지역도 전체주의체제의 유산을 극복하고 시민사회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 평등, 복지 이념이 강조돼야 한다.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체제이념적 성격은 민족성원의 자유, 평등, 복지가 결합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어야 마땅하다. 자유, 평등, 복지라는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크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적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파악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자유가 규제 받지 않는 무제한적 의미의 개인적 자유를 뜻한다면, 이 자유로 인한 불평등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기 때문에 자유는 마땅히 어느 정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평등은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 즉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평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⁶⁾ 한편 통일국가의 복지는 ‘시민적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개념이어야 한다. 이 개념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제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통일국가의 사회복지 발달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판정신과 다원주의정신이 강조돼야 한다. 북한지역이 전체주의체제적 속성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확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이 무

16) 황병덕(1997), p.3.

엇보다도 비판정신과 다원주의적 가치를 함양해야만 한다. 북한주민들은 조선왕조 체제, 일제식민통치체제,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로 이어진 역사적 경험 때문에 시민사회적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들은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전혀 표출할 수 없는 정치문화 속에서 살아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긴 전체주의적 삶 속에서 굳어져버린 극도의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체제에 의한 엄격한 감시·통제는 비판적 사고를 아예 불식케 했다. 통일사회는 이러한 북한체제의 근본적 속성을 잘 이해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신민의식(臣民意識)을 깨뜨리기 위한 비판정신 함양과 다원주의적 가치관 형성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북한주민들은 비로소 ‘역사적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넷째, 법치주의정신이 강조돼야 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절대적인 존재로 설정되며, 그의 교시와 지도는 ‘무오류성’을 갖는다고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통치구조 속에서는 수령의 의지가 곧 법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수립은 애당초 불가능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의 강조와 국가권력의 의인화 등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및 온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법치주의를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통일사회는 법치주의가 자유, 평등 및 복지 등의 이념을 국가의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구현시키는 구조적 원리라는 점에서, 그리고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항상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법치주의의 확립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사회는 북한주민들이 법치주의를 잘 이해하고 준법정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주정치과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형성을 위한 내용이 강조돼야 한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명목상의 ‘최고 주권기관’ 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거경쟁이라는 도전이 용납되지 않는 조선로동당이 지배하는 당-국가체제이다. 더욱이 당-국가 운영에 있어서 수령의 교시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여론정치가 무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애당초 민주주의 방식의 정치과정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여론형성 과정, 정당 및 선거과정의 기능과 역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삼권분립의 의미, 지방정치의 기능 및 운영원리 등 민주정치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폐쇄적 민족주의의 극복이 강조돼야 한다. 남북한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 중의 하나가 민족주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민족통합의 가치체계로서 민족공동체의식은 강조돼야 마땅하지만, 폐쇄적 민족주의는 극복돼야 한다. 민족주의는 원래 국민통합을 위한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일한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기능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해서 탈냉전 이후 세계화 시대를 염두에 두고 세계 평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만약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의 청년들 일부 세력도 통일 초기에 동독지역에서 유행한 사회현상처럼 극우민족주의 이념에 공감하며 각종 사회일탈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린 민족주의’가 크게 강조돼야 할 것이다.

②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형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통일사회의 경제체제는 세계화시대의 보편적 경제체제인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북한지역에 실업자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북한당국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사회주의는 분배정의와 사회적 혜택 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주민들을 세뇌시켜 왔다. 게다가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의 착취사회라는 반자본주의적 교육을 받아온 결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탈북 귀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 이후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비경쟁적으로 살아온 북한주민들에게는 자본주의 생활방식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 후 북한주민들은 사회계층서열에 있어서 분명히 급격한 하향 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체제 속에 살았던 북한주민들이 느끼게 될 상대적 박탈감은 그들로 하여금 집단적인 반발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우월감을 은연중에 드러낼 때 북한주민들은 심한 열등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비경쟁적 사회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시장경제제도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더욱이 실업이란 개념조차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던 북한사람들이 체제변환에 따라 장기실업에 직면하게 된다면 체제 귀속감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체제 반항세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통독 이후 동독인들은 이전 체제에 비해 물질생활의 평균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서독인들과의 격차 해소 가능성에 회의감을 비치며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통일을 달성했던 집권 기독교민주당의 각종 선거에서의 패배, 동독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 등으로 표출되기도 했다.¹⁷⁾ 통일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켜줄 것이라는 기대상승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새로운 체제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한다면, 북한주민들이 통일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은 곧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의 운영원리와 자본주의사회의 윤리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특히 그들은 체제적 한계로 인한 형식주의 타성 때문에 자발적 경쟁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경쟁에 낙오되어 사회적 하위계층을 면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므로 그들의 경쟁의식 고취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치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지역의 자본주의체제에로의 편입을 돕고, 대량실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산업시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할 직업훈련소와 같은 사회교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통일 이후 유일사상체제하에서 살아온 북한주민의 의식과 행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남한주민과는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 뻔하다. 이러한 현격한 격차는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열등감을 크게

17) 장경섭, “통일 한민족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합”, 박기탁·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서울: 세종연구소, 1995), p.45.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통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통합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량을 배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물론, 북한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그들을 민주시민으로 전환시킬 재사회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것은 곧 온전한 통일을 이룰 내적 통합을 대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2. 중장기 통일교육원 교과목 편성 방안

(1) 통일교육원 교과목 구성의 변화와 특징

1) 통일교육원 교과목 변화(1972-1998년)

통일교육원 개원 초기부터 1998년까지 통일교육과정은 크게 전문교육과정과 일반교육과정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과정별 교과목 구성도 전문교육과정과 일반교육과정으로 분리 편성되었다. 일반 과정의 교육방침은 사회 각계 지도층에 대한 통일교육의 강화 및 대학생 등 젊은 세대에 대한 건전한 통일의식 함양 제고에 두어졌다. 따라서 일반과정교육은 첫째,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환경, 북한이해를 기본 과목으로 하고, 둘째, 패럴토의, 대담토론, 북한이탈주민 및 방북경험자와의 대화, 분단현장견학 등과 같은 참여식 교육확대, 셋째, 당시의 북한자료를 토대로 북한을 이해하는 실증적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단지 일반교육과정 교과목에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1981년 당시에는 없었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대화와 교과목이 1998년 교과목에서 등장하는 것 등이 차이점이다. 또한 1998년으로 오면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발전, 사회문화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통일교육방법과 내용도 일방적인 지식이나 정보전달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토론식, 종합토의 등의 교육이 강화된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이해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홍보하며, 남북문제 현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있다.

표2. 통일교육 교과목 비교

구분	1981년	1998년
기본과목	우리의 현실과 이상, 우리의 통일정책 북한 공산체제의 실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북한의 대남전략, 공산주의 비판 한반도 주변정세 국정지료와 기본시책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환경 최근의 북한동향 및 정세 북한이탈주민 또는 방북경험자와의 대담
교양과목	시사성이 있는 문제 및 시청자토론 현장견학 등	특강(분야별 저명인사 및 관계실무자) 종합토의(북한실태, 통일환경, 남북현안문제 등) 시청각 / 현장견학(판문점 또는 땅굴)

전문화 과정의 교육방침은 국민정신 계도를 담당할 사회교육요원으로서의 자질함양과 국민의 통일인지를 확산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통합업무 및 체제전환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요원으로서의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었다.

따라서 전문과정의 사회교육요원에게는 국민계도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강의기법을 보완하여 통일기반 조성의 중추적 요원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과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요원에게는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정보와 활동지침을 제공하고, 체제전환 교육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전문화과정 통일교육 교과목을 1970년대와 1990년대를 비교해보면 북한의 실태이해 영역은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며, 통일문제는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등 1970년대보다 세분화되었다. 특히 두기간별 통일교과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동서독 통일이후 현상을 반영하여 북한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통일대비 교육 프로그램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붕괴시에 대비한 통일교과목으로 남북한 행정통합, 남북한 법제통합, 남북한 경제통합, 남북한 화폐통합, 북한의 토지소유권과 같은 다양한 남북통일과 관련된 교과목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의 문제, 남북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이 많이 배치되었으며, 나아가 독일통일의 교훈사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교과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독일통일과 관련된 대부분 교과목도 독일통일이후의 현상, 즉 독일사회통합, 화폐통합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체제통합 이후의 과정을 파악하는 내용들이다. 이것은 모두 남북한 통합을 염두에 둔 교과목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일교육원 교과목 구성과 특징(1999년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통일교육지원법이 마련되면서 이에 의거 매년 수립되는 통일교육기본계획에 따라서 과정별로 교과목을 마련하고 있다. 공통과목으로는 정부의 대북정책,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정세, 북한의 동향과 변화전망 등이 기본과목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과정별 교육대상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 차별화되고 각론화된 심도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표3. 통일교육원 교과목 기본구성 내용

구분	주요 과목
기본과목	통일환경 남북관계 북한이해
전문과목	남북긴장완화와 평화공존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추진방향 남북경제공동체 구축방안 한반도 군사문제와 평화정착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가안보 북한의 교육제도와 실태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북한주민의 생활과 가치관 최근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영상매체를 통해 본 북한이해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교육 교수기법과 그 실제 학교통일교육 사례탐구 남북한 초중등 교육과정 비교 민족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 과제 분단국 통일교육 사례와 시사점 분단국 교류협력 사례와 시사점 탈북학생들의 의식구조와 남북더불어 살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실태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체험 및 참여교육	세미나, 토론, 분임토의, 사례발표 현장견학(판문점, 하나원 등)

1999년 이후의 통일교육 교과목을 분석해보면 과거 교과목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즉 과거 통일교과목과의 공통점은 북한이해와 통일정책, 주변정세 등이 공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점은 북한이해 부분

에서 정치, 이념, 체제적인 측면으로부터 사회, 주민생활, 의식구조 등 구체적인 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남북한 통합을 염두에 둔 통일교육 보다는 통일과정,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집중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북한체제 붕괴에 염두를 둔 통일교육과 방침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김대중 정권하에서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 크게 기인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의 교육교과목은 시대별로 남북관계의 변화나 정부의 통일정책의 차이에 의하여 적지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북한체제의 이해 부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교류협력이 지금 수준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거나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통일교육원의 교과목은 다시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2) 통일교육원 교육대상자 변화 추이

통일교육원의 교육대상자도 남북관계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 통일교육원이 설립된 초기에는 단순한 형태의 통일교육이 진행되었다. 통일교육 대상자는 대학교수, 중등교장, 초등학교 교장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층으로서 통일교육의 일차적인 대상자들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후 통일연수소의 체제가 정비되면서 통일교육도 체계화되기 시작하였고, 통일교육대상도 확대되었다. 통일안보교육의 집중강화계획(1976년), 국민정신교육 강화방안의 시행계획(1976년) 등 일련의 종합적인 통일교육 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연수교육기관 교과내용 개선방안(1997년)이 마련됨에 따라 통일교육 교과목의 각급 연수기관별 표준시간수가 확정 시행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통일교육 대상자는 사회각계각층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되었다. 교육자과정에는 대학교수, 중등교장, 교감, 중등교사, 초등교사 등이 포함되었고, 교육기관 교관과 민방위 계도요원, 정훈장교 등도 통일교육원 교육대상자로 참여하였다. 행정요원도 통일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고급공무원, 경찰간부도 포함되었으며, 사회지도요원으로서 경제단체 간부, 사회단체 간부, 노동조합 간부, 정당간부, 통일안보 단체들도 통일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종교단체와 언론인도 통

일교육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특히 1980년에는 대학생들도 3000명 이상이 통일교육 대상자로 교육을 받았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 대상자 특징은 교육자 과정이 확대되고, 행정요원반이 부가되었으며, 사회지도요원으로서 종교인, 언론인이 통일교육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 기관과 주체들이 통일교육 대상자로 교육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통일교육 대상자의 기본골격은 1990년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단지 1990년 초반에 와서 정부의 교류협력을 향한 대북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남북교류인원이 증가하게 되자, 남북예정자들이 통일교육 대상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 특징적이다.

표4. 통일교육실시 현황(1992년)

과정	반명	교육대상	
전문과정	통일교육전문위원반	통일교육전문위원(연찬, 신규)	
	민주평통자문위원반	민주평통자문위원(신규, 홍보)	
	사회교육기관 강사	사회교육기관 강사	
	민방위교육 강사	민방위 교육강사	
	학교교육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중등교사
			대학교수
	공직자 반		관리직 공무원
			공안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정훈장교	
소계		6개반 7,524명	
남북교류협력과정	방북예정자반	북한방문예정자 1개반 179명	
특별과정	정부관련기관간부반	정부관련 기관 간부	
	사회단체간부반	사회여성단체 간부	
	통일단체간부반	통일관련 단체간부	
	대학생반	대학생	
	이북5도민반	이북5도민	
	해외동포반	해외동포	
	자원교육자반	자원교육대상자	
	소계		7개반 11,826명
합계		3개 과정 14개반 19,529명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대상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동서독의 통일과 구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는 북한 체제 붕괴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북한 체제 붕괴와 이에 따른 급작스러운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

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통일교육요원 과정으로 확정되어 남과 북의 각종 제도 및 법규, 조직 등의 통합과 관련되어 교육을 받는 행정요원반과 북한주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요원반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에 따라 방북인원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남북교류협력과정이 중요한 통일교육비중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는 방북예정자반, 관광도우미 반, 정상회담 지원반, 이산가족 방문단 등이 통일교육 대상으로 통일교육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원의 일상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기 보다는 북한 방문과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북한여행 지침을 교육받는 수준에 머물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다. 통일교육원의 역할은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에서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으로 전환되는 역할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통일교육원이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준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의 진전, 대북정책에 따른 남남갈등의 심화 등과 관련되어 사회통합 기능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방송, 언론 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사회통합과 관련되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되어 다양한 교육주체를 포함하는 학교통일교육전문과정이 마련되었다.

표5.연도별 통일요원 과정 교육생 현황

단위 : 명

반명	1996	1997	1998	1999	2000
행정요원반	31	275	753	1084	225
교육요원반	28	288	275	346	318
합계	59	563	1028	1430	543

그림1. 통일요원 교육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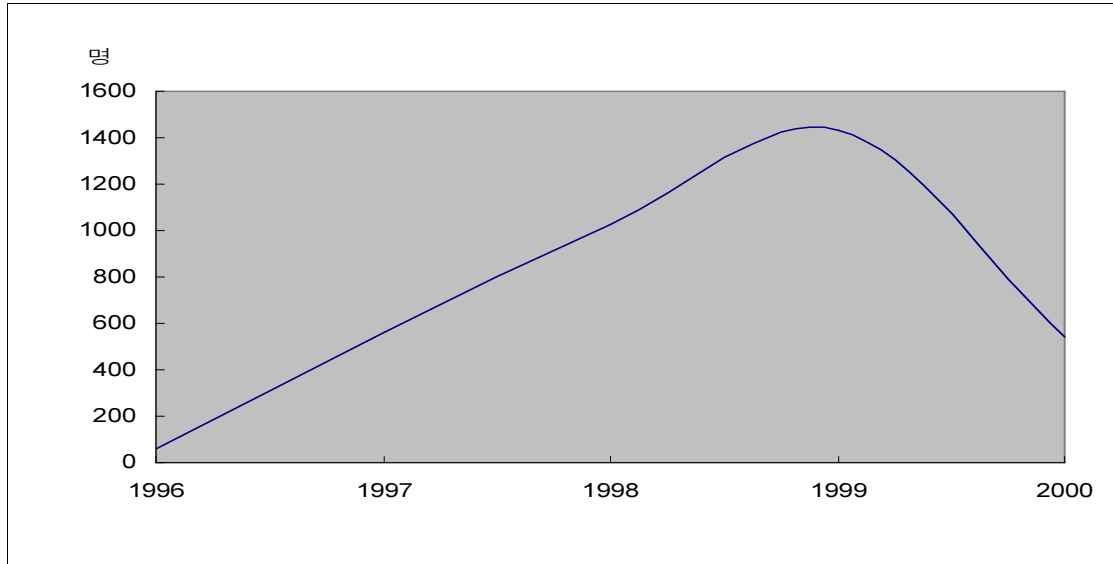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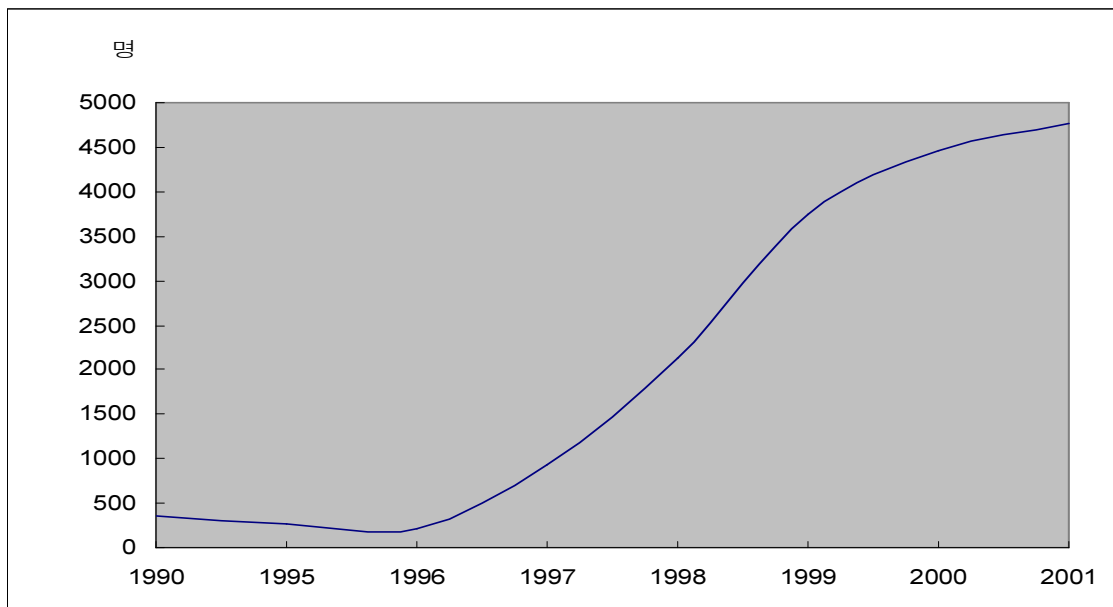


표6. 연도별 남북교류 협력과정 교육생 현황

단위: 명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남북교류 협력과정	350	274	212	938	2,131	3,744	4,461	4,760

그림2. 연도별 남북교류협력 교육생 추이



2002년부터는 통일교육 대상자 선정과 단위가 대상자 성격별로 다시 분류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즉, 통일교육 대상자는 사회통일교육과정, 공직자과정,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 남북교류협력과정, 특별연찬반으로 참여대상 직업별로 크게 분류되었다. 사회통일교육과정에는 종교단체지도자, 여성단체지도자반이 마련되었으며, 공직자과정은 중견관리직 공무원, 중견실무직공무원, 초급관리자, 통일직무요원, 이탈주민보호담당관, 보안경찰로 분류되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은 기존 통일교육 대상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통일교육 시범학교 교사, 예비초등, 중등교사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통일교육 대상자는 직업별 분류를 통해서 교육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으며, 통일교육 대상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남북관계에서 소외되어 있던 주체를 포함하는 구체성이 제고되었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 대상자 분석에 따르면 향후에는 남북교류관련 통일교육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대상자가 통일교육의 주요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는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고,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동해선 등의 철도, 도로연결, 북한 금강산, 평양 등의 방문허용 등은 경제, 문화 관광부분에서의 교류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의 추진과 느슨한 체제의 유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두부분에서 발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크게 확대개편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2003년에는 사회통일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뒷부분인 북한이탈주민의 급증과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방안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지겠지만 통일교육원의 장기적 교육방향이 남북한 사회통합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해 볼 때 통일교육원의 교과목도 이와 관련된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자원봉사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이들의 직업훈련담당관, 동사무소관리요원 등 더욱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통일교육원의 교과목 현황과 특징

현재 통일교육원의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교과목은 남북교류 협력의 초기단계에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현재의 통일교육 교과목은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한반도 주변정세, 분단국 비교 이해 등이 추가되어 있고, 통일교육대상별 특성에 따라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북한의 유아교육 제도와 실태, 지역사회 통일교수 기법,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의 교과목이 배치되어 교육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원의 교육대상자들 모두 공통으로 교육받는 내용은 국제환경변화와 한반도 정세전망,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북한에 대한 시각, 통일에 대한 시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현안문제,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이다. 이중 북한 핵문제와 관련되어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과 같은 교과목이 만들어졌으며, 북한 이해의 효과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이 개설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직업별 통일교육 대상자 분류에 따라서 해당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과목을 통일교육 내용으로 특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통일교육 전문위원과 민주평통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지역사회 통일교육 교수기법,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향군안보강사나 민방위 소양강사, 정훈장교는 통일안보교육의 방향과 과제, 민방위 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안보 교육현장에서의 지도 및 교수 기법 등의 교과목이 다루어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남북을 많이 왕래하는 종교인, 통일단체, 여성단체 지도자에 대한 통일교육 교과목도 특성화되어 교육되고 있다. 즉, 민간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 북한의 종교정책과 주민의 종교생활,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단체들의 활동 현황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중견관리직 공무원이나 통일직무반의 경우 남북통합이나 실무분야에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즉,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 북한 공무원생활, 북한의 헌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대책,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한 내용들이 교육되고 있다.

표7. 통일교육원 교육대상별 교과목 현황

통일교과목 분류기준		통일교과목
공통과목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정세전망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영상매체를 통해서 본 북한주민의 생활 분단현장 견학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북한의 군사와 생존전략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현안문제 최근 남북한 주요 현안 토의
특성별 교과목	통일교육전문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지역사회 통일교육 교수기법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향군안보강사 민방위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안보교육의 방향과 과제 민방위 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안보 교육현장에서의 지도 및 교수기법 20세기 이념논쟁에 대한 미래적 고찰 정훈교육사례 발표 및 토의
	통일단체지도자 종교단체지도자 여성단체지도자	언론 영상매체를 통해본 북한이해 북한 사회단체의 역할과 활동현황 민간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 북한의 종교정책과 주민의 종교생활 교류협력 및 통일과정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과 과제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단체들의 활동현황 북한영화를 통해서 본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
	중견관리직 공무원 통일직무반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평가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21세기 한반도 시대의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북한 문화 예술이해, 북한경제 현황과 과제, 북한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영화를 통해본 북한 공무원 생활, 북한 헌법의 정체와 기본권 보장, 북한 IT 산업의 현황과 전망,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책,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남북연합의 형성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 남북한 사회문화 동질성 회복과 공동체 형성방안,
	이탈주민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와 과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 북한 문화예술 이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보호업무에 관한 실무 해외 북한 이탈주민 생활 실태

자료 : 통일교육원 교과과정 참조 재구성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들과 관련되어서는 북한 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과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보호업무에 관한 실무, 재외 북한 이탈주민 생활 실태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로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이 예상된다고 보았을 때 실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교과목이다.

나아가 북한방문예정자, 회담 및 행사참가자, 금강산관광도우미(신규/연찬), 남북교류협력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과정과 관련된 교과목도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북한실태, 북한주민의 생활양식,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등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방법은 강의와 대담토론 등 참여식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기간 및 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북예정자에 대한 기본과목은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최근 남북관계 동향, 방북시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공통으로 편성하고, 전문과목은 교육대상의 방북목적 및 지역 등에 따라 분반 운영(경협, 사회문화/ 평양, 금강산, 신포·금호지구 등)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남북교류협력 관계 범규에 따라 방북승인 부서(통일부 교류협력국·인도지원국, 경수로기획단 등)에서 의뢰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통일교육원의 주요 역할과 기능이 남북한 사회통합, 북한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 이에 대한 교육기능과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현재의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과목을 분석해 볼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남북교류협력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공직자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통일교육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교과목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4) 사회 통일교육단체 교과목과의 비교분석

1) 교원단체의 통일교육 교과목 프로그램

① 서울시 교원 통일교육 연수와의 비교

서울시 교원연수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장기간의 학습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초등학교 교원 통일교육 교과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 교과목은 크게 나누어 교양, 우리의 통일노력, 북한사회의 이해,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및 실제, 현장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초등교원의 통일연수 참여시간은 총 60시간이며, 이중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시간이 총 22시간으로 가장 많고, 교양 10시간, 우리의 통일노력 8시간, 북한사회 이해 8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셋째, 현장학습 시간을 12시간 배정하여, 하나원, 탈북주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 최종적인 학습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서울시 교원연수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통일교육원의 초등교원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파악된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통일교육의 필요성, 남북한 초등학교 교과과정 비교, 초등학교 통일교육 사례 발표 등의 교과목 운영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과 교원연수원의 통일교육 연수가 대부분 자체 강사보다는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원들의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교육 시간에 있어서 서울시 교원연수원의 경우 60시간에 비하여 통일교육원은 15시간으로 1/4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일교육 연수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양적측면에서의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서울시 교원연수원의 경우 북한의 이해,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등에 있어서 풍부하고 다양한 과목을 배정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원의 경우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되어 북한의 인민학교 제도와 실태 등 3과목만을 배정하고 있어서 교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셋째, 통일교육원의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3일간 전일 운영되는데 비하여 서울시 교원연수원은 오후시간에 참석하여 보름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원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초등교원 통일교육이 진행되는 반면 서울시 교원연수원은 교원들의 학교 현장 업무와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표8.서울시 초등학교 통일교육 연수프로그램(2003년)

영역	교 과 목	교 수 요 목	시간	
< 총 계 >			60	
교양	< 소 계 >		10	
	미래 대응 교육 변화 방향	·잘살기 위한 미래 교육	2	
	북한 교육제도의 철학적 기저	·북한 교육 제도의 구성 ·북한 개혁·개방의 방향	2	
	통일문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통일비용 ·참여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남북한 관계의 변화	2	
	남북한 역사관의 비교	·한국사 이해의 기준과 새로운 방법의 모색 ·북한 역사 인식의 특징	2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 ·남북한 문화·예술의 차이점 및 이질감 해소 방안	2	
전공 및 직무	< 소 계 >		8	
	우리 의 통일 노력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노력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 ·주변국의 대 한반도정책 ·정부의 대책방향과 전망	2
		분단국의 통일 노력	·독일 통일의 교훈 ·베트남 통일의 교훈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2
		통일 교육 관련 행사	·서울교육시책 중 통일 교육 ·통일 교육 관련 학교 행사	2
		남북 교류 협력 현황	·최근 남북 교류 현황 ·남북교류협력 추진 절차와 유의사항	2
	북한 사회 의 이해	< 소 계 >		8
		북한의 대남 정책 기저	·북한의 정치 이념 ·북한의 대남 전략의 기본 방향 ·북한 핵 문제의 실상	2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교과목과 교육내용 ·통일대비 남북 교육분야 협력방안	2
		북한경제 현황과 주민 생활	·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 ·북한주민의 경제 생활 ·최근 북한의 개혁과 전망	2
		영상매체를 통한 북한의 이해	·북한의 영화, 드라마 등에 나타난 북한 언어 분석 ·남북한 언어 비교	2

영역	교 과 목	교 수 요 목	시간
진공 및 직무	< 소 계 >		22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및 필요성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2
	제 7차 교육과정과 통일 교육 실천 내용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2
	통일 관련 교육내용 분석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 ·통일 관련 교육내용의 구성 방향	2
	북한 주민 생활의 실제	·북한 주민의 의식주 ·북한의 명절, 풍습 ·북한의 대중 문화	2
	어린이와 함께하는 통일교육 수업모형	·다양한 수업모형의 필요성 ·문화이해지를 활용한 통일교육 ·웃놀이를 활용한 통일교육 ·도전 통일벨	2
	북한의 언론과 방송 프로그램	·북한의 언론 보도 과정 ·북한의 TV, 라디오 방송 프로 그램 구성 실 태	2
	학교 통일교육 시범 운영 사례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의 실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통일교육 수업의 실제	2
	분단활동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8
	< 소 계 >		12
현장 학습	탈북자 생활 체험	·하나원, 삼죽초등학교 방문 견학 ·탈북 주민과의 대화	6
	북한 관련 정보 탐색	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방문	4
평가	선택형, 서술형	선택형 20, 서술형 1, 2	2

표9. 통일교육원 초등교사 통일교육교과목 (합숙, 15시간)

일정	교과목	주요내용	시간
1일	통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 분단 상황의 고찰과 그 폐해 ○ 통일을 위한 노력 (남북통일방안비교) ○ 통일 국가의 미래상 ○ 통일 교육의 의의와 지도방향 	1.0
	북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보는 시각 ○ 북한사회의 특징과 구조 ○ 북한의 변화양상과 전망 ○ 북한교육의 실제와 접근방향 	1.0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현안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포용정책의 추진배경 ○ 대북포용정책의 목표 ○ 대북포용정책의 방향 ○ 최근 남북관계 현안 (경협, 인도지원, 이산가족) ※ 6.15 정상회담 설명 	1.5
	영상매체를 통해서 본 북한의 주민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TV/영화 시청(1시간 분량) ○ 주민 생활 설명/토론 	1.5
2일	북한의 인민학교 제도와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교육제도 개관 ○ 북한 인민학교 교육 내용특징 ○ 북한 인민학교 학생들의 생활 ○ 북한 인민학교 교사의 생활 	1.5
	남북한 초등교육 교과과정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인민학교 교육목표/교과과정/학기운영 ○ 남북 초등교육 유사성/이질성 비교 ○ 남북 초등교육 이질화 극복 방안 ※ 남북 교과서 비교 분석 	1.5
	분단현장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오두산 전망대 견학 	5.0
3일	초등학교 통일교육 사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 교수안 작성 요령 및 지도방법 ○ 질의·응답 	1.5
	<세미나> 화해·협력의 시대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교육의 현황 ○ 통일교육의 문제점 ○ 통일교육의 필요성 ○ 통일교육의 방향/과제 ○ 질의·응답 	1.5

서울시 교원연수원의 중등교원 통일교육과 통일교육원 중등교사 교과목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초등교원 프로그램과는 달리 매우 유사한 측면이 많다. 첫째, 양기관 모두 장기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60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둘째, 통일연수 교과목에 있어서도 비슷한 성격의 교과목을 배정하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원의 경우 초등교원연수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교과목 다양성의 부족 등은 장기연수에 따른 시간여유로 인하여 모두 해소되고 있다. 즉,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북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학교통일 교육의 지도기법, 학교통일교육 사례탐구, 남북한 중등교과 비교분석, 북한 중등교육제도의 실태 등이 소개되고 있다. 셋째, 통일관련 교과목과 북한이해 교과목 등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분단국의 통일노력,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의 이해, 북한 경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등 유사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반면 여전히 양기관의 차이점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서울시 교원연수원의 중등교원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에 비하여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및 실제 영역에서 30시간의 통일교육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직무와 관련된 통일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교과목 운영내용도 교과별 통일교육의 실천사례, 통일교육 자료 획득방법 및 활용방안,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적 지도방안 등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통일교육 교과목을 배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적 지도방안은 약 10시간의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현장응용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통일교육원은 중등교원 연수의 통일교과목 배정이 개념적, 이론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혹은 북한 중등교육제도의 실태 등의 교과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 이해와 관련된 교과목이 교원연수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교원연수원과 통일교육원의 교원통일연수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통일교육원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통일 교과목을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담당할 외부전문가 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연수원은 원격강의를 통하여 통일연수가 진행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 교과목과 관련된 원격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콘텐츠화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중장기적 시점에서 볼 때 남북한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대상 학교교육이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

원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청소년 대상 학교교육이 남북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과목의 배정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10. 서울시 중등 통일교육 직무연수(2002)

영역	교과목명	내용(교수요목)	시간	
	총 계		60	
	소 계		12	
교양 · 교직	특강	○남북통일과 교육부문의과제	2	
	7차 교육과정과 통일교육	○7차 교육과정의 특징 ○통일교육 운영방안 ○통일교육 관련 개정내용	2	
	특수교육의 이해	○특수교육의 필요성, 개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과 교육적 조치 ○특수교육의 발전방향과 통합교육	2	
	서울의 역사·문화 기행	○효창원 일대 ○효창원 3의사 묘역	4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교육	2	
	소 계		6	
전공 (직무)	우리의 통일 노력	○중국, 대만의 통일노력 ○독일의 통일 노력(동방정책) ○우리 역사 속의 통일 노력	2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정책 변화과정 ○남북관계의 변화과정 및 통일 노력	2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정치, 군사) ○사회, 문화, 경제 공동체 노력	2	
	소 계		10	
	북한 이해	평화통일을 위한 역사 인식	○남북한 역사인식 이질화 현황 ○북한 역사인식 특징 ○북한 역사인식 이질화 극복방안	2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의 이해	○북한을 보는 시각 ○북한체제의 변화양상과 향후 전망 ○북한 주민의 가치관, 직장생활 ○남북한 풍속, 전통문화 차이	2

영역	교 과 목 명	내용(교수요목)	시간	
전공 (직무)	북 한 이 해	북한 경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북한 경제의 특성 ○북한의 대외무역, 외자유치, 경제특구 개발현황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의 과제	2
		북한의 교육현황	○북한의 교육제도, 교육방법 ○북한의 교원과정, 교육양성과정 ○북한 청소년 생활모습	2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및 과제	○탈북주민 현황 ○탈북주민 적응실태 및 과제 ○탈북주민 지원대책	2
	소 계			30
	학 교 통 일 교 육 의 방 향 및 실 제	학교 통일교육 지침 및 방향	○통일교육지원법 체계의 이해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 ○학교 통일교육에의 접목	2
		교과별 통일교육의 실천사례	○통일교육 수업 사례(1)	2
			○통일교육 수업 사례(2)	2
		통일교육 자료 획득방 법 및 활용방안	○자료탐색 및 제작 방법 ○자료 활용 및 제작	2
		<분단활동> 학교 통일교육의 효율 적 지도방안	○교과 선정 및 양식 협의 ○참고자료 획득 방안 및 제작 방향 ○교과별 통일교육 학습지도안 작성 ○학습지도안 발표 및 질의응답	10
		직무연구	○남북 협력시대의 통일교육	4
		국정원 안보전시관 견학	○통일 정책 관련 자료 ○북한의 청소년 활동 자료	4
	관문점 (통일전망대) 견학	○분단의 현실 이해	4	
	기타	소 계		2
		평가		2

② 대전시 교원연수원 통일교과목과의 비교

대전시 교원연수원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과목은 통일의 당위성, 현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경제생활과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은 북한의 교육과정 이해, 통일대비 학교

교육의 방향과 방법, 통일관련 단위 교수-학습의 실제이 마련되고 있다. 대전시 교원연수원 통일교육 프로그램도 통일의 필요성, 북한이해, 학교통일교육 등 크게는 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5시간의 짧은 통일교육 시간배정에 비하여 교과목 수가 매우 제한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학교통일교육 관련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통일교육원이나 서울시 교원연수원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학교통일교육 교과목 배정이 부족하고, 북한이해의 영역에서도 북한외교, 북한경제 측면에 관한 교과목만 소개됨으로써 매우 단순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의 통일교원연수원의 운영담당자가 통일교육관련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현장의 수요와 필요부분을 제대로 프로그램 설계과정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의 상당부분 교원연수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가 일시적으로 파견나온 장학관들로 이루어져서 통일교육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 이들 통일교과목을 진행할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제약하에서 구체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교과목 배정과 개설에 있어서 서울교육연수원이나 통일교육원 프로그램에 비하여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표11.대전시 교원연수원 통일교육 프로그램(2002년)

영역	교과목	시간
교직·교양	1. 특강 · 21세기 국가비전과 우리의 과제	2
	2. 친절서비스 교육 · 직장인의 대화예절 · 고객 만족의 교육을 위한 노력	2
	3. 교육레크레이션 · 학급에서 활용하는 레크레이션 · 학급레크레이션의 실제	3
	소 계	7

영역	교 과 목	시간
전공	1.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필요성	3
	2.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의 방향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 ·통일의 방향에 따른 우리의 자세	3
	3.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정책 ·북한의 정치상황과 외교 정책 ·북한의 외교 정책과 우리의 방향	3
	4. 북한의 경제생활과 가치관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 ·북한의 경제상황	3
	5. 북한의 교육과정 이해 ·북한 인민학교의 실태 ·북한의 교육제도와 입시	3
	6. 북한 주민이 말한다 ·북한 주민의 실상 증언 ·북한과 남한에서의 생활상	2
	7. 지정학적 위치로 본 대한 민국의 미래상 ·대한 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대한 민국의 발전 방향	3
	8. 탈북학생지도를 통한 통일교육 우수사례 ·탈북 학생의 실태 ·탈북 학생 지도 사례의 실제	2
	9. 통일 대비 학교 교육의 방향과 방법	3
	10. 통일 관련 단위 교수-학습의 실제	2
	11. 북한의 생활(재택연수)	3
	12. 현장 견학 연수	8
	행정시간	.
	소 계	38
	총 계	45

따라서 통일교육원의 경우 지방 교원연수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구축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통일교육원이 주도하되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 특히 교원연수원 담당자들로 구성된 ‘한국교원 통일교육 추진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원들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인식과 이해, 정보 측면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과 지방간의 통일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판단된다.

또한 통일교육원의 원격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교원연수원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해, 통일이해 영역에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은 해당 교원연수원에서 담당함으로써 양기관의 통일교육관련 역할을 특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원의 경우 북한이해와 통일정책 등의 영역에서는 오랜 노하우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교원연수원에서는 학교통일교육관련 경험자들이 많기 때문에 양기관의 장점을 결합하여, 교원통일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성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학의 통일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

경남대는 사이버 통일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교과목의 구성내용을 보면 통일문제이해, 남북관계의 이해, 북한의 이해, 교원특별 강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원특별강좌와 관련된 교과목이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다. 대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인만큼 교과목이 통일교육원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통일문제의 이해 영역에서는 통일교육원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등이 핵심내용이나 경남대 교원연수에서는 분단구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폐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수용하는 교과목도 개설해 놓고 있다. 반면 남북관계의 이해나 북한의 이해 영역에서는 통일교육원이나 일반 교원연수원에서 개설된 교과목과 비슷한 내용의 교과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남북경협의 의의 그리고 어제와 오늘과 같은 남북관계 이해 영역의 교과목이나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북한사회 주민의 삶, 강성대국과 선군정치 등의 교과목은 모두 통일교육원에서 다루는 주된 통일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

다.

교원특별강좌 영역에서는 남북한 국어, 사회, 역사 등 제반교과목의 비교가 주된 교과목을 이루고 있고,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교과목이 다수 개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교원연수원과의 차이점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통일교육관련 교과목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나아가 남북한 사회통합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관련 교과목, 그리고 북한주민과의 대화와 같은 토론식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표12.경남대 사이버 통일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영역	강좌명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 분단구조의 정치적 폐해와 통일문제 분단구조의 경제적 폐해와 통일문제 분단구조의 사회문화적 폐해와 통일문제
남북관계의 이해	정치적 측면에서 본 남북관계 남북경협의 의의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남북한 사회문화의 비교와 교류현황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의 이해	북한정권의 형성과정과 주체사상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북한사회 주민의 삶 북한의 문화정책과 기층문화 강성대국과 선군정치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전망
남북통합의 연구 현황	남북한의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과 남북통합연구
교원특별 강좌	통일교육의 어제와 오늘 통일에 대한 무관심 효율적인 통일교육 방법론 독일의 정치교육 남북한 교육의 이해 과외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남북한 교과 비교 연구 (국어, 사회,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윤리, 정보 통신 분야)

동국대의 통일교육 교과목은 기초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기초교육과정에서는 북한학 입문, 북한의 정치, 환경, 경제, 사상,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교과목들이 집중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는 통일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의 북한이해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법, 행정, 외교, 언어, 교육, 군사안보, 지리, 문학 등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의 다양한 통일교육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특성화된 전문통일교과목을 부분적으로 한 과목씩 선택하여 모아놓은 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표13. 동국대 통일교육 교과목 프로그램

과목분류	교과목
기초교육과정	북한학입문/통일학입문/사회주의의 이론과 체제/북한정치론 통일환경론/북한의 사회와 문화/조선로동당과 북한지도자 북한경제론/북한의 사상체계
전문교육과정	북한의 법과 행정체계/북한외교정책론 남북한 교류협력과 사회통합/북한의 언어와 생활 남북경협과 경제통합/북한교육론 북한군사안보론/북한의 지리와 관광 북한의 문학과 예술/남북한체제비교론 분단국통일사례연구

동국대학교의 통일교육 교과목도 주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교육원이나 서울시 교원연수원의 통일교과목처럼 다양성과 구체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회통합과 관련된 교과목이 전무하고, 독일통일사례나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교과목, 나아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같은 교과목도 다루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려대 북한학과의 교과목은 북한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언어, 교육, 지리, 문학, 사회생활, 경제, 언론, 외교, 군사, 법 등과 북한의 심층이해에 필요한 교과목이 집중적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등 통일문제 및 통일정책 이해 과목이 제공되고 있다. 동국대 북한학에서와 유사하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남북한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학 전공으로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4. 고려대 북한학과 통일교육 교과목 현황

과목분류	교과목
학부공통과목	남북문제연구
전공탐색과목	마르크시즘과 주체사상/김일성 . 김정일연구
전공과목	마르크스주의론/남북 분단사/북한의 정치와 행정 주체사상론/혁명전통론/북한 언어론/북한 교육론 북한의 지리/북한 문학 . 예술론/북한의 사회생활 북한 체육론/북한 경제론/북한 청소년 연구 북한 언론/북한 외교론/조선역사/사회주의 계급혁명론 남북한 통일정책론/북한의 주요인물 연구/북한 군사론 북한법 연구/북한학 연구방법론/북한의 해외동포정책론 조선로동당사/통일문제 세미나/한반도 주변정세론 현장연구/북한의 정세(특강)

각 대학의 북한 및 통일관련 교양강좌는 북한과 통일문제 이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만을 개설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이해, 북한 사회이해, 북한정치 이해, 북한정치와 통일문제, 남북한 관계론 등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설되고 있으며, 북한이해와 관련된 각론적인 교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전혀 채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통일관련 교양강좌는 말 그대로 교양강좌 수준에서 북한학 개론 소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15. 각 대학의 북한 및 통일관련 교양강좌 현황

지역	대학명	강좌명
서울지역	건국대	북한학
	동국대	북한사회의 이해
	서강대	북한의 이해/ 한반도 통일론
	서울교대	북한문제의 이해
	성균관대	민족통일론
	성신여대	북한사회의 이해/ 남북문제와 통일문화 창조
	숙명여대	북한의 이해 / 통일정책연구 /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연세대	북한의 정치와 사회 / 분단과 통일 / 남북한 관계론
	이화여대	북한정치론 / 북한지역문화와 생활
	한양대	통일교육론
경인강원 지역	강원대	북한사회의 이해
	경기대	북한사회의 이해
	아주대	북한사회의 이해
	인천교대	북한학
	한신대	북한 문학의 이해 / 민족해방과 분단
충청지역	배재대	북한정치 / 남북한 관계와 통일
	대전대	북한론/ 통일문제
	충북대	북한정치와 통일문제
	한남대	통일문제의 이해
영남지역	경상대	북한의 정치와 사회
	동의대	북한 사회의 이해 /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부산대	북한 사회의 이해 /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호남지역	동신대	북한사회학
	전남대	북한사회론
	전주교대	북한연구
	조선대	북한사회의 이해/ 한반도와 국제관계

통일교육원의 대학생 대상 통일교육도 각 대학교 북한학 입문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통일을 보는 시각, 북한에 대한 시각, 민족공동체 건설의 장래와 과제,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소개하고, 분단현장을 견학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원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3일 동안만 통일교육을 받게되는 등 통일교육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16. 통일교육원 대학생 정치교육 프로그램(북한·정치학과생, 합숙)

일정	교과목	주요내용	시간
1일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 분단 상황의 고찰과 그 폐해 ○ 통일을 위한 노력 (남북통일방안비교) ○ 통일 국가의 미래상 ○ 통일 교육의 의의와 지도방향 	1.5
	북한의 대학교육과 대학생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대학교육 제도 개관 ○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 ○ 북한대학생들의 의식구조 ○ 질의 및 응답 	2.0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보는 시각 ○ 북한의 분야별 특징과 실상 - 정치, 경제, 사회문화 ○ 최근 북한의 변화양상과 향후전망 	2.0
2일	〈세미나〉 민족공동체 건설의 장래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공동체의 의의 ○ 남북간의 이질화 현상 개관 ○ 남북의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 ○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노력 	2.0
	북한 TV 드라마 시청		1.0
	현장체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현장 견학 - 판문점, 통일전망대 	5.0
3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현안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포용정책의 추진배경 ○ 대북포용정책의 목표와 기조 ○ 대북포용정책의 추진 방향 ○ 최근 남북관계의 현안과 향후 전망 	1.0
	〈세미나〉 - 남북화해협력과 대학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적 사조의 개관 ○ 남북화해협력 사조에 있어서의 대학사회의 역할과 기능 ○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발전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2.0

따라서 대학생들과 관련된 북한 및 통일관련 교과목은 일부 북한학과가 있는 대학의 경우 북한 이해관련한 교과목이 각론적으로 매우 세분화 되어 마련되어 있는 반면 통일정책과 남북한 사회통합, 통일교육 관련된 교과목은 부재한 상태에 있고,

통일교육원을 비롯하여 각대학의 교양과목은 매우 입문학 차원의 북한 및 통일이해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경우 특별히 북한에 대한 이해는 통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반 언론매체나 정치권이 조성하는 여론에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은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대학과의 컴소시엄을 통해 기본적인 통일교과목 개설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교과목 분석

먼저 한국사회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보수단체로 알려진 한국자유총연맹의 통일교육 강좌명을 보면, 통일교육원이나 교원단체 등에서 채택한 북한 및 통일관련 교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일 및 북한 이해 영역과 관련되어 대북정책의 이해, 북한이야기,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적용, 진정한 통일의 길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통일준비 시범학교 시강 및 실습, 통일교육에서의 평화교육 접근방법, 청소년 통일교육의 실천적 교수방법 및 실천 등이 있으며, 사회통합과 관련된 북한이탈주민과의 북한생활 체험 나누기 교과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자유총연맹의 통일교육 개설 교과목은 교원연수원 교과목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7.한국자유 총연맹 통일교육 프로그램 현황

강좌명
대북정책의 이해/남북한 교사들이 함께 하는 통일교육 이야기 DMZ 평화생명마을 학습/학교통일교육의 실제 남북한 교육문화 통합을 위한 비교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내외의 통일교육 활용방안 청소년 통일교육의 실천적 교수 방법 및 실습 민족통합을 위한 한민족 전통사상 및 문화 북한이탈주민과의 북한생활 체험 나누기/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통일교육에서의 평화교육 접근방법/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적용 북한이야기/진정한 통일의 길 통일준비 시범학교 시강 및 실습/분단의 현장 방문(관문점 등)

자유총연맹과는 달리 약간 진보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경실련의 통일협회 제14기 민족화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들 민간단체의 남북관련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원이나 교원단체 등과 달리 이들 민간단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민족화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내용이 다루어지고, ‘남북한 군사력비교와 군축방안’, ‘북한의 식량난과 민간교류협력’, ‘통일과 언론의 역할’ 등의 민간단체의 특성상 다룰 수 있는 통일교과목을 배치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와 관련된 접근과 시각이 통일교육원이나 교원단체 프로그램과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북한이해 영역과 관련되어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방정책의 전망, 북한의 정치방식과 지도사상, 북한의 변화와 법제동향을 다루고 있는 것은 통일교육원의 교육교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8. 경실련 통일협회 제14기 민족화해아카데미 프로그램

강의명
민족화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북한의 정치방식과 지도 사상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통일을 향한 등반대회 - 북한산
21세기 민족의 진로와 남북관계/북한의 식량난과 민간교류 협력
한민족의 정체성과 리더쉽/냉전구조 해체에 따른 법률적 접근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방안/북한 영화 관람 및 토론(영화상영)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의 영향/북한의 변화와 법제동향
통일과 언론의 역할/북한의 경제현황과 개방정책의 전망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경실련과 같은 민간단체의 통일교육도 통일교육원의 교과목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민간단체의 특성과 역할과 관련된 교과목이 배치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벗들이 운영하는 제13기 통일대회 마당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자유총연맹, 경실련과 같은 민간단체나 통일교육원, 교원연수원과는 사뭇 다른 통일교육 교과목을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9. 좋은 벗들 제13기 통일대회마당 프로그램

강의명
한민족 르네상스/남북연합단계의 정치군사공동체, 우리는무엇을 꿈꾸는가? 열린 토론회 : 내가 꿈꾸는 통일미래
남북경제공동체의 미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질적 체제의 통합, 평화적 하나됨을 위하여/통일이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서의 주변국의 역할
통일시대, 새로운 인간상과 세계정신
왜 우리는 세계민족, 지구촌 시민이 되어야 하는가?
생명과학의 시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하나된 한반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꾼다
통일미래와 인류문명의 미래/북한동포돕기와 깨어 있는 자기의 발견
내가 겪은 식량난, 내가 바라본 남북한 사회
통일민들레로 꽃피는 정통행자 통일운동

좋은 벗들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시대, 새로운 인간상과 세계정신’, 세계민족과 지구촌 시민, 생명과학의 시대와 평화공존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통일미래와 인류문명의 미래 등의 교과목을 배치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측면의 통일과 남북한 당면과제를 다루기보다는 종교적, 도덕적, 정신적 측면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종교계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이해방식에 매우 접근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좋은 벗들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남북관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로부터는 한발짝 물러나 있으면서도 다른 기관에서의 통일교육과는 달리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평가된다.

(5) 통일교육원 프로그램과의 종합적인 비교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원을 비롯한 통일교육 기관의 교육 교과목과 프로그램의 차이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특성, 그에 따른 통일교육 목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교육원의 경우 정부기관이라는 성격과 정부의 통일교육 목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교원연수원도 정부의 통일교육 목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단지 통일교육 최종 대상이 학생과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교육 방법론 등이 추가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민간단체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나 방법, 교과목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통일교육 교과목을 해당기관별로 비교요약해보면 먼저 통일교육원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북한이해, 남북한 사회통합, 통일정책의 비교 등 비교적 각분야별 균형적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비교분석되었다. 반면 교원연수원의 경우 통일교육원과 마찬가지로 통일 및 남북문제 이해와 관련된 각 분야의 교과목이 고르게 개설되었고, 교원단체라는 특성을 고려한 통일교육방법론과 사례 등의 교과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통일교육의 일반론적인 내용과 교원단체라는 특수성을 잘 배합한 교과목과 프로그램으로 파악된다. 특히 통일교육원의 교원대상 통일교육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교육원의 교과목이 모델이 되고 있으며, 단지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방법론 관련 과목은 이론적, 개념적 차원의 것이 많은데 비하여, 교원단체의 것은 실제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목이 많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의 교원대상 통일교육 교과목은 사례중심의 것과 현장중심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 중에서도 서울교원연수원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교원연수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참여 가능한 전문가의 부족과 프로그램 담당자의 통일교육 전문성 미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교과목 개설과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과 균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일반 통일교과목의 경우 통일교육원의 사이버 통일교육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교과목은 민간단체 기관별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유총연맹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의 교과목 구조와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전문가도 통일교육원 교수 혹은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실련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좋은 벗들 등과 같은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은 해당기관의 성격을 반영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통일과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과 해석에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개설된 교과목도 통일교육원의 그것과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다.

통일교육 대상자 측면에서 볼 때 통일교육원은 공무원, 교원, 통일전문요원, 종교인, 남북교류요원, 방북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교과목과 프로그램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통일 및 남북문제 이해와 관련된 균형된 교과목 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원연수원의 경우 학교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목은 학교통일교육 제고방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교원 자신의 통일 및 남북한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20. 통일교육기관별 교과 프로그램 특성 비교

통일교육기관	교과목의 특징	교육의 목표	통일교육 대상자	교과목 편성주체
통일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의 필요성, 북한이해, 남북한 사회통합, 통일정책, 에 대한 균형적인 교과목 배정 통일교육 대상자 특성별 교과목이 고르게 안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민주주의의 민족공동체의식 바탕, 바람직한 통일관 형성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안보관 확립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 의지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교원, 민간단체, 방북자, 남북협력 실무자, 종교인 단체 등 한국사회 각 기관이 균형되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의 통일교육 편성 노하우 보유 통일교육 교과목별 전문가 충분히 보유 체계적인 추진조직과 인력
교원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의 통일교육 관련 교육에 집중 통일의 필요성, 북한이해, 남북한 사회통합, 분단국 이해 등이 균형적으로 배치됨 지방교육연수원의 경우 운영경험과 교육담당 전문가 부족으로 교과목 개설 불균형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목표와 동일 청소년의 통일의식 고취와 교원들의 통일교육 방법, 능력 제고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중등, 대학교 재직 교원들이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의 순환보직 파견으로 연속성 부족 단기간 불규칙적인 통일교육 교과목 개설로 노하우 부족 통일교육원 참여 전문가 등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통일교육담당
민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민간교류와 관련된 교과목이 특징적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균형적인 교과목의 개설은 어려움 통일 및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과 의미의 차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민간단체의 특성에 따른 해당 북한분야 이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민간단체 입장의 이해 남북민간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한 심층 이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일반인, 사회운동세력 등 성격이 다양한 일반인들이 혼합됨. 통일교육 대상자는 대학생과 청년층이 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총연맹은 통일교육 노하우와 조직력 보유, 통일교육원의 축소된 시스템과 유사 경실련은 최소인력이 통일교육 교과목 편성, 일부 참여 교수가 주도 좋은 벗들과 같은 단체는 종교인 주도, 노하우 부족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대상자는 해당 민간단체에 소속된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성격에 따라서 통일교육 참여대상자도 크게 달라진다. 자유총연맹과 같은 기관은 통일교육원에 참여하는 통일교육 대상자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실련과 좋은 벗들의 경우 대학생 및 청년운동가, 종교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통일교육원, 교원단체, 민간기관 등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남북한 사회통합이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관련 교과목을 매우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에 의한 관계의 진전이나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변화, 또는 통일유사 상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들로서 중장기적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통일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현재의 남북관계, 통일정책, 북한이해에 집중된 통일교과목 편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보완하여 중장기적 시점에서 필요한 통일교과목과 프로그램을 보다 풍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남북관계 단계별 발전에 따른 통일교육 중점 방향과 주제

1) 단계별 통일교육 중점방향

현재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내용은 남북관계 진전의 초기단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북한의 개혁개방이 초기단계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도 크지 않고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도 분단국 사례, 즉 과거 통일이전의 동서독과 현재의 대만과 중국간의 교류수준에 비교해 볼 때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통일교육 내용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통일교육원의 교과목 분석에서 파악되었듯이 통일교육의 내용과 주요 개설 교과목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이해, 북한의 이해, 일부 남북한 사회통합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대상자도 대부분 남한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북교류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반, 북한이탈주민과 그 담당자반 등이 신설되어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의 변화는 통일교

육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남북의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남북한 통일과 같은 유사단계에 이르게 될 경우 통일교육원의 교과목과 역할은 현단계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준비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1. 남북관계 단계별 발전에 따른 통일교육 중점 방향

남북관계	통일교육 중점 방향
교류협력 초기단계	남한주민 대상 북한 이해 교육 통일정책, 한반도 주변정세 등에 대한 통일교육 소수 북한이탈주민 재사회화 교육
교류협력 본격화 단계	남한주민 교육과 북한주민 통일교육, 같은 비중으로 접근.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남북한 인적교류 본격화, 북한의 인터넷 환경 진전, 남한 방송매체의 북한 전달 가능 북한주민 상대 통일교육은 인터넷 웹사이트와 위성 혹은 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하여 남한사회 이해와 적응을 위한 교육에 집중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가능성으로 남한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비중 높아짐 남북한 교류협력의 본격화는 남한 주민의 북한 사회에 대한 직접 경험으로 통일교육은 북한 정보전달과 정부통일정책 전달교육에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교육으로 중심이동
통일 초기 단계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해와 남한사회 적응교육에 집중 남북한 사회통합교육 단계로 진입. 북한이탈주민 재사회화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전면적인 북한주민의 재사회화 교육에 응용 북한 공무원, 지도자, 교육자에 대한 남북한 제도적통합 교육
통일 안정단계	북한 지도자 및 간부공무원, 핵심기관 책임자 등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남북한 사회통합 교육기관의 네트워크화 정보프로그램 제공 남북한 공무원, 공기관 간부 사회통합교육

첫째, 현 단계의 남북관계를 넘어서 중간단계의 교류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 남한 주민 상대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환된다. 이때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통일교육은 전적으로 인터넷 통일방송, 통일위성방송 등의 매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고, 남북관계가 중간단계에 진입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원의 기능중 상당부분을 통일교육원이 분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재사회화 교육이 같은 비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인터넷 환경과 위성방송 수신시스템이 진전되고, 남한 방송매체의 북한 전달이 가능하게 되면 북한주민 상대 통일교육은 인터넷 웹사이트와 위성방송매체를 통하여 남한사회 이해와 적응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게 된다.

셋째, 중간단계를 넘어서 남북한 통일이 가까운 시기나 통일초기 단계에 이를 경우 통일교육은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은 북한주민 재사회화 교육에 집중된다. 이때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북한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넷째, 통일안정 단계에 진입할 경우 북한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과 함께 주요 북한 지도자 및 간부공무원, 핵심기관 책임자 등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과 함께 남북한 사회통합 교육기관의 네트워크화, 정보프로그램 제공 등 종합적 조정기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단계별 통일교육 중점 주제

남북관계 단계별 발전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원 역할 모델과 통일교육 교과목 혹은 교과관련 주제를 새롭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관계 단계별 통일교육 교과목은 교류협력 본격화 단계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장경제 도입과 사회주의 개혁개방, 시장경제의 이해, 시장경제에서의 가격결정원리, 자유민주주의 선거와 정치과정과 같은 과목들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인터넷 통일교육, 통일위성교육 등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며, 통일단계에서는 동서독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교육의 내용들과 유사한 교과목, 즉, 한반도의 발전과

미래,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 문화이해, 과거 분단과정 돌이켜보기, 객관적 역사인식 회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시민 사회 교육 등 다양한 교과목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교류협력 초기단계의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는 현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골격으로 하여 심화 보완해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현재의 통일교육원 프로그램에서 한국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인, 방송인, 종교인들과 보수영역으로 개념화되어지는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강화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자의 집단은 한국사회 통일여론 조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 및 남북관계의 올바른 이해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이들 집단은 현재의 통일교육 장과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접근 방법과 교육수단의 개발, 교과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지상과 방송국 협력체제 방안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50세 이상 세대는 젊은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진영에 속해있으면서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해를 구해야 할 가장 시급한 통일교육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원단체, 각종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남북관계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포용정책의 동의를 구해야 할 통일교육 대상자들이 통일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 교과목은 내용면에서 이해가 용이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프로그램과 교육참가 방식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2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연령분류	매우 잘했다	잘 한편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40세 미만	4.5	77.3	18.2	0.0
40대	11.9	66.1	20.3	1.7
50세 이상	11.5	61.5	19.2	7.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4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조사결과(2002. 2)

나아가 현재까지 직업별, 직능별 통일교육 대상자 편성방식을 보완해서 연령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연령별로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 및 남북 관계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통일교육의 통일교육 대상자 편성의 연령별 접근뿐만 아니라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향후 전개될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통일교육에서도 연령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교류협력 본격화 단계에 이르면 현재의 통일교육 교과목과 프로그램은 상당히 달라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일교육 대상자 중점비중이 다수 남한주민과 소수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다수 남한주민과 다수 북한주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교육방법론도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온라인 통일교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과목의 설계와 교육수단의 채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때의 북한주민 통일교육방식은 인터넷 통일교육, 통일위성방송, 사이버통일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에서 시도하고 있는 통일교육 교과목 운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통일교육 교과목과 교육매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주민에 대한 통일교육 교과목중 북한이해 영역은 남북왕래와 북한정보의 개방 확대로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통합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관련 내용은 비중이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초기 단계에 들어서면 남한의 통일교육 핵심은 북한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집중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한주민 상대 통일교육의 내용은 사회통합 부분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주민을 상대한 통일교육 내용은 남한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해 부분에, 남한주민을 상대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교육내용을 참조하여 남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 교과목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례로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사례이다. 또한 인터넷 통일방송, 통일위성방송, 지상파 방송국의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활용 등을 포괄하는 교과목을 가정한다.

이러한 기본 공통적인 교과목에 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따라서 특화된 교과목을 개발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교과목 편성원리는 현재 통일교육원 교육대상자별 특정교과목 개발방식과 프로그램 편성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교과주제의 전달방법과 수단은 오프라인 강의 방식을 탈피하여 온라인

시스템, 각종 방송시스템 등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23. 통일교육 기본 교과목 설정 사례(남북관계 2단계 혹은 3단계)

분야	남북통합 일반교육 주제설정
민주주의 시민교육	민주주의 학습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정치과정 민주주의와 선거, 토론, 인권 시민사회의 발전과 역할 공산주의 체제와 인권 국가와 법치주의
남북통일	통일 한반도의 미래 남북한 민족공동체 건설과 당면과제 동북아시대와 한반도 21세기 한반도 발전과 번영을 위한 프로그램 남한과 북한의 일체성과 상이성 일민족 일국가의 특징과 역사 북한의 역사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 남북한 통일과정: 정치, 경제, 사회 동북아경제통합과 남북통일
사회통합관련	남북한의 적대감정, 관용, 사회통합 구 북한에서의 학교갈등 통일 후유증 문제로서의 심리적 문제 구 북한지역의 사회생활 통일 한반도의 사회 남북한 심리적 통합 구 북한에서의 문화와 정치 남북한 주민의 가치비교 남북한 동일언어와 상호 이해 가능성 북한의 변혁과정 남북한 심리적 통합, 어떻게 가능한가? 통일독일에서의 사회갈등과 통합
정치문제	통일교육과 극우주의, 극좌주의 통일 한반도에서의 좌우의 극복문제 이념적 대립에 대항한 프로그램 한반도에서의 외국인 정치교육의 현재, 미래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극단주의 UN에서의 한반도 통일의 책임 신연방주의와 지방정부 과거 분석 : 한반도 통일의 성과와 당면과제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분야	남북통합 일반교육 주제설정
정치 외교 일반	<p> 통일 한반도의 중간평가 공산주의의 지배와 그 종말 북한의 대중매체 성격과 개편 동북아에서의 한반도 문제 북한의 공산당 실체와 평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공산당 비교 구북한 공산주의 독재의 희생, 인권 군사독재시절의 인권 남한 민주화 과정의 이해 구북한 반체제의 역사 구북한 공산주의 역사와 결과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공산주의 독재의 극복문제 한반도에서의 독재와 민주주의 동북아질서재편과 한반도의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탈출과 생존과정 세계가 보는 한반도 한반도의 새로운 도전 사회주의 대탈출 통일의 기수들(기업, 인물, 단체 등) 스포츠는 통일에 어떻게 기여해왔는가 </p>
경제분야	<p> 구북한의 노동사회 동북아경제통합, 새로운 질서의 시작 동북아공동체구축과 한반도의 기여 동북아경제통합의 미래 한반도 통일비용, 통일이익 사회주의 체제변혁의 과거와 현실 남북한 고용구조의 변화 구북한의 노동시장 한반도 통일과 경제이익, 비용 시장경제의 장점과 경제적 불평등 중국의 새로운 패권주의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와 한반도 동북아에서의 영토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의 이해관계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21세기 한반도 번영의 조건 구북한 소유제도 개편방안 </p>

분류	남북통합 일반교육 주제설정
분야별 종합	<p>남북한통합에의 기여(사회단체, 기관, 시민단체, 학생 등 사례) 통일과 심리적 통합 끝나지 않은 통일, 완전한 통일을 향하여 남북한 갈등구조 학교교육에서의 남북문제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비교 남북한방송의 문제 상이한 문화간의 대화 한반도 역사와 왜곡 정부 재정과 세제 통합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 북한지역에서 기업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언어의 이질성 극복 사회주의 문학과 창조성의 결핍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 학교 교육에서의 남북문제 이해 한반도 통일교육에 있어서 교수기법 사회통합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문제 공산주의와 종교문제 DMZ와 생태환경의 관리 경제개발과 환경문제 한반도 관광자원의 개발 북한 군사시설의 상용화 방법과 문제 구북한 지역 실업자 해소와 직업훈련 구북한 행정개편 성과와 문제점 구북한 법제개편 성과와 문제점</p>

Ⅲ.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 통일교육 시스템 분석

1. 인터넷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1) 인터넷 원격통일교육의 필요성 운영방식

1) 인터넷 원격통일교육의 필요성

현재 통일부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통일부의 통일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별도의 통일교육 운영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구축하여 운영한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 통일교육의 내용을 일부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에서 가상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또한 사이버 통일교육 시스템은 통일교육원 자체의 단일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다양한 통일교육 교과목에 대한 수요를 요청하는 교육대상자들에게 제한적인 통일교육 내용을 제공해주는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과목 개설의 네트워크 환경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폭넓은 사이버 통일 교육을 운영하는 데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일괄적인 통일교육대상자 환경을 구현하고, 통일교육원, 교원 단체, 공무원 연수원, 대학 사회 등 전체를 종합하는 통일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통일교육 통합운영시스템과 통합운영사무국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향후에는 자체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하나로 통신 등 우수한 통신 기반 환경을 갖춘 통신사업자를 선정하여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통합운영사업자로서 별도의 서버와 통일교육운영시스템을(LMS)를 구축하여, 통일교육 참여기관이 통합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강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각 통일교육 기관의 사이버 통일교육 환경이 모두 동일한 환경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 시스템의 단계별 발전 사업은 사이버 통일교육 시스템 운영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비하고 교육 시스템 안정화를 기하는 것과, 통일교

육 통합운영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 통일교육 주체의 협의체로 이루어진 정보통신 사이버통일 교육의 운영을 효율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에는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 연수원, 서울시, 부산시 등 각종 지역 교원 연수원, 동국대, 경남대, 각종 사이버 대학 등과 제휴하여 일회성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16주 정도 심층적으로 진행되는 통일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일반 공무원, 교원은 물론이고,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통일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 교육생 및 전문교육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롭게 단기과정, 중기과정, 장기과정으로 분리하고, 나아가 공식적인 학점과 자격증 부여 과정을 도입하며, 통일교육운영시스템을(LMS) 구축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원격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평생통일교육 수행 기관으로서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원격통일교육체제는 집합 교육에 비하여 교육 수용인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 또한,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연수받을 수 있는 체제로서 통일교육원의 집합교육생 이외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통일교육 수행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통일교육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통일교육은 집합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대국민 대상 통일교육체제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이 실현될 경우 남북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혼란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대규모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할 경우, 혹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셋째, 통일교육 강사나 교사에 대한 새로운 통일교육 체제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향군안보강사, 민방위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 지도자, 각급 교원 등에 대하여 원격통일교육체제는 문제해결형 교육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식과, 풍부한 자료, 자유로운 학습시간과 장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향후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원격통일교육 연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면 전체 통일교육 연수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원격통일교육시스템이 가능할 경우 통일교육 과정 및 기관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다. 즉,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과 연계시켜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갖게 된다. 원격통일센터와 연계될 경우 각 원격교육 실시 단체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연수프로그램중의 일부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프로그램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기존 통일교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강사 물색과 연수 교과목 선정의 문제, 전문가 강사의 일정에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애로사항 등을 극복하고, 각계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며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원격통일교육센터 운영방식

현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통일교육원, 시도교육연수원, 대학 및 종합교원연수원, 민간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원격교육 운영방식은 크게 세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각각의 기관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도 교육연수원은 가장 많은 원격연수원의 종류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 교육연수원은 공무원,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집합연수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기관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도 교육연수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대학이나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 또한 집합교육과 원격연수를 병행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업연수원들도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원격연수 부분의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다.

둘째,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운영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일부 내용에 한해서 원격 형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형태이다.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병행 방식은 각각의 집합연수와 원격연수가 별도의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어 연수생들도 각각 다르다. 병행 운영 방식에서 각각의 과정은 완전히 별도로 운영된다. 그러나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의 혼합 운영 방식은 같은 교육 과정에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방식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형태이다. 통일교육원

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집합교육과 일부 교과목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원격교육이 대표적으로 해당한다. 또한 원격연수원으로 지정 받지 않고 있는 4개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셋째, 원격교육만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대학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일부 기업의 사원교육 연수원의 경우 병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나, 중소기업의 원격연수원은 단일 방식이다. 또한 인터넷 방송교육도 원격교육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의 기술발전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확대가 원격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기 원격교육 방식을 고려해 볼 때 통일교육원의 사이버통일교육은 교과목의 일부를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하는 원격교육의 초보형태 내지 일단계 형식으로 평가되며, 실질적으로 원격통일교육센터로 기능 및 역할을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상기 형식을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의 본격적인 원격교육은 사이버대학교의 원격강의 기능과 구성을 갖추고, 교육대상만 특정 교육생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포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기능 확장

사이버 통일교육은 1998년부터 통일교육 정보 제공과 부분적 사이버통일교육시스템 기능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사이버 통일교육은 일방향적 교육전달시스템으로 양방향과 평가시스템, 참여교육생들의 교육내용 습득수준과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함으로써 부분적인 사이버 통일교육 수준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이며, 양방향적인 사이버 통일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격통일교육센터로 시스템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통일교육센터의 구성은 통일교육원 교수, 각 기관단체의 통일교육 관리운영자, 통일교육에 참여해왔던 각종 피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각종 창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종합하여 개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사이버 통일교육 센터의 보완사항

① 학습자 수준 파악 미흡

통일교육원의 집합연수에서는 연수기회가 제한적인 반면, 교수가 교육생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며 그들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통일교육시스템에서 교수는 교육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상호 작용 도구도 비동기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교수와 교육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더욱 열악하다.

② 제한적인 상호작용 형태

사이버 통일교육에서 교수-학습은 핵심 분야중의 하나이다. 사이버 통일교육 시스템에서는 집합연수와 같이 수업자체가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시간에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원래 사이버통일교육도 원격교육의 일종으로 원격교육의 일반적인 특징은 집중적인 수업은 없는 대신 지속적인 수업이 가능하며 상호작용 도구가 다양화되고, 콘텐츠 역할이 증대되며 광범위한 교육생을 운영하기 위한 조교나 보조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기적이며 집중적인 수업이 존재하는 집합연수와 달리 원격교육에서는 실시간 음성 및 영상 컨퍼런스를 제외하고 특정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수업 및 강사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는 수업의 주도권이 교육생에 있으며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통일교육 센터의 원격교육은 대부분 교수자의 음성강의 시스템과 약간의 동영상, 강의내용을 담은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어, 특별히 교육생들이 채팅과 대화방을 이용하지 않는한 교육생은 여전히 수동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도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 오디오 및 비디오 선호도가 교육생에게 앞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교육생과 교수와의 관계나 상호작용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사이버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작용 도구는 게시판, 토론방 등으로 나타나 교수나 교육생간의 상호 작용이 질의응답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이버통일교육의 교수와 교육생간 상호 작용을 위한 1순위 도구는 게시판 형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교수-학습 형태가 실시간 방식보다 비실시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버통일교육은 콘텐츠와 교수의 설명을 통한 학습이 주류를 이루며,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에서는 교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콘텐츠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원 교육생들의 반응도 이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통일교육에 참여하는 실제 교수 또는 강사는 원격 교수-학습에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교수자의 실제 교육생들과의 상호 작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통일교육 체제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상호작용성 부족이 되고 있다.

③ 콘텐츠 업데이트와 확장의 문제

일반적으로 사이버 교육에 사용되는 콘텐츠는 수업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구 및 교재 또는 수업 자료의 총체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류는 음성 또는 오디오, 동영상 또는 비디오, 텍스트, 그림,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이버 교육에서 교육생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콘텐츠 종류는 동영상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콘텐츠 관리는 DB체계에 의해서 관리되어진다. 특히, 지정인가 조건에 DB서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원격연수원에서 DB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특히, 원격연수에서는 콘텐츠가 단순히 교수-학습의 보조도구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교수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업데이트는 단순히 교수-학습 자료를 교환하거나 추가하는 의미보다는 교육과정을 관리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사이버통일교육과 관련되어 가장 큰 당면과제는 통일교육 콘텐츠의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다. 교육생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통일환경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교수와 관련 조직인력, 예산의 부족 등으로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원격 통일교육 시스템으로 확장될 경우도 통일교육 콘텐츠의 다양성과 주기적 업데이트가 가장 큰 해결과제 중의 하나로 등장할 수 있다.

사이버통일교육 콘텐츠는 주별 단위로 업데이트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대학 등에서 사용하는 주 단위 콘텐츠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16주 정도의 장기원격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사이버통일교육은 길어야 2주이며, 단기적인 통일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통일교육이 단기적인 교육에 집중된다고 볼 때 통일교육콘텐츠도 매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매일내용 수정이나 보완의 의미보다 교육내용 관리 차원에서 교육생에게 일별로 진도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콘텐츠 업데이트 체제는 학습 진도를 정확히 파악하며, 평가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별로 통일교육 콘텐츠 업데이트는 학습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며,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반면에, 현재와 같이 장기적인 통일교육 콘텐츠 업데이트는 실제로 학습자 진도체크도 어려우며, 교육생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육욕구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일년단위 콘텐츠 업데이트 및 관리 인력이 필요 없으므로 경제적이며 학습자들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많은 내용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통일교육 콘텐츠 관리 방식 개편

① 관리방식 개선의 필요성

현재 통일교육은 정부, 시민단체, 교원단체,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만들어진 통일교과목 및 교육매체도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교육 내용과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의 기능도 각기관의 통일교육 콘텐츠를 통합할 기능이 없이, 독립적이고, 정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기능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독립적인 통일교육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서는 주 콘텐츠 관리자가 모든 통일교육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과 자체 운영하는 웹상에서의 업로드 및 수정/삭제 권한을 갖지만, 통합적인 온라인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여기서는 각 통일교육 교과목의 담당 교수 또는 참여강사들이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의 보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통일교육 콘텐츠 관리 도구 및 모듈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통합적인 원격통일교육센터가 구성될 경우 기존 사이버통일교육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 전달도구에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 끌어다 놓기(Drag & Drop) 방식으로 통일교육 콘텐츠 목차를 위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통일교육 콘텐츠를 패키징하지 않아도 자동 내용 분석기(html parser)가 내장되어 관련 파일을 모아서 패키징해줄 수 있다. 일반적인 통일교육 관련 웹 콘텐츠와 동영상 파일을 자동으로 분리하여 동영상 서버에 업로드해준다. 핵심적인 시스템 보안을 침해하지 않고 다수의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사용자에게 콘텐츠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일반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교육과 대학간 컨소시엄을 이룩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대학 등에서는 원격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온라인 원격통일교육이 진행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격사이버교육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오류를 빈번하게 일으킨다. 둘째, 내장된 자동 분석기가 복잡한 콘텐츠를 잘 분석하지 못하여 업로드시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파일이 생긴다. 셋째, 서버에 올라간 콘텐츠와 개인 PC에 남아있는 콘텐츠의 물리적인 구성이 잘 대응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 넷째, 콘텐츠를 한 번 구성한 후에 중간에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것이 힘들다.

원격통일교육센터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콘텐츠 관리 모듈은 원격통일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모듈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자동분석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패키징하고자 하는 폴더와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파싱 오류를 제거한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통일교육 콘텐츠 관리모듈을 웹기반으로 변화시켜 종합적인 LCMS(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한다.

이미 기존의 사이버 대학들은 이러한 기능을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만큼 원격통일교육센터가 구성될 경우 개발회사 및 기존 프로그램의 협력체제구축을 통하여 공

동이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이버대학 원격강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콘텐츠의 중간 삽입과 수정이 용이하다.

둘째, 지역 PC와 통일교육 콘텐츠 서버간의 폴더 구조가 잘 대응되어 쉽게 통일교육콘텐츠의 실제 구조를 파악하고 세밀하게 업데이트하기가 용이하다. 반면에 분석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시부터 패키징에 신경을 써야 하고 어떻게 패키징할 것인지 파일마다 지정을 해주어야 하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② 전문가 통일교육 과정 개설 지원

원격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현재까지 통일전문가에 대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통일전문가에 대한 사이버 원격통일교육은 여전히 통일교육원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지닌상태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원격통일교육센터로 확대개편, 운영될 경우 전문가 통일교육은 실질적으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광범위한 대상과 지역을 포함하는 통일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북한학 관련 대학 과정은 참여대학 재학생과 일반인에게 서로 다른 수강신청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재학생은 별도의 과금 절차가 없이 바로 수강승인이 되고, 일반인은 과금 확인이 된 후에 수강승인이 되도록 하며, 각 과목의 정원도 두 집단별로 다르게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가 통일교육과정, 일반인 과정, 대학 과정과 구분하여 차별화되는 수강신청 및 수업운영 규칙을 적용한다. 원격통일교육센터에 대학이 참여할 경우 대학의 엄격한 학기제를 벗어난 운영도 가능하도록 한다.

③ 커뮤니티 기능 지원

기존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교육생, 오프라인 통일교육생, 통일교육 수강 교원,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과 일반인들은 스터디그룹, 동아리 등을 통해서 학습, 통일정보교환과 의사 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이버통일교육 사이트 구조를 개편하여, 다음과 같은 사이버통일교육 공동체 공간을 마련한다.

표24. 통일교육 공동체 사이트의 공간 마련

구분	설명
열린공간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게시판 열람, 맞보기 강좌, 게시판 글쓰기 등이 가능한 영역
나의공간	로그인한 후에 해당 통일교육 수강생에게만 관련된 기능들(교육신청 및 취소, 개인정보관리, 편지/쪽지 등)
학습공간	나의 공간에 들어간 이후에 교육중인(또는 강의중인) 통일교과목을 선택하여 입장했을 때 해당 과목에 종속적인 기능(예: 시험, 과제, 학습내용, 토론, 질의응답, 성적 등)들로 이루어진 영역
모임공간	가입된 통일관련 공동체회원끼리 특정한 주제, 또는 취미/선호에 의해 그룹을 만들고 회원들끼리 통일 및 남북관계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영역

통일교육 공동체 모임공간 관리자에게 지원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현한다.

- 첫째, 통일교육 게시판 관리 : 공지사항, 자료실, 포럼 형태의 통일관련 게시판 생성, 관리 및 회원 등급에 따른 사용 권한 부여,
- 둘째, 회원 등급 관리 : 모임에 가입한 회원을 등급에 따라 시삽(sysop), 정회원, 부회원 등으로 차별적인 권한 부여 기능,
- 셋째, 모임 초대 : 모임의 회원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
- 넷째, 폐쇄 : 모임의 시삽은 모임을 폐쇄할 수 있다.
- 다섯째, 자기 정보 관리 : 자기의 개인 정보를 모임 내의 다른 회원에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3단계로 조정

아래는 사이버 대학의 경우 개발된 모임공간의 첫 화면 및 관리자 화면의 예제인데 원격통일교육 시스템도 이러한 모임공간의 설계를 통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통일관련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3. 원격교육대학 모임공간 초기화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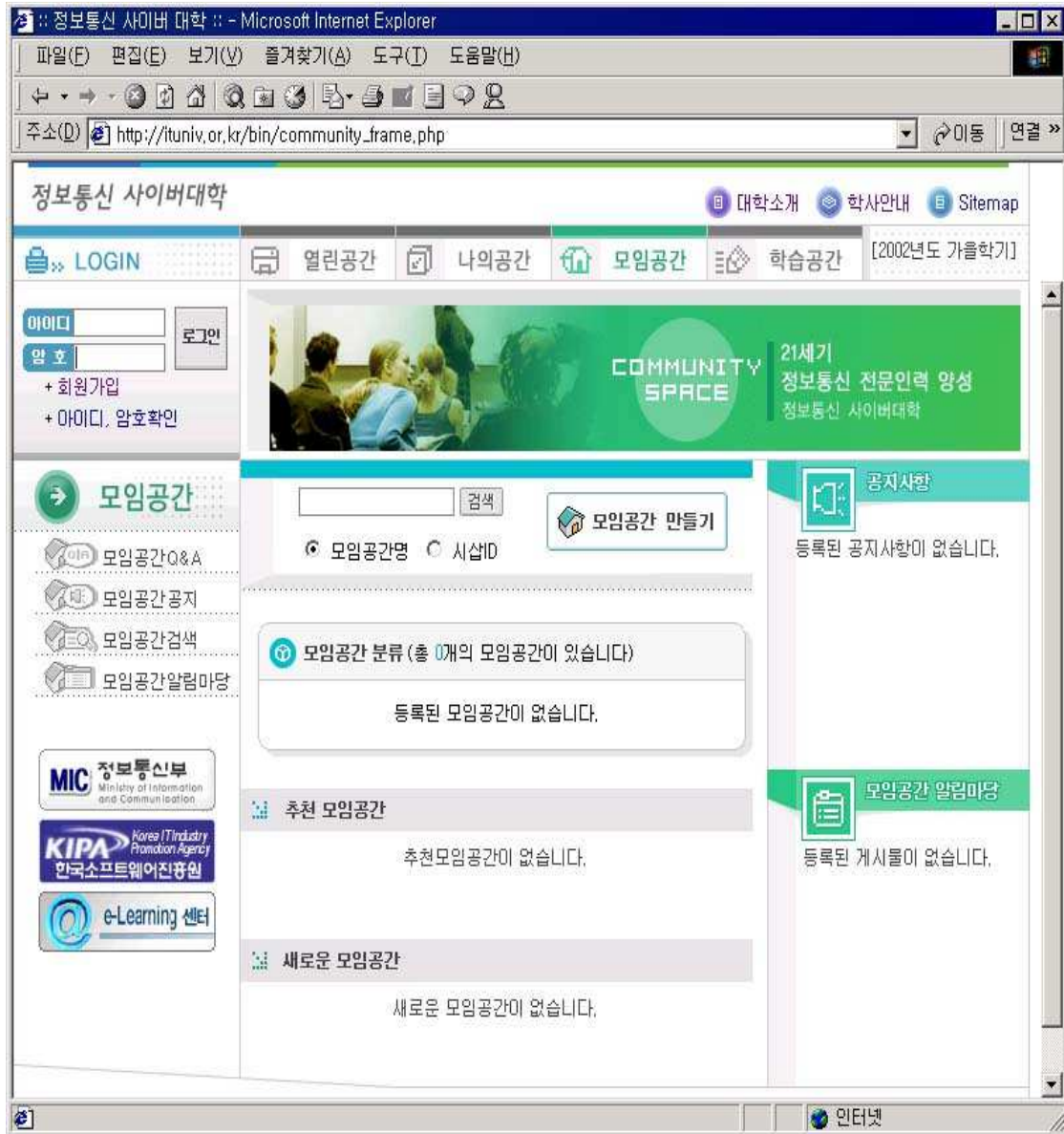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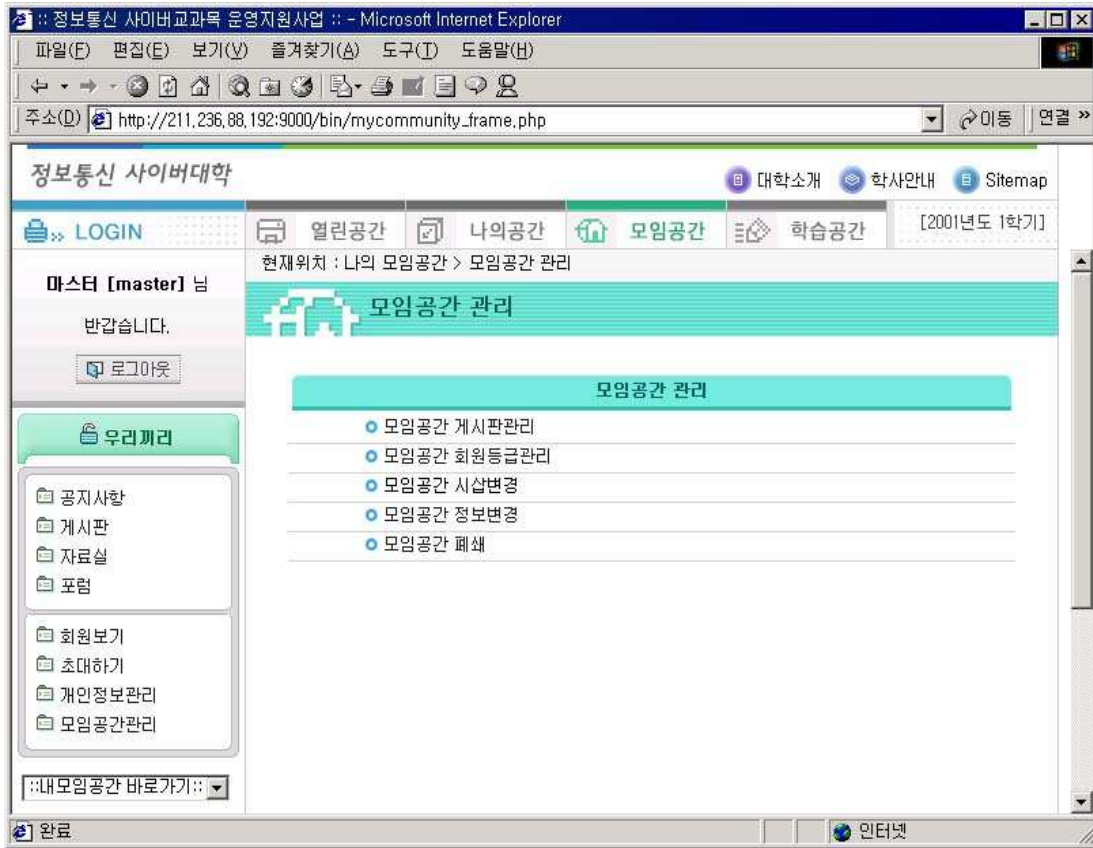


그림4. 원격교육대학 모임공간 관리자 화면 사례



④ 통일교육 관련 학습 관련 기능

통일교육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한 원격통일교육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학습관련 기능이 필요하다. 첫째, 실시간 시험 응시 도중에 사용자의 PC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중간답안 저장 기능, 재시험 기능 등을 마련하고, 단답형 문제의 자동채점 기능의 정확성을 지능적으로 준비한다.

둘째, 토론 출제자가 토론 참여자들의 주제별 토론 참여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시험, 과제 등의 개별 성적 평가 요소가 반드시 100점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주지않고, 통일교육이 끝날 경우 통일교육 담당 교수가 임의의 점수를 더하거

나 빼서 성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꺼번에 여러 교육생의 성적을 좀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한다.

넷째, 예전에 관리자만 출제 가능했던 것을 통일교과목 담당 교수가 자기 과목의 교육생, 수강생, 일반인들에게 설문을 출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관식 설문 기능도 첨가한다.

그 밖에 통일교육 담당과목과 관련된 강의 계획서 관리 등 장기간 학습 관련 기능들의 편의성을 보강하고 사이버통일교육 상에는 없는 기능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⑤ 디자인 및 기타 기능

원격통일교육센터가 웹페이지를 구성하여 수많은 기관의 공동참여나 다양한 수강생의 통일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교과목을 배치하게 될 경우 통일교과목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첫 웹페이지에 통일교과목 목록이 과다하게 드러나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원격통일교육 과정별(단기, 중기, 장기 혹은 교육생 특성별 분류에 따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과다한 프레임 사용을 고려하며, 각종 게시판의 레이아웃 등을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게시판의 첨부 파일 관련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한글 이름을 가지거나 동일한 이름을 갖는 첨부 파일을 올려도 PC 환경과 상관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고, 파일 시스템의 위치가 각종 교육생과 사용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원격통일교육 웹상의 어떤 통일교육 공간(영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상단의 공간을 선택하는 툴바를 고정시켜놓아 공간 사이 이동을 안내하고, 그 밑으로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항상 잘 드러나도록 표시하며, 해당 공간의 하위 메뉴가 항상 배치되도록 일정공간을 고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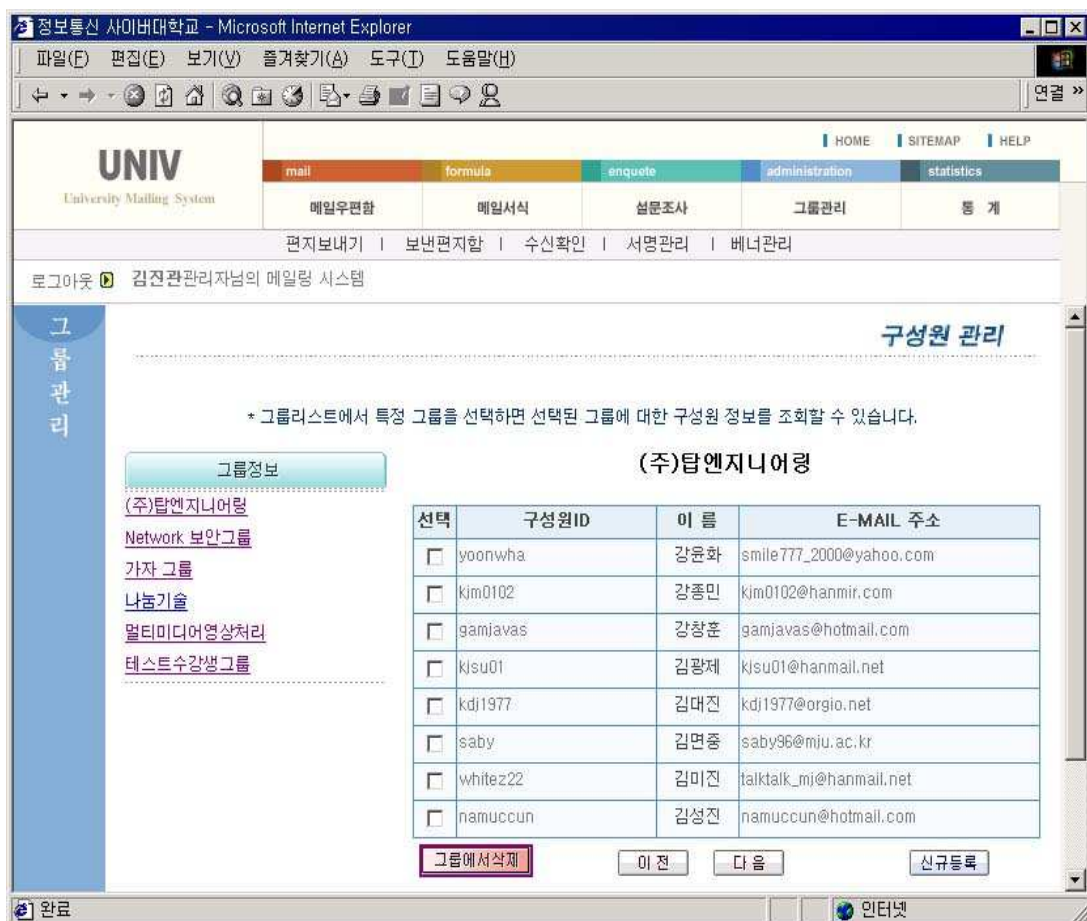
⑥ 메일링 시스템

현재 사이버통일교육은 로그인한 교육생끼리 이메일 시스템을 통하여 편지나 쪽지를 주고받는 기능은 없다. 만약에 외부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려면 일반 메일 프로그램(예: 아웃룩)과 외부 메일 발송 서버(SMTP)를 이용해야 한다.

통일교육 교과목을 관리하는 통일교육원 교수는 사이버통일교육과 관련되어 수업 운영상 출석률이 낮은 교육생에게 출석을 독려하거나, 시험/과제를 공지하거나, 과제와 요청사항에 응시하지 않은 교육생들에게 또 다른 공지사항을 안내할 때에 외부 메일을 보내는 것이 내부 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온라인 통일교육 센터의 교육생이 교육수강신청을 했을 때에 수강신청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교육생의 개인 메일로 보내주고,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등 시스템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자동으로 e-메일을 보내주면 온라인 통일교육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 교육생들에게 교육과정 일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림5.원격교육대학 메일링 시스템 교수화면 사례



원격통일교육 메일링 시스템은 학사관리 시스템(LMS)과는 독립적인 모듈로 개발하고, 메일 발송 통일교육 대상이 기존 통일교육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생 중심이며, 메일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통일교육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교수들 중심이므로, 기존 사이버 통일교육 시스템과 통일교육 수강생, 일반인 및 대학생, 교원 등을 수강과목 정보와 연계하도록 만들고, 통일교육 원격강좌 시스템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도 메일링 시스템에 정보가 전달되어 자동 메일링 및 수동 메일 수신자 그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일원격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메일링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25. 메일링 시스템 주요 기능 모듈

기능구분	주요 기능
메일링	특정 통일교육가입자/그룹에 메일 전송 기능 메일 수신 확인, 예약 전송, 재발신 기능 등
통계 보기	실시간 메일링 전송 통계 현황 시간별, 가입자별, 메일별, 발송자별 통계 처리, 리포트 기능
서식관리	공통 서명 및 서식 관리 기능
설문 조사	메일을 이용한 통일교육생 대상설문 조사 기능 설문 결과 리포팅 기능
수신자 관리	그룹 생성 및 그룹 구성원 관리 단기, 중기, 장기 통일교육생, 학기별 교육생 등 그룹으로 분류하여 등록 가능
시스템 관리	프로세스 상태 관리, 시스템 환경 설정, 로그 관리

⑦ 채팅방 구축

기존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채팅방은 안정성, 속도, 디자인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원격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온라인 통일교육생들의 채팅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화이트 보드 공유와 같은 유용한 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며, 채팅방의 안정성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있다.

원격통일교육의 채팅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채팅과정에서의 안정성 강화가 중요하며, 채팅방을 통일교과목별로 분리하고, 과목 내에서도 하위 그룹을 생성할 수 있

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원격통일교육 설비시스템

1) 하드웨어 증설 및 시스템

① 하드웨어 증설

원격통일교육을 설립하여 시작할 경우 온라인 통일교육관련 교육생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 통일교육 등록시 순간 동시접속자가 수백명에 달할 수 있다. 이 경우 DB 서버의 메모리 사용률이 99%까지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선착순에 의한 통일교육 수강신청자 선발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가능하다. 따라서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하드웨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격통일교육에 있어서 특정기간에 공무원, 교원, 대학생, 나아가 일반인들의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이 폭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B서버의 증설과 메모리 확장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필요한데, 웹서버(Apache)의 파라미터 조정, DB 서버(Oracle) 파라미터 조정, 쪽지 등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의 주기 조정이 요청되며, 교육생의 통일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쿼리문 최적화 등이 설계되어야 하며, DB 서버(Oracle)의 버전도 업그레이드해나가야 한다.

②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은 메인 대용량 웹서버, 채팅 전용 서버, 동영상 서버 (각각 Windows Media Services와 Real Server를 탑재할 필요), 클러스터 등으로 구성되고, 외장형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DB 서버와 메일 발송 전용 서버 등으로 구성된다. 메일서버는 관리자나 교수가 교육생들에게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의 하드웨어 시스템과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원격통일교육 기능이 강화될 경우 하드웨어 사양의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6.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하드웨어 사양

번호	서버명	제조사	모델명	CPU	RAM	HDD
1	DB서버	SUN	Enterprise 3500	400MHz×4개	1GHz×4개	18.6G×4개 36.4G×2개
2	Web서버	Compaq	PLT ML370 G3	2.8GHz×2개	1GHz×4개 256MHz×2개	73G×4개
3	VOD서버	Compaq	PLT 3000	600MHz×1개	1.5GHz	9.1G×3개
4	방화벽	SUN	Ultra5	260MHz×1개	128MHz	8.1G

표27. 사이버 대학 하드웨어 사양 및 시스템(사례 1)

구분	하드웨어	OS	주요 소프트웨어
웹서버	SUN E3500	Solaris 2.6	Apache 1.3.26 PHP 4.2.2 메디오피아 LMS
채팅서버	SUN E3500	Solaris 2.6	Apache 1.3.19 PHP 4.0.4 JDK 1.3 채팅 서버
DB 서버	SUN E220R * 2 StorEdge A1000	Solaris 2.6	Oracle 8.1.6 Veritas Cluster Server
VOD 서버(1)	Compaq P5500R	Windows NT 4	Real Server Professional
VOD 서버(2)	IBM Netfinity5000	Windows NT 4	Windows Media Services 4.1
메일서버	SUN E450	Solaris 7	Apache 1.3. SMTP 서버 메일링 백/프론트 시스템

③ 논리적 서비스 구성도

원격통일교육에서 제공될 시스템 서비스는 웹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메일링 서비스, 채팅 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웹서비스는 LMS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 서비스이며, 이 서비스 중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나 전문가 그룹이 쉽게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 모듈이 교수의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은 동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매우 시급한 과제 되고 있다. 채팅 서비스

와 메일링 서비스는 본 웹서비스와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각각의 웹모듈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동영상 서비스도 Windows Media Services와 Real Server 서비스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원래의 웹 모듈과는 분리되어 작동될 필요가 있다.

원격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방법은 대부분 자체 개발이며, 36%정도의 기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원격연수원의 인력으로 운영시스템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은 원격교육 운영 시스템의 낙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비용과 교육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잘 고려하여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의 개발과 관리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격교육 운영시스템의 지원기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분야는 음성 및 문자 방식의 컨퍼런스 기능이며 학습자의 학습 경로를 분석하는 분야는 대부분의 운영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 경로 분석은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을 지향할 수 있어 단순히 지필 평가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의 학습자 경로 추적 기능은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4) 원격통일교육 운영 및 조직

1) 연수시간

오프라인 통일교육의 강의 시간은 강의분량과 경계가 명확하다. 교수자와 교육생이 일정한 장소에서 실제 정해진 오프라인 시간 동안 상호 작용을 하는 시간을 말한다. 하지만, 원격통일 교육은 제한된 시간 개념이 극히 미약하다. 그것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지 않으며 교수-학습 방식이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상이하며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원격 통일교육에서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간 화상 회의(Realtime Video-Conference)이외에도 비실시간 비디오 강의, 실시간 음성 회의, 콘텐츠를 통한 학습 등 학습 형태가 다양하며 집합교육과 같이 각각의 학습 형태가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시간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격교육기관의 경우 원격 연수에서 1시간 연수의 의미에 대해 콘텐츠와의 상호 작용 30분, 나머지 20분은 연수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 시간으로 구성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원격연수원에서 콘텐츠 개발 단위를 30분 기준으로 제작하여 탑재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원격기관에서 20-30분 정도의 스트리밍 비디오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콘텐츠와의 상호작용 50분을 1시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기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인력구성

① 원격통일교육 담당전문교수 그룹

현재 통일교육원은 교수 또는 외부전문가 집단이 통일교육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다. 내부 교수가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나 혹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채용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격교육의 인허가 규정상 전임 교수의 의무적 배치를 인가규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원의 인적구성으로 볼 때 인허가 과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격통일교육의 인적구성은 해당 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고 교육이 실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생의 특성과 참여여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인력구조 형태로는 원격통일교육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합적인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임교수, 조교나 튜터, 콘텐츠 개발담당자가 일정인원 이상 존재해야 한다.

통일교육원이 본격적인 원격통일교육을 실시하게 될 경우 원격통일교육 인력 구조가 유동적일 수 있는데, 이는 원격통일교육 인원이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격통일교육은 교육생의 숫자를 원격교육 시스템이 허락하는 한 대규모로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동적인 원격통일교육 학습자 구조 속에서 상시근무자의 비율을 너무 높이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임시직을 적정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통일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원내 교수와 외부전문가를 결합하는 현재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외부전문가 중에 원격교육에 필요한 원격강의용 콘텐츠를 구성해보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원격통일교육 강의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격교육 운영 경험을 지닌 통일교육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오프라인 통일교육 담당 외부전문가를 물색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원격통일교육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풀을 확보만 해놓을 경우 오프라인 통일교육 동원체제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용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원격통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원격통일교육에 적합한 콘텐츠를 인터넷 환경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콘텐츠 작성, 관리, 업그레이드 인력운영도 교수요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동부분의 인력도 정규직과 임시직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격통일교육 콘텐츠의 신규 교과목별 작성과 관련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만들어진 콘텐츠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수정보완하는데에는 일정수의 인력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격통일교육이 본격화되어 신규교과목이 많아지는 경우, 전문콘텐츠 작성기관이나 콘텐츠 기획, 설계, 제작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한시적으로 계약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기존 교과목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은 정규직을 통해서 수행하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② 시스템 운영자 그룹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 운영, 모니터링하며, 외부동작정보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전담 운영자 1명과 주말과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오퍼레이터들이 기본 인력이 된다.

③ 응용 프로그램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 관리자는 원격통일교육 사무국에서 직접적으로 응용 프로그램(LMS, 채팅, 메일링, 동영상 서버)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원격통일교육 참여자들의 요청사항(IP 등록, 서버 장애 신고, 응용 프로그램 오류 정정, 계정 등록)을 해결하며, 원격통일교육 사무국 운영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운영 방향을 결정(신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결정, 보안 정책 조정 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추가로 외주 개발업체(LMS, 메일링, 채팅)들의 요청사항(미들웨어 설치 등)을 수렴하여 시스템 운영자 그룹에게 전달하고 중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④ 원격통일교육 사무국 운영자 그룹

원격통일교육 사무국 운영자 그룹에서는 시스템에 직접적인 작업보다는 응용 프로그램 관리, 각종 통계 처리, 교육생의 요구사항 수집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수집된 요구사항은 응용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전달되고 그것은 다시 개발업체나 시스템 운영자 그룹으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다.

3) 연수비용

원격통일교육이 본격화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통일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이는 통일교육대상자를 무한정으로 확대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원격통일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는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이 불필요하며, 많은 수의 연수생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적 관점에서 원격교육체제는 경제적이다.

반면, 원격통일교육은 교수-학습의 일부 또는 상당 비율을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의존하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 및 유지비용이 집합연수에 비하여 많이 지출된다. 즉, 원격통일교육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회선 사용료,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교육생 지원 등의 요소가 집합연수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콘텐츠 개발과 업데이트에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투자할 경우에는 교수와 교육생들과의 상호 작용이 감소하게 되어 원격통일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전체 원격통일교육의 운영비용을 콘텐츠 개발비용에 과다하게 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수 등의 인적 자원 투자에 소홀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격통일교육이 실시된 경우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분야는 인터넷 환경에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유지 보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의 사이버통일교육 체제가 초기 단계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격통일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을 콘텐츠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화면을 캡처하여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그림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이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 실제로 교수자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원격통일교육시스템은 집합연수에 비하여 교육생의 참여과정에 있어서 변동이 클 가능성이 높다. 통일교육원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연수에서 교육생은 일반적으로 고정적이다. 이에 비해 원격통일교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생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교육생을 지원하고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교수 인원에 유연성을 유지할 경우 원격통일교육 수강생을 무제한 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원격통일교육 진행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고정비용은 각종 시설·설비 운영비용 및 콘텐츠 개발비용이며, 가변 비용은 교육 인원 증감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이다. 부대비용은 교육생과 교육생 관리, 지원 및 학습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원격통일교육에 소용되는 비용 분야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초기 투자비용 필요, 통일교육생 연수 간접 경비의 축소, 시스템 도입/유지/보수비용의 증가, 콘텐츠 개발/업그레이드 비용 상대적 변화, 물리적 연수 공간 운영비용 축소, 인력 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원격통일교육은 오프라인 통일교육에 비하여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통일교육은 서버가 선택사안이나 원격통일교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서버 운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격통일교육 초기단계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의 경우에도 원격통일교육에서는 교육내용 일정 비율이 디지털화되어 서버에 탑재되어 있어야 하나, 오프라인 통일교육에서는 디지털화는 선택사항이며, 교육과정 전체가 사전에 학습자에게 공개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원격통일교육의 초기투자비용은 오프라인 통일교육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미 통일교육원은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통일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기투자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원격통일교육은 교육생의 교육과 관련된 간접비용이 축소된다. 오프라인 통일교육과는 달리, 원격통일교육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통일교육 형태가 이루어지므로 교육생의 간접 연수비용은 상당히 축소된다.

셋째, 원격통일교육 체제에서는 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원격통일교육에서 서버시스템은 필수 사안이다. 도입은 초기비용에 해당하지만, 이후 관리를 위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회선 관리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통일교육 학습체제를 24시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 서버시스템 관리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동부분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존재로 인하여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다.

넷째, 원격통일교육은 물리적 교육공간 이용비용이 감소된다. 오프라인 통일교육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설비를 상시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통일교육 공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건비적 경비, 시설 유지보수 경비 등이 축소되거나 삭제된다.

다섯째, 원격통일교육에서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은 오프라인 통일교육 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원격통일교육의 교수-학습은 교수자 및 콘텐츠 또는 교육생간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과목당 교수-학습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상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인력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게 되어 부대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원격통일교육에서는 일부 통일교육 콘텐츠에 한하여 교수자를 대체 또는 보완함으로써 교수 인력의 확충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오프라인 통일교육의 경우 필수적으로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실제 교수-학습에 투자되는 비용이므로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비용을 교수-학습 비용으로 대체하여 비교할 수 있다.

여섯째, 원격통일교육은 인력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원격통일교육은 24시간 상시 학습체제이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학습시 나타나는 질의응답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교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서버시스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이외에 상시학습체제에 대비한 운영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반면에, 오프라인 통일교육에는 교육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교육생의 질의응답을 강의담당 교수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4) 외부시설에 아웃소싱

원격통일교육 체제가 디지털 정보화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지만, 반드시 서버시스템 독자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 및 IDC센터의 위탁 운영 등으로 초기투자 비용을 최소화 한 후에 다른 분야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서버시스템 및 설비 분야를 검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며 투자의 위험 요소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드웨어 시스템 분야에 대한 과다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원격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수 및 학습자 교육에 필요한 제반투자에 제약을 받게 된다. 원격통일교육

체제의 장점은 다양한 피드백 체제 및 상호작용 과정에 있으므로 이를 운영 관리하는 인력이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 설비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에서 절감된 비용을 실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체제 운영비용에 투자한다면 보다 양질의 원격통일교육체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원격통일교육의 성공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통일교육이 본격화 될 경우 기존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설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기준을 가지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

표28.아웃소싱 판단 기준

항목	판단 기준
대상업무 / 기능	대상업무 또는 기능이 기업의 핵심 역량 또는 기업비밀에 해당 여부
보유역량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보유 여부
전문인력	전문 인력 보유 여부
구축 / 운영비용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아웃소싱 비교
업무 효율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	시스템 구축 및 업무체제 정립에 소요되는 시간
운영 노하우	업무 및 시스템 운영 노하우 보유 여부
전문 업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 유무

자료 : 유인출(2001)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 원격연수를 처음 운영하게 되는 경우 서버시스템 및 각종 부대설비는 최대한 외부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 서버 및 각종 설비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콘텐츠 및 교육과정 운영 인력확보에 중점 투자할 필요가 있다.

(5) 운영시스템 고려사항과 운영전략

1) 운영시스템 고려사항

원격통일교육 운영 시스템은 교수, 교육생,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어야 하며,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기능을 지원하는 교육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 필요하다. 통일교육관리시스템은 교육대상의 등록, 교육신청, 교육과정 관리, 테스트, 평가 등 원격통일교육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격통일교육 운영 시스템은 교육생을 위한 교육수단, 시스템 관리 수단, 운영시스템의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학습관련 정보의 취득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기존의 관련 시스템과의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은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과 통합하여 확장, 개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운영시스템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현재 사용중인 사이버통일교육 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원격통일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사용중인 사이버통일교육센터나 새로이 확대될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적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 원격통일교육과 관련된 요구 분석과 목표 정립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 학습 목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별 교육생과 단체 교육생에게 부합되는 복합적인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어야 한다. 즉 교육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실시간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통일교육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통일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의 다양한 경험을 제시할 수 있고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다채로운 흥미 요소들을 포함한 운영시스템이어야 한다. 즉, 통일관련 퀴즈, 게임 등의 다양한 흥미 요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일교육 학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운영시스템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수와 교육생의 질의 응답, 학습

관리를 통해서 학습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㉞ 온라인 통일교육 공동체나 모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어야 한다. 즉, 교육생과 교수, 남북문제 관련 전문가 집단, 네티즌 등과의 정보 및 학습자료 교류를 제공하며, 나아가 한반도 관련한 세계적인 웹 사이트들과 연계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㉟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교육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통일교육의 효과와 비용 등도 분석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어야 한다. ㊱ 단순한 통일교육 콘텐츠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 관리나 컨설팅이 가능한 운영시스템일 경우 보다 효율적이다. 개별 통일교육의 과정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그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학습자나 교수자의 경력, 혹은 인적 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기능은 이미 상기사항중의 상당수는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격통일교육 기능의 개편 및 확장은 매우 용이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원격교육 운영시스템 고려 사항중 원격교육에 가장 발전적인 운영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버 대학들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웹 브라우징, 동기학습지원, 자학 학습지원 영역과 교육관리지원 여부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29. 원격통일교육 운영시스템 선정시 고려사항

고려 사항	세부 사항	사이버통일 교육센터	
플랫폼 요구 사항	서버 플랫폼	서버의 종류, 하드웨어 요구사항,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0
	클라이언트 플랫폼	클라이언트의 종류 및 사양	0
	가격	공급가격, 유지관리 비용, 기술지원 비용	0
	패키지 제약 사항	교육과정의 수, 수강자의 수, 동시접속자 수, 강사의 수	보완
	지원 여부	기술적 지원여부, 사용방법에 대한 연수 지원 여부	0
학습자 지원 여부	웹 브라우징	접근 의 용이성 및 사용의 편리성, 멀티미디어 자원의 지원 여부, 북마크 기능 지원 여부, 보안 수준	보완
	비동기 학습 지원	이메일 , 쪽지 보내기, 게시판, 뉴스 그룹	보완
	동기 학습 지원	문자 채팅, 음성 채팅, 화상 채팅, 화이트보드, 어플리케이션의 공유가상 회의, 화상회의	보완
	자학 학습 지원	자기 테스트, 진도 관리, 컨텐츠 검색, 학습 동기 부여,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보완
교육 관리 지원 여부	교육과정 지원	교육과정 계획, 관리, 모니터링 기능	보완
	강의 지원	강의 설계, 정보 제공, 테스트 기능	0
	평가 및 정보 관리	온라인 평가, 기록관리, 분석 및 트래킹	보완
	학습 자원관리	교육과정 관리, 지식 축적 및 공유, 동기 부여	보완
	교육관리	설치, 등록, 인증, 서버 보안, 자원 모니터링, 원격 접속, 장애 복구	0
	지원	학습자 지원, 교수자 지원 기능	보완

2) 원격통일교육 운영방법

① 컴소시업의 운영전략

현재 통일교육원은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온라인 통일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다. 온라인 통일교육은 원격통일교육의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주요 기능의 보완과 다양한 통일 교과목의 콘텐츠 구성과 오프라인 통일교육 내용의 디지털화 등 몇 가지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매우 수준높은 원격통일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원 주도로 원격통일교육이 진행될 경우 교육생의 확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의 확대, 우수한 통일교육 콘텐츠의 확보, 통일교육 전문가 그룹의 참여 촉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 단체들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원격통일교육의 초기형태인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육원이 원격시스템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인터넷 상에서의 교육기관으로 콘텐츠원격연수원을 운영하는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 및 종합연수원, 각종 통일관련 민간 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통일교육원과 교육생 확보, 통일관련 콘텐츠 및 정보의 공동제작 및 활용 등과 관련되어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② 원격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한국에서 개설되어 운영중인 원격교육 연수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허가받은 기관수는 2001년 12월 현재 39개이며, 향후에도 교원 원격연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원의 경우 교원들에 대한 통일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데, 원격통일교육센터를 구성하여 교원원격연수원과 연계시킬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12월 현재, 16개 시·도 교육연수원 중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교육청 소속의 12개 교육연수원에서 원격연수원 보고·수리 과정을 통하여 교원 원격연수를 수행하고 있다. 4개의 교육연수원은 원격연수원 지정·인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교원 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된 기관으로서 지역 내의 교원연수를 연수과정의 일부를 원격으로 실

시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대학과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39개 교원 원격연수원이 선정된 상태이다.

시·도 교육연수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하여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원연수에 대하여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도 교원연수원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관심 분야에 대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원격 통일교육과 연계하여 통일교육원의 원격통일교육 센터에 통일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원도 원격교육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많은 통일교육생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수, 공간, 시간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교원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표30. 교원원격연수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종합교원연수원 및 시도 교육연수원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http://www1.cne.ne.kr/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	http://tcie.knue.ac.kr/sub/sub_4.asp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http://cyber.pttc.pusan.kr/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http://www.deti.or.kr/cyber/fra.htm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http://cyber.ketis.or.kr/
	대전광역시 교육연수원	http://remote.tenet.or.kr/Home.asp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http://online.ueti.or.kr/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http://cyber.danjae.org/
	경상북도 교육연수원	http://lspace.gbeti.or.kr
	경상남도 교육연수원	http://www.knky.kyongnam.kr/cyber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http://cyber.sadonet.or.kr/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http://www.jeti.or.kr/anytime/
	강원도 교육연수원	http://cyber.ktti.or.kr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	http://www.yulgog.org/main/

표31. 민간 기관의 원격연수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공사 및 민간기관	한국통신	http://teacher.kt.co.kr/
	LG 인화원	http://teacher.lg.co.kr/
	(주)에듀미디어	http://teacherlab.co.kr/
	(주)크레듀	http://teacher.credu.com/
	(주)캠퍼스21	http://www.campus21.co.kr/home/at_campus21/
	사랑의 전화 복지 재단	http://edu.counsel24.com/
	(주)아이빌소프트	http://teacher.onstudy.com/main/main.asp
	(주)유니텔	http://teacher.unitel.co.kr/
	(주)영상미디어교육원 이엔에프	http://www.2sir4sir.co.kr/
	이일코리아	http://www.21korea.co.kr/

표32. 대학 부설 원격교육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운영 상태
대학	공주교육대학교	http://www.kongju-e.ac.kr	운영하고 있지 않음
	광주교육대학교	http://202.31.152.12/eetc/index4.htm?loc=1	운영하고 있지 않음
	전남대학교	http://www.dec21.net/	운영중
	전북대학교	http://e-learning.chonbuk.ac.kr	운영중
	공주대학교	http://cyber.kongju.ac.kr/	운영중
	한국방송대학교	http://cyber.knou.ac.kr/	운영중
	고려대학교	http://edugrad.korea.ac.kr/kyowon/	운영 준비중
	숙명여자대학교	http://snow.sookmyung.ac.kr/fme_pro.htm	운영중
	이화여자대학교	http://www.ewhaedu.org/	운영중
	한양대학교	[별도 홈페이지 없음]	운영하고 있지 않음
	조선대학교	http://www.chosun.ac.kr/~cyberedu/	운영중
	호남대학교	http://teacher.honam.ac.kr/index.php3	운영중
	울산대학교	http://cyber.ulsan.ac.kr/	운영 준비중
	경남대학교	http://www.kyungnam.ac.kr/knu_home/member_home/cyber/	운영중
	경북외국어 테크노대학교	http://210.178.102.8/	운영하고 있지 않음

대학 및 종합교원연수원도 통일교육원의 원격통일교육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통일교육 과목을 교양강좌로 운영하고 있다. 원격통일교육이 가능할 경우 이들 대학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통일교육을 특화하고 있는 통일교육원 차원에서 대학의 통일강좌를 주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통일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원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많은 대학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되어 대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적극적이고, 젊은 층의 경우 사이버 원격교육 방식에 적극적인 참여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원격통일교육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사이버 대학도 원격통일교육의 좋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활동중인 각종 사이버 대학은 원격교육 방식의 가장 발전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노하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의 컨소시엄은 사이버 대학 참여대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의 발전된 원격교육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사이버대학들의 경우 다양한 교양과목의 마련이 필수적인데, 원격통일교육을 통하여 남북관련 원격교육 과목이 제공될 경우 상호간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남북관계를 다루는 민간단체들과의 통일교육 공동 참여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민간단체들은 웹사이트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오프라인 통일교육을 비정기적 모임을 통해서 실시해오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이 이들 민간단체와 통일교육 컨소시엄을 구축할 경우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남북관계 상황과 통일관련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 동시에 민간단체를 콘텐츠 제작에 참여시킴으로써 통일 콘텐츠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중심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다.

③ 원격통일 교육 사무국 역할 강화

원격통일교육 사무국은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의 입장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연수원, 시민단체, 대학 등 참여기관들의 통일된 의견 집중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원격통일교육과 관련된 각종 회의 개최, 온라인 통일교육 일정 수립, 통일교육 콘

텐츠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 원격통일교육운영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원격통일교육 사무국의 역할을 확장하고, 참여한 각종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 통일교육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해당통일교육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원격통일교육 참여 기관 협의회

원격통일교육은 통일교육원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원격교육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며, 교원연수원, 공무원연수원, 대학 등 각종 단체,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다. 통일교육원이 주체가 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현재의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온라인 통일교육을 결합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이 되며, 참여하는 교수도 통일교육원 교수와 통일교육원이 초빙하는 남북문제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원격통일교육 협의회는 원격통일교육의 일부를 각종 단체와 기관이 협력하여 원격통일교육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참여기관 협의회는 각 기관의 대표가 권한 위임한 대표교수 1인이 참여하며, 참여 기관간의 협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 운영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콘텐츠의 활용, 평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 제시 및 협의 능력을 갖게 된다.

⑤ 실무 협의회

실무 협의회는 참여기관 실무자들(통일교육관리 실무자, 콘텐츠 개발 실무자, 등)로 구성이 되며, 교육 일정, 시스템 운영 및 사무국 행정 절차 정립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⑥ 전문적인 원격통일교육 운영진 구축

매일 매시간 통일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원격통일교육 운영진은 동시 또는 비동시적으로 교육생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원격통일교육을 주도하는 교수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수-학습에서는 교육생과의 의사소통 기술과 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한 방송수업에 필요한 교수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교수는 실제 원격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통일교육원 교수와 같은 직급과 권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격통일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오프라인 통일교육과는 교수기술과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만큼 온라인 원격통일교육을 전담하는 교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통일교육원 교수의 일부가 원격통일교육 전문교수로 참여하는 방안과 새로운 원격통일교육 전담교수를 채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인적 기준에 의하면 원격교육 전임교수 1명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원격통일교육 연수가 공식화될 경우 이를 책임지는 전임교수를 선임해야 한다. 물론, 전임교수와 관련되어 특별한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원에서 임의로 전임교수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격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담당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적 안목을 통하여 콘텐츠를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튜터는 상시학습 체제에 필요한 인력으로 교수나 통일교육 참여 전문가가 24시간 연수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다. 특히, 튜터는 해당 원격통일교육 교과목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육생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ICT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원격통일교육 참여 교육생들과 대화하며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따라서 튜터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과 최적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 교육생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고, 서버를 모니터링하며 서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서버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버 관리 요원이 불필요하다. 또한, 원격통일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자도 외부 인력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통일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는 교수와 전문가, 튜터, 조교이며 단계적으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자와 시스템 관리자 등이 필요하다.

표33. 원격통일교육 운영진 구성

운영진		직무, 신분 성격	필요 수준
교수자	전임 교수	·급여/직위/직무 존재 ·원격통일교육 코스 설계 ·원격통일교육기관 소속 ·방송 강의/커뮤니케이션 기술 보유	·필수 사항
	남북관계 전문가	·강사료 ·방송 강의/커뮤니케이션 기술 보유 원격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작성 및 강의 경험 보유자	·필수 사항
	튜터	·수당 ·북한학 실무 전문가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커뮤니케이션 기술 보유 ·능숙한 ICT 사용 기술 보유	·필수 사항
관리자	관리행정	·급여/직위/직무 존재 ·전일 근무 ·원격통일교육기관 소속 ·각종 행정업무 처리	·필수 사항
	콘텐츠 개발자	·원격 통일교육 코스 콘텐츠 개발 ·통일교육 콘텐츠 실무 전문가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선택 사항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모니터링 ·콘텐츠 실무 전문가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필수 사항

(6) 원격통일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 운영

1) 특성화, 차별화를 지향하는 원격통일교육 과정의 마련

원격통일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특정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요구하는 교수-학습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인 제약을 제외하고는 원격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는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은 학습자의 자율을 강조하는 통일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강의하는 교수보다는 학습이 우선되며, 통제보다는 자율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원격통일교육 환경에서, 기존 오프라인 통일교육에서와 같은 학습진도 유지, 교육 내용 학습 여부 체크 등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습진도의 경우는 특정시간과 프로그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격통일교육이 실시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격통일교육 진도는 오프라인 통일교육 체제보다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원격통일교육도 교육대상을 특성별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별 교육집단이 해당 특성에 부합하는 통일교과목과 관련되어 얼마나 학습했는가를 체크하는 감독체제보다는,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전략이 보다 중요하다.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에서는 특성별 교육생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개별화된 통일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별화된 통일교육과정 운영 전략은 원격통일교육이 오프라인 통일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교육생들의 대안으로 원격통일교육 기회를 선택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서, 오프라인 통일교육에서 추구할 수 없는 보다 교육생 특성별로 개별화되고 세분화된 교육생의 수월성을 추구하여 통일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단계적 사이버통일교육 과정의 보완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통일교육과정을 운영하였던 오프라인 통일교육과는 달리, 원격통일교육은 상시 학습 체제, 풍부한 학습 자료, 용이한 의사소통 도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원격통일교육 내용 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정제되고 가공된 형태의 자료보다 일상생활의 가공되지 않은 방대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원격통일교육과정이 구성되면, 능동적,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격교육시스템에서 효율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콘텐츠의 완성도와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콘텐츠의 완성도에 보다 많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교육생은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통일교육이 교수-학습의 일부가 콘텐츠에 위임된 형태이어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콘텐츠의 완성도가 양질의 원격통일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단지 원격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이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교육전문위원과 같은 통일교육전문가 집단일 경우 가공되지 않은 통일관련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며, 문제해결, 토론 학습을 전개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격 통일교육 콘텐츠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검토하는 인터넷 통일교육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하여 기존 지상파 방송국 프로그램의 공동활용이 가능할 경우 동영상 자료 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통일교육은 상기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진과의 상호작용도 주요 학습 전략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정리하면 ㉠ 단기적으로 강의식 접근과 콘텐츠 효율화 향상에 주력하고, ㉡ 중·장기적으로 교수 및 튜터는 협동학습, 토론학습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 중·장기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7) 통일교육 교육생 관리

1) 교육생의 범위와 창구

교육생 응대를 위해 원격통일교육 사무국에서는 운영 요원을 배치하여, 전화, e-메일, 게시판(열린공간 게시판과 운영자 게시판 등)을 통해 교육생에게 직접 응대를 해줄 필요가 있으며, 게시板的 경우 (평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원격통일교육의 홈페이지 접속창구는 다음의 내용들로 예상된다.

표34. 교육생별 주요 업무 및 고객 창구

통일교육생 구분	대교육생 주요 업무 (질의/요청/협조 처리 등)	열린공간 게시판	전화	e-메일	운영자 게시판	과제판 목시
홈페이지 단순 방문자	일반인, 교육생, 교육등록, 교육평가, 수료인정, 개강, 교육신청 방법, 통일교육 교과목 개설, 동호회가입 문의 등	○	○	○		
교육생 가입자	교육신청 방법, 신청절차, 회원 탈퇴, 개인정보 변경 등	○	○	○		
교육중 수강생	평가 인정, 교과 구분, 교육신청/취소/철회, 각 기관과의 업무 분장, 시스템 오류, 과제/시험/강의진도/출석/토론 처리 방법 등	○	○	○		○
교수	콘텐츠 제작/업로드/관리, 과제/시험/토론 관리, 시스템 오류, 교육 평가, 운영비 지원, 통일교육 일정 등	○	○	○	○	○
보조원	콘텐츠 제작/업로드/관리, 통일교육 평가, 과제/시험/토론 관리, 통일교육 일정 등	○	○	○	○	○

2) 주요 게시판 이용

현재 사이버통일교육 웹페이지를 확대하여 원격통일교육이 진행될 경우 몇가지 게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묻고답하기’ 란, ‘운영자게시판’, ‘질의응답’ 란, ‘자유게시판’ 등을 들 수 있다. 원격통일교육 사무국에서 가장 주요하게 교육생 응대 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생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열린공간에 마련된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들 수 있다. 이들 게시판은 교육생에 대한 평가와 해당 통일교육 교과목에 대한 평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질문글수는 게시판에서 특정 글에 대한 응답글이 아닌 가장 상위 수준의 게시물 개수를 말한다. 답변글수는 질문에 대한 첫번째 답변, 즉 두 번째 수준의 게시물 글의 수로, 세 번째, 네 번째 답변은 편의상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응답률 = 질문글수 / 답변글수로 정의한다. 평균응답시간이란 위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글이 올라가기까지의 평균 소요된 시간이며, 답변이 없는 글은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가상적인 원격통일교육교과목을 전제하여 게시판을 이용하는 통계표 작성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표35. 각 원격통일교육 교과목의 교육생별 게시판 운영 파악(예시)

게시판	질문글수	답변글수	응답률	평균응답시간
남북관계론				
북한경제론				
통일정책론				
북한 이해				
-				
-				
-				
-				
-				
평 균				

3) 원격통일 교육 참여 교육생의 특성 파악 및 동기 유발 전략

① 교육생의 수준 파악

원격통일교육에서 교수자는 교육생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격통일교육은 오프라인 통일교육에 비하여 빈번한 상호작용, 상시 학습 체제를 갖추고 있어 일회적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격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성향 파악이 용이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대응할 경우 원격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원격통일교육은 교수자가 교육생의 학습상태를 비주얼하게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학습내용에 대한 노트 상태, 어려운 개념에 대한 학습자의 심리 상태, 따분하거나 즐거운 상태 등을 통일교육 교수자는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단지 원격통일교육에서는 모니터를 통해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모습이 학습자의 성향을 비주얼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음성이나 문자 방식 컨퍼런스로 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원격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연령이 높을 경우 상당수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상호작용에 익숙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 활

용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교육생들이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격 통일교육 참여 교육생들의 학습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첫째, 교육생이 새로운 사이버 의사소통 방식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전략의 마련, 둘째, 교육생의 성향 및 관심분야를 파악하며, 교수자의 관심분야와 성향을 공개하고 토론하며, 셋째, 교육생의 독특한 언어 습관, 문화적 차이, 선수학습 수준 및 성취동기 파악, 넷째, 학습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다섯째, 학습자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 분야를 파악하여 이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 여섯째, 교육생이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조작시 나타나는 장애를 편안하게 질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② 교육생의 동기 유발 전략 필요

원격통일교육에서 교육생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미약하며 제한적이다. 진보적인 학습 여부 체크를 지원하는 원격교육운영 시스템인 경우에도 교육생이 원격교육 시스템에 접속한 후에 다른 작업을 하며, 시간만 소비한다면, 이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원격통일교육의 운영은 교육생이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습자를 구속할 수도 없고 그러한 전략을 지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원격통일교육이 무한히 제공될 수 있는 자료, 피드백 등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동기유발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통일교육을 운영하는 관리자, 교수자는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경우 편리하게 원격통일교육을 이수할 수는 있겠으나, 오프라인 통일교육에 비하여 연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있다.

③ 교수자 측면

첫째, 즉각적인 피드백 체계를 운영한다. 원격통일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교육참여자들의 고독감이다.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교육생들은 고립적인 위치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 즉각적인 응답체계 구축은 교육생의 사이버공간상에서의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원격통일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도 24시간 이내 응답, 1시간 이내 응답 등의 목표를 세우고 가능한 빠른 응답 시간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빠른 피드백체제는 교육생의 통일교육 참여 동기를 자극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학습을 진전시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의 원격통일교육 참여 교육생의 질문에 대해 최적의 테크놀로지를 선택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교육생에게 응답해 주어야 한다.

둘째, 운영진 프로필을 공개한다. 교수자 및 관리자의 프로필을 공개함으로써 교육생들은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으며, 전문분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연수에 임할 수 있다. 운영진의 지위나 경력보다는 운영진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원격 통일교육 참여 교육생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생들은 강의담당 교수의 전문 분야에 적합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투명한 원격통일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교육생 접촉기회를 갖고 개별접촉을 항상 유지한다. 교수자는 교육생들과 다양한 온라인 미팅을 가짐으로서 원격통일교육 참여 교육생과의 친밀감을 유지해야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온라인 또는 사이버 공간에 계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교육생은 개별 접촉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지 주기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그룹 메일, 컨퍼런스 내용에 대한 메일 전송, 연수내용과 관련된 간접적인 내용의 메일을 교육생에게 전송한다. 통일교육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원격교육 참여 교육생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통일교육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학습자가 원하는 목표 및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원격통일교육의 목표와 학습자가 원하는 목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교수 활동에 임한다. 교수자가 목표를 염두에 두고 교수활동에 임하는 경우 다양한 메일 송수신과 커뮤니티 지원, 콘텐츠 제작, 음성 및 영상 컨퍼런스 활동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연수 운영 측면

첫째, 통일교육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이미 앞장에서 분석한대로 자발적인 사이

버공간의 통일교육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이상적이다. 인센티브 등의 원격통일교육 요소와 관련지어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커뮤니티 활동은 원격통일교육 과정과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생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격통일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발송한다. 연수 내용 홍보, 흥미 거리, 우수 연수 사례, 교육생의 관심 분야 등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웹진이나 뉴스레터 전송을 한다. 교육생이 뉴스레터를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서 인터넷 통일저널을 발간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온라인 통일교육 내용이 현재 교육생에게 흥미를 끌고 있는가에 대해 체크한다. 연수 내용 만족도에 대해 주기적이며 정기적인 체크를 통하여 연수 내용 방향 설정이나 커뮤니티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수 중에도 지속적인 평가체제를 통하여 연수자들의 반응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8) 원격통일교육 효과 평가 절차

원격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평가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하여 교육과 평가를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의 원격통일교육에 의뢰하는 각종 연수기관에 평가된 내용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또한 통일교육생을 의뢰한 기관의 관리처에서 LMS를 통해서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에서 직접 통일교육에 참여하여 평가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각 기관은 원격통일교육원에서 평가한 내용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재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다.

표36. 통일교육 효과 평가 요소

평가요소	특 징
시험	한정된 날짜와 한정된 시간에 1회에 한해 응시 가능하며 미리 작성된 파일을 첨부할 수 없고, 교육생마다 문제가 다르게 무작위 출제도 가능하다.
과제	지정된 제출기한까지 웹상에서 또는 첨부 파일을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주제토론 참여	지정된 주제에 대하여 조별로 게시판을 부여하고 나중에 게시물 수를 시스템에서 체크한다. 게시 내용은 통일교육 담당교수가 판단한다.
출석(진도)	각 통일교과목 원격강의실 내의 위계적인 목차들을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출석률이 올라간다. 출석률은 전체 목차에 대한 방문한 목차의 개수로 정의한다.
기타	위의 평가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평가 요소를 통일교육 담당교수가 임의로 만들어 임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한다.
+ 알파	위의 평가 요소들은 사전에 비율을 정해놓고 100점 만점의 범위 내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과외적인 변인을 다루기가 힘들어 마지막에 담당교수 혹은 강의진행자가 임의의 점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

* 통일교육 평가요소는 교원의 통일교육, 장기통일교육 대상자를 위주로 한다.

1) 평가처리 방식의 사례

원격통일교육의 경우 장기통일교육생, 교원통일교육 대상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평가내용을 산출할 수 있다.

표37. 통일교육 평가 내용의 통계적 파악 방식(교원에 대한 사례)

과목명	교육신청(명)	수료(명)	수료율	평균점수	표준편차	최고점	최저점
남북관계론							
통일정책론							
북한사회론							
평화통일론							
세미나							
합계							

2)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평가 체계

원격통일교육의 평가 관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개발된 통일교과목 콘텐츠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담당 교수의 교과목 운영 서비스에 대한 평가, 마지막은 원격통일교육 사무국의 운영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① 관리 기관의 통일교육 콘텐츠 및 수업운영 평가

통일교육 교과목 콘텐츠들이 개발되면 관리 기관으로부터 1차적인 품질 평가를 받아 개설전에 보완을 한 후 최종 개설이 결정되어야 한다. 원격통일교육 콘텐츠 평가 결과가 일정한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설된 원격통일교육 교과목들은 교육기간이 끝난 이후 반년 혹은 일년에 한번씩 관리 기관으로부터 교육 운영 평가를 받아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이버통일교육 사이트에 올라있는 교육콘텐츠들도, 콘텐츠 작성의 기술적 발전과 통일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재구성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수요나 문제의식도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만큼 통일교육 콘텐츠의 내용구성과 방향도 조금씩 개편될 필요가 있다.

② 온라인 통일교육 향상을 위한 설문 조사

사이버통일교육센터나 원격통일교육 사무국에서는 매년 진행되는 통일교육 완료전에 해당교육 과목의 교수, 보조원, 교육생, 일반인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통일교육원 교수들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짜여질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서 2회 정도의 온라인 설문조사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특정 교과목과 연관된 내용 일부를 제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필요가 있고, 담당교과목 교수, 교육생, 관리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교수내용,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참고자료로 기능해야 한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원격통일교육 교과목의 경우 참조사업관리기관에 전달되어 관리기관에서 각 교과목의 수업운영 평가할 때와 원격통일교육 사무국 운영을 평가할 때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온라인 설문조사 영역

원격통일교육의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은 대략적으로 시스템 환경, 콘텐츠 구성과 내용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본적인 질문들은 유지하면서 교육 기간별, 대상 별로 조금씩 설문내용을 변경하여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방법은 각항목별 5점 척도로 하고, 각 교과목별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점수차원에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평균점수로부터 상위권에 속해있는 교과목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과목 채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하위권 교과목의 경우 항목별 조사를 통하여, 콘텐츠의 보완, 교수방법의 난이도 개선 등 다양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표38. 온라인 설문조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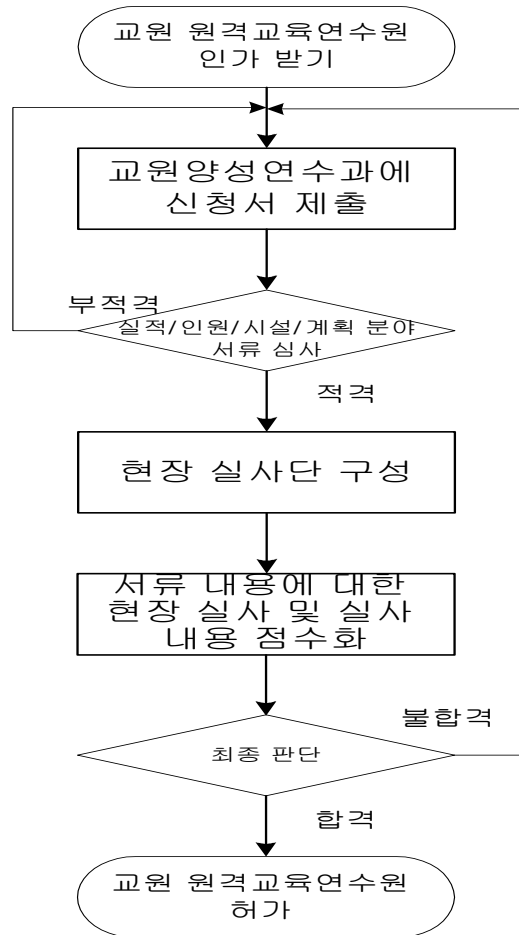
조사영역	내용	응답자		
		교수/보조원	교육생	일반인
시스템 환경	사이트 접속 속도, 인터페이스 편의성, 시스템 오류 등	0	0	0
통일교과목 콘텐츠	통일교육 콘텐츠의 난이도, 양, 흥미유발요소 등		0	0
학습 성과	통일 및 남북관계지식 습득, 형성된 학습태도, 교육생간 커뮤니케이션 성과 등		0	0
통일교과목 운영	교수/보조원의 수업운영, 원격통일교육사무국의 학습지원 등		0	
수업 운영	사무국의 수업지원,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	0		

(9) 원격교육기관 인가과정

현재, 원격연수원 허가 및 관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 대학 등에서 원격연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 후에 현장 실사과정을 거쳐 선정이 완료된다. 하지만, 종합교원연수원과 시도 교육연수원은 이미 교원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정·인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원격으로 교원 연수를 수행할 수는 있다.

이와 같은 지정·인가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6.원격교육인가 과정



원격연수원 지정·인가 과정은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의 2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 서류 심사단계이다. 지정·인가 과정의 가장 첫 단계로 해당 기관에서는 원격연수 실적, 시설·설비 내용, 인적 구성, 운영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설·설비 분야에서 강의 서버/연수행정 서버/백업 서버를 분리하여 기준 사양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용 서버이어야 함을 강조하거나 3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강의, 연수행정 및 백업 서버를 한번에 갖추고 있는 시스템도 합격의 조건이다. 한편, 해당 연

수기관에서 연수를 운영하나 서버시스템이 해당 기관에 존재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서버 위탁관리를 통해 지정·인가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

둘째, 현장 실사 단계이다.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 실사에서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체크함으로서 이를 점수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장 실사과정에서는 특히 서버시스템을 정확히 확인하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격연수 운영시 문제점 등에 대한 협의회도 겸하게 된다. 현장 확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내용은 시설·설비 분야에서의 6가지 항목이며 보고수리 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이 6가지 항목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격연수원에서 배제된다.

2. 인터넷 통일교육방송 활용성 검토

(1) 인터넷 방송의 개념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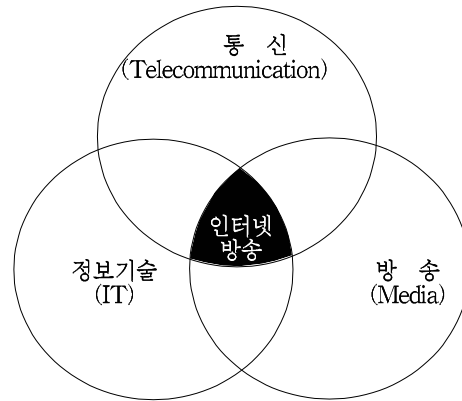
인터넷 방송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 개념의 혼란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적 성격에서 발생한다. 여기서는 인터넷 개념과 인터넷 방송과 기존 방송의 차이점 등을 분석한다(이만제, 2000 참조).

1) 인터넷 방송의 기본 개념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보급되면서 인터넷과 방송이 결합된 인터넷 방송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이용자가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고, 쌍방향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즉각적으로 피드백될 수 있는 등 방송과 인터넷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방송국 시스템이란 TV방송과 같이 일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파가 아닌 인터넷 망을 통하여 전달하는 차세대 방송 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 방송은 PC 통신, 인터넷처럼 사용자가 클릭만 하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신의 장점과 동영상 및 음향이 함께 전달되는 방송의 장점을 결합한 통신과 방송 융합의 구체적 사례로서, 쌍방향성과 제한된 수신자라는 면에서 기존의 방송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인터넷 방송은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Intericast, Web Broadcasting, Push 형 서비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광의의 인터넷 방송은 이들 모두를 포함하며, 협의의 인터넷 방송은 이중 Web broadcasting만을 지칭한다. 이러한 혼선은 인터넷 방송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매체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7.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서 인터넷 방송



자료 : 이만제(2000)

또한 인터넷 방송을 웹캐스팅(Webcasting)이라고도 하는데, 월드와이드웹과 브로드캐스팅의 합성어이다. 이는 기존의 TV방송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인터넷 방송을 의미하며 인터넷상에서의 압축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국에서 전파를 내보내자마자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된 새로운 개념의 방송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 인터넷 방송은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통하여 인터넷의 많은 인프라와 연관된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보와 아날로그 콘텐츠의 디지털변환이 가능해지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통신속도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하여 고용량의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서비스를 통해 동영상과 오디오의 실시간 방송(리얼타임형)과 On Demand(VOD, AOD) 방송을 구현하게 되었다.

실시간방송은 방송과 같이 비디오화상이나 음성을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타입이며, On Demand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자의 취향과 여건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국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인터넷방송 형태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VOD(Video on Demand)와 유사한 형태의 On Demand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시청하는 것으로 기존 방송매체의 제한을 뛰어넘어 21세기형 멀티미디어를 창출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국내 논의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기술적 특성과 매체적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서 음성 또는 동영상형태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인터넷 방송을 위해 디지털 정보를 새로이 수집·가공하여 서비스하는 독립 인터넷 방송 형태, 그리고 기존의 TV방송에 디지털 정보를 추가하는 인터캐스트 서비스가 포함된다.

웹사이트상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에 방송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푸시(PUSH)’ 기술이나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이 인터넷 방송에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술은 단방향적인 방송 전송기술에 쌍방향적인 인터넷 전송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인터넷상에서 방송을 구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이 전파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의 정의에는 인터넷상에서 푸시기술이나 스트리밍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음성이나 동영상물을 전송하는 서비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술은 쌍방향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송 전송기술과는 다른 형태이다.

다음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편성의 주기이다. 지상파 방송이 매일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 비해 인터넷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은 하루 단위나 일주일, 한달 또는 분기를 단위로 하여 불규칙적인 편성단위를 갖기도 한다. 마치 정규적인 발행주기를 갖는 잡지의 형태와 발행주기를 갖지 않는 무크지 또는 단행본과 같은 인쇄매체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양 역시 제한이 없는데 기존 지상파 방송이 채널당 24시간이라는 프로그램 양을 한계로 갖고 있는데 비해 인터넷 방송은 그 시간제한이 없으며 실시간 방송 외의 방송형태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역시 현재의 인터넷 방송을 정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기존의 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차이점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의 상당 부분이 공중파 방송을 모방하는데서 시작했으므로 시스템이나 콘텐츠의 구성면에서 기존의 방송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방송과 인터넷 방송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음은 방송기술 및 요구조건에 따라 기존의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비교한 표이다.

표39. TV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기술과 요구조건

TV 방송 제작단계	인터넷 방송 제작단계
1. 신호생성 2. TV 방송국으로 신호 전송 3. TV 방송국에 의한 신호 방송	1. 신호생성 2. 신호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encoding) 3. 전화선이나 인터넷 연결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신호 압축(compression) 4. 압축되고 인코딩된 신호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로 전송 및 복제 5. ISP에 의한 신호의 재생(=Stream) 및 인터넷을 통한 방송
요구조건	요구조건
·방송장비 ·방송시간 ·프로그램 콘텐츠 ·송신 단위	·웹캐스팅 장비 ·ISP와 연결 ·프로그램 콘텐츠 ·대역폭(ISP로부터 임대)

자료 : 이만제 외(2000)

기존의 모든 방송 시스템은 소수의 전문 제작자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방향적(one-way)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국, 이를 중계하는 매체, 그리고 방송을 받아들이는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방송과 비교해서 전달하는 매체가 각각 공중파와 인터넷이라는 점과 수신기가 텔레비전과 컴퓨터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구성이 동일하다.¹⁸⁾ 그렇지만 인터넷 방송은 통신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쌍방향적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 면에서 기존의 방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들을 나타낸다.

첫째, 인터넷 방송은 양방향(interactive) 커뮤니케이션의 구현이 가능하다. TV나 라디오와 같은 기존의 방송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시청자는 여과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부정적인 특성 때문에 소위 “바보상자” 라는 별칭으로 불렸다면 인터넷 방송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흔히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도 제공되는 BBS(자유게시판)를 통해 캐티즌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와 소감이나 불만 등을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방송은 초시간적, 탈공간적인 방송이 가능하다. 메시지의 보존성이 뛰어난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에만 접속할 수 있다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나 서

18) <http://www.kbs.co.kr/techcenter/text/text04.htm>.

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주문형 방송서비스(VOD 또는 AOD)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항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콘텐츠가 생중계(live) 형태로도 서비스될 수 있으며 생중계로 방영된 프로그램은 파일로 DB화하여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도 있다. 인터넷 방송의 ‘비동시성(asynchronicity)’은 기존의 방송과 차별화되는 또다른 지점이며 수용자에게 능동적인 채널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전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구분없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공간적이다.

셋째, 인터넷 방송국의 설립이 용이하다. 과거에 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였지만 인터넷 방송국은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정도라면 적은 자본으로 쉽게 방송국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는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 한대와 디지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 월 몇십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인터넷 방송을 개국할 수 있다. 동영상의 경우에도 6mm 디지털 카메라가 저렴하게 보급됨으로써 일반인들도 손쉽게 방송 장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 제작자의 전유물이었던 영상 채널을 청소년이나 시민들까지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안 매체로 각광받았던 이른바 일인 비디오 저널리스트의 탄생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렇듯 소수의 거대 방송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립 방송국이나 개인에 의해 제작되고 서비스되는 콘텐츠는 다양한 사회와 문화영역을 개척함은 물론 다원화된 문화를 표출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 방송은 기존 공중파나 케이블 TV에서 방송하지 않았거나 방송할 수 없었던 수많은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시장원리에 의해 상업적으로 오염된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에 비해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한다. 이해와 요구가 다른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또 여론화하는 인터넷 방송의 가능성은 전자 민주주의를 향한 잠재력의 다른 표현이다. 더욱이 인터넷 방송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한 네트워크 공동체의 등장은 전통적인 어떠한 매체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¹⁹⁾

이상의 특성들을 종합해 볼 때 인터넷 방송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는 새로운 매체 환경을 제공한다. 즉 컴퓨터가 텔레비전을 대체한다는 의

19) Schuler, D.(1996), *New Community Networks: Wired for Change*, New York: ACM Press, p.25.

미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양방향적 가능성을 구현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송 환경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표40.인터넷 방송의 특성

구분/ 미디어별	공중파 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방송
방송의 범위	Broadcasting	Narrowcasting	Broad/Narrow /Pointcasting
전송망	지상무선망(Hz)	케이블망(광케이블)	전화망(동축케이블)
커뮤니케이션 유형	일방향	부분적 쌍방향	완전 쌍방향
방송 서비스 형태	오락지향	오락 및 정보지향	업무 및 정보 지향
사업 진입 가능성	엄격한 허가	허가	제한 없음
시간적 제약성	제약	약간 제약	제약 없음
타미디어와 호환성	없음	약간 가능	가능
운영재원	광고수입(95%)	시청료 수입(70%)	광고+이용료
방송의 공익성	아주 높음	낮음	아주 낮음
사회적 통제 정도	강함	낮음	아주 낮음
내용 통제 근거	전파의 희소성, 공익성	청소년 위해(危害)	청소년 위해(危害)
관련 법률	통합방송법	통합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2) 인터넷 통일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1) 인터넷통일교육 방송의 필요성

인터넷 방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개국될 경우 통일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판단된다. 특히 인터넷 통일교육방송은 상기한 인터넷 방송의 장점을 그대로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변화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일교육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통일교육방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첫째, 사이버통일교육센터와 오프라인 통일교육의 기능보강을 보장할 수 있다. 인터넷 콘텐츠 형태가 텍스트에서 동영상, 동영상에서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로 넘어가면서 점차 인터넷방송 분야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상해보면 사이버통일교육

센터의 텍스트 중심의 통일교육 전달방식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넷통일교육방송국이 개설될 경우 미래 한반도를 책임질 현재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남북한 음악, 영화, 토크쇼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과 쌍방향 접촉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탑재가 가능하여 통일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장르와 수단의 확대, 수용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통일교육의 실시간 방송도 가능함으로써 기존 통일교육원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교육원의 방송시스템과의 연계성 제고가 가능하다.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남북한 및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과 동영상의 확보하고, 나아가 기존 방송사의 대북교류과정에 참여하여, 통일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참여함으로써 방송저작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통일관련 전문가 시각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생산프로그램 활용의 지속성과 반복적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기존 방송사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은 일회성 방영으로 끝나거나, 기록보존용으로 보관되는 수준인데 비하여, 인터넷 통일교육방송이 시작되면 기존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련 프로그램의 폭넓은 활용도 제고(토론프로, 다큐멘터리, 조사 프로그램 등)도 가능하게 된다.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에서 분단과 관련되었던 각종 영상물이 매우 유용한 교육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이들 자료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사회의 인터넷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의 통일교육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북한의 인터넷 발전수준에 따라서 통일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데, 인터넷 발전 1단계에서는 텍스트중심의 통일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만 개인용 컴퓨터 기능의 업그레이드와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될 경우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한 인터넷 통일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기존 방송의 경우 남북방송교류에 있어서 제약이 많고, 북한 자체의 검색도 엄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인터넷의 경우 방송교류와 같은 어려운 제약조건이 거의 없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우회적인 북한주민 통일교육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교육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존 방송시스템에 의한 교류확대는 정치적 관계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인터넷에 의한 접촉과 개방은 남북한 정치적 관계개선 없이도 북한의 인터넷 시스템이 발전할 경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섯째,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남북한 영화, 음악, 다큐, 역사물 등 다양한 제작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수강의 중심의 통일교육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형태의 기능을 통합해 낼 수 있으며, 나아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남북한 영상, 음악, 미술 등 예술의 장르와 결합하여 통일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나 음성녹화 방식의 단조로운 통일교육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기의 인터넷 방송의 장점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에서 수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통일교육의 생방송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교육의 원격 실시간 강의가 가능하고, 쌍방향 미디어 기능의 활용을 통하여 통일교육 강의자와 교육생들이 대화할 수 있다. 또한 진행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하여 교육생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시스템의 구축은 일반 방송국처럼 많은 설비와 복잡한 운영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나아가 기존 방송국이나 각종 단체에서 활용하는 통일 및 북한관련 콘텐츠의 공동활용과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 통일방송의 사회문화적 효과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은 인터넷의 기본 성격인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통일교육 수신자나 교육 제공자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다. 또한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되어 개별적 이해에 맞는 취향집단, 기관, 개인 단위의 모임이 가능해질 것이다. 더우기 인터넷 기술이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남북관련 여론의 사회적 다원화나 통일 관련 문화의 폭과 범위를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사회문화적으로 끼칠 영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생의 자유로운 통일교육 참여가 가능해지며 주문형 통일교육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쌍방향매체인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상용화되면 다채널 통일교육 시대가 열리고 통일교육관련 콘텐츠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 또

한 통일교육의 인터넷 방송 매체의 특성상 통일교육 관심자들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데로 중장기적으로 교육내용의 편집도 가능해지게 된다.

둘째, 통일 및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수직적으로 혹은 경직적, 폐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여론의 문화적 다원성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교육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의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방송국을 스스로 개국 운영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이 원하는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만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모아 개인 혹은 기관만의 정보도서관을 구축할 수도 있다. 또한 각 개인 및 단체가 특정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통일관련 여론의 사회적 다원화가 확산, 실현될 것이다.

셋째, 개인 및 기관의 성향에 따른 인터넷 통일방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 및 기관의 성향이란 특정한 관심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을 벌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통신 공간이고, 현재 인터넷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들의 활동이 곧바로 인터넷 통일방송의 성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터넷 통일방송 자체가 어느 정도 개인 및 집단의 성향에 따른 방송이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통일방송국이 개국하리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련된 통일문화의 다양성이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인터넷 방송의 종류

1) 최종 단말기에 의한 분류

① PC용 인터넷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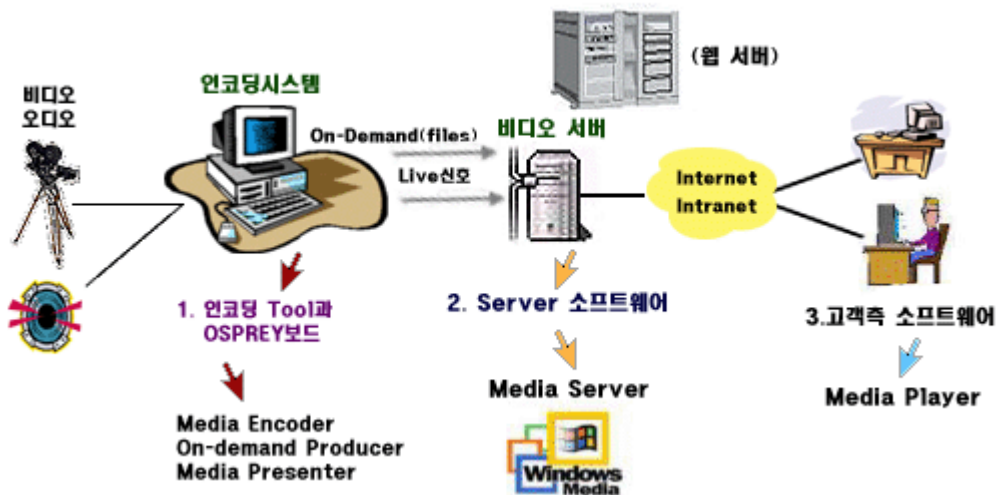
PC용 인터넷 방송은 PC를 최종단말로 하는 인터넷 방송으로서 기존의 웹페이지에 양방향성과 3차원적 성격을 가미하여 이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고, 비디오와 오디오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유사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

루어진다.

② TV용 인터넷 방송

이는 TV를 최종단말로 하는 인터넷 TV로서 기존의 TV에 모뎀과 인터넷 모듈, 웹 브라우저를 탑재하여 TV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림8. 인터넷 방송 서비스 흐름도



2) 기술 및 서비스 방식에 의한 분류

① 경영주체별 분류

인터넷 방송국은 운영주체에 따라서 중앙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과 독립인터넷방송국으로 분류된다. 기존 방송사인 KBS, MBC, SBS, YTN, KNTV 등은 1997년부터 인터캐스트 서비스,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기존 프로그램의 on-demand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독립인터넷 방송국은 c3tv, nine4u 등의 순수 독립 인터넷방송국, channeli, hitel 등의 PC통신/ISP 기업의 독립인터넷 방송국, 그리고 대학독립 인터넷 방송국으로 나뉜다.

표41. 경영주체별 인터넷 방송 분류

대구분	소구분	방송국명
독립인터넷 방송국	순수독립인터넷방송국	c3TV, nine4u 등
	PC통신/ISP기업의 독립 인터넷방송국	channeli, hitel 등
	대학독립 인터넷방송국	고려대, 경희대, 안양대
중앙언론사 인터넷방송국	지상파방송사의 인터넷방송국	KBS, MBC, SBS 등
	케이블TV 사업자의 인터넷방송국	YTN, 아리랑TV 등
기업인터넷 방송국	일반 기업의 인터넷 방송국	channeli, 인디 등
	PC통신/ISP의 인터넷 방송국	

자료: 박성호, 방송연구, 1999년 여름호, 한은영(2001) 재인용

다양한 성격의 저예산 독립인터넷 방송국의 개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지상파 방송에서 시도되지 못한 내용이나 형식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있다. 음악 제공, 신청곡 소개, 채팅, 다양한 생중계 등의 적은 제작비가 소유되는 주문형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42. 독립인터넷 방송국 분류

구분	방송국
엔터테인먼트	VTV, PlayCAT, Channel2, M2b Live, 옛날방송국, Ipopcorn, MKID, RealTV, DDS, Indiz
음악	얼토당토, IBC, RGent, SMR, Nine4U, 무차별, 유니텔 UCN, 천리안 인터넷방송, Digicat, CH103, CH4i, M2B, NTV, Music-corea (국악)
문화	CoreaTV, 강원관광엑스포방송, 피플월드
행사, 중계	Liveto, TV21
사회, 청소년	참세상인터넷방송국, 사랑의 소리방송, 한국청소년인터넷방송국
대학	UniTV, 각대학 방송국
포털	케스트서비스
쇼핑, 패션	Comcast, CHATV
종교	C3TV, FGTV, JesusTV, 크리스찬TV, 크리스, 우리사랑
영화, 만화	IndeTV, 인디, Anibs

자료 : 고정민(2000)

현재는 음악, 영화소개, 의료, 교육, 쇼핑, 애니메이션, 게임, 종교, 증권 등 다

양한 분야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각 분야별 소수 매니아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인터넷 방송국의 경우 증권정보, 쇼핑 등 일부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무료방송이 대부분으로 수익모델의 창출이 어려워 다양한 콘텐츠의 준비와 제공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반면 인터넷 통일방송이 통일교육원에 의하여 시도될 경우 수익모델의 창출에 대한 부담이 없고, 기존 예산과 조직,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저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인터넷 방송국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독립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 방송협회를 설립하여 인터넷 방송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② 서비스유형별 분류

인터넷 방송은 이용자 주도 방송으로서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존재한다. 기존방송이 제공자 주도인 반면, 인터넷 방송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문형 서비스, 생방송 서비스, 푸시형 서비스, 플랫폼서비스, 웹캐스팅포털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표43. 인터넷 방송의 서비스 유형별 특징

종류	특징
주문형 서비스	대량의 콘텐츠를 DB로 구축하여 시공간 제약없이 제공
생방송 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세계 어디에나 실시간으로 제공
푸시형 서비스	이용자가 검색 노력없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
플랫폼 서비스	기존 미디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로 무선호출기, 휴대폰 등을 이용한 서비스
웹캐스팅 포털서비스	웹캐스팅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서비스

③ 정보형태별 분류

인터넷 방송은 문자, 소리, 영상 등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분류가능하다. 문자만의 데이터캐스트, 소리만의 오디오 캐스트, 멀티미디어의 비디오 캐스트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데이터캐스트는 신문, 서적 등의 문자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단순문자 서비스는 인터넷 방송에서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선호한다. 정보의 유통체증이 발생될 경우 저용량의 문자서비스가 영상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소리형태의 방송서비스, 즉, 오디오캐스트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로서 MP3 압축기술, 리얼오디오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발전은 스트리밍 기술의 본격적 확산을 가져와 오디오 캐스트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음악이 국제공통언어라는 점과 오디오가 상대적으로 저용량이라는 점이 오디오캐스트 활성화의 트리거로 작용한다.

동영상 중심의 비디오캐스트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서비스하는 완성된 형태의 인터넷 방송으로서 초고속 인터넷의 개발과 대용량 압축, 전송기술의 개발로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실황중개, 실시간 강의중개, 화상회의, 원격강의, 원격진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인터넷 방송의 장비와 기술 형태

1) 인터넷 방송국의 장비

인터넷 방송과정에는 기존방송에는 없는 디지털화나 인코딩과 같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장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 방송이 요구하는 큰 설비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국 개설은 매우 용이한 편이다. 나아가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조작이 어렵지 않아서 원맨 시스템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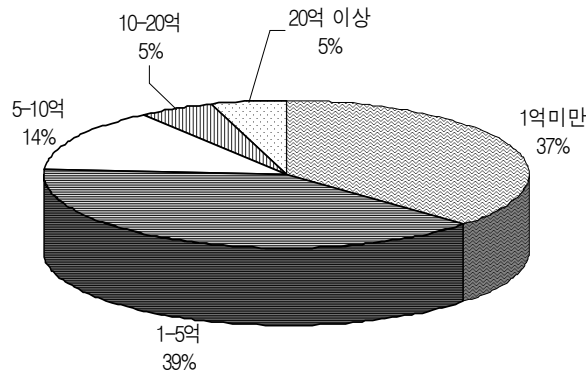
표44.인터넷 방송 기본 장비

구분	세부사항	장비 내역
하드웨어	서버 장비	웹서버/스트리밍 서버/네트워크 보완장비로서의 방화벽
	네트워크 장비	스위칭허브 시스템/내부 인트라넷/인터넷 전용선
	디지털 영상 장비	디지털 캠코더/디지털 편집기/비디오 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프트웨어	비디오 캡처보드/디지털 인코딩 시스템/리얼 서버
	소프트웨어	NT, SQL, Firewall 등(시스템 관련) 멀티미디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자료 : 고정민(2000)

D2B와 IT Research에서 84개의 인터넷 방송국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방송 시장에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인터넷 방송국이 과반수 이상(57%)을 차지하며, 일부 선도업체를 제외하고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1억 미만인 소규모의 독립 인터넷 방송국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그림9.인터넷 방송국 시스템 구축 비용



자료: D2B와 IT Research(2000).

인터넷 방송 구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전문화되고 창의적인 인력으로서 웹PD는 업무 전반에 관한 과정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등의 웹 작업 전반과 홍보 등 모든 것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웹마스터는 인터넷 방송의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서비스를 관리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 프로그램 관리와 유지, 네트워크 관리 등의 능력을 요구한다.

웹프로그램머는 제작된 콘텐츠를 인터넷 상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

터넷 관련 기술과 콘텐츠 구현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응용력이 있어야 하며, 웹디자이너는 제작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웹 환경에 맞도록 디자인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웹 자키는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자, 리포터, 아나운서 등 복합기능의 능력이 요구된다.

2) 인터넷 방송의 기술 형태

기존 연구에서는 행해진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의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 자신만을 위한 방송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종합하면서 인터넷 방송의 영어표현 인터넷 브로드캐스팅(internet broadcasting)과 웹캐스팅(webcasting)을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쌍방향성과 능동적 매체이용자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설명하는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좀더 포괄적인 서비스로서 웹캐스팅은 스트리밍(streaming), 온디맨드(on demand), 푸시(push) 기술을 포함한 일정 기술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최영,1999:18~23,). 그의 주장대로 웹캐스팅이란 단어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현재 인터넷 방송업계 및 학계는 인터넷 방송을 '푸시 및 스트리밍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로 정의하고 있다(www.koreawebcast.net).

푸시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다니던 기존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하여 이용자의 컴퓨터 모니터에 원하는 정보를 직접 전송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사용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환경설정), 서버가 사용자 PC에 있는 푸시 프로그램에게 정보(문자, 그래픽, 파일 등)를 보내주고(진행), 그리고 다시 푸시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서버로부터 받은 정보를 디스플레이해 주는 과정(완료)으로 진행된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정보창을 원하는 위치에 옮기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접속이 끊어져도 스크린 귀퉁이에 화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푸시 기술로 인해 단순히 인터넷 정보전달방식이 바뀌어지는 것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면 그 정보가 사용자의 PC에 전송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방송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자가 원하는 장비로 받아볼 수 있는 양방향 방송이라는 것이다.

푸시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경우 푸시 서버 내의 사용자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사용 추이, 접근빈도 등을 분석해서 이 정보들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푸시 기술의 등장은 인터넷 방송을 확산시키고 대중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스트리밍'이란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을 원활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스트리밍은 stream의 명사형으로 '흐름'이나 '연속'을 뜻하는 말로서, 이는 동영상파일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서 연속되어 나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동영상파일은 동시에 파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당분량만큼을 조금씩 보게 된다. 동영상파일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일 전체를 보내주기란 불가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파일의 일부만(실제로 영상이 플레이되는 분량만큼만)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체제이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가 아닌 실시간 전송 또는 실시간 구현이라는 개념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스트리밍 기술인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기반에서 시작을 어디에서 했든 스트리밍을 통해 오디오나 비디오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것과 스트리밍 콘텐츠와 연동된 모든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는 모두 웹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방송적 관점에서 편성과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인터넷 방송 또는 웹캐스팅으로 보고 이를 웹서비스의 일환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용섭, 1999). 한편 해외방송사의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 수익성 등의 문제로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비해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기부터 TV방송의 대부분을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서비스를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방송에 따르는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지 결코 '독립된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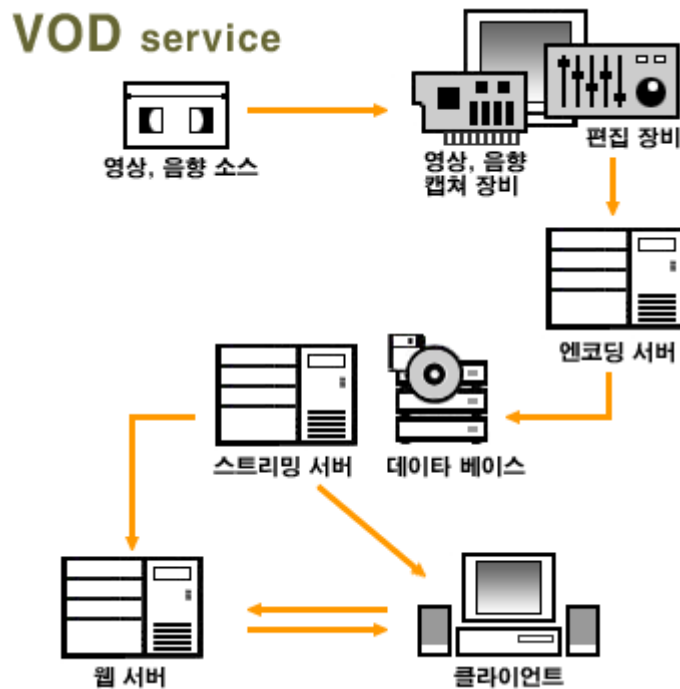
3) 인터넷 방송 방법

① VOD 서비스

리얼타임으로 제공된 통일교육 영상 강의 모습이나 통일교육 관련 동영상형태로 제작된 콘텐츠를 저장한 후 On Demend 형태로 통일교육 서비스 사용자는 시간과 장

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TV를 이용하여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에서 듣고 싶은 통일교육 강의 내용, 통일 및 남북관련 영화, 음악, 예술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작품을 골라서 볼 수 있는 첨단 서비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나 일반 TV와 다르게 단방향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의 기호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림10.VOD 서비스



②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인터넷 통일방송을 통하여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통일교육 학습자에게 거리 제한 없이, 시간제한 없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다.

③ 리얼타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리얼타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은 오프라인 통일교육 강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카메라에 투시되는 강의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방송

하고자 하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홈페이지에서 카메라에 담긴 통일교육 영상 이미지를 불러들이게 되면 인터넷으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디서든지 리얼 타임으로 카메라에 잡힌 강의 영상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는 각종 통일교육 단체의 원격강의나 학교교육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11.Live Webcasting



(5) 인터넷 방송의 사례

현재 국내에는 수많은 인터넷 방송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내 인터넷 방송사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기본 방송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사, 통신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사들이 있고,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종 단체, 기관, 개인들이 있다. 여기서는 기존 방송사와 통신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방송을 설명하고(이만제 외, 2000 참조), 통일관련 인터넷 방송 사례를 조사하며, 인터넷 방송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몇 개를 선택하여 분석한 이후 인터넷

통일방송국 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방송 3사와 선발 인터넷 방송 사례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방송 서비스도 함께 급부상하는 추세이다. 최근들어 웹공간에는 인터넷방송 사이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사이트마다 보다 많은 네티즌의 눈길을 모으기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네티즌의 입장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이용하면 기존의 드라마, 영화, 라디오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들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 3사는 현재 K B S (www.kbs.co.kr), S B S (www.webcast.sbs.co.kr), M B C (www.imbc.com) 웹사이트에 현재 방영되고 있는 T V, 라디오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방송 3사는 인터넷 방송 부문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먼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SBS와 KBS에 이어 MBC도 (주)인터넷MBC(iMBC)를 설립하고 인터넷 방송 시장에 합류, 지상파에 이어 인터넷 방송에서도 본격적으로 '3파전'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인터넷 방송에 뛰어든 SBS는 인터넷 방송 별도 법인 'SBS인터넷'을 설립한 뒤 'SBSi' (www.sbs.co.kr)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해오고 있다. 뒤이어 KBS는 한국통신과 함께 '크레지오'를 개설했고 이후 별도 법인 '크레지오닷컴' (www.crezio.com)으로 독립시켰다. MBC는 방송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iMBC(www.imbc.com)를 세워, 조금 늦은 셈이다.

이들 인터넷 방송은 우선 동영상으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 기존에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자메일, 채팅, 동호회 등을 가미하고 연예, 교육, 스포츠, 인터넷 쇼핑 등의 메뉴를 추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3사가 인터넷 방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선 다른 인터넷 방송국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고 자금력과 조직력도 다른 인터넷 방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또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홈페이지를 찾고 있는 시청자들을 쉽게 회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앞으로 공중과 방송이 뛰어넘어야 할 과제인 ‘쌍방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방송 3사의 인터넷 방송은 차별화와 함께 어떻게 수익모델을 창출할 것인가가 과제다. SBSi는 인터넷으로 시청자와 TV 출연자를 연결시켜주는 토크 프로그램 ‘토크넷쇼’ 처럼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전용 쇼핑몰(www.buy6.com)을 통한 인터넷 쇼핑에 주력할 계획이다.

크레지오는 공영방송 KBS와 최대 통신사업자 한국통신이 손잡은 만큼 공영성과 오락성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아동,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크게 늘려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MBC는 드라마와 연예 부분을 특화시키고 방송을 보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소품 등을 구입하는 PPL(Products in Placement) 쇼핑몰을 강화,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지상파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은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방송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이들은 기존의 제작 인력과 장비, 프로그램 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방송국에 비해 다양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규모가 큰 동영상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지상파 채널의 프로그램과 인터넷 방송국의 프로그램 혼합편성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캐티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45. 주요 지상파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크레지오 (www.crezio.com)	iMBC (www.imbc.com)	SBS
개국	99년 11월 25일	2000년 3월 11일	99년 8월 21일
자본금	147억원	100억원	36억원
주주구성	KBS 51%, 한국통신 49%	(주)MBC 100%	(주)SBS 100%
임직원수 (계약직)	80명(55명)	57명(12명)	130명(40명)
서비스 방식	56K/300K/1M Live, VOD	56K/300K Live, VOD	238K 이상 Live, VOD
공중파 콘텐츠	각 프로그램별 VOD 한달간 보유 6개채널 30여개 프로그램	뉴스/시사, 교양/다큐, 드라마 프로그램 VOD	드라마/영화, 음악/오락 프로그램 VOD
인터넷 방송용 자체콘텐츠	뉴스, 음악, 드라마, 게임, 생활문화 6개채널 30여개 프로그램	NETOP매거진 (동영상 + 웹진) 4개채널 17개 프로그램	드라마/영화, 음악/오락, 문화/정보, 스포츠/특집 4개채널 18개 프로그램

※ 2000년 10월 현재 내용 기준, 자료: 이만제 외(2000)

표46.기타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	방송국명(사이트)	서비스 내용
EBS	EBS(www.ebs.co.kr)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생중계, VOD(웹클래스), CD-Rom(유료)
PBCTV	카톨릭인터넷(www.pbc.co.kr)	PBC 뉴스 생중계, PBC영상물 비디오 판매
YTN	YTN(www.ytn.co.kr)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생중계, VOD, 700서비스
KMTV	KMTV(www.kmtv.co.kr)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생)중계
MNet	MNet(www.mnet27.com)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생)중계, 인터넷 전용방송 Mydio, VOD, mp3 파일 판매(900원/곡),
Tooniverse	투니버스 (www.ontooniverse.com)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계, 케이블 방송 위주의 편성(편성표 제공)
동아TV Ch 34	동아TV (www.dongah34.co.kr)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VOD, 패션하우스와 인터넷 투데이 프로그램의 웹서비스
아리랑TV	ArirangTV.Com (www2.arirangtv.com)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생중계, 영상물 판매, VOD, News On Demand
대구방송	TBC(tbc.co.kr)	텔레비전 프로그램 생중계, DreamFM 라디오 생중계
부산방송	PSB(www.psb.co.kr)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생중계, 4개 채널(스포츠·음악·지역·건강) 독립 프로그램 제공
대전방송	TJB(www.tjb.co.kr)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생중계, SBS, 일본의 UMK, 중국의 허베이 방송 서비스 제공
경인방송	iTV(www.itv.co.kr)	지상파 방송 실시간 생중계, VOD, 무료 회원제 운영
광주방송	KBC(kbc.kisc.net)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생중계, KBS 영상자료 VOD
울산방송	UBC(www.ubc.co.kr)	영상자료 VOD, 넷 교통방송 준비중
청주방송	CJB(www.cjb.co.kr)	이벤트 실시간 중계 준비중
전주방송	JTV(www.jtv.co.kr)	Net Plus(전통 문화 예술정보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는 없음

※ 2000년 10월 현재 내용 기준

자료 : 이만제 외(2000)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 지상파 방송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도 이러한 강점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대부분이 자체 프로그램이며 인터넷 방송만을 위해 기획되거나 편성된 콘텐츠는 음악방송, 이벤트 방송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참신한 소재를 통해 캐티즌에게 어필하는 인터넷 방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과거에 방영하였던 지상파 프로그램을 단순히 VOD, AOD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는 경쟁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국과는 차별화된 독립된 콘텐츠 제작 및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개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사례

천리안, 하이텔, 채널 I, 유니텔, 넷츠고 등의 PC통신 업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우선 프로그램의 편성이 독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자체 웹PD와 제작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하는데 아마추어 웹DJ, 음악인 등이 주요 출연진이다. 인기 가수나 텔런트의 출연보다 비연예인의 활동비중이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도 오락 중심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방송사가 커버하지 못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이 다루어진다.

이것이 지상파 방송국의 경우와 대별되는 점이며, 이러한 채널 구성은 전체적으로 웹진의 성격을 내포한다. 단지 웹진과 다른 점은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 편성 형태로 실시간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천리안 인터넷 방송국은 YTN, 교통방송, 아리랑 TV와 제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음악, 영화, 세계문화, 공연 등의 채널을 두고 독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텔 인터넷 방송국은 독립영화를 제공하는 '인디TV', 스타와의 인터뷰 등을 담은 '스타TV' 등의 5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방송 뉴스라든지 인터넷 방송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추천하는 코너를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유니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니키즈 방송국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는 않지만 대학생 방송국 연합회 소속 6개 대학이 제작한 30분 분량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술적, 자본적 우위에 있는 기존의 방송국과 전략적 제휴를 꾀하고 있는 방송국도 있다. 예를 들어 넷츠고는 KBS와의 협력 아래 인터넷 방송국 DDS(Dancing Duck Station)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인터넷의 콘텐츠

형태가 동영상과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넘어가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방송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 및 제작 인력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자본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 업체와 제작기술과 장비, 제작인력 그리고 기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존 방송사의 전략적 제휴 현상은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 영역이 점점 대규모화, 상업화되어 갈수록 소규모 독립업체의 입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취향의 문화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표47.PC통신 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주체	방송국명(사이트)	서비스 내용
천리안	천리안 인터넷 방송국 (cfocus.chollian.net/main.htm)	음악, 영화, 세계문화, 공연, 소식, 게임·스포츠, 창고의 채널을 두고 독립프로그램 제공 YTN, 교통방송, 아리랑TV와 제휴
하이텔	하이텔 인터넷 방송 (webcast.hitel.net)	스타TV, 박찬호 Live, 인디TV, Shut-up, 쿨사이트 5개 채널 인터넷방송국 추천 및 링크
유니텔	유니키즈 (unikids.unitel.co.kr)	꾸러기랜드, 꾸러기방송, 멀티미디어극장 등의 채널 운영 꾸러기 방송 채널을 통해 요일별로 각 대학이 제작한 프로그램 제공
넷즈고	DDS(Dancing Duck Station) (www.netsgo.com/dds)	손은아의 오리지널 show, Cyber Date Hot Line, 김우석의 Pop On Demand, Duck 's Talk, All 쿨방 5개의 채널 운영

※ 2000년 10월 현재 내용 기준

자료 : 이만제 외(2000)

3) 통일분야 인터넷 방송의 사례

① 민중의 소리(voice of people)

현재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통일분야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는 ‘민중의 소리(voice of people)’ 를 들 수 있다.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은 한국진보정치연

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치경제, 통일국제, 문화생활, 여론광장, 언론 등의 코너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인터넷 수요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은 진보진영 최초의 블로그(BLOG)라고 할 수 있다. 블로그란 인터넷을 지칭하는 ‘웹(Web)’ 과 항해지도인 ‘로그(log)’ 를 합친 말로 네티즌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칼럼과 일기, 기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올리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이는 2002년부터 인터넷상의 ‘1인 언론사’ 로 불리면서 100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네티즌과 시민운동가 등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통일 및 남북관계, 한국사회 문제, 세계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진지한 담론과 고민의 글이 교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진보성향의 네티즌이 사회 각 분야의 낮은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함께 고민하고 읽어 볼 만한 글이라면 첨삭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민중의 소리 블로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부문별 편집을 독자에게 모두 맡기는 ‘독자편집위원회’ 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독자편집위원회가 결정한 편집 방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진도 바꾸지 못한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발적 참여가 블로그의 핵심” 이라는 사실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국에 올라있는 핵심 인터넷 방송 주제는 범국민행동의 이라크 파병반대 행동, 미국의 세계지배 반대, 2003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특집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한미관계, 남북관계, 현정권의 제반정책 문제 등에 대하여 기사를 방송화하여 취급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미국관련한 핵심 주제는 미국이 일으키는 한반도 전쟁반대, 미선이 효순이를 살려내라, 2003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등이 있다.

② 한민족의 소리방송

한민족 소리방송(<http://www.voice-of-korea.com>)은 남한의 기업인이 인터넷 방송을 위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북측과 IT 합작을 전제로 한 협력사업의 일종으로 추진한 사례이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남북이 문화, 역사적인 영역에서 공동으로 편집에 참여하여 통일된 인터넷 방송을 실행한다는 점이다. 남북한 통일방송 합의 약정서를 보면 한민족의 소리방송은 첫째, 남북이 공동편집, 통일된 방송을 하며,

둘째, 사이버백화점, 사이버 대학을 남북한이 공동설립 운영하고, 셋째, IT 산업을 남북이 공동기획하고, 남측이 기술을 제공하여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가장 단순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인터넷 방송이 지니는 쌍방향적인 특성과 장점을 못살리고 있으며, 단순한 강의식 동영상의 전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③ KBS 아름다운 통일

KBS가 운영하는 아름다운 통일(tongil.kbs.co.kr)도 인터넷 통일방송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KBS가 기존에 방송한 통일 및 남북관련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영상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통일 및 남북관련 인터넷 방송의 일종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비슷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 방송국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로서 북한통일뉴스, 스타스페셜, 기획마당, 사이버 통일교실, 북한백과, 북한영상자료, KBS 북한 및 통일관련 영상자료, 학습정보, 참여마당 등의 코너를 가지고 있다. 현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일관련 인터넷 방송국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KBS에서 제공하는 북한 및 통일관련 영상자료가 주제별로 모두 제공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데, 북한 레포트의 남북의 창(2001-2003년), 서울에서 평양까지, 일요스페셜, 역사스페셜, 각종 특집방송물도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동영상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방송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④ 기타

일반적으로 인터넷 방송 형태는 아니지만 인터넷 방송에서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예를 들어 MBC, SBS, EBS와 같은 방송국은 통일관련 인터넷 방송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사에서 제작한 통일 및 남북관련 프로그램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방송의 경우 ‘한반도와 북한핵문제’, ‘이라크 전쟁과 남북한’ 등 통일관련 영상물과 토론내용을 인터넷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MBC도 다양한 남북관계 프로그램을 인터넷 방송에 다른 방송내용과 함께 올려놓고 있다.

얼마전에는 경실련 통일협회가 법인 설립과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거쳐 통일TV를 개국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인터넷상에서 북한이나 통일 관련영상물, 뉴스 등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국 ‘통일TV’ 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을 겨냥, 이들에게 친숙한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향후 통일의 주역이 될 세대가 통일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방송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의 계획에 따르면 ‘통일TV’ 는 우선 사이버상에 ‘통일대학’ 을 만들어 기존 경실련 통일협회의 민족화해 아카데미가 실시하고 있는 통일관련 강좌를 녹화해 방영하고, 각종 통일관련 다큐멘터리나, 뉴스 등을 자체 제작해 방영한다는 것이다.



























4) 일반 인터넷 방송의 사례

① 사이버 경찰청의 인터넷 방송

사이버경찰청에서도 인터넷 방송(<http://pbn.police.go.kr/>)을 운영하고 있다. 테마기획, PBN레포트, TV속 경찰 코너를 설정하여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코너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마기획 코너의 경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치안 도우미’, ‘지역경찰 운영체계 혁신(순찰지구대)’, ‘[싱가폴경찰5] 열린 경찰 시민속으로’, ‘[싱가폴경찰3] 안전한 교통 문화, 교육이 최선이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터넷 방송용으로 제작하여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PBN레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소개하고 있다.

표48.사이버 경찰청 인터넷 방송 사례

인터넷 방송 주제	VOD
[여기 이 사람] 경찰관과 늦깎이 학생들	 300K
부산지방경찰청 포돌이홍보단	 300K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위문 공연]	 300K
[경찰체험] 폴리스 아카데미	 300K
[여기 이 사람] 세일즈 경찰관	 300K
[여기 이 사람] 사랑을 찍는 소장님	 300K
[여기 이 사람] 박물관지킴이 김현우순경	 300K
파출소 옆 동물농장 [계산3파출소]	 300K
[화제의 경찰서] 충북 단양경찰서편	 300K
건강을 위한 걸기 예찬	 300K
[화제의 경찰서] 전남 곡성경찰서편	 300K
청소년 범죄 예방교육	 300K
전국 경찰 사격대회	 300K
[화제의 경찰서] 수원 중부경찰서편	 300K
[화제의 경찰서] 전남해남경찰서편	 300K
[화제의 경찰서] 대전 서부경찰서편	 300K
[화제의 경찰서] 강원 고성경찰서편	 300K
[화제의 경찰서] 전북 부안경찰서편	 300K
[화제의 경찰서] 경기 분당경찰서편	 300K
[화제의 경찰서] 포항 북부경찰서편	 300K
[화제의 경찰서] 대구 지방경찰청편	 300K
[화제의 경찰서] 서울 성북경찰서편	 300K
[경찰25시] 수원남부서 교통지도계	 300K
[경찰25시] 수원남부서 고등파출소	 300K
[경찰25시] 수원남부서 원천파출소	 300K
[경찰25시] 수원남부서 권선파출소	 300K

TV속 경찰 코너에서는 각 방송사가 경찰관련하여 방송한 프로그램을 방송사와 협력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도움받아서 경찰청 인터넷 방송에 VOD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이 개설될 경우 사이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TV속 경찰 코너처럼 방송사의 협조를 받아서 통일 및 북한 관련 방송자료를 제공받아 인터넷 통일방송에서 송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동 코너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경찰

방송내용은 다음 표에서와 같다.

표49. 기존 방송사가 제공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사례

인터넷 방송 주제(공영방송 방송물)	VOD
[경찰24시] 중국으로 간 핸드폰	 300K
[경찰24시] 강남에서 온 뺑끼	 300K
[경찰24시] 눈물	 300K
[경찰24시] 거미사나이를 잡아라	 300K
[수사반장] 서울은 비 2부	 300K
[수사반장] 서울은 비 1부	 300K
[수사반장] 노루와 사냥꾼 2부	 300K
[수사반장] 노루와 사냥꾼 1부	 300K
[수사반장] 여름 여름 여름 (2부)	 300K
[수사반장] 여름 여름 여름 (1부)	 300K
[수사반장] 시작과 마지막의 만남 (2부)	 300K
[수사반장] 시작과 마지막의 만남 (1부)	 300K
[수사반장] 단추 한 개 (2부)	 300K
[수사반장] 단추 한 개 (1부)	 300K

② 학교 교육관련

i) 제주교육 인터넷 방송

제주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방송(<http://www.jedcast.net>)이며, 교육 관련 인터넷 방송국으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교육방송을 개국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필요에 따라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인 추진목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문형 교육(EOD: Education On Demand)의 실시로 교육 공동체 구성원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교육환경과 수업방법의 획기적인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달성하고, 미래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 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사례를 보면 통일교육원 인터넷 방송에도

내용만 차이가 있을뿐 형식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교육청의 인터넷 방송의 기대효과는 ① 교육정보화 완성단계로서 기반시설 활용의 극대화, ② 수준별 교과방송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학습기회의 제공, ③ 우수수업 교과방송을 통하여 우수한 교수 학습 방법의 일반화, ④ 디지털 동영상 라이브러리(EOD) 구축으로 교수학습 정보의 관리 공유 확대, ⑤ 각종 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현장의 모습을 방송함으로써 교육의 신뢰성 제고, ⑥ 방송기자재의 공동활용 및 각급 학교 방송국과 연계한 학교방송의 교육적 활용으로 교육적 부가가치 창출 등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제주 교육청의 인터넷 방송 기대효과는 통일교육원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할 경우에도 교육분야에 중사하는 성격과 목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제주 인터넷 교육방송에 등록된 교육 동영상 라이브러리는 약 2, 983개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과목의 교수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준별 교과도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보충내용과 심화내용으로 나누어져서 학년별, 교과목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나아가 학교 현장수업도 교과목별, 학년별로 제공되고 있으며, 심층면접 강좌도 기본소양,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특기적성 방송 코너도 마련되어 홈페이지 만들기, 서예의 기초, 만화그리기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준비해 두고 있다.

제주도 인터넷 방송의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제주교육인터넷 방송, 교사마당, 학생마당, 교수학습자료, 교육마당, 각종대회 등의 코너를 마련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수학습 자료는 최신자료에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교과목, 학년별 교수자료를 모두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데이터뱅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교사들의 교수자료 녹화시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배하여, 진행하는 등 이미 인터넷 교육방송으로서의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제주도 인터넷 교육 방송의 조직은 9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방송국 전반관리 팀장, 촬영스케줄 관리 및 교과방송 담당 PD, 방송편집 및 학교현장수업 담당 PD,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교육정보공유체제 담당, 홈페이지 운영 및 서버관리담당자, 기술감독 방송장비 및 스튜디오 관리자, EOD편집과 학교현장 담당자, EOD편집보조, 방송장비 및 중계차량관리자, 방송보조 및 문서업무 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ii)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www.kybc.org)은 세계화 국제화 속에 21세기를 맞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학적인 감각과 바람직한 정보화 마인드를 키워주고 정보에 대한 욕구 충족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청소년 육성 및 올바른 정보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은 최초의 청소년 전문방송이며, 전국 12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은 청소년방송단과 어머니방송단이 함께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주체적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비영리 무료서비스와 실시간 생방송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의 활동은 청소년 관련한 다양한 장르의 내용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을 요약하면, 방송자료 편집 및 송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진행, 기존 방송 모니터와 정보 및 영상감시활동, 청소년 관련 설문조사 및 자료조사 등이며, 청소년 어머니 인터넷 방송단의 경우 청소년방송단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의 주요 내용은 GO! KYBC, 학교가 좋다, 토크파티, 인포JOB, 뉴스투데이, 좋은 세상, VJ플러스, 아카데미, 엔터테인먼트, 라디오, i-shopping 등의 코너를 통하여 약 16개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물론 각 코너마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은 청소년들이 맡고 있으며, 각 장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터넷 망을 통하여 방송되고 있다.

GO! KYBC 채널 1에서는 청소년들이 가볼만한 지역명소, 문화, 예술, 행사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채널 2의 '학교가 좋다' 코너는 학교중심의 공개방송 프로그램이 방송되며, 채널 3의 토크파티에서는 화제중심의 초대손님과 함께 꾸미는 재치만점의 토크쇼가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관심사를 인터넷 방송에 수용하여 채널 6, 7에서는 테마를 지닌 음악과 라이브음악이 진행되며, 채널 11 'VJ플러스'에서는 청소년 비디오 저널리스트 작품 제작 소개가 이루어지고, 채널 13에서는 각종 게임중계 및 게임 자체가 진행된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 등의 게임이 중개되며, 무료게임도 가능하다.

표50. 청소년 인터넷 방송채널 현황

채널	채널명	내용	
CH-1	GO! KYBC	GO! KYBC	청소년들이 가볼만한 지역명소, 문화·예술행사 중심소개
CH-2	학교가 좋다	학교가 좋다	학교중심의 공개방송 프로그램
CH-3	토크파티	토크파티	화제중심의 초대손님과 함께 꾸미는 재치만점 토크쇼
CH-4	인포JOB	인포JOB	이색, 신종, 인기등 각양각색의 직업세계 소개
CH-5	I-shopping	I-shopping	좋아하는 인기상품, 신상품, 계절상품 등 알뜰구매 정보제공
CH-6	라이오세상	송이의 음악산책	테마가 있는 음악방송 채널
		1318상당실	
		메모리상자	
		스튜디오안에는	
라디오초대석			
CH-7	CJ 뮤직라이브	CJ뮤직라이브	CJ와 함께하는 라이브음악채널
CH-8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	한 주간의 청소년뉴스, IT관련뉴스 소개
		여기는 현장	청소년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뉴스스크랩	청소년관련 뉴스 신문 화제기사 모음
		행사/소식	청소년행사, 문화·예술공연 등행사일정안내
CH-9	좋은세상	미션을찾아주세요	우리주변의 미담과 선행사례 소개
		칭찬메아리	사제간, 가족간, 이웃간, 친구간 칭찬해주고 칭찬받는 아름다운이야기
		푸른아이	신지식인의 꿈을 일구어가는 청소년 소개
		바뀌고쳐버려	우리주변의 상황들을 청소년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기획보도물
CH-10	인터미팅	KY초대석	명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다.
		화제주인공	유명인사, 연예인, 스포츠스타와의 인터뷰
		또래스토리	학교동아리, 청소년단체 동아리 소개
CH-11	VJ플러스	비디오저널리스트	6m/m로 바라본 세상의 이모저모, 비디오저널리스트 작품소개
		뮤직비디오자키	최신뮤직비디오와 사연 등 소개
		웹자키	청소년권장사이트, 쿨사이트, 테마별사이트모음
		북자키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추천도서, 좋은책방소개
CH-12	아카데미	생활회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어로 제공되는 생활회화
		레저스포츠	스포츠, 댄스교실 등
		디지털미디어	절지애니메이션, 클레이애니메이션 등
CH-13	엔터테인먼트	게임중계/게임	스타크래프트 게임중계 및 무료게임
		비디오/시네마	신작영화, 비디오, DVD소개
		댄스	청소년댄스 동아리 소개
		뮤직박스	최신가요, 팝 등
		노래방	-
CH-14	정보뱅크	북스토리	추천도서, 신간도서 소개
		패션/코디	스트리트패션 소개
		건강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특히 청소년 인터넷 방송은 전국네트워크를 지니고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적인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각종 청소년 기관, 단체가 대화방과 각종 방송 코너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각 지역별 청소년 인터넷 방송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앙 부분에서의 자료축적과 공유가 동시에 가능하여 자발적으로 청소년 문화에 참여하고, 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6) 인터넷 통일방송국 발전방안

1) 인터넷 통일방송국의 역할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통일방송국의 설립은 통일교육 전달수단으로서, 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교육원에서 인터넷 통일방송국이 설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일교육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재 통일교육원의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온라인 통일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통일교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내용을 모두 영상화하여, 통일교육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방송사, 북한 방송등의 영상물과 결합하여 다양한 내용의 통일교육 전달내용을 재구성해 낼 수 있다.

둘째,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 내용은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는 디지털 텍스트와 일부 강의음성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과 결합될 경우 통일교육 강의내용 전달에 큰 효과를 지닌 방송영상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다.

셋째, 광범위한 네티즌을 통일교육의 능동적 참여자로 유도할 수 있다. 즉, 현재 통일교육원 산하단체와 기관, 통일교육생을 통일방송국 지회와 회원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이들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통하여 광범위한 전국적인 통일교육 내용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 통일방송국이 설립될 경우 단순한 통일 및 남북관계의 강의식 통일교육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통일 및 남북관련 영화, 음악 등 각종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에서는 남북영화코너 등을 만들어서

영화를 통한 남북이해 뿐만 아니라 영화코너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의 장으로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 통일교육 강좌수를 대폭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인터넷 통일방송이 개국될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양한 범위의 통일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고, 나아가 광범위한 통일관련자들의 우수한 내용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미 방송국 등 각종 기관에서 제작된 통일 및 남북관련 자료를 인터넷 방송국 라이브러리에 집중시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통일부에서 만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통일교육 효과적인 통일교육 전달수단으로 변환시킬 수 있고, 통일부 조직의 핵심 책임자와 정책담당자들을 통일교육에 유기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즉, 통일부의 전 조직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를 영상기록화하고, 부서별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인터뷰와 정책방향을 촬영한 이후 인터넷 통일방송을 통하여 통일교육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고, 다양하고 폭넓은 통일교육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이는 통일부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통된 장르를 만들어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일곱째, 현재 통일부에서 대국민 홍보용 및 정책설명용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방식을 방송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전달효과를 크게 높여놓을 수 있다.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능과 사이버통일교육의 방법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여덟째, 이미 국내에 만들어진 인터넷 통일관련 방송 등에 대한 대응력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내 몇 가지 인터넷 통일방송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네티즌이 선호하는 인터넷 방송의 형태를 통하여 남북 및 통일관련 국내외 뉴스를 취재하여 전달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동영상화하여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원도 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단계에서의 초기진입이 중장기적인 변화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통일교육 전달방식의 개선, 사이버통일교육 기능의 보완, 조직의 유기적 참여확대, 통일교육생의 능동적 교육참여 유도, 통일교육 전달내용의 다양화, 전달내용 수량의 대폭 증대, 다른 장르의 문화적 표현수단들과의 결합 등 기존의 통일교육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와 통일교육 효과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인터넷 통일방송 조직과 설비

현재의 사이버통일교육 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일정수준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인터넷 통일방송이 개국될 경우 조직과 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에는 KBS, MBC, SBS 등 기존방송에는 없는 디지털화나 인코딩과 같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장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 방송이 요구하는 큰 설비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터넷 통일 방송국 개설은 어렵지 않다. 특히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경우 기존 설비와 조직, 운영 노하우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지 않은 예산으로 추가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표51.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장비

구분	세부사항	장비 내역	기존설비 활용여부
하드웨어	서버 장비	웹서버 스트리밍 서버 네트워크 보완장비로서의 방화벽	스트리밍 서버 보완
	네트워크 장비	스위칭허브 시스템 내부 인트라넷 인터넷 전용선	기존 설비 이용 가능
	디지털 영상 장비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편집기 비디오 태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편집기 비디오 태 보완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비디오 캡처보드 디지털 인코딩 시스템 리얼 서버	모두 보완
	소프트웨어	NT, SQL, Firewall 등(시스템관련) 멀티미디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보완
촬영스튜디오	녹음, 영상설비 등	촬영실 영상물 제작실 편집시스템 Betacam, U-matic, MII 등	새로 구축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은 적어도 50 - 100평 규모의 제작 스튜디오와 각종 디지털 방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통일과 북한관련 뉴스와 다큐멘터리, 캠페인, 홍보물 등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과 관련된 기획에서 편집, 송출까지 일련의 과정이 풀세트로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진행할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스튜디오는 50-100평 규모로 시작하여 각종 오프라인 통일교육 강연, 특강, 교육을 비롯해 통일관련 뉴스, 통일부에서 준비한 정보, 각종 기획물 등을 제작하기 위한 첨단 방송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편집 시스템은 DVcam을 주로하는 Linear 편집 시스템과 Non-Linear 편집 시스템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Betacam, U-matic, MII 등의 기본장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계로 인터넷 통일방송국이 개설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스튜디오와 장비를 마련하고 단계별, 기능별 확대에 따라서 설비와 조직은 보강해 나가면 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 통일방송국이 개설될 경우 이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케이블TV방송과 통일교육 위성방송 등 송출망 구축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단계 설비와 조직이 마련될 경우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의 제작 및 운영은 다른 인터넷 방송국의 사례를 고려해보면 통일교육원에서 약 50%의 자체제작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를 고려하면 표에서와 같다.

표52. 단순한 형태의 인터넷 방송 설비

스튜디오 : 다목적용 카메라 : Sony, DSR- 370 ?대 비디오 스위처 : Sony, DFS- 700 ?대 오디오 믹서 : 제일, JIC- 2402B ?대 VCR : Sony, DSR- 60/80 (DVCAM) NonLinear Editing System : HP(Matrox DigiSuite MAX/Pinnacle DV- 500)

현재 한곳의 인터넷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제작과정을 참고하여 인터넷 방송용 강의내용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아래 표에서와 같다. 이 경우 1시간용 강의제작에 84만원 수준으로 통일 및 남북관련 인터넷 방송용 통일교육강좌를 외부 스튜디오에 외주로 발주할 경우 1시간용 100개 강좌 제작에 약 1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2시간용 100개 강좌는 편당 약 140만원으로 합계 1억 4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작 비용은 각종 인터넷 방송용 통일교육 강의·강연을 방송용 등급의 장비를 이용 고화질의 비디오로 제작하여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VHS)로 제공하거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제작형태는 VHS, 인터넷용 파일(WMV), DVD 등이 될 것이다.

표53. 인터넷 방송 강의 제작 비용 견적 예 (1시간용)

단위 : 원

	항목	내역	단위	단가	수량	금액	비고
1	ENG촬영비	1회촬영	1회	150,000	1	150,000	기본제공
2	편집비	1시간	10분	80,000	6	480,000	기본제공
3	촬영용비디오테이프비용	Sony PDV-64N (DVCAM64분)	64분	28,050	2	56,100	기본제공
4	편집용비디오테이프비용	Sony PDV-64N (DVCAM64분)	64분	28,050	1	28,050	기본제공
5	복사용비디오테이프비용	SKC HG-60 (VHS 60분)	60분	2,530	3	7,590	기본제공
6	인력동원비	조교동원기준 (5명×3,900원)	60분	19,500	3	58,500	기본제공
7	복사수수료	VHS복사	1개	5,000	3	1,500	기본제공
8	복사수수료	동영상변환	10분	10,000	6	60,000	기본제공
9	기타	CD-R	1RO	880	1	880	기본제공
10	소계					842,620	
11	복사수수료	DVD복사	30분	40,000	0	0	추가선택
12	기타	DVD-R	1개	33,000	0	0	추가선택
13	복사수수료	VHS복사	1개	5,000	0	0	추가선택
14	복사용비디오테이프비용	SKC HG-90 (VHS 90분)	90분	2,640	0	0	추가선택
15	총계					842,620	

인터넷 방송 구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전문화되고 창의적인 인력으로서 웹PD는 업무 전반에 관한 과정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등의 웹 작업 전반과 홍보 등 모든 것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웹마스터는 인터넷 방송의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서비스를 관리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 프로그램 관리와 유지, 네트워크 관리 등의 능력을 요구한다.

웹프로그래머는 제작된 콘텐츠를 인터넷 상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기술과 콘텐츠 구현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응용력이 있어야 하며, 웹디자이너는 제작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웹 환경에 맞도록 디자인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웹 자키는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자, 리포터, 아나운서 등 복합기능의 능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직관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전반관리 팀장, 촬영스케줄 관리 및 통일교육 강좌 방송담당 PD, 방송편집 및 오프라인 통일교육 방송 담당 PD, 통일교육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통일교육정보공유체제 담당, 홈페이지 운영 및 서버관리담당자, 기술감독 방송장비 및 스튜디오 관리자, EOD편집과 통일 및 남북관계 강좌 혹은 각종 활동 현장 담당자, EOD편집보조, 방송장비 관리자, 방송보조 및 문서업무 담당자 등이다. 이는 업무의 중복 부분은 일인이 동시에 담당하는 것도 가능한데, 1단계에서는 1명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PD가 다양한 장르의 PD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팀장의 책임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단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본격화될 경우 세부적인 기능을 담당할 인력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 통일방송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주는 시사점

기존의 인터넷 방송국의 좋은 사례들은 향후 인터넷 통일방송국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중에서도 제주 교육청 인터넷 방송국, 경찰청 인터넷 방송국,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KBS 인터넷 방송국으로서의 아름다운 통일은 통일교육원이 인터넷 통일방송을 운영할 경우 참고할만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주 교육청 인터넷 방송국의 사례는 통일교육원이 인터넷 통일교육방송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인터넷 통일교육 구축에 어떻게 공동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공한다. 즉, 각 학교 교수, 교사들이 인터넷 교육방송 시스템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가는 통일교육원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실시할 경우 통일 및 북한관련 전문가들과 어떻게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실시될 경우 방송 프로그램을 현재의 사이버통일교육 센터의 내용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통일교육 관련 교수자와 전문가, 심지어는 학습자를 제작과정에 공동참여시킴으로써 가능한데, 제주 인터넷 교육방송의 사례는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54. 기존 인터넷 방송국이 인터넷 통일방송 운영에 주는 시사점

종류	인터넷 통일방송에 주는 시사점
제주 교육청 인터넷 방송국	-통일교육 전문가의 인터넷 통일교육 구축에 공동참여 유도가능 -통일교육 참여 교수자, 교육자들의 전국 네트워크 망을 구축 -통일교육 내용 생산 교수자, 교육자의 인터넷방송 공동제작제공 -연령별, 수준별, 직업별 인터넷 통일교육내용 증장기 제공 가능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라이브러리 운영 -외부 스튜디오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인터넷 통일교육 자료제작의 다원화 시스템 구축
경찰청 인터넷 방송국	-통일부 각부서가 하는 활동의 내용을 영상화하여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음 -통일부 산하 각종조직과 단체들의 통일교육 자료 구축과정에 공동참여 유도 -각 지역조직들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자료 독자적 생산, 제공 -통일 및 북한관련 기존 방송사 자료 제작 협조 및 공동이용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통일교육 강좌의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 가능성 제공 -남북한 동영상,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인터넷 통일방송 코너를 구축 운영 -청소년의 인터넷 통일방송 참여 유도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제고에 획기적인 수단으로 작용 -청소년이 좋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장르와 통일교육 내용을 결합 운영
KBS 아름다운 통일	-북한 영상자료 코너별, 주제별 분류 인터넷 통일방송국에 배치방법 -기존 방송사들이 제작한 남북 및 통일관련 자료의 공동이용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기능과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의 결합방식 제공 -텍스트 위주 인터넷 강의, 토론식 강의, 영상자료 강의 등의 인터넷 화면 공동 이용방식

셋째, 연령별, 직업별, 수준별 통일교육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실행될 때 효과적이고, 그 프로그램을 생성하기에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인터넷 통일교육 라이브러리의 운영방식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외부 스튜디오와 결합하여 인터넷 통일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아웃소싱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이는 사이버대학의 강의 녹화과정에서 아웃소싱하는 시스템과 유사한데, 원격통일교육 강좌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찰청 인터넷 방송국의 경우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 통일부 각 부서가 통일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좋은 시사점을 준다. 즉, 통일부 각부서는 각자의 업무중 국민과 통일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녹화하여 자체적으로 방송국 홈페이지 해당코너에 올려서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부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능동적,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통일교육원 관련 단체 및 기관, 통일동아리 등의 남북 및 통일관련 활동내용을 녹화, 자체 제작하여 인터넷 통일방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통일교육원 차원의 기획과 설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통일교육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통일교육원의 오프라인, 온라인 통일교육이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통일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 통일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이러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통일 및 북한 관련 각종 동영상 자료 및 영화 등을 기존 방송사나 제작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만들어진 방송국 자료들은 제한된 장르에서 제공되고 이용되기 때문에 이용 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통일방송국과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그 활용도는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된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의 경험도 통일교육원의 인터넷 통일방송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심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를 인터넷 통일방송국 운영의 장르로 끌어들이 통일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준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 통일방송국이 개설될 경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남북한 음악, 영화 등의 코너를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을 통일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이러한 우회적인 교육매체를 통하여 남북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이 자체 제작하는 작품을 통일교육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통일방송국은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과 공동으로 통일 및 남북관련 방송자료를 제작하여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KBS가 운영하는 인터넷 통일방송으로서 ‘아름다운 통일’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의 설립과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북한 영상자료를 주제별로 분류

하여 인터넷 통일 방송국 코너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이다. 현재 아름다운 통일 인터넷 방송에서는 북한 스페셜, 특집, 일요스페셜, 북한 리포트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하여 동영상을 주제별로 묶어서 배치하고 있다.

둘째, 동영상 방송자료와 텍스트 위주 인터넷 자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전달하고 있다. 아름다운 통일 홈페이지에 통일교육원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 강좌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셋째, 기존 방송사들이 제작한 남북 및 통일관련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필요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즉, KBS뿐만 아니라 MBC, SBS, 다큐방송 등 기존 방송사들이 만든 통일관련 영상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사장되고 있는데, 이의 효과적인 공동이용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운영하게 될 경우 적합한 모델은 상기 네 가지 사례의 종합일 수도 있고, 각 사례가 가진 장점 중 통일교육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특징만을 취사 선택하여 결합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되든지, 기존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기능과 오프라인 통일교육 기능을 크게 보완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일교육 매체라고 판단된다.

IV. 통일방송국의 필요성과 개국 가능성 검토

케이블에 이어 위성방송이 출현하면서 국내에서 다채널 방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과거에는 한정된 주파수 문제로 방송사업에 진출이 극히 제한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였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저예산의 소규모 방송사가 대거 출현하고 있다. 다채널 방송은 사회 이해집단은 물론이고 공적 기관에게도 이익극대화과 공적 역할 수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종교단체는 이미 케이블방송사를 설립해 선교와 교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차원에서의 교육전문 방송사들이 계속 설립되고 있다. 최근에 위성방송이 출현하면서 정부 각 부처는 부처 업무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하에서 이미 통일방송국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통일은 민족 최대의 숙원사업이며 지상과제이다. 통일은 장기적인 남북한 통합과정으로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지극히 다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남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남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국에 거주하는 한민족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여기에 방송매체를 이용한 통일커뮤니케이션, 혹은 한민족 커뮤니케이션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 가칭 “통일방송국”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통일부는 조직내에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산하에 “통일방송국”을 설립해 영상매체인 방송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남북한 이질감 해소 그리고 주변국의 한민족과의 유대감 형성을 통한 통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본 장에서는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설립가능한 방송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보고, 어떤 종류의 방송형태로 통일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방송형태별로 분석하여 통일교육과 기존 방송과의 관계설정과 네트워크 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는 통일방송국의 필요성을 넘어서 실질적인 설립 방향과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지상파 방송사 제작프로그램의 통일교육 활용방안

(1) 지상파 통일방송국 개국의 제약조건

1) 지상파 통일교육방송의 위상문제

현재 한국내 방송체제는 KBS 1, 2, MBC, EBS를 중심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SBS, YTN, 케이블 TV 등의 각종 상업방송이 혼재하여 있는 상태이다. 이중 공영방송도 적지 않은 채널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공영방송국 사이에는 수신료 배분문제, 송출권, 프로그램 편성의 중복 문제 등이 제기되어 있다. 이들 공영방송국 사이에는 독립성 유지와 협조체제 구축, 중복투자의 제거 문제가 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한국의 교육방송은 KBS와의 협력문제와 중복투자 문제의 제거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통일방송국이라는 공영방송이 다시 만들어질 경우, 기존의 공영방송사간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다시 심화되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기존의 방송사들은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고, 노하우도 축적해 있는 상태이다. 이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상업방송에서도 개별적으로 통일 및 남북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남북교류의 확대추세에 따라 남북한 방송교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방송국은 통일교육을 포함한 보다 광의의 교육전담 방송국으로서 공영방송국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방송국조차도 기존 KBS, MBC 등의 공영방송국과의 업무중복, 예산편성, 시청률 등의 문제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교육적인 면에 특화되고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프로그램의 제작능력, 시청률확보 등의 측면에서 교육방송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방송이 다루는 다양한 교육의 장르중 하나의 영역인 통일교육만을 위하여 또 하나의 공영방송국 형태로서 지상파 통일방송국을 개설한다는 것은 기존 지상파 방송국 혹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교육방송이 기존 공영방송사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KBS에 합병될 경우 KBS 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도 가능하

다는 점, 인건비와 이중적인 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세계적인 교육방송 흐름도 각국별 핵심 공영방송사들이 자체내 교육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공영방송과의 프로그램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교육방송국조차도 현재 KBS가 송출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작과 송출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문제, 웹캐스팅을 위한 비용, 부족한 인력충원과 관련된 자금수요의 증가는 교육방송과 기존 공영방송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요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제작의 생산과 유통측면에서도 기존 방송사와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시장은 지상파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특히 단순히 생산의 측면에서 지배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 생산능력과 유통규모에 있어서 지상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1999년 현재 한국의 프로그램 자체 생산량을 살펴보면 케이블TV의 PP가 46.57%로 지상파방송사 38.13%, 지역민방 7.28%보다 많다. 그러나 유통 가능한 영화, 교양, 오락, 여성, 교통관광, 문화예술, 만화채널의 프로그램 생산량은 케이블TV의 프로그램공급사(PP)가 단지 17.3%에 불과해 전체 프로그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4%만을 차지할 뿐이다.²⁰⁾

기존 공영방송과 교육방송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다도, 기존 방송국 형태로 통일방송국을 개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방송국이 통일 및 남북관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제작해오고 있고, 그 조직 및 인력, 전문성, 설비, 기존 시청자 확보정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 볼 때 통일교육 방송국 개설의 특수성과 차별성의 논리만으로 개설의 필요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기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통일 및 남북관련 프로그램의 제작환경, 제작노하우, 방송네트워크, 방송환경, 인력, 자금, 시청자 확보, 방송국 명칭의 인지도 등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일교육 방송은 기존 공영방송국 형태를 새로이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방송국과 비교해 볼 때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상기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등이 좋은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20) 이수영·이우승, 《21세기를 대비한 방송종합정책연구》, 방송영상산업진흥원, 1999, p.128.

2) 재정의 문제

일반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자본금, 독립청사, 뉴미디어, 각종 방송제작을 위한 설비(제작시설비, 기자채비 등 포함), 방송 전문인력의 확보 등 통일교육원 운영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금과 독립청사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정규방송 제작을 위한 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의 확보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기존 방송사 중 가장 규모가 적으면서 통일교육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교육과 관련된 교육방송(EBS)의 사례를 살펴볼 때에도 통일방송국의 정식 개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따르리라고 판단된다.

교육방송의 예산을 보면 1991년 186억원이었으며, 계속 증가하여 1999년에는 673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공적자금은 정부출연금과 공익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정부출연금은 1999년 134억원에 달하고 있다. 교육방송의 자체수익도 만만치 않은 수준인데, 1999년 5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0%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교육방송의 특성을 잘 살려서 수익사업을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 초에는 자체수익이 26%에 지나지 않았고, 많아야 50% 미만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교육방송의 광고방송 시간대를 늘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판매 등을 통하여 수익을 늘려온 결과 80% 수준의 자체수익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표55.EBS의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공적자금		자체수익	합계
	정부출연금	공익자금		
1991	88	49	49	186
1992	131	20	81	232
1993	142	30	95	267
1994	156	20	141	317
1995	195	30	170	395
1996	224	50	259	533
1997	237	40	569	846
1998	194	-	538	732
1999	134	-	539	673

이러한 자체 방송수익 자금의 높은 비율은 교육방송의 독립성을 제고시켜주는 장점은 있으나 수익 증대를 위하여 상업광고 등의 시간을 늘리거나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래적인 역할은 소홀하게 만들면서 방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시청률 확보의 문제

방송국 시스템으로 갈 경우 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시청률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대두된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방송의 시청률은 대략 1-2%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방송국의 경우 교육적 내용의 대중적 접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방송 포함하여 전체 133개 프로그램중 32개 정도가 2%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도 시청률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경우 교육방송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기존의 방송사들이 시청률 제고를 위하여 사용했던 방식들을 응용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이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업적 광고를 많이 끌어와야 하고, 상업광고를 위한 고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방송 기법을 기존 방송사들로부터 배워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원래 교육방송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편성되는 프로그램을 기존 방송사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기획, 제작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시청률 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교육방송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예산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제약조건을 고려하면 교육방송 고유의 업무만을 지향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교육방송의 재정문제와 시청률 확보 문제를 고려해 보았을 때 통일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교육장르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청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을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동시에 통일교육방송국이 개설될 경우 최소한의 방송국 기능을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조직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확보 또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통일방송국에서 상업광고를 도입한다는 것도 방송의 내용, 조직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실정이다. 상업광고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대규모 예산 확보의 어려움, 통일교육이라는 특수한 장르에서의 시청률 확보의 애로 등은 통일방송국 개설의 근본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통일관련 방송기획단계에의 참여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의 방송 프로그램 활용방안으로 가장 고려해 볼만 한 것이 기존 방송사들이 기획, 제작한 통일 및 남북관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KBS, MBC, SBS, 교육방송(EBS) 등은 북한 및 통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제작하여 왔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일관련 프로그램이 급증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것과 외주를 통해서 제작한 것들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 관심이 있는 주제를 취재, 활용하여 보도한 것과 토론 등을 통하여 진행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기존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일교육원에서 그대로 가져다 통일교육에 활용하기에는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되며, 저작권의 구입은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 방송사의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여 공동제작하는 과정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기존방송국이 방송한 이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동 저작권도 가능할 것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공동활용에 합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방송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KBS의 기획과 제작, 촬영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BS는 남북관계의 큰 변화가 있거나 일정이 있을 경우, 혹은 북한관련한 심층보도가 필요할 경우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을 기획하게 된다. 연간 제작 예정인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것도 있으며, 사안별, 시기별로 통일프로그램을 기획 제작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KBS가 2000년에 추진한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프로그램 기획 제작과정을 보면, 상반기 본 프로그램의 제작추진을 기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추진된 과정을 살펴보면 홍성규 시청자 센터장을 중심으로 본 프로그램의 추진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에 배정관 부주간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황철을 접촉하기 위한 접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00년 7월 14일 북한주민 접촉신청서의 승인을 받아서 중국 북경에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황철과 접촉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제작, 촬영에 참여한 인력은 김규태 PD, 우종택PD, 이동순 교양국장, 배정광 편성본부 교양국장, 김규태, 김한곤, 김영국 제작본부 기획차장, 안형환 보도본부 기자, 서현철 PD, 정인석 보도본부 기자, 윤민섭 제작본부 카메라맨, 강형식 보도본부 카메라맨 등이다. 전체적으로 5개팀이 3차례의 북한 방문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백두에서 한라까지’ 프로그램은 추석특집으로 남북한 공동제작 합동으로 2000년 9월 12일 생방송 되었다.

표56.백두에서 한라까지 제작과정

<p>홍성규 시청자 센터장, 배정관 부주간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황철 접촉 승인 신청(2000. 7. 14)</p> <p>2000년 한민족 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제작물 위한 북한주민접촉승인 중국 북경에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황철과 접촉</p> <p>김규태 PD, 우종택PD, 한민족 화해협의회 김경남 상무위원 접촉승인(2000.8.9)</p> <p>이동순 국장외 5명 방북승인(2000. 8. 10)</p> <p>이동순 교양국장, 배정광 편성본부 교양국장, 김규태, 김한곤, 김영국 제작본부 기획차장, 안형환 보도본부 기자 북한방문(2000. 8. 10 - 8. 18)</p> <p>우종택 PD 방북신청 승인(2000. 8. 25)</p> <p>우종택, 서현철 PD, 정인석 보도본부 기자, 윤민섭 제작본부 카메라맨, 강형식 보도본부 카메라맨 북한 방문(2000. 8. 26 - 9. 16)</p> <p>이동순 교양국장 북한방문 신청 승인(2000. 9. 2)</p> <p>이동순 교양국장, 김규태, 김한곤 제작본부 차장겸 PD, 전인석, 임성민 아나운서 등 제작진 17명 북한방문(2000. 9. 5 - 9. 16)</p> <p>백두에서 한라까지 추석특집으로 남북한 공동제작 합동으로 생방송(2000. 9. 12)</p> <p>kBS 방송단 21명,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진 18명 참여</p> <p>평양중앙TV기자, 사회과학원 연구소 부소장, 백두산 천지전문가 등이 직접출현</p>
--

다른 하나의 사례로 ‘KBS 특별기획 10대 민족문화유산’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획되고 추진되었다. 그 중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프로그램은 KBS일요스페셜 제작팀의 김현 PD와 박희완 카메라맨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민경찬 교수와 함께 우리 민족이 분단 50년 세월을 뛰어넘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북한을 방문해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취재팀은 "북에서 그 노래들은 어떻게 이어져왔는지", "분단이후 만들어진 노래 가운데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는 무엇인지", "통일을 위한 길에서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하여 취재하였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공장, 학교, 야유회, 인민대학습당, 노래테이프 판매소 등을 찾아 방송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의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원래 특별 기획, 10대 민족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현 PD의 29명으로 이루어진 KBS 취재 5개팀이 2001년 5월 7일 3차례 북한방문 승인을 받아서 제작한 것이다.

표57.KBS 특별기획 제작과정

10대 민족문화유산,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 등
 최상식 드라마 국장, 홍성규 남북교류협력 기획 단장, 이규창 2002 월드컵 기획단장, 남성우 기획제작국장, 김홍 본부주관, 배정광 중계기술 부장, 안영동 드라마 부장, 최정길 남북교류 기획단 부장, 김한곤 기획차장 등 9명 북한방문(2001. 3. 24)
 한민족 화해협회의 김경남 상무원원, 리충복 실장, 문창건 참사, 김대봉 참사, 홍광일 참사, 리용필 참사,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의 리명철 참사 등 접촉,
 남북합작 다큐멘터리 제작과 현지촬영 토의
 일요스페셜 팀 김현 PD의 29명으로 이루어진 다섯 개 팀의 3차례 북한방문 승인(2001. 5. 7)
 우종택 기획제작국 PD, 박희환, 김용수 카메라맨,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북한 방문 관련자 접촉(5. 19 - 29)
 우종택 PD, 신재국 PD, 김영선 PD, 최영수, 엄태만, 권혁균 카메라맨 북한방문(6. 19 - 7. 10), 형양성, 발해유물, 개경, 고조선, 동명왕릉, 단군릉, 고구려 산성, 공민왕릉, 보현사 등 촬영

또 하나의 특별기획 북한문화유산 중 우종택 PD, 신재국 PD, 김영선 PD, 최영수, 엄태만, 권혁균 카메라맨은 북한을 방문하여(6. 19 - 7. 10) 북한의 '고인돌·고조선' 유적을 취재, 촬영하였다. 원래 북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비정치적이면서, 남북이 공동제작하기에 적합하며,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기획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북한지역 고인들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남북고인돌 공동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남한의 고인들이 북한 일반주민에게 처음 소개되는 역사적 전시회였다.

이외에도 MBC의 금강산 남북노동자 대회 취재와 관련하여 추진된 일정과, MBC가

공동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네오위즈를 통하여 남북협력용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 표에서와 같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KBS와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기획추진되며, 방북과정의 절차와 접촉창구도 거의 유사하다.

또한 기존 방송사들은 자체적으로 기획한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외부기관에 발주하여 취재, 제작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Q채널에서 방영한 ‘최초공개, 북한에서 본 백두산’ 프로그램은 KBS가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중국 랴오닝(遼寧) 국제TV전과공사 기록영화부와 북한의 용남녹화편집사가 제작한 것으로 평양역에서 출발하는 평양~혜산선을 타고 함흥, 길주, 혜산을 거치는 백두산 관광루트와 풍물, 백두산의 여름을 담고 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이 직접 취재가 어렵거나 촬영하기 힘든 경우 중국의 방송사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북한과 접촉, 제작을 추진하였다.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교류가 힘든 상황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협력 취재가 그나마 유일한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남한의 방송국이 직접 기획,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다. 향후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과 공동협력하여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지리라 판단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일정에 따라서 제작, 촬영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제작편집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SBS의 이용운씨 일가의 북한 탈출기 제작은 이씨 가족이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의 은둔생활, 제3국 도피까지의 약 1백 50일의 숨막히는 과정을 다큐형식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기획특집 보도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사전에 정확하게 계획할 수 없고,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스토리도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사에서 방송기획, 제작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통일 및 남북관계의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단계를 고려해 볼 때 통일교육원은 기존 방송국들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공동기획하여, 프로그램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통일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부 혹은 통일교육원에서 방송전담 전문가와 직원을 배치하여 방송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을 진행한다. 둘째, 통일교육원의 방송담당 전문

가가 북한과 통일분야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방송제작진에게 제공한다. 셋째, 통일관련 방송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종류, 성격, 필요성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획방식에 대한 통일부의 노하우를 전달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공동기획과 추진이 결정되면, 방송프로그램의 공동 이용을 위한 협력방식을 체결할 수 있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이용보다는 각 방송국이 제작하는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공동활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통일부는 기존 방송사에서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북한 접촉 승인 신청단계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파악할 수 있으며, 대북접촉 승인, 프로그램 기획, 방향 설정, 제작추진 과정 등 전과정에서 통일부의 북한관련 전문성과 통일교육 분야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동 협력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방송사의 북한관련 제작 책임자들은 일부 북한전문 기자도 있지만 대부분 다큐멘터리나 혹은 특집을 제작하는 인력으로서, 북한 관련한 전문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관련한 프로그램 작가들도 실질적으로는 기획제작단계에서 북한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제작 PD와 북한 프로그램 내용 작성에 참여하는 방송작가들과의 연계성하에서 프로그램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 참여방안은 얼마든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일부 혹은 통일교육원이 기존 방송사의 통일관련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는 취지보다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제작을 돕고, 추진과정을 협력함으로써 상호 장점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협력과정은 자연스럽게 방송사가 기획, 제작하고 방영한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원이 운영하게 될 인터넷 통일방송 등에도 이용함으로써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일회성 활용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통일교육원에서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운영하게 될 경우 동분야에 참여하는 교수와 직원이 기존 방송사의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동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통일 및 남북한 프로그램 제작진 네트워크 관리

한국의 기존 방송사에서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관련되는 인적 담당자들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참여하는 인사들을 보면 방송사 사장, 편집국장, 교양제작국장, 방송사내의 통일방송연구소 위원, 제작본부 교양국장, PD, 기자 등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KBS가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참여했던 관련자들을 살펴 보면, 제작본부 교양국장, 편성본부 교양국장, 제작본부 기획제작 차장 겸 PD, 제작국 PD, 교양국 PD, 보도본부 기자, 보도제작국 차장, 아나운서, 편성본부 중계기술국 차장, 제작부 카메라맨, 보도부 카메라맨, 정책기획 센터장, 드라마 국장, 기획제작국장, 뉴미디어 본부주간 등이다. 한편의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제작되는 데에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 정리된 표를 보더라도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에 참여한 PD가 무려 70명을 넘어서고 있을만큼 많은 담당자와 대규모 전문인력이 존재한다.

MBC도 비슷한 경우를 보여준다. 북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직위를 보면, 교양제작국장, PD, 카메라맨, 기자, 방송사내 통일외교부 소속 책임자 및 취재기자, 영상취재부 촬영기자, 중계팀 총감독, 기술감독, 음양담당, 영상담당 등이다. 또한 방송사내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및 위원, 그리고 PD 등도 참여하고 있다. MBC의 경우 방송사내에 통일외교부와 통일방송연구소를 두고,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은 여기서 전담하도록 조직운동을 특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MBC 소속 통일관련 전문 프로그램 제작팀과 연계할 경우 이들 조직의 책임자와 담당 PD를 접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SBS도 KBS나 MBC와 유사한 북한 프로그램 담당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방송사들의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참여하는 인력의 분야별 비중은 보도진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교양진, 지원부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방북하는 인력구조를 통해볼 때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처럼 기존 방송사들의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방송사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은 첫째, 기존 방송사의 통일 및 북한관련 특화조직의 책임자와 기획 및 제작 PD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둘째, 각 방송사의 북한관련 프로그램 추진 실무 책임 PD를 중심으로 유사한 역할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통일방송추진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들 구성원들을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담당자로, 혹은 인터넷 통일방송의 기획 및 공동추진 실무 책임자 등으로 다양하게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방송사의 통일 및 북한 프로그램, 보도뉴스 등이 한국사회의 대북정책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원에서의 방송 통일 프로그램 자료 확보 및 공동이용, 북한 및 통일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과정에서의 참여, 인터넷 통일방송 활용과 이용과정의 효율성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표58. 북한 및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PD(KBS)

<p>김현, 김규효, 공용철, 박복용, 이후락, 정현모, 임세영, 임기순, 홍형숙, 황현철, 김주형, 구수환, 이완희, 황형호, 이도경, 임세형, 한창록, 임세영, 윤태호, 윤찬규, 김형석, 신동환, 조천현, 오진산, 서현철, 송재현, 김병지, 김한곤, 박정용, 함형진, 신재국 (이상 일요스페셜)</p> <p>우종택, 이연식, 김영선, 신재국, 문형렬, 유경탁, 최영민 (이상 역사스페셜)</p> <p>황용호, 유찬욱, 이후락, 김한곤, 김찬규, 함형진, 조인석, 송준기, 이은수, 설상환, 백진영, 용태영, 김구철, 조성만, 김정균, 이동순, 김성웅, 한호섭, 김규호, 신성범, 김한곤, 김태형, 조해달, 박영환, 임병걸, 정지환, 양원석, 김찬태, 김만석, 김홍섭, 홍성익, 이승원, 전용길, 조대현, 이규환(이상 KBS 특별기획)</p>
--

(4) 제작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방안 모색

이미 기존 방송사들은 통일 및 남북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방송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큰 범주로 분류하여 보면, 북한관련 소개, 남북한 비교, 북한 이탈주민 문제, 남북 문제 관련한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기존 방송사들의 방영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통일 및 남북관계를 둘러싼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동시에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자료는 강의내용을 포함하여 텍스트 위주의 강의와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전달수단의 중심이 기존 노트중심, 텍스트 중심에서 방송과 인터넷 등의 동영상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 볼 때 동영상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방송사의 방영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한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KBS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자료

KBS는 국가 공영방송으로서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상당수 기획, 제작 해왔다. 통일교육 방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KBS의 방송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북한 부분에서 전개된 한반도 역사에 대한 기획, 취재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KBS 역사스페셜이라는 코너를 통하여 소개되었다. 특히 북한문화유산 시리즈라는 프로그램 명칭으로 북한에서 전개된 단절된 역사의 현장을 취재하였다.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역사의 복원이라는 통일교육에 매우 부합되는 프로그램 내용이다. 주된 내용은 고구려 평양성, 묘향산 보현사, 천년전 국제도시 개경, 고인돌 왕국 고조선, 동명왕릉, 검은 모루 구석기 유적, 700년의 사랑 공민왕릉, 남북역사학의 쟁점, 단군릉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고구려의 무용총, 고분벽화가 다루어졌으며,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획취재하였다. 이것은 남북간 단절로 인하여 다루지 못하였던 한반도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역사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프로그램들이다.

표59.KBS 역사스페셜 북한관련 프로그램

방영제목	방영날자	방영시간	인터넷 방송
남북 최초 공동답사 세계문화유산	2002.11.09	60분	 VOD보기
역사기획 발해 2편 : 대륙의 제국	2002.01.06	60분	 VOD보기
역사기획 발해 1편 : 아시아 네트워크 - 발해의 길	2002.01.05	60분	 VOD보기
[북한문화유산시리즈] 제8편 남북역사학의 쟁점, 단군릉	2001.12.29	60분	 VOD보기
[북한문화유산시리즈] 제7편 7백년의 사랑 공민왕릉	2001.12.22	60분	 VOD보기
[북한문화유산시리즈] 제6편 검은 모루 구석기 유적	2001.12.15	60분	 VOD보기
[북한문화유산시리즈] 제5편 고구려시조 동명왕릉	2001.12.08	60분	 VOD보기
[북한문화유산시리즈] 제4편 고인돌 왕국- 고조선	2001.10.27	60분	 VOD보기
[북한문화유산시리즈] 제3편 천년 전 국제도시 개경	2001.10.20	60분	 VOD보기
[북한문화유산시리즈] 제2편 묘향산 보현사	2001.10.13	60분	 VOD보기
[북한문화유산시리즈] 제1편 고구려 평양성	2001.10.06	60분	 VOD보기
고대사 수수께끼 안악 3호분,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2001.02.10	60분	 VOD보기
[개천절기획] 제2편 : 집중분석, 고조선인 어떻게 살았나?	2000.10.14	60분	 VOD보기
[개천절기획] 제1편 : 비밀의 왕국 고조선	2000.10.07	60분	 VOD보기
북녘땅 고구려 고분벽화, 무엇을 그렸나?	2000.06.17	60분	 VOD보기
영상복원 - 무용총 고구려가 살아난다		60분	 VOD보기

둘째, 남북한관련 핵심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이다. 이는 일요스페셜과 같은 코너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된 주제로 금년에 다룬 프로그램은 남북경협현장, 평양, 남포 그리고 개성(2003), 베이징 6자 회담, 한반도의 운명은?(2003), 정몽헌 사후, 남북경협은 어디로?, 송두울 교수의 경계도시(2003) 등이 있다. 2000년에도 남북경제협력, 분단의 벽은 사라지는가?에서도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을 다룬바 있다. 또한 북한의 변화 관련하여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은 북한의 실험, 신의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2002), 북한은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2002) 등이 있다.

표60.일요스페셜 통일 및 남북문제관련 프로그램

방송제목	방송날자	방송시간	인터넷 방송
남북경협현장, 평양, 남포, 그리고 개성	2003.10.17	60분	 VOD보기
베이징 6자회담, 한반도의 운명은?	2003.09.07	60분	 VOD보기
정몽헌 사후, 남북경협은 어디로?	2003.08.10	60분	 VOD보기
2003 한반도 위기, 미국은 북한핵을 어떻게 보는가	2003.06.22	60분	 VOD보기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인터뷰	2003.06.15	60분	 VOD보기
송두울 교수의 경계도시	2003.05.11	60분	 VOD보기
북핵위기 돌파구는 없는가	2003.02.09	60분	 VOD보기
변혁의 땅 베트남, 통일 열차를 타다	2002.12.15	60분	 VOD보기
북한의 실험 신의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2002.10.06	60분	 VOD보기
북한은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02.08.11	60분	 VOD보기
다시 백두에 서다	2002.02.03	60분	 VOD보기
비무장지대의 이방인들 - 중립국감독위원회	2001.06.24	60분	 VOD보기
[남북공동선언 1주년 특별기획] 남과북 함께부르는노래	2001.06.10	60분	 VOD보기
[독점취재] 아주 특별한 만남-남북최초역사자료공동전시회	2001.03.18	60분	 VOD보기
현지르포] 두만강 사람들 1999.11~2000.11	2000.11.26	60분	 VOD보기
서울-평양 2000년 8월 어머니의 눈물	2000.08.20	60분	 VOD보기
서울-평양, 2000. 6. 13~6. 15	2000.06.18	60분	 VOD보기
평양 아이들의 서울 나들이 - 6박 7일간의 기록	2000.06.04	60분	 VOD보기
남북경제협력, 분단의 벽은 사라지는가?	2000.04.23	60분	 VOD보기
영상기록 1000일, 백두산과 사람들	2000.02.06	60분	 VOD보기
밀착취재 2년, 떠도는 탈북소년들	2000.01.30	60분	 VOD보기
린튼형제의 북한 돕기	1999.09.26	60분	 VOD보기

이외에도 탈북주민을 다룬 주제로 밀착취재 2년, 떠도는 탈북소년들이라는 특별 프로그램도 제작되어 방영된 바 있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유용한 통일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의 북한 핵위기를 올바로 보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심층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전 50년 특별기획 방송자료도 통일교육을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정전, 증오, 충돌, 공포, 평화의 주제로 총 5편이 제작되었는데, 분단 50년의 남과 북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조명한 좋은 방송 자료이다.

남과 북의 정치적 주제를 탈피하여 문화적, 역사적 측면을 다룬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이는 북한의 생활상과 문화, 주민들에 대한 생활방식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서 청소년의 통일교육과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동서독 통일과정에서도 상호간의 생활 문화적인 내용을 많이 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는 남북화해주간 특별기획물로서 북녘땅 고향은 지금(1, 2, 3)이 있으며, 북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최초 공개, 김일성 종합대학, 현장보고 북한의 여성, 평양노래자랑 등이 있다. 또한 비정치물로 남북공동 문화 예술행사(2003), 백두고원을 가다(2001), KBS 자연다큐멘터리, DMZ는 살아있다(1부, 2부) 등의 자연다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적극적인 통일고취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는데,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2000), 우리도 통일합시다(2000), 휴전선을 넘나든 밀사들(2000), 스포츠, 대결에서 화합으로(2000), 마음의 장벽부터(2000), 남북경협 상생의 길 등의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특히 남북화해주간 특별기획물로, 북한의 다양한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매우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KBS 방송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은 북녘땅 고향은 지금, 원산, 사리원, 함흥, 북청, 개성 등이 소개되고 있다. 남북교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 도시 이해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사회주의 북한사회의 문제점과 통일관련한 문제를 심층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분단국의 사례를 기획 취재한 프로그램도 다수이다. 베트남 보고(1990)에서는 사이공에 부는 바람, 빈곤과 궁지 하노이 등을 다루고, KBS 집중기획에서는 통독 1년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거듭나는 게르만(1991), 마르크화의 빛과 그림

자(1991)을 제작하였다.

표61.KBS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일반 프로그램 제작 목록

[한국사회를 말한다]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	2003.09.27	60분	 VOD보기
남북 공동문화 예술행사	2003.08.31	60분	 VOD보기
[특별기획] 평양노래자랑	2003.08.15	60분	 VOD보기
[정전 50년 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 제5편 평화	2003.07.26	60분	 VOD보기
정전 50년 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 제4편 공포	2003.07.19	60분	 VOD보기
[정전 50년 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 제3편 충돌	2003.07.12	60분	 VOD보기
[정전 50년 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 제2편 증오	2003.07.05	60분	 VOD보기
[정전 50년 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 제1편 정전	2003.06.28	60분	 VOD보기
[경의선 연결 특별기획] 미리 가 본 경의선	2003.06.24	60분	 VOD보기
북한 주재 영국대사 초청 대담 -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2003.04.29	60분	 VOD보기
[특별기획] 평화,번영,통일- 제6차 남북해외학자통일회의	2003.04.10	60분	 VOD보기
[특집] 하나됨을 위하여 - 평양에서의 7일	2002.10.03	60분	 VOD보기
[2001 여름기획] 휴전선 횡단보고	2001.08.18	60분	 VOD보기
[KBS스페셜] 백두고원을 가다	2001.08.14	60분	 VOD보기
[KBS특별기획] 6.15공동선언 1년 (2) 대동강벌리의 꿈	2001.06.14	60분	 VOD보기
[KBS특별기획] 6.15공동선언 1년 (1) 은둔의 땅 관광으로 빚장연다	2001.06.13	60분	 VOD보기
[송년특별기획] (1) 2000 남과 북 만남	2000.12.26	60분	 VOD보기
[경의선연결 기공기념 특별기획] 철의 실크	2000.09.17	60분	 VOD보기
[추석특집] 북녘땅 고향은 지금 (2) 개성	2000.09.12	60분	 VOD보기
[추석특집] 작가 이호철의 고향가는 길	2000.09.12	60분	 VOD보기
[2000 한민족 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2000.09.12	230분	 VOD보기
[추석특집] 북녘땅 고향은 지금 (1) 북청	2000.09.11	60분	 VOD보기
[남북화해주간 특별기획] 북녘땅 고향은 지금 (3) 함흥	2000.08.17	60분	 VOD보기
[남북화해주간 특별기획] 북녘땅 고향은 지금 (2) 사리원	2000.08.16	60분	 VOD보기
[남북화해주간 특별기획] 북녘땅 고향은 지금 (1) 원산	2000.08.15	60분	 VOD보기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남북경협 상생의 길	2000.06.20	60분	 VOD보기
[추적60분] 북한특별기획 북한영화 50년	2000.06.18	60분	 VOD보기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영상구성 평양 2박 3일	2000.06.15	60분	 VOD보기

[북한특별기획] 최초공개 김일성종합대학	2000.06.11	60분	 VOD보기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마음의 장벽부터	2000.06.10	60분	 VOD보기
북한특별기획] 현장보고 북한의 여성	2000.06.10	60분	 VOD보기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스포츠,대결에서 화합으로	2000.06.08	60분	 VOD보기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휴전선을 넘나든 밀사들	2000.06.07	60분	 VOD보기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우리도 통일합시다	2000.06.06	60분	 VOD보기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2000.06.05	60분	 VOD보기
내가 만난 북한 북한 사람들] 옥수수박사 김순권	2000.01.05	60분	 VOD보기
[내가 만난 북한 북한 사람들] 북한결핵환자 돕는 스티브 린튼 박사	2000.01.03	60분	 VOD보기
[수요기획] 꿈을 비는 마음 늦봄 문익환	1998.10.14	60분	 VOD보기
[KBS 특별기획] 금강산	1998.08.23	60분	 VOD보기
[월요다큐멘터리] 문화유산의 보고 휴전선을 가다	1998.06.22	60분	 VOD보기
[목요리포트] 통일연속기획 - 2부 끝나지 않은 통일	1997.07.24	60분	 VOD보기
[보도기획] 329일의 비화	1996.10.20	60분	 VOD보기
[KBS 자연다큐멘터리] DMZ는 살아있다 - 2부 새들의 땅 철의 삼각지	1995.08.24	60분	 VOD보기
[KBS 자연다큐멘터리] DMZ는 살아있다 - 1부 원시의 신비 고진동 계곡	1995.08.17	60분	 VOD보기
KBS집중기획] 통독1년 현장을 가다 - 거듭나는 게르만	1991.10.03	60분	 VOD보기
[KBS집중기획] 통독1년 현장을 가다 - 마르크화의 빛과 그림자	1991.10.02	60분	 VOD보기
[베트남보고] 사이공에 부는 바람	1990.06.07	60분	 VOD보기
[베트남보고] 빈곤과 금지 하노이	1990.06.06	60분	 VOD보기
[특별기획] 동독의 선택 - 베를린에서 라이프찌히까지	1990.01.12	60분	 VOD보기
[6.25기획] 제 3의 선택	1989.06.25	60분	 VOD보기

KBS에서 제작한 남북의 창과 같은 코너에서는 북한의 일상생활과 사회, 정치, 경제와 관련된 제반 뉴스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생활상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단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영상물이다. 실질적으로 남북의 창에 방영된 내용을 주제별로 재편집할 경우 북한 사회의 각부문을 심층적이고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MBC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

MBC 방송국도 통일 및 남북문제와 관련된 많은 방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송 장르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PD수첩, MBC스페셜, 100분 토론, 시사토론 등 다양한 코너에서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 KBS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수준이나, KBS는 ‘아름다운 통일’ 이라는 코너에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통하여 집중 활용하고 있는 반면, MBC에서는 특별히 통일관련 방송 혹은 인터넷 방송 코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모든 방송 프로그램중의 일부로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62.MBC 프로덕션 통일관련 프로그램 목록

MBC 스페셜	끝나지 않은 전쟁, 3부 - 거대한 폭풍 한반도와 주변열강	2003- 07- 20	00:48:09
MBC 스페셜	끝나지 않은 전쟁, 1부- 2003 위기의 한반도	2003- 07- 06	00:52:28
MBC 스페셜	미국이 보는 한반도 위기	2003- 05- 01	00:46:56
MBC 스페셜	끝나지 않는 비극 - 탈북자	2002- 12- 22	01:01:26
MBC 스페셜	탈북자 30일간의 중국 현지보고, 2부- 죽음을 넘는 사람들	2002- 08- 04	00:53:00
MBC 스페셜	탈북자 30일간의 중국 현지보고, 1부-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2002- 07- 28	00:54:55
PD수첩	528회, 한반도 핵위기와 악의축	2003- 02- 04	00:54:25
PD수첩	515회, 북한의 선택, 신의주, 평양, 개성	2002- 10- 15	00:51:17
PD수첩	412회, 북한을 판면 돈이된다?	2000- 06- 20	00:55:37
PD수첩	261회, 탈북자	1997- 01- 07	00:37:31
PD수첩	남북 영화교류 어디까지왔나	1990- 11- 13	00:37:15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3, 1회 (한반도 전쟁위기 1994. 2003)	2003- 01- 26	00:55:4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6회(특집- 94년도 한반도 전쟁 위기)	2000- 07- 09	00:53:22
터놓고 말해봅시다	16회(한반도 긴장 완화되는가)	1999- 09- 19	00:52:12
21세기 한국. 한반도	2부(21세기 변영의 조건)	1997- 01- 03	00:43:22
21세기 한국. 한반도	1부(통일의 조건)	1997- 01- 02	00:41:38

MBC가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도 통일관련한 거의 모든 주제가 망라되어 있어서 통일교육원과의 공동활용 방안이 모색될 경우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 먼저 MBC

스페셜에서 다룬 주제들은 ‘2003 위기의 한반도’, ‘거대한 폭풍, 한반도와 주변열강’, ‘미국이 보는 한반도 위기’ 등을 다루고 있는데, 북한문제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와 이를 둘러싼 주변 강국의 입장,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들 주제는 PD수첩에서도 한반도 핵위기와 악의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된바 있다. 이는 북한 현안 문제와 관련된 통일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룬 프로그램도 적지않은데, ‘끝나지 않은 비극-탈북자’, ‘탈북자, 30일간의 중국 현지보고(1부, 2부)’ 와 PD수첩에서 다룬 탈북자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북한주민의 실생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방송 프로그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MBC의 방송프로그램에는 연도별로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방송자료를 활용할 경우 역사적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도 있다.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흐름을 보면, 이슈&이슈 코너에서는 최근 북한문제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들, 즉, ‘송두율 교수 친북활동 논란’, ‘북한인권 개선촉구 결의안’ 통과 논란, ‘대북정책, 굴욕외교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인가?’ 등이 다루어졌다. 이들 방송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활용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의견의 교환은 토론과 자기판단을 통한 성숙된 통일문제 능력 배양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발생되었던 1990년대 초기 상황과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작되어 보존되고 있다. MBC 특별대담 코너에서는 갈루치의 한반도 해법, 한반도 정세와 유엔의 해법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추성춘 시사진단 코너에서 마련된 ‘한반도는 지금(특별대담)’ 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남북한과 4강’ 등의 방송프로그램이 세계석학과의 대담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획, 제작된이후 방송된바 있다. 이들 방송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 운영 교과목에도 부합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및 북한문제 인식에 객관적인 시각을 교육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송일 교수의 한반도 코너에서 다루어진 프로그램도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폭풍의 역사, 고뇌하는 최후의 왕국, 사회주의 대탈출, 통일경제의 기수들, 운명의 카운트 다운과 같은 5부작 시리즈는 1994년에 있었던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

고,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현재 남북문제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남북이산가족 찾기와 관련되어 ‘이제는 만나야 한다’ 시리즈와 ‘남북이산가족 찾기 특집’은 분단의 아픔과 남북한 교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방송자료로, 혹은 통일과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인터넷 통일방송이나 오프라인 통일교육 자료로 유용한 자료들이다.

이외에도 ‘여기자 북한 방문기, 평양 10박 11일’, ‘북한 민요기행’, ‘북한총각 남한 정착기’, ‘유홍준 교수의 북한 답사기’, ‘방북작가 황석영이 본 북한’ 등의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문화 측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익히는데, 유익한 자료들이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북한사회를 접근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통일교육생이 스스로 이를 평가하고, 북한접근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MBC의 뉴스특보 프로그램은 서해상의 남북군함 교전 상황에 대한 상세한 방송내용을 담고 있어서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북한과 민족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이해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MBC가 진행한 수많은 토론 프로그램들도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걸름없이 모두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 발전과 함께 토론과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해가야 하는 미래 한국사회에서의 통일교육 자료로 가장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시민사회가 발전되었던 서독의 경우도 정치교육의 기본원리는 ‘동서독간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스스로의 입장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의 통일교육도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63. 100분 토론 코너의 통일 및 남북문제관련 프로그램 목록

100분 토론	이라크 파병	2003- 10- 23	02:30;00
100분 토론	두개의 조국, 하나됨을 위하여, 1권	2003- 09- 04	01:30:48
100분 토론	두개의 조국, 하나됨을 위하여, 2권	2003- 09- 04	00:24:15
100분 토론	U대회 반복시위 적절한가	2003- 08- 28	01:31:05
100분 토론	6.15 공동선언 3년 정상외교와 남북관계	2003- 06- 12	01:33:45
100분 토론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한미관계	2003- 02- 13	01:27:51
100분 토론	북 "핵 개발 시인" 그 의미와 대응은	2002- 10- 24	01:32:33
100분토론	서해교전 해법은 무엇인가	2002- 07- 11	01:35:16
100분토론	악의 축과 한반도	2002- 02- 08	01:33:55
100분토론	8.15 축전 무엇을 남겼나	2001- 08- 30	01:36:08
100분토론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육일오 남북공동선언 1주년 특집)	2001- 06- 14	01:52:27
100분토론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하나?	2001- 02- 08	01:36:22
100분토론	남북관계 변화속도 이대로 좋은가	2000- 10- 19	01:33:11
100분토론	북한,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가, 1권	2000- 07- 20	01:27:40
100분토론	북한,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가, 2권	2000- 07- 20	00:16:40
100분토론	베트남전 우리에게 무엇인가, 1권	2000- 07- 06	01:02:22
100분토론	베트남전 우리에게 무엇인가, 2권	2000- 07- 06	00:37:13
100분토론	통일의 물꼬 튼 남북 정상회담	2000- 06- 15	01:33:22
100분토론	통일의 길- 남북 정상회담	2000- 06- 08	01:32:56
100분토론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1권	2000- 06- 01	01:30:44
100분토론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2권	2000- 06- 01	00:20:28
100분토론	국가 보안법 체제 수호인가 인권 탄압인가, 1권	1999- 10- 28	01:32:07
100분토론	국가 보안법 체제 수호인가 인권 탄압인가, 2권	1999- 10- 28	00:18:15

표64. 시사토론 코너의 통일 및 남북문제관련 프로그램 목록

시사토론	북미회담이후 한반도	1994- 08- 19	00:52:26
시사토론	제 2차 남북총리회담	1990- 10- 19	01:19:00
시사토론	남북 고위급 회담, 1권	1990- 09- 04	01:23:33
시사토론	남북 고위급 회담, 2권	1990- 09- 04	01:32:06
시사토론	남북 고위급 회담, 2권	1990- 09- 04	01:20:22
시사토론	남북 고위급 회담, 1권	1990- 09- 04	01:33:50
시사토론	남북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1990- 08- 17	01:19:03
시사토론	남북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1990- 08- 17	01:19:10
시사토론	남북 왕래 이루어지려나	1990- 07- 20	01:14:52
시사토론	남북교류의 진로, 2권	1990- 01- 12	00:15:30
시사토론	남북교류의 진로, 1권	1990- 01- 12	01:20:24
박경재 시사토론	남북통로 뚫리려나, 1권	1989- 10- 06	01:10:42
박경재 시사토론	남북통로 뚫리려나, 2권	1989- 10- 06	00:32:47

MBC가 보유한 토론프로그램과 그 속에 담겨진 내용들은 남북문제에 대한 접근은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토론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의 통일교육 활용은 통일교육원이 정부의 시각만을 교육한다는 일부시민단체나 교육생의 선입관에 대응할 수 있고, 시민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적합하다. 토론 프로그램에는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핵심 주제가 모두 망라되어 있어서 한국사회의 시각을 가장 잘 담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제목을 보면, ‘U대회 반복시위 적절한가’,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한미관계’, ‘북 핵개발 시인 그 의미와 대응은’, ‘악의 축과 한반도’, ‘8.15 축전 무엇을 남겼나’,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하나’, ‘남북관계 변화속도 이대로 좋은가’, ‘북한,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가’ 등의 토론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에서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들이다. ‘국가보안법 체제수호인가, 인권탄압인가(1권, 2권)’ 등은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담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1990년대 초에 진행되었던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리즈도 남북관계와 관련되어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단지 이때에는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다 중단된 시점에서 기획제작된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통일관련 격렬한 논쟁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내 여론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통일교육 자료로 판단된다.

MBC가 방송한 자료중에는 1970년대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그램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시간적 흐름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전개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자료로 이용가능하다. 이속에는 ‘김구와 남북협상’이라는 민족분단 초기상황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부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남북간계 중대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식 ‘,’ 7.4 남북공동성명 ‘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지않다.

3) EBS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

교육방송의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은 KBS나 MBC와 같은 기존 방송사가 다룬 프로그램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방송에서 만든 통일관련 프로그램은 거의 모두 통일교육용에 맞추어진 것들이다. 즉,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통일교육 방송 프로그램이 대중을 이루며, 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방송프로그램도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은 학년별 차등을 둔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다. 특히 통일교육원이 청소년과 학생들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방송과의 프로그램 제휴와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이 인터넷 통일교육, 사이버 통일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이들 교육수단과 매체를 통하여 통일교육대상을 통일교육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북한주민 등으로 무한히 확장한다고 전제해보면, 교육방송국과의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력체제 구축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향후 통일교육원이 인터넷 통일방송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자연스럽게 교육대상자 특성별로 필요한 통일관련 컨텐츠나 동영상 등을 분류, 기획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특정대상만을 목표로 하여 만들어진 인터넷 교육용 컨텐츠가 가상공간의 통일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은 온라인 통일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통일교육이 지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있다

는 장점은 있으나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한정된 범위의 통일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통일교육, 인터넷 통일교육 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가상공간에서 전제된 특정 통일교육대상자를 목표로 한 통일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방송사의 통일관련 프로그램 혹은 교육방송국의 제작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의 인터넷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BS의 통일교육 방송 프로그램은 대부분 도덕 교과목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보면, 통일한국의 미래,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 통일시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등이다.

표65.EBS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VOD/AOD명
10주완성- EBS수능특강<사회탐구영역>	20강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남북 통일
10주완성- EBS수능특강<사회탐구영역>	20강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남북 통일
고교영상학습 한국지리	18회- 새천년의 국토 경영- 통일
라디오 EBS 방학생활 (R)	6학년:통일이를 만나요
라디오 EBS 방학생활 (R)	통일로 가는 길
라디오 EBS 방학생활 (R)	통일이 되었어요
우리말 우리글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남.북한말 하나되기(1)
우리말 우리글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남.북한말 하나되기(2)
이야기로 풀어보는 풍수기행	통일을 기다리는 땅 - 파주
중학영상학습- 세계사	수, 당 제국의 통일과 송의 발전
초등 사회 컴키드 지니	통일신라와 발해
초등 사회 컴키드 지니	통일신라와 발해
초등 사회 컴키드 지니	통일신라와 발해
초등 사회 컴키드 지니	통일신라와 발해
코리아! 코리아! (KOREA! COREA!)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체육축전
프로주부 특강	이창형Special 제4편 2001년, 보형통일
학교현장보고	통일교육의 선봉-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학습자료실- 한국사 박물관	후삼국에서 고려 통일까지
EBS 기획시리즈 - 백기완의 노나메기 특강	[백기완의 노나메기 특강] 제11강 이시대 통일
EBS 논술특강	제5강 포용적 시각에서의 통일

표66.EBS 통일 및 북한관련 VOD/AOD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	VOD/AOD명
EBS 논술특강	통일한국의 미래
EBS 수능 포트리스 도덕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EBS 수능 포트리스 도덕	단원 종합- 2.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
EBS 수능 포트리스 도덕	제12강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EBS 수능 포트리스 도덕	제13강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EBS 수능 포트리스 도덕	제14강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EBS 수능 포트리스 도덕	제16강 통일 한국과 바람직한 한국인상
EBS 수능 포트리스 도덕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EBS 수능 포트리스 도덕	통일 한국의 미래상
EBS 수능출제유형분석- 사회탐구영역	6강 한국의 윤리 사상/통일 문제
EBS 수능출제유형분석- 사회탐구영역	16강 한국의 윤리 사상 및 통일문제
EBS 수능출제유형분석- 사회탐구영역	30강 국토 개발과 통일
EBS 수능포트리스 공통사회(하)	제20강 국토의 통일과 국제화 시대의 한
EBS 수능First 사회탐구영역	제28강 한국 윤리 사상/통일문제
EBS 통일진단	10편 사회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EBS 통일진단	11편 통일교육의 나아갈 방향은
EBS 통일진단	12편 통일시대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EBS 통일진단	16편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EBS 통일진단	1편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EBS 통일진단	27편. 戰後 통일환경, 어떻게 변화될 것
EBS 통일진단	3편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EBS 통일진단	44편. 통일 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EBS 통일진단	9편 학교통일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BS TV 고교 윤리	16강 통일의 과제와 전망
EBS TV 고교 윤리	20강 통일의 과제와 전망
EBS 통일진단	13편 북한 경제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EBS 통일진단	26편. 북한 식량난 심화되는가
EBS 통일진단	29편, 북한 인권과 난민문제
EBS 통일진단	2편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EBS 통일진단	37편. 북한 경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EBS 통일진단	39편. 북한의 생존과 외교전략은?
EBS 통일진단	7편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방안
EBS 통일진단	6편 탈북자 문제, 대처방안은?

또한 통일한국과 바람직한 한국인상, 통일한국의 미래상, 국토개발과 통일, 한국의 윤리사상/통일문제 등의 주제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대부분 통일교육원의 교원대상 통일교과목에 채택된 것으로서 방송용으로 제작되어 통일교육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들 통일교육 방송 프로그램은 모두 1강에서 28강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체계적, 단계적으로 장기간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매우 유용한 교육자료이며, 특히 청소년이 선호하는 방송용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통일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교육방송에서는 'EBS 교육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통일 및 북한관련 현안 주제를 방송용으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통일교육 교과목뿐만 아니라 통일 및 북한문제의 현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동 프로그램 내용들은 KBS나 MBC와 같은 기존 방송사에서 남북문제를 다룬 주제들과 유사하며, 그 중 중요한 이슈가 된 내용들을 선택하여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EBS통일진단' 코너에서 만들어진 주요 내용들로서 사회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교육의 나아갈 방향은?, 통일시대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등의 방송 프로그램은 교사용 교과목에 부합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다.

반면 EBS의 통일진단 중 북한 경제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13편), 북한 식량난 심화되는가(26편), 북한인권과 난민문제(29편),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2편), 북한 경제개혁, 어디까지 왔나(37편), 북한의 생존과 외교전략(39편),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방안(7편), 탈북자 문제, 대처방안은(6편) 등의 방송프로그램은 통일 및 남북문제 현안을 다룬 내용들이다. 통일정책비교, 한반도 주변 통일환경 등의 기본 교과목과 남북문제 현안을 다루고 있는 통일교육원 교과목 구성과 비슷한 형식으로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교과목은 제목까지 통일교육원 교과목과 일치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방송국의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교과목 구성과 매우 유사하고, 학생들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내용을 방송프로그램화 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교육원의 향후 교육시스템 발전방향과 관련되어 협력할 분야가 많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방송의 통일교육 방송프로그램이 통일교육원의 교과목 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고, 특정 교육대상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공동이용 가능성도 그 어느 방송사보다도 많다고 할 수 있다.

(5) 통일교육 방송체제의 운영 및 발전 방안

지금까지 통일교육원이 통일방송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게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방송기능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기존 방송국과의 프로그램 공동 기획, 개발

통일교육원은 기존 지상파방송사가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한 프로그램 제작시, 공동참여와 활용방향에서 통일방송에 유효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KBS, MBC 등의 공영방송과 SBS 등의 상업방송은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제작하여 방송한바 있다. 특히 근년에 들어와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남북간 방송프로그램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방송국 차원에서 통일관련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도 많아지고 있다.

방송사의 북한교류방문도 획기적으로 증가하리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모든 방송사들은 북한방송 교류 혹은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제작을 위해서 통일부에 방북승인 및 대북인사 접촉 승인서를 요청하게 된다. 또한 북한 기관 및 전문인력 접촉과정에서도 통일부의 승인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존 방송국의 대북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과정, 제작과정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북한관련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히 많은 북한 프로그램의 제작 진행과정은 북한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과 남북한의 통일수요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방송국과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협력할 경우 통일교육에 필요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송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교류기금과 방송발전자금을 통한 지원과정을 통하여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존 방송사들이 북한 방송사와 협력하여 방송 프로그램 교류와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경우 남북교류기금 및 방송발전자금, 통일교육 방송자료 제작 기금(가칭) 등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과의 공동제작이나 제작협력, 영상물 수입은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이다. 또한 북한 영상물 단가와 제작협력 비용이 현실적으로 적지않다. 나아가 북한과의 영상물 교류 및 제작협력은 남북 방송교류를 통한 남북 이질 문화의 교환과 동질성 회복, 통일교육 방송자료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 따라서 기존 방송사들의 북한방송 교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남북방송교류 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하여 기존 방송사의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제작 과정에 공동협력 방법과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방송사들은 이미 상당히 다양하고 수많은 통일 및 남북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여 왔다. 남북교류가 확대될 수록 더많은 프로그램이 기획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방송국의 통일 및 북한관련 제작자나 기획자,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 방송사간의 의사소통 경로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북한 방송과 교류를 추진하게 될 경우 북한측과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도 크다. 현재까지는 남한의 기존 방송국들이 북한 방송과의 접촉을 시도할 경우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제작지원을 넘어서 방송 프로그램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국내 방송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북한과 방송교류 등을 통한 통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방송사 대표, 통일부 등의 관계 기관, 언론학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방송 교류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일교육원은 기존방송사가 기획 제작하는 통일 교육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방송국의 북한 및 통일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KBS, MBC, SBS, EBS 등 기존 공영 및 상업방송국들은 다양한 조직담당자들이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방송사들은 방송사내의 통일관련 연구소 및 통일외교부와 같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 조직 담당자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각방송사 별로 이미 오래동안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가 만들어져 왔고, 여기에 참여한 전문인력들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방송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 방송사들의 통일 및 북한 프로그램 제작진, 이와 관련된 조직과의 밀접한 네트워크 관계구축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방송사의 통일관련조직이나 전문인력과 협력함으로써 통일교육원에서의 방송 통일 프로그램 자료 확보 및 공동이용, 북한 및 통일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과정에서의 참여, 인터넷 통일방송 활용과 이용과정의 효율성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사의 통일 및 북한 프로그램, 보도뉴스 등이 한국사회의 대북정책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교육원이 방송사 제작진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존 방송사의 통일 및 북한관련 특화조직의 책임자와 기획 및 제작 PD를 중심으로 ‘통일방송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 혹은 각방송사의 북한관련 프로그램 추진 실무 책임 PD를 중심으로 유사한 역할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통일방송추진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원의 일부 교수가 통일방송 운영의 전문위원 자격으로 통일방송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와 관련된 중요 역할을 전담하는 방안도 동시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3) 기존 방송국 프로그램의 공동 활용방안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공영방송국과 상업방송국은 통일 및 남북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상당수 제작하여 확보하고 있다. KBS는 ‘아름다운 통일’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자사가 기획제작하여 방송한 이후 보유하고 있는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역사스페셜, 남북의 창, 일요스페셜, 기획특집 등 KBS의 일반 프로그램 시간에 기획제작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남

북현안 문제, 북한이해 프로그램, 주변 4강과 외교, 북한이탈 주민 등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한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토론에서 다루어진 각종 남북현안 주제들은 남한사회의 통일관련 시각과 의견, 견해차이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통일교육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로 분석되었다.

향후 남북교류 확대와 시민사회의 발전, 민주화의 진전 등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남북간 현안문제에 대한 통일교육은 그대로의 정보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동서독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KBS가 다른 토론의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용한 교육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MBC도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MBC도 100분토론은 남북현안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서, 이들 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일반인 참여의견이 담긴 토론내용을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자료와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자료로 활용할 경우 교육효과와 성과는 적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통일교육원에서 이들 토론프로그램을 일정한 평가시각과 비판적 안목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에 적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존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은 일회성 방송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되고 대부분 사장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즉, KBS가 인터넷 통일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MBC는 MBC 프록션을 통하여 인터넷 동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지만 특별히 통일코너로 마련된 것도 아니며, 일반 방송 프로그램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나 특정 소수가 아니면 이용하기 힘든 상태에서 보관, 관리되고 있다. KBS의 인터넷 통일방송도 KBS가 지니는 공영방송의 성격에 부합되는 측면은 많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KBS를 방문하는 시청자들은 인터넷 통일방송 코너를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 방송사가 기획제작한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원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나 이후 확충될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등에서 활용하게 될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이용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적으로 통일교육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인터넷 상으로 찾는 네티즌들은 통일교육원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가장 많이 접속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오프라인 통일교육생에 대한 통일교육시의 이용과, 학교통일교육 자료로서 교원들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접근시 매우 유용한 기초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원이

기존 방송사의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사용 가능성을 확보해야될 필요성은 향후 통일교육의 전달수단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쪽으로 강화된다는 점,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인터넷 통일교육방송 등을 통하여 남북한 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 동영상 교육자료가 교육매체와 수단의 변화환경에 텍스트형 자료보다 적합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통일교육 위성방송국 설치가능성 검토

현재 위성방송을 통하여 통일 및 북한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이 송출되는 곳은 기존 지상파 방송국들이 운영하는 위성방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기존 방송국의 위성방송 프로그램 편성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특별한 편성과 시간대에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경우뿐이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을 위한 위성방송국 개설이 가능한가를 위성방송의 특징, 통일교육과의 결합가능성 차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한다. 인터넷 방송과는 달리 위성방송을 통한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적인 접근보다는 기본적으로 위성방송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통일교육으로의 활용가능성만을 검토해본다.

(1) 디지털 위성방송 개념

최근 방송기술은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신호의 전송 방법도 지상전송뿐만 아니라 위성을 이용한 전송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방송, 통신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개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위성과 해외위성을 포함해 약 300여개의 방송채널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가정용 직접수신 시스템(DTH: Direct To Home)은 약 45cm~90cm 정도의 작은 안테나로 위성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약 2.5m~3m의 중형 안테나를 이용하면 수많은 해외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직접 수신할 수도 있다.

방송환경의 변화와 함께 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현재 위성통신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신호를 디지털로 압축, 처리하게 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프로그램 한 채널 전송에 사용하던 대역폭으로 최대 10개의 디지털 전송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전송 잡음의 영향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주파수 효율 증가로 채널당 전송 비용도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무궁화위성을 이용하여 현재 디지털위성방송을 시험방송 중에 있다.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 전기 통신연맹(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정한 무선통신규칙(RR: Radio Regulation)에서는 위성방송을 "일반대중에게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주국을 통해 신호를 전송 또는 재 전송하는 무선통신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위성송출을 위해 2.5GHz에서 22GHz까지의 SHF대 주파수를 할당했다. 이 주파수는 파장이 워낙 짧기 때문에 마이크로 웨이브라고 부

르며 빛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위성의 주 커버리지 지역까지 가시거리를 따라 전송되며, 지구 전리층의 방해받지 않는다. 위성방송의 장점은 커버리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신호에 포함된 TV, 전화, 컴퓨터 신호 등을 위성 에어리어 안에 있다면 별다른 장애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한 과학자들은 세계 2차대전 기간동안 각각의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밴드의 명칭을 정했다. 예를 들면, 800MHz에서 2GHz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L밴드, 2~3GHz를 S밴드, 3~6GHz를 C밴드, 7~9GHz를 X밴드, 10~17GHz를 Ku밴드, 18~22GHz를 Ka 밴드 등으로 명명했다. 위성시대가 개막된 196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자들은 기존의 레이더 관련 기술용어들을 본격적으로 정리하여 통신위성에 적용시켰다.

세계 최초의 통신위성 시스템은 주파수 3.7~ 4.2Gz 인 C밴드를 사용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의 통신사업자들은 3.7~4.2GHz의 주파수를 이용한 지상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소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C밴드 위성에서 송출되는 전력량은 지상 마이크로웨이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최초의 상업용 Ku밴드 위성은 1970후반 ~ 1980년초부터 사용 되었다. 일부 지상통신 네트워크 에서도 이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C밴드보다는 위성의 고출력신호 송출이 가능하다.

(2) 위성방송 준비 현황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내 위성방송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는 한국통신과 DSM(Dacom Satellite Multimedia System)을 들 수 있으며 또 시험방송으로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KBS와 EBS등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위성방송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언론사와 대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통합방송법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리랑 TV의 해외위성방송이나 동양위성방송(OSB), 한미위성방송처럼 해외의 위성체를 활용해 위성방송을 개시하는 업체도 생

겨나고 있다(이수영 외, 1999).

1)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위성방송 사례

KBS, MBC, E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는 방송사업기술 축적 및 콘텐츠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방송사의 영역확대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와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강했지만 위성방송의 경우 유료 방송을 통한 상업적 서비스의 개념이 강하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의 상업적 변질화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 공급사(PP)로만 허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수영 외, 1999).

현재 위성방송을 시험송출하고 있는 KBS는 위성방송 관련 법규만 제정되면 바로 위성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BS가 위성방송에 참여할 경우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위성방송처럼 공영방송의 역할을 그대로 위성방송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공익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유료방송의 성격이 강한 위성방송 사업에 KBS가 참여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위상과 대비되는 측면이다. 더구나 KBS가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위성방송에 굳이 참여해야 하는가와 현재의 거대한 조직이 더욱 커지게 되면 방대한 조직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다.

따라서 KBS의 위성방송 참여는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참여라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참여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과 무엇보다 KBS의 역할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익성 제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KBS는 위성방송 사업계획 초기부터 2개 채널 방송을 준비하여 1996년 7월 1일 첫 방송을 통해 현재까지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 KBS의 위성방송 실시는 위성시험방송용 실용화 시험국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었다. KBS의 위성방송은 ‘종합정보채널’ 과 ‘교양오락 채널’ 등 두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KBS의 위성시험방송은 LD 수준의 고화질과 CD 수준의 음질, 16:9의 와이

드 화면 등이 가능한 디지털 방송으로 지름 45cm 정도의 안테나와 셋탑박스만 있으면 수신이 가능하다.

MBC는 1995년 9월 전담준비조직인 ‘위성방송단’을 신설하여 위성방송 편성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입, 시설 및 장비 설치,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MBC는 위성방송 시설은 여의도 본사 사옥을 활용하고 방송장비는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자동화 운용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며 위성방송에 필요한 구조정실 1개와 스튜디오 2개를 비롯해 종합편성실, 더빙실, CG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조달 면에서 MBC는 자체제작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외부제작물량을 국내 제작시장이 허락하는 데 따라 늘려나갈 계획이며 조직과 인력의 운용은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위성방송을 실시하되 효율성과 생산성은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오락채널”이라는 채널사용사업자로 위성방송사업에 진출할 계획인 SBS는 지난 92년부터 뉴미디어위원회를 구성, 위성방송 사업 참여를 준비해오고 있다. SBS는 위성방송 사업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기존 지상파의 시설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위성방송 사업의 인력운용도 소수정예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수급면에서는 위성방송 초기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외화 및 지상파 방송물을 적극 활용한 뒤 위성방송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위성방송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기존 방송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자의 위성방송 사례

한국통신은 위성방송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방송법안이 제정되는 즉시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무궁화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으로서는 DSM의 오라이언 위성발사 실패로 단일 위성체 사업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성방송사업과 관련해 한국통신은 초기 채널수를 약 70-8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채널 구성은 기존의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사(PP)가 약 30개, 지역민방 13개, 현재 시험위성방송 중인 채널 5개 등 기존 채널 50-60개와 신규채널 20개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내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국자

본의 유치나 외국사업자와의 연계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케이블 TV 등 타 매체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사업 초기에는 일정 지역에 일부 채널만 패키징하는 SCN 방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케이블망의 용량한계와 서비스의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DTH방식 등을 통한 경쟁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데이콤은 위성방송 사업을 위해 자회사인 DSM을 설립했다. 그러나 데이콤 온라인 위성발사의 실패로 데이콤이 위성체 사업자로써 위성방송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특히 통합방송법은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DSM은 한국 통신의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DSM은 위성 플랫폼 사업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SM 측은 프로그램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PP, 신규 채널, 외국 채널 등을 중심으로 채널편성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채널 구성에 있어 국내 PP는 70% 정도, 나머지 30%는 신규채널과 외국채널에 할당할 예정으로 있다. 신규채널의 예를 들면 홈쇼핑, 여행, 낚시, 국내음악, 아시아 음악, 팝송 등 케이블 TV보다 더 세분화된 장르가 거론되고 있고, 외국 채널은 HBO, 디스커버리, 액션, 골프채널 등으로 예정하고 있다. DSM 측에서 제시한 위성방송 사업 실시 초기의 적정 채널 수는 60-80개 정도이다. 또 My Channel 시스템의 도입과 쌍방향 E 메일 서비스, 10분 간격의 NVOD 형태로 전송하는 PPV 등의 부가서비스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신은 위성체 사업자라는 우선권을 갖고 위성방송사업까지 주도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DSM의 경우 한국통신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채널구성, 가입자 관리 등 실질적인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어한다고 할 수 있다.

(3) 위성방송 서비스의 현황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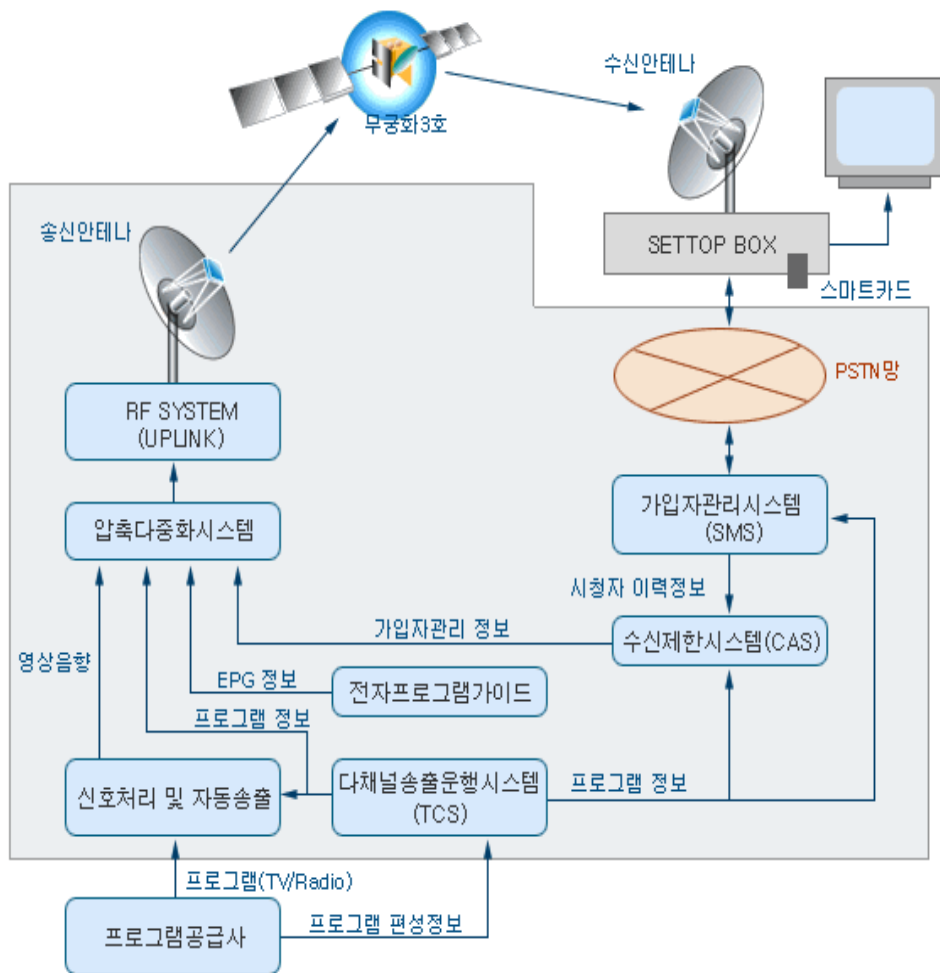
현재 KDB는 인도네시아 적도 상공 35,699Km에 위치한 무궁화3호 위성을 사용하고 있다. 이 위성은 CS 12기와 BS 6기 및 Ka밴드 3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 중 KDB가 방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CS 6기와 BS 5기이다. 무궁화3호 위성을 통하여 TV채

21) 방정배 외, 위성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2002, 한국방송진흥원, PP. 41-43.

널 86개 그리고 오디오채널 60개를 송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디지털위성방송의 전송시스템을 살펴보면, 기저대역 시스템, 자동송출 시스템, 다채널 송출운행 시스템, 제한수신 시스템 및 주조정실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PP에서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베이스밴드에서 신호 처리되고, 다채널 송출운행편성표(TCS) 정보는 송출 자동화프로그램(APC)을 이용하여 전 채널이 자동 송출된다. 또한 PP에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정보, 전자프로그램 안내정보(EPG)는 엔코딩시스템을 통해 디지털화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림12. 위성방송의 방송송신 시스템



자료 : 박정배 외(2002)

KDB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 채널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TV채널 84개 오디오 채널은 60개로 총 144개의 채널을 송출하고 있다. 84개의 TV채널 중에서 10개의 PPV(pay per view)채널과 1개의 채널안내 채널은 KDB의 자체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채널구성을 사업자와 장르에 따라 구분해 보면, KBS, SBS 등 지상파가 운용하는 채널이 총 13개(EBS 포함)이며, 온미디어 등 기존의 MPP 사업자들이 대부분의 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장르별로 채널구성을 살펴보면 영화 채널이 13개(KDB의 PPV채널 제외), 오락/드라마 채널이 9개, 스포츠 8개, 취미/생활, 교육, 뉴스/정보, 공공/종합 각각 6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67.KDB 채널구성 현황

장르별	채널 수	채널 명
영 화	13개	movie-plus, OCN, 제3영화, Home CGV, OCN Action, 씨네포에버, ABO, TCM&클랙무비, MGM, HBO Plus, Spice TV, Midnight Channel*
오락/드라마	9개	KBS 드라마, drama.net, SBS 드라마, Comedy TV, 디즈니채널*, 애니원TV*, ghemTV, g@mbc, GGTV*
스포츠	8개	SBS sports, SBS 골프, KBS sports, KSN 스피드레저*, FTV, MBC-ESPN, Star Sports, Adventure One*
취미/생활	6개	Health Sky TV*, 여행레저 TV*, sky 바둑*, Beauty TV, Food 채널, 동아TV
교육	6개	OUN, EBS, EBS plus1, EBS plus2, JEI 스스로 방송, Kids Sky
뉴스/정보	6개	ABS농어민방송*
공공/종합	6개	국립영상(KTV), 시민방송(KTV), 아리랑TV, KBS 1, KBS 2, KBS Korea
음악	5개	채널V코리아, WAVE TV*, KMTV, M.net, MTV
홈쇼핑	4개	농수산쇼핑, 현대홈쇼핑, LG홈쇼핑, CJ홈쇼핑
다큐	4개	히스토리채널, 내셔널지오그래피, Animal planet*, 논픽션 Q Channel
종교	3개	CBS, Sky-평화, 불교방송(btn)
외국	3개	CNN, NHK*, CCTV
합계	73개	
오디오채널	60개	Satio, Music Kiss Station

자료 : 박정배 외(2002)

그러나 구성된 채널들의 대부분은 기존 케이블TV의 PP사업자라는 점에서 위성방송의 차별성을 채널구성에서는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KDB의 자체 PPV채널을 제외하고 본다면 총 73개의 TV채널 중 위성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채널은 13개로 17.8%뿐이다. 또한 채널의 장르적 특성 역시 위성방송만의 독특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 기존 케이블TV PP사업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장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채널 서비스의 차별화가 전혀 부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KDB는 위성방송의 첨단서비스라는 다기능 서비스들을 거의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매출 포트폴리오(Portfolio)에서 밝혔던 interactive 서비스, 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판매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구체적인 일정 역시 불확실한 실정이다. 단지 오디오 전문채널과 성인인증을 필요로 하는 성인방송 만이 케이블TV와 차별화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KDB는 자체 PPV채널로 Sky-Choice채널 10개를 멀티플렉스(multiplex)로 구성하여 송출하고 있다. Sky-Choice는 NVOD방식으로 리모콘 조작을 통해 30분마다 송출되는 영화전송시간에 따라 영화를 골라보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이미 유료화되어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케이블TV가 서비스채널 하나를 갖고 4개의 SO를 통해 전화주문을 통해서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가장 차별화된 위성방송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성방송은 2002년 8월 10일부터 위성방송의 가장 차별화된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동체 서비스도 상용화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동용 안테나와 TV 모니터, 스마트박스 등을 구비함으로써 이동체인 자동차, 선박 등에서 KDB가 송출하는 프로그램 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필요되는 장비는 오픈마켓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면 되며, 전체 장비를 모두 구입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은 약 12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장비의 무게 및 가격의 측면에서 보편적 상용화는 더 많은 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4) 위성방송의 다채널 편성과 활용방안

효율적인 채널구성으로 최대의 수용자를 끌어들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성방송과 지상파 혹은 케이블방송들 모두 편성의 목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위성방송의 운영자들이 당면하게 될 편성의 문제는 지상파 방송인들의 그것과는 매

우 상이하게 된다. 지상파방송은 단일채널을 대상으로 하며 편성단위는 프로그램이 되겠지만 다채널로 이루어진 위성방송은 하나의 채널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들은 물론, 각각의 채널을 편성단위로 보고 다양한 채널이 상호보완적인 관계 아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전체 위성방송을 구성하게 된다.

다채널 편성방법은 다음과 같이 채널내와 채널간 편성으로 나뉜다(이수영 외, 1999).

1) 채널내(intra-channel) 편성

특정 채널을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로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는 편성방법이다. 예컨대 하나의 다큐멘터리 채널을 어떤 시간대에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업무이다. 대개 채널사용사업자, 즉 PP(Program Provider)가 맡게 된다. 이 영역은 특히 단일 채널로 이루어지는 지상파방송간의 경쟁상황에서 많이 연구된 부분이다. 시청자의 생활리듬, 경쟁채널과의 관계, 자기 채널의 가용자원의 활용과 같은 여러 요소 속에서 시청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만드는 방식으로 행해져왔다.

위성방송의 채널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겠지만 다채널의 패키지화로 운용되는 추세 속에서 채널내 편성 전략이 시청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차별성과 소구력은 많이 감소한 편이다.

2) 채널간(inter-channel) 편성

채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수신료 체계별로 다양한 상품묶음을 제공하는 편성업무를 말한다. 이 업무는 위성방송사업자가 담당하며 실제로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이것을 맡는 추세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외에도 마케팅 및 가입자관리, 수신료 징수/배분, 방송프로그램을 위성에 송출/암호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실질적인 위성방송담당자인 플랫폼사업자의 업무 중 핵심은 프로그램의 구입과 채널 패키징, 그리고 마케팅이다. 일례로 BskyB의 원가구성을 보면 프로그램구입에 62%, 가입자관리 12%, 마케팅 11%, 전송비용 8%, 기타 관리비용 7%로 이루어지고 있다.²²⁾

3) 공익 채널과 프로그램의 운영의 필요성

위성방송은 대부분의 채널이 유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논리가 지배적인 논리로 등장하고 가입자 확보를 위해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게 된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 비해 공익성에 대한 논의가 적고 프로그램 편성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성방송도 방송매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성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사업 초기에 위성방송에 대한 공익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채널사용사업자는 점유율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단위채널보다는 보유한 채널 전체의 공익성 보장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위성방송 사업 시작 단계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공익성 실현가능성과 의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민방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공익채단에 대한 출연 요구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방송산업과 영상산업 발전에 투자하도록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채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채널 편성에 있어서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에 시민채널과 퍼블릭 액세스 채널(Public Access Channel)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시민채널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들이 그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방송에 대한 모니터활동 등 방송감시활동을 하는 시민언론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과 수신자의 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 채널과 퍼블릭 액세스 채널은 무료 채널 또는 기본 채널 패키지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입자들이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운영 방식은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위성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내보내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체 채널을 가지지 않은 독립제작사, 시민단체, 소수 계층 등이 특정 채널을 정해 방송시간의 임대를 통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소수취향의 방송이 가능해진다는 점과 방송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

22) 한국방송진흥원, 「새로운 위성방송 정책 및 운영방안 연구」, 1998, p. 16.

여 공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위성방송사업자는 임대한 방송시간에 대한 추가 수수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4) 독립적인 프로그램 제작사의 필요성

위성방송의 실시는 프로그램의 공급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위성방송의 실시에 따른 다채널화와 채널의 확대는 콘텐츠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제작사의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자체 제작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외주 제작은 자회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독립 제작사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 케이블 방송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이 자체 제작 또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신디케이션 창구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독립제작사들의 영세성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 창구로서 기존의 프로그램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정도의 많은 채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채널수의 확대에 따른 영상 프로그램 공급의 확대가 기대되며 독립제작사들로서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독립제작사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계기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5) 내용과 시청자의 선호에 따라 본 채널의 유형

패키지들은 각기 내용 및 대상 수용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특징지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장르의 채널들을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채널들은 세분화된 시장수요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채널의 장르들은 뉴스, 스포츠, 영화, 일반오락, 코미디나 SF와 같은 전문 오락, 교육 및 교양, 쇼핑, 종교, 여성, 어린이 등으로 나타난다.

① 일반오락 채널

영화, 스포츠, 드라마 등의 다양한 유형의 오락프로그램을 방송하여 다양한 취향을 수용자층에 폭넓게 소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채널이다. 기본적으로 일반 지상

과 네트워크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겠다.

극히 좁은 영역의 주제를 다루는 24시간 전문채널들의 범람 속에서도 아작도 가장 많이 시청되고 있는 채널이다. 미국의 USA, TBS, TNT나 우리 나라의 현대방송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제각기 위성방송이나 케이블의 기본채널이면서 그 채널내에서는 지상파방송과 흡사한 띠편성을 통해 시청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② 보도채널

24시간 뉴스전문 채널인 CNN이 대표적인 채널로, 뉴스 등의 보도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편성해서 보내고 있다. 사회적 사안에 대한 폭넓고 심층적인 보도와 24시간 방송을 통한 속보성과 반복성이 장점이다.

전세계의 소식들을 즉각적으로 보도하면서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CNN에서 보듯 현지뉴스를 적절히 포함시키면서,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세계 위성방송들의 기본패키지에도 2-3개정도 어김없이 포함되고 있다. 최근에는 CNBC나 블룸버그와 같은 경제뉴스 전문 채널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③ 스포츠 전문 채널

1993년까지 ESPN은 유일한 스포츠 전문 네트워크로 미국 다채널 케이블 시장의 기본 채널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가진 채널 중 하나였다. 이제 CNNSI, Fox Sports 채널 등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SuperSports와 같은 전문 채널이 생기면서 점차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위성사의 이해에 따라 기본 패키지는 물론, 프리미엄과 PPV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ESPN이나 Fox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별 현지 스포츠 경기를 가미하면서 세분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④ 전문 오락(Speciallty Entertainment) 채널

음악, 코미디, Science Fiction, 드라마, 서부극, 고전 영화 등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채널들을 말한다. MTV나 Channel [V]와 같은 음악

전문 채널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성공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가운데서도 1981년 탄생이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MTV는 이러한 전문적인 오락 채널들의 효시이다. 이후, 역사에 관계된 내용을 전문으로 다루는 History 채널이나 골프전문 스포츠 채널 등과 같이 더욱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채널들은 좁은 영역을 보다 깊게 다루는 만큼 전문 취향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하나하나의 시청률은 낮으나 다수의 채널을 통해 누적 시청률을 높임으로써 방송사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 오락 채널들을 다시 비슷한 장르별로 묶어서 패키지로 지화하거나 채널별로 따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5) 통일교육 위성방송 개국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미 한국도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위성방송이 본격화되면서 위성방송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몇가지 통일위성방송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위성방송이 본격화 되면서 기존의 방송 채널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즉, 위성방송은 방송신호를 디지털로 압축하여 처리하게 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프로그램의 한 채널 전송에 사용하던 대역폭으로 최대 10개의 디지털 전송까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무궁과 3호 위성을 통하여 TV 채널 86개, 그리고 오디오 채널 60개를 송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방송과 같은 특성화된 채널의 확보가능성도 그 만큼 높다.

또한 통일위성방송의 개국과 관련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거론되는 변수중의 하나는 위성방송의 공익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미 앞에서 분석한대로 위성방송은 지상과 방송보다도 상업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논리가 지배되고,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상업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위성방송의 개통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실중의 하나가 공익성의 확보문제이다. 핵심방안중의 하나는 시민채널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역별 미디어 센터를 건립하여,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 등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자체 채널을 가지지 않은 공익성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채널을 정하여 방송시간의 임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다채널 위성방송 시대의 도래와 공익성의 추가라는 시각에서 통일교육원의 통일위성방송 개국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위성방송은 기존 방송국의 설

비와 조직, 노하우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방송의 대안적 형태로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교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통일위성방송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위성방송은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남한내 주민을 대상으로 방송하게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방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전되고 북한내 방송의 개방성이 높아진다고 보았을 때 북한의 방송 청취 방식은 케이블 방송 형태보다는 위성방송 형태의 수신이 더욱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앞장에서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간의 관계에서 분석되었듯이 케이블망의 확충속도보다 위성방송 수신기를 통한 방송전파가 더욱 빠르다는 것이 후발 개도국의 경험사례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동서독의 경우도 분단상황의 극복방안중의 하나로 위성방송이 이용되었다. 즉 서독의 경우 제2공영방송사인 ZDF 설치법인 州간 방송법 2조에서 방송프로그램이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해 독일의 통일과 민족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성방송의 통일지향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서독의 공영방송은 위성방송 개국과 함께 다국적 문화채널을 출범시키고, 독일어권을 묶는 문화채널을 지향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는 당시 서독정부의 대동독 문화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대동독 문화정책을 공영방송사의 위성방송을 통하여 추진한 것이었다. 한국도 서독의 위성방송 활용방안을 참조하여 한민족 공동체 채널로서 위성방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우승 외, 2001, P. 82). 통일교육원이 통일위성방송의 일종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채널을 확보할 경우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 방송국, 사할린 동포, 러시아 고려인 동포, 일본 한인방송국을 연결하여, 한민족 문화의 동질성 확보, 이질감 극복 등 광의에서의 통일교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위성방송은 통일지향적인 매체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위성방송의 확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통일교육원이 통일위성방송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몇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일위성 방송의 채널권 확보와 프로그램의 제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위성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 통일위성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특정 채널의 통일 프로그램 방송 시간대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위성방송이 그랜드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

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는 독점사업이라는 특혜를 누리게 되는데, 공익성의 성격을 위하여 한민족 공동체 채널이나 제3채널 운영 등 통일방송의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이러한 참여프로그램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공영방송사와 협력하여 위성방송에 제공할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이미 다채널 위성방송 시스템하에서는 기존 방송사 또한 위성방송 채널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이 독립제작사와 결합하여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특화제작하여 공급하여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들 위성방송용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혹은 원격통일교육 강의에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이용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통일위성방송 참여가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경우 그 교육적 성과는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성방송의 문제점중의 하나로 시청률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케이블 방송과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나아가 프로그램 패키징이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짜여지느냐, 위성방송 시청을 위한 수신기의 가격과 시청료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디지털 공중파방송을 엮는 셋톱박스의 기능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위성방송의 위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위성방송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위성방송의 내외부적인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들이 유동적이다. 또한 그랜드 컨소시엄의 참여방식과 지배구조, 공익성의 실현방식과 수용여부도 통일위성방송의 단기적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위성방송의 개국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통일방송의 성과와 관련되어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수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위성방송의 설립과 활용가능성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위성방송이 개국될 경우 인터넷 통일방송, 통일위성방송, 원격통일교육 등의 시스템이 상호 연계되면서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의 범위와 교육방식, 교육수단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케이블 통일방송 개설 가능성 연구

(1) 케이블 방송의 개념

케이블 TV는 국제방송환경에 부응하여 국민의 다양한 전문정보 욕구 충족,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기간망으로 활용하는 등 21세기 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종합유선방송법(1991년 12월 31일 제정) 제2조1항에 따르면 “종합유선 방송”이라 함은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음성·음향 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을 말한다.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중계유선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1986년 12월 31일 제정)의 제2조2항에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TV매체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를 내보내는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인 반면 케이블TV는 세분된 시청자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협송매체의 개념인 내로캐스팅(narrowcasting)이다.

따라서 케이블TV는 채널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채널마다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갖게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구미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지상파TV는 인접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파간섭으로 6~7개의 제한된 채널밖에 사용할 수 없으나, 케이블TV는 방송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케이블을 통해 송출하는 방송이다.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방송국에서 가입자택내까지 포설된 케이블 TV 전송망은 정보의 전송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주는 컨버터 즉 채널 변환기와 별도로 모뎀을 설치하면 화상전화, 인터넷, 주문형비디오(VOD), 원격교육, 홈뱅킹, 의료, 원격 방법, 방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중계유선방송은 케이블TV 진화과정상 1단계에 해당하는 형태이고, 현재 케이블TV는 유선방송 진화의 2, 3단계에 해당하는 전문다채널 서비스라는 역할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계유선은 단순히 난시청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을 녹음 및 녹화하여 장르별로 각

각 채널을 달리하여 내보내고 있어 일종의 다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계유선은 자체적으로 케이블TV의 일반적 진화과정을 밟아 왔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중계유선은 난시청 수요를 일차적으로 흡수했을 뿐 아니라 불법비디오 채널, 외국위성방송 채널 등을 통해 다채널 수요까지도 일부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케이블TV의 경우는 유선방송 발전상 근간이 되는 난시청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시청자규모로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차지하는 전문다채널 수요만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경영상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양 사업자간 갈등과 케이블TV의 고전은 난시청 수요 흡수의 중요성 등 케이블TV가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상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에 있던 중계유선방송과는 별도로 케이블TV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케이블 방송 현황 분석

1995년 3월 1일 48개 케이블TV방송국(System Operator; SO)과 24개 프로그램공급사(Program Provider; PP), 2개 전송망 사업자가 97,463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방송을 개시하였다. 1999년에는 77개 케이블TV방송국과 자체 지역채널과 29개 PP채널 및 공중파, 위성방송 등 40여개 채널을 230여만 유료 가입자에게 송출하였으며. 1998년도 케이블TV 경영분석 결과 77개 SO사 중 34개사(44%)와 29개 PP사중 4개사가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수영 외, 1998).

2000년 5월에 방송위원회에서 15개 채널을 추가 승인하여 그 중 14개가 송출함에 따라 PP채널은 43개로 늘어났고, 2001년 3월 PP등록제 실시로 PP수가 급증하였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1차 SO 지역 중계유선방송의 SO전환승인에 따라 33개 중계유선이 SO로 전환하였고 2002년 9월 2차 SO 지역 중계유선방송국의 SO전환 완료되었다. 현재 케이블TV방송국(SO)는 전국 77개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68. 프로그램 공급사 현황(PP)(45개 채널)

공급분야	채널명	공급분야	채널명
보도	MBN, YTN	종교	불교TV, 기독교TV, 평화방송TV
영화	OCN,OCN액션 NTV,무비플러스 HBO,HBO플러스	홈쇼핑	CJ39쇼핑 LG홈쇼핑
드라마	MBC드라마넷 SBS드라마플러스	여성	동아TV SDNTV
스포츠	SBS스포츠30 SBS골프채널	생활.취미	리빙TV, 의료+건강26 웨딩채널,e채널,바둑TV 리빙TV,푸드채널
음악	m.net, m.net논스톱 KMTV	어린이	대교방송,JEI스스로방송
연예.오락	코미디TV, EtN	정보	Q채널, CTN, 환경TV 히스토리채널
만화	투니버스	공공	K- TV,방송대학TV 아리랑TV

표69.PP별 1일 방송 시간(2001년말 기준)

1일 방송시간	채널명
24시간 방송	YTN, MBN, OCN, Q채널, NTV, MBC드라마넷,의료+건강26,KMTV, m.net, 동아TV, SDNTV, 기독교TV,투니버스, 한경와우TV, 이벤트TV,웨더뉴스, LG홈쇼핑
21~24시간 방송	HBO, SBS스포츠, SBS골프, CTN,JEI스스로방송, 리빙TV, SBS축구채널
15~21시간 방송	환경TV, 푸드채널, 평화방송TV, 불교방송,코미디TV, KTV, 방송대학TV, 아리랑TV
15시간 미만 방송	대교방송, 웨딩TV, 부동산TV

(3)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시스템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시스템은 고도의 복잡한 경영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다채널 복수상품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편성하면서, 편익을 극대화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케이블 TV의 채널묶음(bundling) 전략은 서로 다른 채널을 특정으로 묶음(tiering)으로 구성하거나 혹은 서로 상이한 서비스를 조합(packaging)하는 방식 등이 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케이블 TV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편성전략을 설명한다(이수영 외, 1998)

1)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편성

케이블TV는 다채널이라는 복수 상품(multi products), 같은 장르의 프로그램이라도 질이 다른 복수 품질(multi quality levels) 상품이라는 특성을 갖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다분히 이질적인 선호체계(heterogeneous preference system)를 갖는 집단이다. 또한 특정 서비스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 즉 채널을 조합하기가 매우 용이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며, 서비스 분배 부문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작용한다. 시장 구조면에서도 공급자독점과 수요자독점의 유형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며, 따라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또한 케이블TV는 그 자체로 가격과 제품 차별화 전략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채널 티어링은 전 채널을 통합시킨 빅패키지 차원에서는 묶음을 푸는 것(unbundling)이지만, 각각의 티어를 구성하는 채널을 패키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묶음을 만드는 것(bundling)이 된다. 또한 그와 같이 채널을 묶고 푸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PP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한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이수영 외, 1999).

케이블TV의 채널 묶음(bundling) 전략은 이상과 같은 공급자, 소비자, 그리고 규제자가 당면한 케이블TV 시장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서로 다른 채널을 특정의 묶음으로 구성(tiering)하거나, 혹은 서로 상이한 서비스를 조합(packaging)하여 서로 다른 가격으로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하는 케이블TV의 번들링은 ‘가격’ 과 ‘상품’ 이라는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곳이며, 이에 따라 결정되는 케이블TV 서비스의 질과 가격은 소비자의 지불 의사와 소비자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케이블TV 시장의 진화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케이블 TV 고유의 다채널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그에 앞서 일정 규모의 가입자 크기(critical mass)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 재전송 외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절대적인 크기의 가입자 규모가 존재하지 않으면 케이블TV고유의 채널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을 때 케이블TV의 채널 티어링은 절대적인 가입자 수의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재전송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케이블TV의 하위 티어는 초기 난시청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케이블TV만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료 채널 중심의 다수 취향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티어는 광범위한 소비자층을 흡수함으로써 소수 취향의 전문 채널을 시장에 등장시킬 수 있다.

난시청 수요를 충족시키는 채널 티어와 유료 채널을 결합시키는 케이블TV 티어링은 케이블TV 진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케이블TV는 초기 난시청 수요 충족용의 기본 티어와 유료 채널을 통하여 전체 시장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공통분모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상파 재전송에 덧붙여 영화나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대표적인 다수 취향의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방영하는 형식이다. 공통분모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넓은 소비자층의 일부는 자신의 취향을 집중적으로 충족시키는 유료 채널을 시청하기 위하여 케이블 TV에 가입할 것이며, 유료 채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체 가입자 수의 절대적인 크기는 기본 채널이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케이블TV의 기본 채널은 난시청 수요와 공통분모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료 채널 수요에 ‘기생해서’ 등장하게 된다. 절대적인 가입자 수가 있어야만 수신료 중의 일부와 광고를 공통의 재원으로 하는 기본채널이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이블TV 시장의 발전 단계에서 케이블TV 수요의 변화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난시청 수요(혹은 다수 취향 프로그램 수요)로부터 시작하여 난시청 수요 + 유료 채널 수요(더욱 강화된 다수 취향 프로그램 수요)의 과정을 거쳐서 기본 채널 수요(소수 취향 프로그램 수요)의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2)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편성전략

케이블TV의 프로그램 편성전략은 전문용어로 티어링 전략이라고 하며 이는 경제학적 개념인 독점 기업의 가격차별화(price discrimination) 전략의 일종이다. 하나의 프로그램 편성전략은 케이블TV 채널 묶음이다. 케이블TV의 채널 티어링은 케이

블 TV에서 제공되는 다수의 채널을 몇 개의 꾸러미로 묶어서 서로 다른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케이블TV 사업자가 전체 서비스를 단일 가격에 제공하지 않고 티어링을 하는 까닭은 당연히 그것이 단일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보다 현재, 혹은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수영 외, 1998).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 편성전략은 케이블TV(케이블TV 망)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결합시켜 묶음을 만들고, 각 묶음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패키징(packaging)이 있다. 흔히 케이블TV의 번들링으로 혼용되기도 하는 케이블TV의 패키지 서비스는 보다 정확하게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서비스를 끼워서 파는 것을 가리킨다. 케이블TV 프로그램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 혹은 케이블 TV 프로그램 서비스와 전화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패키지 판매 역시 티어링과 함께 케이블TV 마케팅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티어링과 패키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채널 묶음과 확장 채널 묶음이 있을 경우 유료 채널과 인터넷 서비스를 각각의 채널 묶음에 다양한 형태로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케이블TV 마케팅은 이상과 같은 케이블TV의 채널 티어링과 패키지 판매 전략을 입체적으로 결합시킨 매우 다이내믹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3)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특성

케이블 TV에 있어서 순환편성은 "프로그램 재방송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수신자라도 더 시청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케이블TV는 영화 채널을 제외하고는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족시간대, 성인 시청시 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채널별로 분야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다.

케이블TV의 각 채널별 성격을 살펴보면 크게 프로그램 유형별 (Q채널, YTN, MBN, 드라마 넷, 투니버스, SBS SPORTS 30, KMTV, m.net 등), 시청 대상별(대교방송, 동아TV, SDN 등), 주제별(기독교TV, 의료+건강 26, 재능스스로방송, 불교텔레비전 등)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분류는 사실상 각 채널별로 주된 편성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전문편성과 부편성을 조정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전문편성에 관한 세칙"을 간략히 살펴보

면 공공채널과 방송 통신대 채널을 제외한 대부분은 전문편성 90%, 부편성 10%를 허용하고 있고 가정오락분야의 "NTV", 드라마 전문채널의 "드라마넷", 여성분야의 "GTV", "동아TV"는 80%의 전문편성과 20%의 부편성을 허용하고 있다.

또 다른 케이블TV의 특성으로서 순환편성이 있다. 기존 공중과 방송의 경우 재방송과 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공중과 방송에서의 재방송은 주요 프로그램 사이의 빈시간을 메꾸기 위한 댄싱용 프로그램을 말하지만 케이블TV에서는 프로그램을 재방송한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시청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케이블 TV만의 독특한 편성전략으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성시간별, 요일별, 날자별로 달리 방영하여 시청자가 편리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사람이라도 더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순환편성은 케이블 TV에서만 가능하며, 전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여 영상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4) 케이블 통일방송국의 개국 가능성

통일교육원에서 케이블 TV 영역에 진출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공급자(PP)로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종교계에서 불교방송, 카톨릭의 평화방송, 개신교의 기독교방송이 PP 사업자로 케이블 TV 방송 영역에 진출해 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을 특성화한 만화 케이블TV인 투니버스, 공공성을 지향하는 방송대학 TV, 아리랑 TV, K-TV 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케이블 TV의 프로그램공급사는 특화된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각 장르를 보면 영화, 드라마, 스포츠, 음악, 연예 및 오락, 만화, 종교, 홈쇼핑, 여성, 생활 및 취미, 어린이, 정보, 공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일교육원이 프로그램공급자로서의 케이블 TV 방송영역에 진출한다면 공공 혹은 정보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통일교육 케이블 방송을 갖는다 하더라도 케이블 TV 방송 속성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통일교육을 주제로 한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로서의 비교우위가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즉, 케이블 TV 방송국(SO)들이 케이블 프로그램의 티어링 전략에 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묶음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종교방송이 지역 케이블 TV에 방송되는 것은 종교 분야의 특정 수요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교, 기독교, 카톨릭 모두 500

만명 이상의 고정 수요층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영역도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 지역 케이블TV 공급사들이 프로그램 묶음전략에 포함시키는 주된 이유이다.

대부분의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사의 방송내용을 보면 첫째, 특성화되어 있으며, 둘째, 특정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고, 셋째, 비정치적인 분야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을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공급사로서 방송을 제작하고, 케이블 TV방송국에 공급할 경우 수익성과 고객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케이블 TV 공급권을 가진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통일교육의 케이블 TV 프로그램공급사로서의 방송국을 설립하여 단일 채널로서 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방송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되어진다. 일반 종교영역의 케이블 TV 채널과 유사한 형태로 통일교육원이 프로그램 공급사로서 케이블 TV 방송국을 설립하고, 통일 및 북한 관련한 각종 케이블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할 수 있다. 통일교육 분야, 즉 통일 및 북한 관련한 수요층도 일정수준 고정되어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여하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용으로 제작된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이 통일교육원에서 만든 단독채널 이상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케이블 TV 프로그램의 묶음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상태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통일 및 북한관련 케이블 방송의 기획 제작된 프로그램이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사용해주느냐의 문제가 케이블 방송용 통일교육 성패의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위성방송의 경우도 수신용 안테나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야 개별 채널에 의한 방송시청이 가능하며, 케이블 방송용 프로그램이 제작될 경우도 결국 난시청 지역에 대한 방송 목적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 시스템 운영자들의 프로그램 티어링 전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묶음에 들어가야 수요자들의 방송시청이 가능하다. 결국 통일위성방송을 채택하든, 혹은 케이블 통일방송의 프로그램공급자의 형태를 선택하든지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시청자를 만날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의 프로그램 편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형태의 방송국이든지 통일방송국을 개설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다양한 방송형태가 실현되고 있고, 또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케이블 방송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방송시스

템을 활용하여 통일교육 방송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도달하는 것은 통일방송국 설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케이블 방송을 통한 시청자 접근은 케이블 TV가 지니는 상업적 속성 때문에 가장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케이블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자로 통일교육방송을 개설할 경우 통일교육 방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성방송을 위시하여 케이블 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 공급 네트워크 사업에 공공성의 표현비중을 규정화하고, 여기에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묶는 방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방송국의 개설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통일방송국의 추진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 수요계층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다양한 영역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이버 통일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고, 교육적 성과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도 동시에 가능해진다는 점도 큰 장점중의 하나이다.

그 다음으로 위성을 통한 통일교육 방송도 고려해볼만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일교육 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참여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이 케이블 TV 등과 연계될 경우 자연스럽게 케이블 방송영역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케이블용 통일교육 방송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이 케이블 방송보다 위성방송쪽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위성용 통일교육방송국을 고려하는 것도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자로서의 케이블 통일방송국 개국은 케이블TV의 공공성이 규정이나 법규 등으로 명문화되거나 일정한 방송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영화관에서 국산영화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제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송시간대나 혹은 채널권을 확보한다하더라도 통일 및 북한관련한 프로그램이 케이블 시청자 분야에서 공공성으로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V.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북한(이탈)주민 교육 방안

1. 중장기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의 필요성

(1)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과 통일교육 정책적 함의

1)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

1962년 4월 16일 국가 원호처에서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이 시행된 이래,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 사회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최근 통일부의 집계에 의하면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3,131명이다. 이 중 사망자와 이민자 245명을 제외하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2,886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매년 10명 내외이던 것이 김일성이 사망하던 1994년을 기점으로 50명 내외로 크게 증가하여, 97년도에는 85명, 98년에는 71명에 이르렀으며 매년 두 배 가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가족 동반 이탈 주민의 수도 증가하여 여성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리 입국한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얻어 입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90년 이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온 군인이나 자수 간첩, 전향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자, 학생, 해외 상사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동남 아시아와 같은 제3국, 해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탈북 동기 측면에서도 종전의 주요 원인이었던 출신 성분 차별에 대한 불만,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등 개인적·정치적 동기와 더불어 최근에는 극심한 경제난을 반영하는 경제적 요인이 북한 이탈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대부분은 20대(29.2%), 30대(32.3%)로, 40대 이상이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존의 북한 이탈 주민

적응 양상이나 지원 정책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이 노정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이하의 경우는 적응의 폭과 속도가 넓고 빠르기 때문에 적응상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상의 경우는 결혼이나 직업 찾기 등 개인의 일생에 있어 중요한 국면들을 맞거나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응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지별로는 서울(50.4%) 등 수도권에 65.7%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의 노원구 중계동이나 강서구 가양동의 임대 아파트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뭉쳐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같은 북한 이탈 주민끼리 자주 접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번거롭고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서울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방 거주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232개 시군구 중 124개 시군구에 북한 이탈 주민이 분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대략 절반 정도가 무직 또는 영세 자영업, 임시직 등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있어 직업은 단지 경제적 삶의 영위 수단만이 아니며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통로가 되므로, 실업의 의미는 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는 좋든 싫든 대부분이 어떤 형태든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부나 학생이라 하더라도 집단 활동에 늘 동원되어 왔으므로 개인은 항상 집단이나 사회와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직업이라는 매개체가 아니면 타인이나 조직과 연결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고립'의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게 되며, 당연히 적응상의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

2) 북한 이탈 주민 정책의 변화

남북한 모두 시대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60, 70년대의 북한 이탈 주민들과 90년대 이후의 북한 이탈 주민들 사이에는 탈북 동기나 계층별 특성, 입국 경로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 역시 근본적인 접근 방법의 변화가 있어 왔다. 이는 심화되는 탈북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종종 그러한 지원 정책이 잦은 변화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1962년 4월 16일 국가원호처에서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남한 정부의 재정 상태, 대북 자신감 정도, 탈북 이주자의 수,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활용 가치의 중요성 등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윤여상, 1995; 김진윤·윤여상, 1997)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62년 이전까지는 남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한국 전쟁 중 대거 월남한 월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잦은 무장 공비의 출현으로 인한 대북 적대감 고조로 북한 이탈 주민의 활용 가치가 저조한 등의 이유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약했으며, 단지 군 보안적 차원에서 수용되어 활용되었을 뿐이다.

이후 '국가 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 원호법'이 실시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부분적으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기 시작했고, 1974년 '국가 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으로, 그리고 1977년 12월 19일 또 다시 개정되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수혜의 폭은 더욱 증가되어 국가 유공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78년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업무를 국가유공자와 함께 관리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고려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을 동법에서 분리,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북한 이탈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법이 처음 시행되었다(통일부 30년사). 이 시기에 탈북 이주자들의 수혜의 폭은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보상금의 지급은 물론 특별 임용 제도, 주택 무상 제공, 본인, 처, 자녀에 대한 직장 알선,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 보호,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 보호 등으로 국가 유공자보다 오히려 풍족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특권적 지위에 반대하는 여론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도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난민 구호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1993년 12월 11일 '귀순 북한 동포 보호법'이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물질적 지원 수준도 국내 영세민과의 형평성에 맞게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장기적 생활 안정 대책의 수립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97년 7월부터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제반 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회 적응 훈련과 직업 훈련 등 구체적 보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표70.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법의 변천 과정

시기	1962.4.16 - 1978.12.31	1979.1.1. - 1993.12.10	1993.12.11 - 1996.7.13	1997.7.14 -
관련법	국가유공자및월남 귀순자특별원호법	월남귀순용사특별 보상법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 법
특성	보훈 차원	체제선전 차원	사회복지차원	통일대비차원
소관부처	원호처	국가보훈처	보건사회부	통일부
정착금	정착 수당 지급 1급: 100만원 2급: 70만원 3급: 50만원	지급기준: 신분 및 정보가치 지급액: 황금1,900g-14,500g (1,900만 원 - 1억 4,500만원)	지급기준: 가족수(기본금) 정착 여건(가산금) 지급액: 월최저임금20-100배 (690만-3,450만원)	지급기준: 가족수(기본금) 연령건강상태 근로능력(가산금) 지급액: 좌동
보로금	없음	지급기준 : 후대 장비 가치	지급기준 : 정보+후대장비 가치	좌동
주거지원	국가용자 건립 주택 입주 우선권	무상 15평이상	15평이상 무상임대 보증금	25.7평이하 무상임대 보증금
교육보호	본인:대학까지 자녀: 고등학교까지	좌동	본인에 한해 국립: 면제, 사립: 50%	본인에 한해 대학까지 국립:전액, 사립:50%
취업알선	국가지자체일정규모 이상 기업체는 전 고 용인의 3%이내 고용	본인자녀를 16인 이상 고용업체에 3-8%범위 내 의무고용	본인 채용 알선 '기능직 공무원 요청 시 우선채용'	취업 희망시 협조 요청
적응교육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직업훈련	자활보호차원	대상자 지정훈련	희망자 노동부 협조 요청	국가비용으로훈련
생활보호	상이자에게 수당지급	생계곤란자 구호수당	생활보호법에 의거	좌동
자격인정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자료: 김진운, 윤여상. 1997. 통일원. 통일 교육·홍보(V). '97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312-317; 통일부 30년사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문제를 소수 계층의 소외 문제로 보고 단순한 인도적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남북한 사회 통합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

근하고자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금은 93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부로 이관된 것이나 예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사회 적응 교육을 구상한 점 등이 그 예이다. 다음의 표는 주요 시기별로 북한 이탈 주민 정책과 관련한 법의 명칭과 특성, 소관 부처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 1월부터는 같은 법률의 적용은 받지만, 정착금, 주거 지원 등의 지원 기준이 다시 약간 상향 조정되었다. 예를 들면 정착 기본금의 경우 1인 기준 월 최저 임금액 20배 상당액이 80배 상당액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약 670여 만원의 정착금이 2,750만원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 정책 관련법과 지원 기준의 잦은 변화는 오히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 내부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1999년 1월 15일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인 협회'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면서,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 이탈 주민 생계 유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3) 통일 정책에 있어 북한 이탈 주민이 갖는 함의

'귀순 용사', '귀순 동포', '귀순자',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현재 매우 다양하다. 이는 시대적 상황과 이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귀순 용사라는 용어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위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실제로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무작정 목숨 걸고 혈혈단신, 그야말로 '사선'을 넘어 왔던 기존의 사람들과 비교적 여러 명의 역할 모델을 보면서 보다 가능성 있는 입국 경로를 찾아 (후에라도) 가족들을 데리고 입국한 사람들 사이에는 탈북 동기나 그들의 정치적 입장 못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귀순 용사라는 표현이 귀순 동포로 대체되면서, 용사라는 매우 가치 평가적인 함의가 탈각되고 단순히 귀순 동포 혹은 귀순자라는 용어만 남게 되자, 귀순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저항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귀순이라는 용어가 갖는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함' 또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함'이라는 의미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의 거부감이 표출되었다(김명세, 1996). 이에 따라 실제로 1997년 귀순 북한 동포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

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으며, 현행 법적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이 된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 역시, 탈북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사람들과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탈북이라는 과정, 그리고 남한 사회로의 유입 과정이 자연스러운 일련의 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 배제되어 있는 인상을 준다. 게다가 아직도 남한 사회의 주민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북한을 이탈하여 곁돌고 있는 인상까지 지니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은 용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은 하나의 중요한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이 되어 가고 있다. 경제 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러시아 등지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10만에서 20만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 중 다수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해외 상사원, 외교관, 당원, 유학생 등 상위 계층의 사람들까지 탈북-입국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실업 상태에 있으며,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착금을 모두 소진하고 경제적 곤란을 겪는 등, 남한 사회 정착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생리를 배우고, 이제야 겨우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이 2-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부적응 사례는 TV나 신문 등을 통해 간간히 보도되고 있다. 통일 독일의 사례는 물론 이스라엘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취업과 같은 직업적 적응은 비교적 큰 무리가 없으나 이주민의 사회 적응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는 이들의 부적응이 남한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된다거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순조로운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면한 현실적 고려만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하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은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여러 문제점을 예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 통합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 교차적 적응 경험이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 이탈 주민은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문화권에 진입한 문화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북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고 남북한 문화가 교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관한 예측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사회 통합의 관점

최근에는 우리 사회도 이러한 독일 통일의 후유증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중요성과 남북간 이질화된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독일 통일 초기에 무성했던 사회 통합과 관련된 비판적 인식들은²³⁾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10년이 지났지만 동독인은 아직도 심리적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등 국민', '마음의 장벽', '오시(Ossi)베시(Wessi)'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조차 친숙할 만큼 여전히 사회 통합의 난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스텔기(동쪽을 의미하는 '오스트'와 향수병의 '노스텔기'의 합성어)라는 말까지 등장함으로써, 모두에게 직업이 보장되고 빈부의 격차가 적으며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지 않았던 사회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갖는 계층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적응 속도가 느린 고연령층이나 기술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것이 된다.

내적 통합의 문제에 주목하는 이들은 대체로 통일 후유증의 주된 원인을 필요한 대내적 조정 과정을 거칠 겨를도 없이, 급속히 조성된 대외 환경적 여건의 압력에 쫓겨 '돌연한 통일'을 이루게 된 데서 찾고 있다. Habermas는 독일의 대내외 정치에서 나타난 갖가지 부작용과 원인을 잘못된 통일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²⁴⁾.

특히 우리 사회는 그간의 분단과 교류 없음으로 인한 이질화, 서로에 대한 적대 심리의 고양으로 동서독의 경우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어쩌면 동질성의 회복이란 통일 1세대에게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는 희망일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abermas가 현대 사회의 사회 통합 매체의 하나로 보고 있는 연대는 일정한 유형의 의사 소통, 규범, 가치,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대화 가능하다고 쉽사리 가정하게 되는 일상적 의사 소통에서 발견되는 것이다(하버마스, 1996, p.28). 그리고 사회 통합이란 사회 체제가 새로운 제어 수준에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체제 요소나 표준치,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양자를 변동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

23) 예를 들면 Gntner Grass는 "독일통일은 문화적 통일을 놓쳤으며 과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과정을 생략한 독주였다"고 말하였다(한국일보, 1990. 10.13).

24) Habermas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통일 독일 내의 문제를 불구가 된 정치라고 표현하면서 통일 독일의 새로운 운명에 대해 논의하고, 시장 경제와 행정력만으로는 사회통합의 제3원천인 시민들 사이의 연대감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신동아, 1993. 9: 642-650).

도하게 복잡한 환경 속에서 존립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자기 동일성을 고집함으로써가 아니라 제어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 통합이란 한 사회 체제의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보다 견고하게 묶어 주는 어떤 공통적 신념이나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회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확장된 능력을 갖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 통합을 이야기할 때, 그 통합의 주체가 되는 남북한 주민들이 배제되고 규범적인 수준에서 문화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게 된다. 사회 통합이란 결국 남한 주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 나아가 북한 주민이 통일이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상대방의 문화에 적응하며,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현재 남한에서 새로이 정착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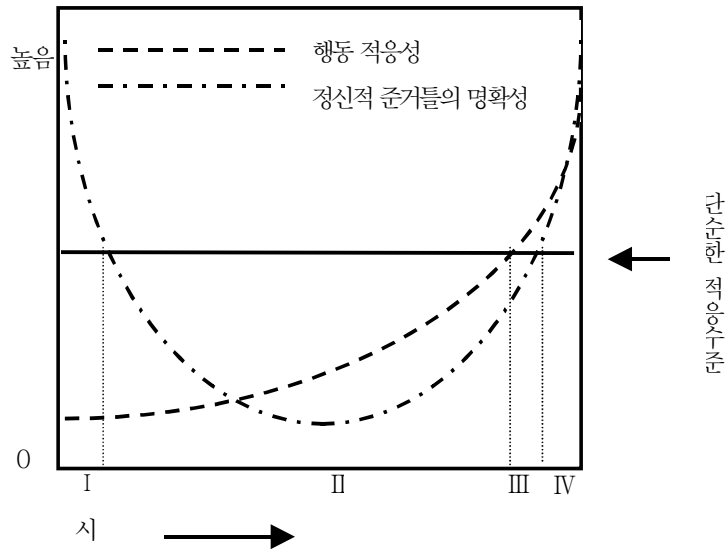
(3) 문화 적응의 관점

사람들은 이민과 같은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 감옥이나 군대와 같이 폐쇄 사회에 속하게 될 경우, 또 실업, 장애, 사별과 같이 갑자기, 그리고 전적으로 환경이 바뀌어버릴 경우, 극심한 심리적인 문화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Grove & Torbiorn은 정신적 준거틀의 명료성(clarity of the mental frame of reference)과 행동 적응성(applicability of behavior)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논의에 따르면, 적응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방식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이해는 자신의 행동에 유용한 지침이 된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습관적 행동 유형과 사회의 기능에 대한 자신의 지적 모델이 일관성을 갖는다고 인식한다. 다시 말해 그의 정신적 준거틀의 명확성은 단순한 적응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Grove & Torbiorn, 1985).

그러나 갑자기 익숙치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될 경우, 특히 자신의 이전의 환경과 현격히 대조되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경우, 그리고 적응 기간 내에 어떠한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이나 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13. 문화 적응 과정



- 1단계: 적응성이 적정 수준보다 낮고 명료성은 적정 수준보다 높음
- 2단계: 적응성도 적정 수준보다 낮고 명료성도 적정 수준보다 낮음
- 3단계: 적응성은 적정 수준보다 높고 명료성은 적정 수준보다 낮음
- 4단계: 적응성도 적정 수준보다 높고 명료성도 적정 수준보다 높음

1단계는 일종의 도취 단계로서 정신적 준거들의 명료성은 단순한 적응 수준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다. 자신의 정신적 준거들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한 그 국가의 명백하게 다른 행위 유형들을 환상적이라든가, 기묘하다든가 신비롭다든가 하는 식으로 초연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의 경우 대부분이 단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적 준거들을 뒤흔드는 심각한 접촉보다는 보통 가벼운, 피상적 접촉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단계는 문화적 충격 단계로서 이 기간에는 적응성 뿐만 아니라 명료성까지도 적절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이 단계는 낮은 적응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정신적 준거들의 명료성에 대한 확신에 의해 더 이상 완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 문화적 충격은 정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대응 메커니즘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자극받아 생기는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의 한 형태이다. Guthrie는 문화적 충격이라는 말 대신에 문화적 피로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상태와 관련되어진다. 초연한 것이 불가능해지고, 깊이 혼돈되어 있다. 이

단계는 4단계 중 가장 길다.

이러한 단계는 점진적 회복 단계인 3단계로 전환된다. 이 기간은 문화적 충격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다. 익숙치 않은 환경에 도착한 처음에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간에 유의미한 정도의 조화에 대해 주목한다. 적응성이 적응 수준을 넘어서면서 명료성도 점점 높아져 간다. 그러나 아직 문화적 충격 상태를 극복한 것은 아니다.

끝으로 문화 적응 완성 단계로 접어들면, 타 문화에 대한 갈등 및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적응되어 간다.

상이한 문화권의 문화를 비교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기피되어 왔는데, 이는 비교 문화 연구가 방법론적인 여러 쟁점들을 제기하며, 또 매우 많은 노력을 소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의 확산,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 해외 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타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비교 문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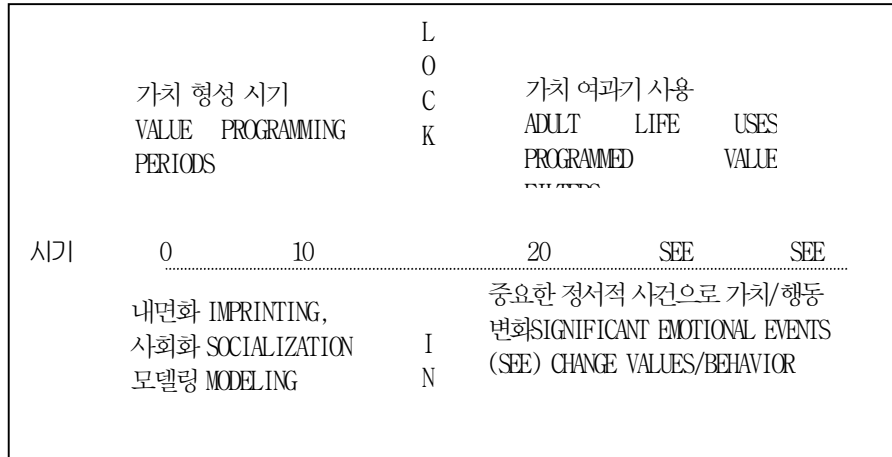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자본주의 체제로 이주해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우, 그것도 적대감을 키워왔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다. 더욱이 이민의 경우처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준비도 할 수 없으며 가족이 해체되거나 별거하게 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적응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적응의 과정을 주지시키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교육과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4) 평생 교육의 관점

사람은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면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가며, 행동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보인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시간적으로 안정된 일정한 심리적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기도 하고(Hofstede),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식의 구조화 과정(Massey)이라 명명되기도 한다. 사람의 가치 체계는 20여년간 꾸준히 발전되어지는데, 10여년이 지나면 점차 변하기 어려운 가치(gut value)들이 고착(lock-in)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가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지만, 그러나 깊이 고착된 가치는 보통 심각한 정서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변화

게 된다(Dep. Of the Army, 1986:36)

그림 14. 의식의 구조화 과정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사람들의 의식은 구조화된 채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인으로서도 불행이고 사회적으로도 정신적 고령화 상태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개인들의 자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평생 교육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깊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데이브(R. H. Dave)는 평생교육을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실시되는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하는 종합적인 학습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평생 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학교 교육과, 또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 교육의 기능을 다같이 개편하고 강화함으로써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을 효율화하고 교육 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최운실, 1990: 15).

우리 사회의 경우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의 대비라는 범세계적 요구 이외에도 통일이라는 거대한 한반도의 환경 변화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남북한 주민 모두의 개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더욱이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사회 통합을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는 평생 교육으로서의 통일 교육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는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

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통일 진전 정도 및 지역, 주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2.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시각과 교육 현황

(1)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각

그 동안 통일이나 북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의 통일이나 경제적 교류 방안에 편중되어 왔다. 특히 정치적 논의는 다분히 정략적이거나 대결적 구도에서 출발된 '하나로의 지향'을 바탕으로 하는 규범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이장호, 1993). 그러나 독일 통일이 현실화된 89년 이후부터는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통일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일성 사망과 북한 경제 사정의 악화 등으로 통일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의 전면으로 부상함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는 통일과 사회 통합에 관한 보다 적극적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거시적인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제도적, 공식적 영역에서의 통합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즉, 체제 통합을 완성시키기 위한 후속 절차로서 경제적 통합, 법·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제도적 통합이 다루어졌다. 특히 독일 통합에 대한 사례 연구는 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준거 자료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등 국민', '마음의 장벽' 등으로 상징되는 독일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중요성과 남북간 이질화된 문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간의 분단과 교류 없음으로 인한 이질화에 더해 서로에 대한 적대 심리의 고양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Che, Wenbo(1993)도 중국의 조국 통일에 있어서의 심리적 애로로서 적대적 심리, 공포적 심리, 의심 심리, 우월한 심리를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쌍방의 장기적인 적대 상황은 사람들의 적대 의식을 금방 없애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는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통일을 반대하거나 제한하게 한다고 본다. 어떤 경우에는 동질성의 회복이란 지극히 당위적인 명제이겠으나, 실제로는 앞으로 반세기 안에는 결코 성사되기 힘든,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되었다.

사회 통합의 장애 요인에 대해 이장호(1993)는 남한 사회 주민들의 적색 혐오증, 변화에 대한 무관심 또는 저항, 보수적 권위주의 문화, 의존성, 분파 의식, 자폐성과 같은 파행적 의식 구조 등의 심리적 저항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남북 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 또는 심리적 저항은 명분 또는 개념상으로는 통일을 찬성하나 실현 과정은 힘들 것이라는 필요성과 실현성에 대한 상충적 '양가감정(兩家感情)'과 언젠가 변화될 것이나 관심이 없다는 식의 '반 자아몰입(反自我沒入)'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한의 사회 통합은 당대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라고 보았다.

직접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특성을 대조하면서 남북간 이질화된 문화를 우려하는 논의도 많았다. 이들은 남북간 문화의 격차를 분석하면서 그 대안으로 북한 주민을 남한 사회로 적극 동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거나(한만길, 1997), 두 문화간 공통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사회 통합의 근거로 삼는 것을 제안한다(성경룡, 1993; 유영옥, 1997).

통일 후 사회 통합과 관련된 이상의 논의들은 체제 통합에 대응되는 또 하나의 축으로서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지나치게 공식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공식적 규범과 실제적인 주민 생활간의 괴리, 집단의 규범과 개인의 가치간의 상충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체제 의존적인 총론적 설명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남북간 사회 구조나 문화의 이질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곧바로 대안이 모색됨으로써 대안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이질화에 대한 강조의 논리적 귀결로 민족 동질성, 동질적 문화 요소의 회복이 대안으로 제시되거나 남한 사회로의 동화 교육의 필요성이 역설되나, 이미 근대화 과정을 경험한 두 사회 모두에 있어 전통적 요소의 회복이 적합성을 갖는 것인지²⁵⁾, 또 어느 일방으로의 동화 교육이 거시적인 사회 통합의 맥락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결여되어 있어 매우 성급한 느낌을 주고 있다.

남북한 사회 통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또 한 분야의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에 관한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문제는 그들의 적응 자체가 남한 사회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과 함께, 그들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통하여 통일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적응에 관한 연구는 현재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심리학, 인류

25) 과도적 혼합 문화는 통상 적합성의 위기(relevance crisis),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 통합의 위기(integration crisis)에 봉착하게 되는데, 정체적 위기에 당면한 사회에서는 문화적 전통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그러나 문화적 정체성의 회복은 반드시 전통 사회문화로의 복귀나 외래 문화의 배격과 같은 문화적 복고주의나 폐쇄주의로 성취되어질 수 없다(임희섭, 1984: 11-13).

학, 사회 복지학 등 많은 학문 분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을 주로 심리적 추이와 관련하여 단계별로 특성을 분석하거나 적응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크게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윤여상, 1994; 오혜정, 1996, 김동배, 1996; 이소래, 1997; 전우택, 1997; 이장호, 1997; 김진윤·윤여상, 1997; 정유선, 1998 등)와 기존의 연구나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윤양중, 1995; 박종철 외, 1996; 이금순·송정호, 1997; 백영옥, 1998; 윤인진, 1999a; 1999b 등)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개별 면접이나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소규모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연구 분석틀 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제공하는 진술을 토대로 현상 분석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적응에 관한 깊이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 면접에 있어 주요 정보 제공자가 연구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식인이나 학생, 직장인 등과 같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는 경우도 많아 북한 이탈 주민 집단에 대한 전체적 이해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는 북한 이탈 주민 연구가 갖는 가치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문제를 경제적 자립이나 생활 정착에만 초점을 두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적응의 문제를 사회 통합의 궁극적 방향과 어떻게 연계하여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 정착은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 적응의 문제를 난민이나 이민자의 생활 정착과 동일한 차원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며 남북한 사회 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동일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복잡한 문화적, 심리적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간명하게 단일한 분석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가 무엇이고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주민과 어떠한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지,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들이다. 특히 실태 파악에 머무는 설문 조사나 특정 정보 제공자에 의존하는 면접 조사가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의 가치 정향이나 적응 과정이 그 모사회가 되는 남한 사회 주민의 그것에 준거하여 비교, 분석되는 연구를 통하여 사회 통합의 단초를 풀어가야 하리라고 본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경제적 적응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심리적, 문화적 어려움도 호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직업 알선과 같은 생활 정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인진(1999)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물질적인 적응과 정신적인 적응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은 일반적으로 부적응 또는 주변화 되어 있고 소수의 북한 이탈 주민만이 적응 또는 통합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기존의 정책이 재사회화, 직업 훈련, 생활 보조와 같은 개인주의적 접근에 치중되어 있다면서,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활공동체'처럼 자조적이고 집합적인 적응 양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백영옥(1998)도 독일과 이스라엘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금순·송정호(1997)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 실태를 살펴보고 심리 상담, 담임관을 중심으로 한 개별 보호 등의 적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의 문제에 가장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많은 연구가 북한 이탈 주민이 제공하는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이탈 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맡고 있는 보호 경찰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의 생각과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윤덕룡, 1999).

초기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으로 사회주의 사고 방식이나 자립 의지 부족 등이 북한 이탈 주민에게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 반면, 보호관들에게는 구체체로부터 획득된 생활 방식이나 자립 의지 부족 등이 적응상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업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보호관들은 당장의 직업 알선보다도 직업 교육 또는 일반 적응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데 비해, 북한 이탈 주민들은 경제적 지원(직업 알선, 정착금 인상, 주택 알선, 정부 지원 등 총 64.2%)을 훨씬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적응의 정책이나 지원 방안과 관련한 연구 이외에도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다. 김동배(1996)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을 심리적 갈등기, 직업 훈련기, 사회적 적응기, 사회적 통합기로 구분하고 있다. 심리적 갈등기(1-3개월)에는 안도, 해방감 → 분노, 죄책감 → 불안,

소외감 등이 교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직업 훈련기(6-12개월), 사회적 적응기(6-12개월)를 통해 사회 접촉을 확대시키면서, 사회 적응 정도에 따라 개별 거주를 시도하고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김진윤(1997)도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적응 과정 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작성, 운용하기 위해 심사 시기, 심리적 갈등 해소기, 사회 적응기, 사회 통합기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만식(1996)은 인식 훈련²⁶⁾, 행동 조절²⁷⁾, 경험 훈련, 문화 속의 자아 인식, 속성 판단 훈련 등 비교 문화 교육 훈련 분야에서의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는 개념적 수준의 논의로서 실제적인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다.

전우택(1997)은 북한 이탈 주민을 남한에서 생활한 기간에 따라 6개 집단으로 나누어 적응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의 주관적인 적응 평가는 남한 생활 1년 미만 집단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1년 이상 2년까지를 '적응상의 위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주관적 적응 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기간이 수치상으로 가장 낮은 수입과 주관적인 작업 수행 능력 평가 점수 및 신체 건강에 대한 평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수입도 어느 정도 안정되며, 일에 대한 적합성도 다시 증가하는 등 적응 상의 안정 시기로 접어든다고 분석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적 이질화의 극복을 위한 연구와 북한 이탈 주민 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당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때로는 자료의 제약, 접근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론적 틀이나 분석 모델이 부재되어 현상적 연구에 그치고 마는 아쉬움도 있다. 이제는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가 무엇이고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주민과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 내용들을 요약, 비평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직접적이

26) 인식 훈련(Cognitive Training)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주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에 관한 정보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강의, 집단 토의,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남한 사회에서 거주해 온 기존 북한 이탈 주민과의 질의, 응답식 과정 등이 포함된다.

27) 행동 조절(Behavior Modification)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행동에서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이전 문화에서의 어떤 행동이 사회로부터 허용되고 제재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만식, 1996 참조

고 창조적인 연구를 통한 심층적이고 풍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 하나원의 교육 프로그램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내 입국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 12월 1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착 지원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정착 지원 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시설 '하나원'을 개원하였다. 이 시설은 단순한 숙소로서가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원은 지금까지 전체 45개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9월 기준 2,827명이 입소하고 2,676명이 퇴소하였다. 교육생 중 20~30대가 5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입국증가로 노령자·청소년·유아의 입소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71.연도별 교육생 현황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총계
입소	61명	297명	572명	1,111명	786명	2,827명

하나원 교육 훈련의 기본 방향은 사회 적응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회 정착과 취업에 필요한 진로 및 직업 지도 강화, 교육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매체 및 교수법 개발, 교육 훈련 분위기 쇄신을 위한 교육생 생활 관리 강화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사회 적응 능력 배양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사회 분야별 개관', '법과 시민 생활' 등 교육을 통해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나아가 '남한 언어 적응', '대중 매체 특성', '지리 및 지역 생활 이해'와 함께 건전한 시민 양성을 위해 '생활 경제', '생활 법률', '생활 예절', '생활 안전', '가정 관리', '건강 생활', '이성과 결혼' 등의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관련 지식의 습득 이외에 우리사회 정착 의지 함양을 위해 「저명인

사·정착성공 탈북자·보호담당관 특강」도 실시된다.

현장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문화·산업 시설 탐방, 시장 구매 활동 체험의 현장 학습 이외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대중 교통, 관공서·은행 이용방법 등의 현장학습도 실시된다. 양로원·고아원·농촌일손돕기·거리청소 등 봉사활동과 삶의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예절을 체득하여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외부 ‘예절 학교’에 입소 교육도 실시한다.

진로 지도 및 일상 생활 기능 습득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하나원의 짧은 교육 기간(2개월)을 감안, 기초 직업 훈련보다는 퇴소 후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능 중심 교육을 통해 건전한 ‘현대 생활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또한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 지도를 위해 ‘직업탐색’, ‘사전 직업체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현장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상 생활 기능 실습을 위해 ‘전산 교육’, ‘운전 교육’, 「의·식생활 교육」과 취업이 용이한 「간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 지도 강화는 생활 관리 규정의 공정한 적용을 통한 법·질서 준수의식의 함양 차원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다. 교육생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교육생의 규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습적인 생활 불량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물 파손, 폭행 등 인성 불량자 및 중대한 생활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착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교육 대상의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크게는 성인반, 여성반, 청소년 및 초등 유아반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교육 중점은 다음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앞으로 하나원은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현장 학습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든가 인근 직업 훈련 기관 및 기업체와 연계, 기초 직업능력을 배양하여 사회 진입 초기의 애로 사항을 완화한다든가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 흥미를 유발하고 능동적인 수업 분위기 조성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원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일부 차원에서 향후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까지를 염두에 두고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착 시설은 또 다른 형태의 수용소일 뿐이며, 격리된 상태에서의 적응 교육이란 실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편의 위주의 관리일 뿐이라는 일각에서의 우려와는 달리 북한 이탈 주민 적응 교육은 현재까지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를 찾아 남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집단 생활을 시키는 것으로 인해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밑거름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편이다. 또 하나원 건립 초기 지역 주민의 우려와 부정적 인식도 많이 불식되었다.

표72. 계층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프로그램 내용
성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성수련교육, 예절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업체와 연계한 근로현장학습 등을 편성·운영하여 심신안정과 기초직업교육을 강화
여성반(성남 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편입시 취업에 필요한 가정보건, 제과·제빵, 피부미용, 요리·봉제 등 기초직업교육 실시 ▪ ‘언어예절’, ‘식사예절’, ‘가정생활’, ‘건강한 성’, ‘이웃과 어울리기’ 등 바람직한 여성상을 목표로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반 및 초등·유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반의 경우 「연극」, 「역할극」, 「전국순회 현장학습」을 통한 심성순화 등의 특별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적령아동은 인근 삼죽초등학교(교육부 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에 편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수업은 남한 학생과 합반 - 오후 수업은 탈북학생 대상으로 개인특성별 특별교육 ▪ 4~7세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반 편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이하 영·유아를 위해 놀이방을 별도로 설치운영

하지만 현재 하나원 운영에는 몇 가지 제한점도 있다. 먼저 지역적으로는 하나원이 인근 도시나 농촌으로부터 너무 격리된 외진 곳에 있어서, 남한 사회의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하거나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반사회나 견학 학습, 자원 봉사자의 참여 등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 주민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남한 사회에 대한 소개와 교육에 있어 현장감이 다소 떨어

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초기의 목표와 달리 실제적인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북한 이탈 주민의 적극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 방법이나 내용 측면에서는 성별, 연령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남한 사회에 관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일천하기는 마찬가지로 하더라도, 직업, 학력 등에 따라 학습 능력이나 태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목표나 기대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부족하므로 아직은 강사나 자원봉사자 개개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특성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단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들의 생활 환경과 능력 정도, 사고 방식과 문화 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에 대한 개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도 개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뿐이며,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공유할 장도 없다. 또 하나원에서의 교육 효과를 측정하거나 피드백할 수 있는 채널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개선에도 제약 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응 교육의 효과를 피드백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민간 부문의 프로그램

94년 이후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남한 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운동들이 번지기 시작하였다. 민간 부문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한쪽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 온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한쪽이 서로 상승 작용을 하며 운동을 키워 오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북한 식량 지원과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띄우면서 민간 차원의 활동을 넓혀 가고 있다. 북한 내 식량난의 극심함, 북한 주민 생활상의 비참함, 10-20만에 달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규모 등은 주로 이들 민간 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표면화되었으며, 국제 NGO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나 세계적 인권 전문가들과의 유대를 통하여 북한 사회의 참담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재외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과 인권 보호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민간 부문의 지원과 관심도 많이 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은 주로 종교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혹 대학이나 여성 단체 등도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정부의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물질적 지원은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기도 하고, 직업 훈련이나 결혼 상담 등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원을 수료하게 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 단체에서 자매 결연을 추진해 주고, 초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결연 단체에서 기초적인 생활 용품들을 협조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 단체의 물질적 지원이 북한 이탈 주민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고 종교 단체를 통해 그들의 연결망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경제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시혜성으로 끝나고 말아, 경제적 자립이나 혹은 성공적인 정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대 심리마저 부추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체험 학습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정부의 교육 훈련을 지원한 예도 있다. 중앙대학교에서 운영한 남북한 통합 교실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가계부 작성이라는 형식을 통해,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 모두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각자의 생활에 큰 부담 없이도 서로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획이나 토론 진행에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북한 이탈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였다. 다만 현실적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이 프로그램 또한 교실 밖의 세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남겨지는 제한점이 있었다.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보다 인간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려는 모임도 있다. 여기에서는 물질적 지원은 거의 하지 않으며 종교적 상담과 함께 그들이 바로 서고 자율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의 자체 활동을 도와주거나 지켜 보는 역할을 한다. 언론이나 연구 활동 등에 의해 자신들이 대상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외부인 없는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고자 하여 생겨난 것이다. 기금을 마련하고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바자를 하는 등, 모든 일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해 나가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역할만 하고 있다. 처음에는 후라이팬을 씻는다고 굶어 대거나 단견을 갖고 무성의한 물건을 만들어 팔려던 사람들이 이젠 점점 익숙해지고 친밀해지면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이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주력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직접 지원 업무를 맡는 한민족 복지 재단에서 독립한 '고향 마을'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이 한 마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을 건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농촌 정착 희망자가 소수이고 또 남한 사회의 물질적 지원이나 헌신할 사람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외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문제에 특히 관심과 활동이 많은 북한 인권 시민 연합에서는 자원 봉사자들이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의 학습 과외 지도와 하나원 방문 등을 통하여 북한 이탈 주민과 교류하고 있다. 또 자원 봉사자 70여명이 북한 이탈 주민을 맨투맨(man to man)으로 3-4명씩 담당하여 취업 동향을 파악하고 이탈 주민 후원회에 이를 보고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정부의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4) 소결론

북한 이탈 주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간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정부와 민간 부문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많은 일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하게 되면 6개월여의 조사 기간을 보내고 곧 사회로 배출되었는데, 조사 기관의 특성상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

적인 생활이 지속되었으며, 남한 사회를 이해시키는 교육 역시, 규범적인 수준에서 체제 비교 교육을 하거나 백화점공단 등 남한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한 견학이 거의 전부였다.

이제는 신원 조사 기간도 짧아졌으며,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은 시설 면이나 운영 면에서는 물론 그 철학적 바탕에서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이 있었다. 여기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대거 유입이라는 환경적 요인 못지 않게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의 제공, 통일부의 적극적 활동과 포용력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단체들의 지원에는 서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로에게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한쪽에서는 농촌 지역내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강연회 등의 이유로 북한 이탈 주민을 끝없이 서울로 불러 올리거나 하고, 한쪽에서는 의타심, 기대 심리 등으로 고려하여 물질적 공세를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동기 유발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한다. 또 업무 능력이나 기술 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착실히 직장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인정받아 이곳 저곳 강연이나 모임에 불러 다니게 되어, 결국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때론 강연료나 인터뷰 등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들이 한 달 내내 기를 쓰고 근무해야 벌 수 있는 돈의 가치를 무색케 하는 경우도 많아 성실하게 돈을 벌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가치관의 혼돈이 일기도 한다.

또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활동을 하는 남한 주민들 중에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열의와 감수성으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이나 교육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제 겨우 사회 초년생인 북한 이탈 주민에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입장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하는 남한 주민들이 많은데, 그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북한 사람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때론 의도치 않게 북한 이탈 주민의 분노를 자극하기도 하고, 이제 처음 남한 주민을 접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일정한 선입견이나 오해를 가져다 준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남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는 북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자존심이 높고 자신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이를 조심하는 남한 주민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또 '언제 한 번 봅시다' 혹은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라는 가벼운 인사를 남발하는 사람들도 많아 남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실없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북한 이탈 주민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는 무엇이래도 다 나눠 줄 수 있을 것처럼 친절하고 살갑게 대하다가 돌아가는 길부터는 찬바람이 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 모든 경우에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전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특별히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선입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무관심과 무지,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 사회 조직 원리의 차이에 따른 생활 방식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서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비교하고 이해하면서 그 폭을 좁혀가는 일이 필요하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이해,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역사 등에 대한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교육보다도 구체적으로 남과 북의 조직 원리와 생활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그로 인한 사고 방식과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지, 이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지, 적응의 각 단계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은 북한 이탈 주민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입국 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을 한 집단으로 묶는 것은 교육 목표와 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북한 이탈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적응 교육의 체계를 갖추는 등, 하드웨어를 갖추어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내용을 담는 일이 동시에 중요해졌고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형태로 적응 관리 체계를 갖추어 가고 누가 교육의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사항보다는,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주민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북한 이탈 주민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적응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를 토대로 남북한의 사회 통합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고, 그러한 구상 속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 개개인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구상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의 몫일 수만은 없다. 정부나 민간 부문, 그리고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 모두가 스스로 힘을 내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3. 남북관계 단계별 사회 적응 교육 방안 구상

(1) 단계의 구분과 특성

통일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 및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이라는 목표에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남북한 사회 통합의 완성, 안정적 국가 통합 여건 보장을 위해 통일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 혼란 방지, 통일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통일 교육 차원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남북한 주민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통일 교육은 통일 과정의 진전에 따라 크게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시행되어야 한다. 먼저 첫 단계는 현재와 같이 남북한간 교류 협력은 점차 확대되나 큰 틀이 바뀌는 변화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는 교류 협력 단계이다. 이 기간에 북한 이탈 주민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통일 논의를 둘러싼 남남 갈등은 한 동안 더욱 증폭되다가 조정, 수렴되어 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 1단계에서의 사회 통일 교육은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남한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적응 교육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물론 남한 주민이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도록 남한 주민에 대한 민주 시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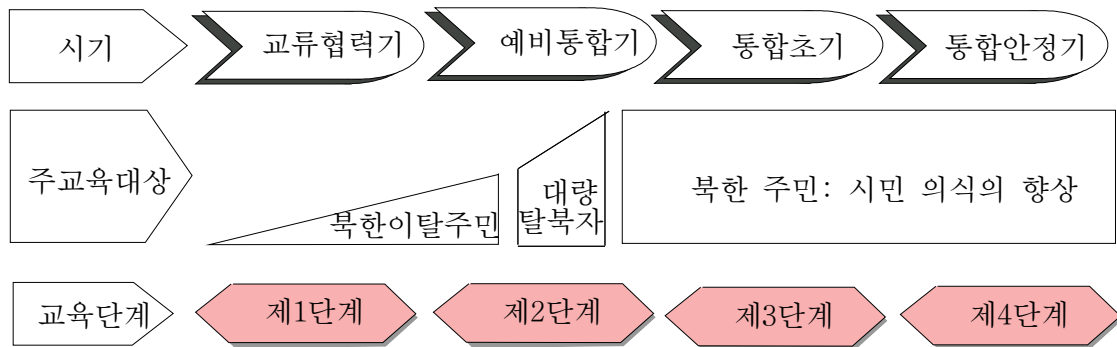
2단계는 예비 통합기로 명명할 수 있는 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논의가 진전되면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북한 지역의 내부 혼란이 가속화되면서 이탈 주민이 대량으로 발생되어 이들의 적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초적인 생활 안내 차원에서 긴박하고 압축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단계는 통일 직후의 기간으로서 남북한 재외 공관이 통폐합되고 북한 지역내 사회 간접 시설 투자가 활성화되고 남한 기업의 북한 지역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북한 지역 경제 재건으로 분주한 시기이다. 통합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충돌과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 시기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생소한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민주 시민 교육과 함께

체제 적응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4단계는 통일 직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안정적 국가 통합, 사회 통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이다. 북한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일정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쌓아가며, 남한 지역 주민과 대등하게 사회 통합의 주체로서 사회를 구성해 가는 시기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73. 단계별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교육



교육대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 남한 사회 적응 문제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대규모 발생 단기간에 남한 체제 이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주민의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 이해 부족 및 미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주민의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강화
교육 목표와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간내 효율적인 체제이해, 생활안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주민의 새로운 체제 이해 및 적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의 사회 통합 구성 능력 강화
주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안정교육 체제이해교육 문화적응교육 기초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제동화교육 생활안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제이해교육 문화적응교육 민주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사회문화체제교육 시민역량강화프로그램

(2) 교류 협력기의 사회 적응 교육

1) 교육 방향과 중점

이 시기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교육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 사회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주요 교육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적응 교육은 하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또 많은 민간 단체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적응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다.

이 시기의 교육에서는 다른 단계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아도 좋을 정서 안정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사회 문화적으로 현격히 다른 체제에서의 적응이 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대부분의 이탈 주민이 가족이나 친척과의 사별 또는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표74.1단계에서의 교육 목표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육 시기	남북한의 교류 협력 단계
교육 대상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교육 목표 및 중점	남한 사회 적응력 제고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원 등 전담 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북한 이탈 주민 중 적응 우수 자원 위주로 향후 남북한 사회 통합의 교육 보조 요원으로 활용
주요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 안정 교육 ▪체제 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수호해야 할 국가 이념 - 자본주의의 경제 생활 - 민주 시민의 책임과 역할 - 우리 나라의 역사 - 한국의 법과 제도 ▪문화 적응 교육 ▪기초 직업 훈련

2) 주요 과제

① 기본 방향

최근에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북한 이탈 주민 적응 프로그램도 연령이나 성별로 차별화되기 시작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앞으로 많은 개선과 보완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직접적 조사 분석은 물론 남한 주민이나 남한 사회와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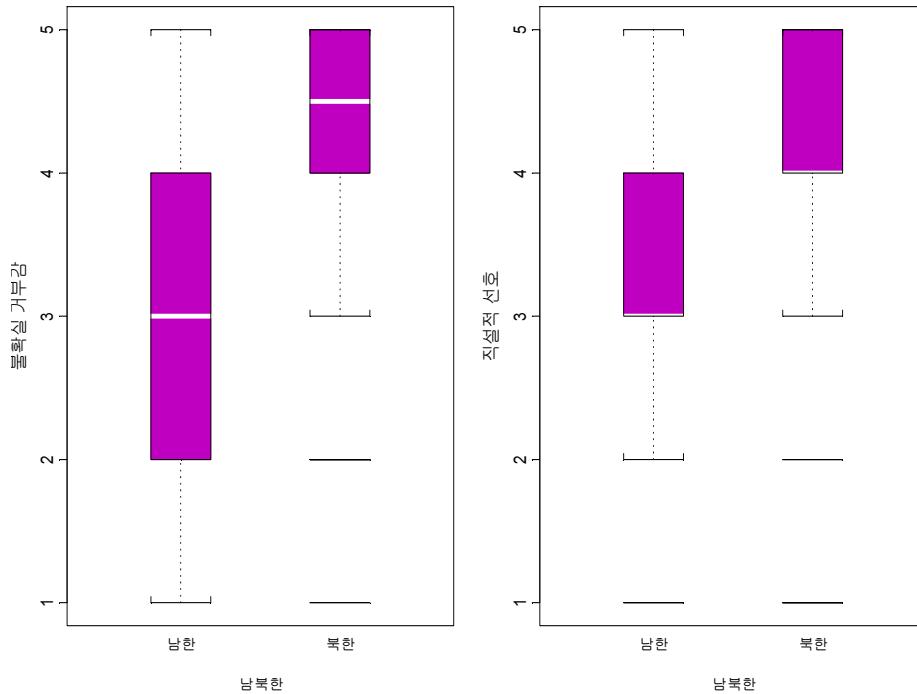
현재까지도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북한 이탈 주민 적응은 매우 지엽적인 사항처럼 취급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나 교육이 주로 생활 정착에 치중된 측면도 있지만, 북한 이탈 주민 역시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언어, 북한 이탈 주민이 보이는 자신감 등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도 경제적 지원이나 직업만 확실하면 적응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생활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지원이나 직업 훈련 같은 당면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남북 주민간 일상적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지는 통일 사회의 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점검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일이 서로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을 '생활 정착'의 국부적 관심에서 '통일 사회의 문화적 통합'으로 확장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② 다원화 사회의 문화 체득을 위한 흑백 논리 완화 프로그램 필요

남북한 문화적 차이는 종종 '북한의 흑백 논리와 남한의 회색 논리'로 집약된다. 흑백 논리란 모호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intolerance of ambiguity)로서, 아도르노(1950)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혹은 반민주적 인성을 나타낸다. 모호성에 대한 거부감은 북한 이탈 주민이 경우 남한 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해를 양산하는 흑백 논리와 회색 논리의 갈등 구조를 이해하고 다원화 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는 일은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림 15. 모호성에 대한 거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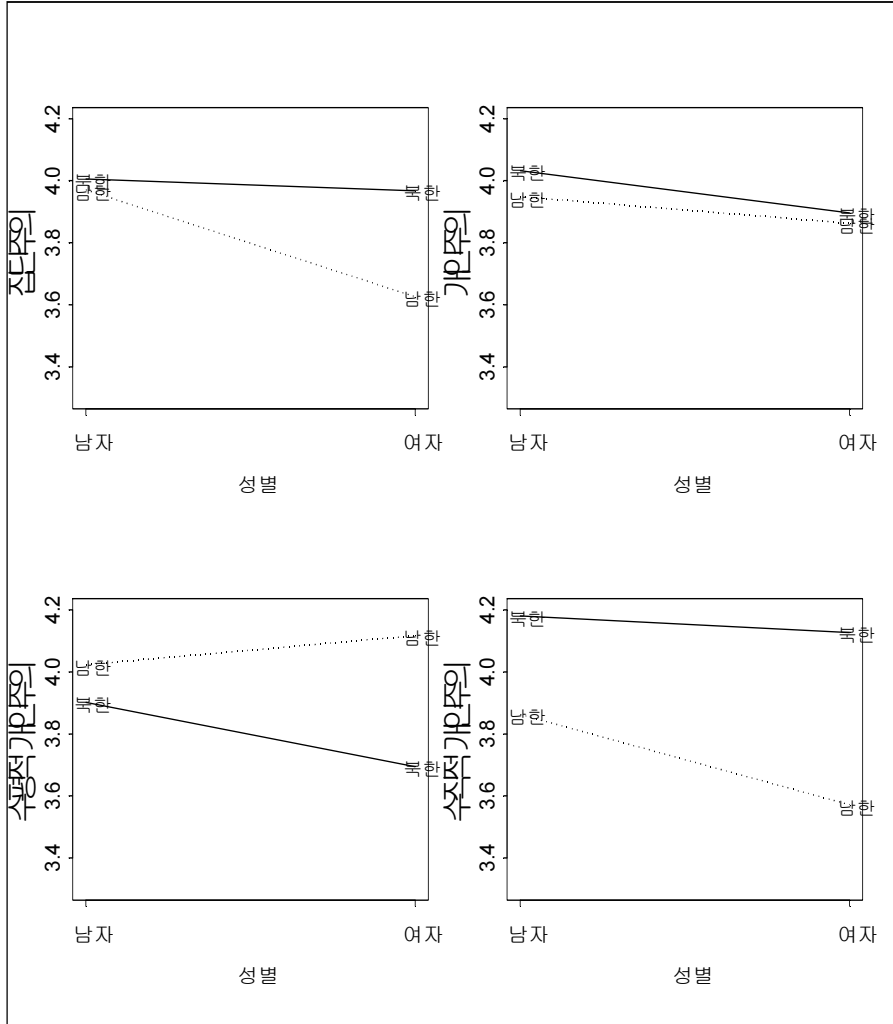
- i. 바의 흰 부분은 평균값(MEAN)을
- ii. 전체 바는 상위사분위에서 하위사분위를
- iii. 상하의 꺾쇠는 상한값, 하한값을
- iv. — 표시는 극단치(OUTLIER)를 나타냄

흑백 논리를 선호하는 정도는 전직 군인 > 노동자 > 사무원 > 학생 순이며 학생은 남한 주민과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사례 위주의 흑백 논리 완화 프로그램(문화 이해지)을 개발하여, 북한에서의 직업 구분별 집단을 대상으로 차등화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다원화 사회 조직 원리로서 수평적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주민들을 '개인주의적'이라고 말하며 남한 사람들은 '자기 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자', '이해타산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개인주의는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 모두를 특징짓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16.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주민의 집단주의/개인주의 비교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주의에 대한 개념적 혼돈이 내포되어 있는데, 상이한 여러 함축적 의미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를 보다 다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트리안디스의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측정 도구를 활용한 조사 결과, 두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 사이에 큰 차이가 식별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북한 이탈 주민은 권위와 서열을 인정하고 보다 성취 지향적인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남한 주민은 사람의 속성이나 지위는 평등해야 하며 각 개인의 독특성/개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은 거주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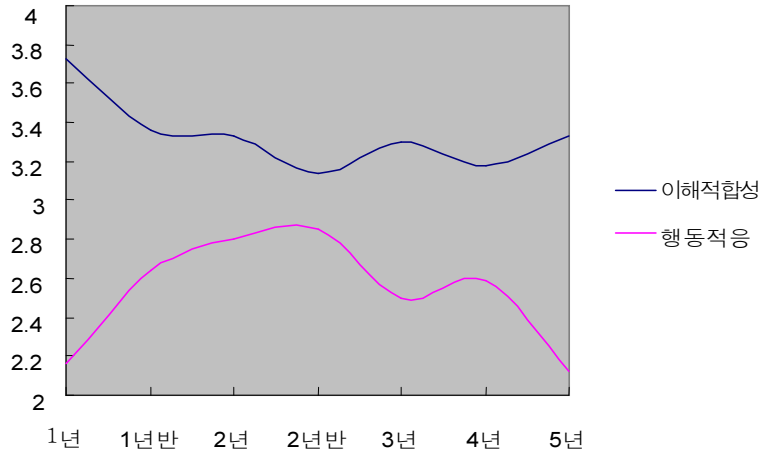
북한 이탈 주민은 자신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동일시 하여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와 시민 생활을 이해, 영위하기 위한 개인주의 이해 교육과 개인주의적 생활 태도의 형성은 꼭 필요하다. 이 경우 개인주의는 경쟁이나 사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 인격의 존중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주의에 대한 새로운 교육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원화 사회 조직 원리 체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④ 적응의 전반적 과정 주지와 위기 시점에서의 집중 교육

사람은 갑자기 익숙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자신의 행동에 유용한 지침이 된다'고 확신하는 '정신적 준거틀의 명확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위기 국면을 맞다가 서서히 회복된다. 이에 비해 '자신의 습관적 행동 유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사람과의 교류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갖는'다고 보는 '행동의 사회적 적응성'은 초기의 낮은 수준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꾸준히 상승한다(Grove & Torbiorn).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도 이 모형은 그대로 적용되며 하강 곡선이 상승하는 꼭지점은 2년 6개월 부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초기의 명료했던 정신적 준거틀은 남한 사회에 거주하면서 점차 혼돈되었다가 2년 6개월 이후가 되면 점차 회복되어 간다. 행동의 적응성은 꾸준히 상승한다. 행동 적응성이 5집단부터 하강하는 이유는 본 조사가 자기 보고self-reporting 방식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행동 적응성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객관적 평가를 위한 다면적 적응 측정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이외에도 보호기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호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원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17.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



2년 6개월이라는 지점은 이해의 적합성과 행동의 적응성이 가장 좁혀지는 기간이며 동시에 하강 국면이 상승 국면으로, 또 상승 국면이 하강 국면으로 바뀌는 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적응 과정의 중요한 시점이 된다.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일반적 적응 과정을 주지시키고 위기 시점에서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적응 과정에서 일정한 기대치는 적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이 겪게 되는 적응의 전체적 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또 거주 기간 2년 6개월을 전후하여 그간의 적응 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위기 관리 집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⑤ 적응의 유형에 따라 적응의 목표나 방향을 조정하여 제공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유형은 적응 중 직면하게 되는 중심적 이슈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남한 사회의 새로운 주민으로서의 적응에 전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동화형(56.6%)과 북한 주민이면서 동시에 남한 주민인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 유지에 관심을 두는 통합형(40.43%)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유형은 학력과 수입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 수입이 높거나 학력이 높으면 통합형이 많게, 수입이 낮은 경우, 또 학력이 낮은 경우에도 동화형이 많이 나타난다. 거주 기간이나 잔류 가족 여부, 가족 형태, 북한에서의 직업, 현재의 직업, 연령 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표면적으로는 학력이나 수

입이 높을수록 통합형의 비율이 높아 통합형이 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적응 유형의 차이일 뿐, 적응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표75. 수입 정도와 적응 유형

구분	50만원	50-100 만원	100만원 이상
통합형	14(43.7%)	9(36.0%)	10(76.9%)
동화형	18(56.2%)	16(64.0%)	3(23.0%)

$$X^2=6.02, p < .05$$

표76. 학력과 적응 유형

구분	고등중학교	기술학교	대재	대졸 이상
통합형	4(16.0%)	4(28.5%)	9(69.2%)	20(66.6%)
동화형	21(84.0%)	10(71.43)	4(30.7%)	10(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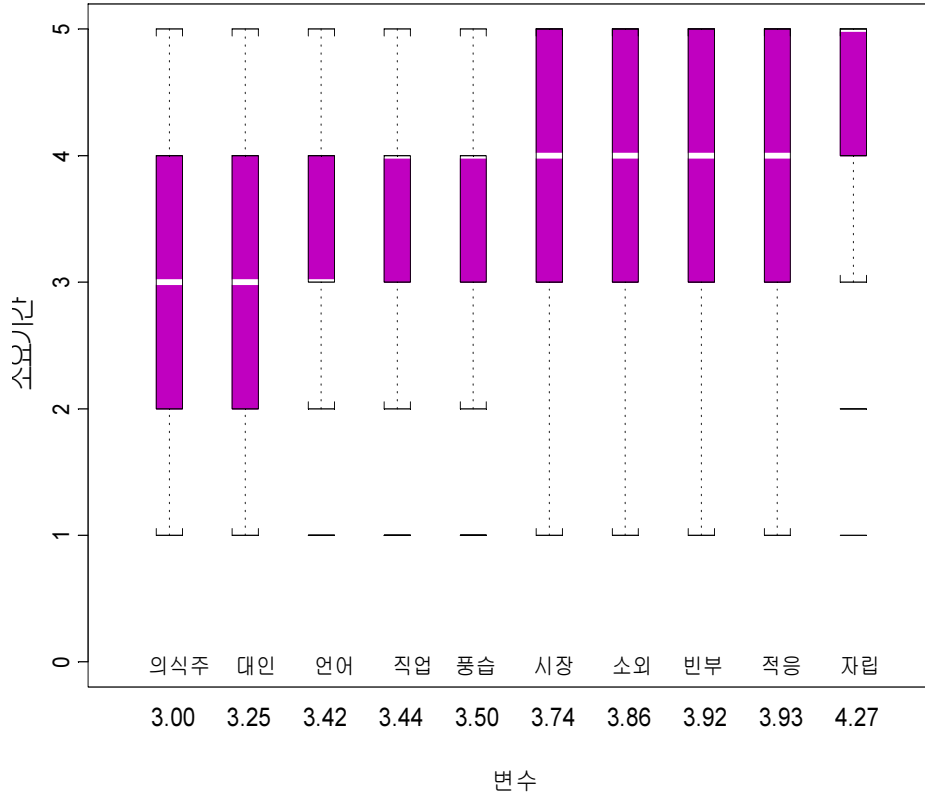
$$X^2=18.78, p=.001$$

여기에서 구분하고 있는 적응의 유형은 곧 자신의 적응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 사회에 진입한 사람으로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먼저 북한 이탈 주민 개개인의 적응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⑥ 일반적인 적응 교육은 범용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무방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체로 적응 기간을 3년 정도로 보며, 경제적 자립 능력 > 빈부 격차 적응 > 소외감 극복 > 시장 경제 원리 적응 등의 순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영역별 적응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전체적 응답 경향은 학력, 수입, 직업 등에 따라 큰 차이 없다. 경제 이해나 자립 능력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경제, 언어, 사회 등, 일반적인 적응 교육은 집단별 구분이 필요 없는 범용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문제 없다.

그림 18. 주요 영역별 적응 기간



- i. Y축의 1은 6개월 이하, 2는 1년 이하, 3은 2년 이하, 4는 3년 이하, 5는 그 이상을 표시함
- ii. 바의 흰 부분은 중앙치(MEDIAN)를
- iii. 바의 길이는 상위사분위, 하위사분위를
- iv. 상하의 꺾쇠는 상한값, 하한값을
- v. — 표시는 극단치(OUTLIER)를 나타냄
- vi. x축에 나타난 수치는 적응 기간의 평균값이나 등간이 아니므로 순서의 의미만 있음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현행 북한 이탈 주민 적응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77.보완 요구 프로그램

구분	내용
다원화 사회의 이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적 문화의 체득을 위한 흑백 논리 완화 프로그램 필요 ▪개인주의 이해 제고 및 남한 주민과의 가치관 비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수직적/수평적 개인주의와 남북주민)
적응 과정에서의 적극적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이탈 주민 적응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주지 교육 ▪위기 시점(2년에서 3년 사이)에서의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 ▪적응 유형별 차별화된 적응 프로그램 제공 ▪일반 영역은 범용 프로그램 활용

(3) 예비 통합기의 사회 적응 교육

1) 교육 방향과 중점

이 기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대규모로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주 교육 대상이 되는 대량의 북한 이탈 주민 대부분은 남한 지역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이들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 단기간 내에 생활 안내 교육과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표78.2단계에서의 교육 목표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육 시기	북한 사회 위기 가속화 및 대량 이탈 주민 발생기
교육 대상	대규모의 북한 이탈 주민
교육목표 및 중점	기본적인 체제 이해 및 생활 안내 교육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 교육 팀에 의한 강의 교육 ▪다수 인원에 대한 소개 형식의 교육이므로 강의 위주로 진행 ▪남한 사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것이므로 강의 문답식 교육
주요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제 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수호해야 할 국가 이념 - 자본주의의 경제 생활 - 민주 시민의 책임과 역할 - 우리 나라의 역사 - 한국의 법과 제도 ▪생활 안내 교육

2) 주요 과제

앞에서 보듯 북한 이탈 주민은 인지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돈만 어느 정도 있고 괜찮은 직업만 마련된다면 적응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남한 사회에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 적응이 곧 남한 사회의 적응이 될 수는 없다.

윤덕룡의 연구(1999)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날마다 교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거주지 보호를 맡고 있는 보호 경찰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의 생각과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초기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으로 사회주의 사고 방식이나 자립 의지 부족 등이 북한 이탈 주민에게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 반면, 보호관들에게는 구체제로부터 획득된 생활 방식이나 자립 의지 부족 등이 적응상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언어의 차이나 아직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대우 받지 못하는 문제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79. 초기 적응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보호관 답변	북한 이탈 주민 답변
1	사회 부적응(29.8%)	사회 생활 적응(18.7%)
2	불안 및 불신(29.3%)	경제적 어려움, 취업(17.6%)
3	경제적 어려움(21.0%)	대인 관계, 소외감(17.0%)
4	사회주의적 사고 방식(6.0%)	언어(14.3%)
5	자립 의지 부족, 금권 숭배(10.0%)	향수(9.9%)

'고용자라면 탈북자들을 고용하겠는가'라는 응답에 대한 보호관의 응답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에 대한 자신감이 적절하지 않음을 더욱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호관들은 고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개인의 무능, 비성실이 43.5%, 사회주의적 생활 방식이 39.1%, 사회 부적응이 15.5%

로 나타났다. 또 고용하겠다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46.7%는 사회화를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의 능력이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이들을 자발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들은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주의적 생활 방식이나 의존적 사고 구조를 문제로 인식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80.고용자라면 탈북자를 고용하겠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

순위	고용 하지 않겠음 (161명)	고용 하겠음 (60명)
1	사회주의적 생활 방식 63(39.1)	사회화 위해 28(46.7)
2	개인의 무능, 비성실 70(43.5)	성실성, 능력 27(45.0)
3	사회부적응 25(15.5)	개인적 관심 2(3.3)
4	특권 의식 3(1.9)	경제적 안정 3(5.0)

이렇듯 북한 이탈 주민 보호 경찰관의 85%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사회적 편견이나 구조적 어려움보다는 북한 이탈 주민 개인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2명이나 된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업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경제적 지원(직업 알선, 정착금 인상, 주택 알선, 정부 지원 등 총64.2%)을 훨씬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 데 비해, 보호관들은 당장의 직업 알선보다 직업 교육 또는 일반 적응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처럼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들과 가까이서 생활하는 남한 주민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의식하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며, 그것은 주로 그들의 북한 생활에서 얻어진 생활 방식이나 의식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초기의 자신감에 비해 적응은 더 더디고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적 사고 방식과 습관들을 완화하고 자본주의 사회 체제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하겠다.

(4) 통합 초기의 사회 적응 교육

1) 교육 방향과 중점

이 시기는 통일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기로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통일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먼저 그간 통일 교육에 관여하여 왔던 인력들을 중심으로 전담 교관을 편성하여 북부 지역 현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표81.3단계에서의 교육 목표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육 시기	통일 합의서 발효시부터
교육 대상	북한 주민 전체
교육 목표 및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태도 형성 ▪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고 및 생활 방식의 완화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교관에 의한 북부 지역 현지 교육 ▪ 다수 인원 에 대한 소개 형식의 교육이므로 강의 위주로 진행 ▪ 남한 사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것이므로 강의 문답식 교육 ▪ 북한 지역의 현지 상황과 여건에 따른 반복 교육 ▪ 일부 인원의 순차적 남한 사회 견학 실시로 북한 주민의 자각과 귀향후 홍보 요원으로 활약 유도 ▪ 적응 원리(저항→갈등→통찰→적응)에 의거 교육 단계 내용 구성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단계(저항단계): 통일의 주체와 양식, 남한 사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북한 지역 주민의 저항감 해소 ▪ 제2단계(갈등단계): 패배주의적, 자조적 사고의 극복, 남북한 이질화 원인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제3단계(통찰단계): 통일의 의의, 자랑스런 민족 문화, 민주 체제하 정치 생활, 경제발전과 윤리, 현대 사회와 공동 생활, 사회 질서와 준법 생활, 국제 관계와 통일 한국의 진로, 국민의 역할과 책임 ▪ 제4단계(적응단계): 통일 후 국가 안보, 한국의 사회 문화, 시민의 역할과 사명

다수 인원에 대한 소개 형식의 교육이므로 강의 위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남한 사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것이므로 강의 문답식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지역의 현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반복적이고 순회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인원에 대해 순차적인 남한 사회 견학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 사회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높이고 귀향 후 홍보 요원으로서의 활약을 유도할 수 있다.

통일이 되었다고는 하나 모든 사람들이 통일 이후의 사회, 특히 남한 및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통상 문화 접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단계는 저항→갈등→통찰→적응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통일 교육도 이러한 적응의 원리에 의거, 교육 단계 및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과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였던 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거나 사회 자체에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이 도입될 때, 미처 의식하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생활 방식이나 의식 구조는 변화 사회에의 적응에 상당히 문제적인 이슈를 제기한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도 초기에는 노무 관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주 이야기되는 특성들은 높은 자존심, 책임감의 결여, 무사 안일주의와 엄격한 품질 관리에 대한 몰이해, 공사 구분의 모호, 공구 등 회사의 기물을 갖고자 하는 경향 등이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짐이 멀다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하는 사소해 보이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는 사례, 고도의 품질 관리를 위한 생산 공정의 엄격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거나, 기본적인 품질 관리 관념의 결핍으로 작업 중 발생하는 생산 라인에서의 문제점이나 기계의 결함조차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아,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하자 있는 제품이 무더기로 나오고 기계가 고장 나 있는 상황이 속출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²⁸⁾.

28)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 대련에서는 봉제 미싱공 60명을 채용하려고 광고를 냈는데 5일 동안 350명이 몰려와서 면접을 하고 했다. 합격자 방을 붙였더니 떨어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60명을 뽑는데 왜 350명이나 면접을 했냐면서 농성을 하고 왕복 택시비, 일당, 점심값을 내라고 하면서 직원을 감금까지 했다고 한다(박래영 외, 1998; 기타 주중 대사관 노무 관리 자료).

좋은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요약된다(Brislin 1993). 먼저 사고의 변화인데, 이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의 변화가 된다. 어떤 현상에 대해 한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러 측면에서의 설명을 원한다. 다른 문화에서 보여지는 복잡한 문제나 딜레마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 사람들의 문화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어와 주장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식이 증가하게 되면 보다 숙련되게 문화간 충돌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두번째 측면은 감정 상의 변화이다. 좋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은 문화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감소시켜 준다.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이해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좀 더 편안해지고 부담(burden)이 즐거움(pleasure)으로 변화되도록 도와 준다.

세번째로 행동 상의 변화도 있다. 부정적 행위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지표로 보이는 행동이 증가한다. 격노, 폭발(angry outbursts), 부루통함, 대화의 포기 등 부정적 행동이 감소하고 긴장이 덜해지며 비공식적 대화에도 기꺼이 참여하게 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북한 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접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간 의사소통과 관련된 많은 문화 훈련 프로그램들²⁹⁾을 준비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구나 베트남, 중국 등에서의 많은 경험 사례들을 수집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이민자나 난민자들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원용하여 현재 하

29) 베넷(Bennett, 1986)은 기존의 문화간 의사 소통 훈련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근 방법의 목표, 내용, 과정들이 먼저 목표 측면에서 인지적(cognitive), 감정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의 어느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지,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는 일반 문화와 특정 문화중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 끝으로 과정 측면에서 경험적인지 지적인지에 따라 교육과 훈련과 오리엔테이션의 특성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비교 문화 교육 훈련의 양식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지적 모델, 지역 훈련 모델, 자기 인식 모델, 문화 인식 모델, 다차원적 모델 등이다

구분	오리엔테이션	훈련	교육
목적	인지적 행동적	감정적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내용	특정 문화 Who, What, When, Where	특정 문화 Who, What, When, Where And How	특정 문화 일반 문화 Who, What, When, Where How and Why
과정	지적	경험적	지적

나원 등지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저항 및 갈등 단계에서의 교육에 이어, 통일의 의의와 민주 체제하 정치 생활, 경제 발전과 윤리, 현대 사회와 준법 생활, 국제 관계와 통일 한국의 진로, 국민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이해와 통일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이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 된다.

(5) 통합 안정기의 사회 적응 교육

1) 교육 방향과 중점

통합 안정기란 고든의 분류에 따르면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주민이 새로운 사회의 관습과 제도에 통합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동일시의 단계를 거쳐 이제 기존 시민의 태도와 신념, 가치관과 일치하는 동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 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남북한의 사회 통합은 이민자의 현지 적응과 같은 일방적인 동화 과정이기 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재편 과정이며, 북한 지역 주민은 남한 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구성원이며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교육의 초점은 통일 한국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보유와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가 될 것이다.

표82.4단계에서의 교육 목표 및 주요 내용

30) Gordon(1964)은 이민자의 적응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i 문화 적응(acculturation) 과정: 새로운 환경에 접촉하여 문화적 규범에 적응하는 단계
- ii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 새로운 사회의 경제, 제도적 구조를 수용하는 단계
- iii 병합(amalgamation) 과정: 새로운 사회의 관습과 제도에 통합되는 과정
- iv 동일시(identificational assimilation) 과정: 새로운 사회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단계
- v 태도와 가치관의 동화(attitudinal assimilation) 과정: 기존 시민의 태도, 신념, 가치관과 일치하는 단계
- vi 행동의 동화(behavioral assimilation) 과정 : 기존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합치하는 단계

구분	주요 내용
교육 시기	북한 지역의 안정화 및 민주주의 성장기
교육 대상	북한 주민 전체
교육 목표 및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한국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닌 체험을 통한 민주 시민 역량 강화 ▪ 통일 사회의 미래, 남한 지역에 대한 문답식 교육 ▪ 남한 지역과의 적극적 교류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시민 윤리/시민 정신 ▪ 민주 사회의 실무 능력 배양 ▪ 통일 한국의 사회 문화 체득 및 기술 습득

2) 주요 과제

Habermas가 현대 사회의 사회 통합 매체의 하나로 보고 있는 연대는 일정한 유형의 의사 소통, 규범, 가치,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대화 가능하다고 쉽사리 가정하게 되는 일상적 의사 소통에서 발견되는 것이다(하버마스, 1996:28). 그리고 사회 통합이란 사회 체제가 새로운 제어 수준에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체제 요소나 표준치,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양자를 변동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도하게 복잡한 환경 속에서 존립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자기 동일성을 고집함으로써가 아니라 제어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 통합이란 한 사회 체제의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보다 견고하게 묶어 주는 어떤 공통적 신념이나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회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확장된 능력을 갖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 통합을 이야기할 때, 그 통합의 주체가 되는 남북한 주민들이 배제되고 규범적인 수준에서 문화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게 된다. 사회 통합이란 결국 남한 주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 나아가 북한 주민이 통일이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상대방의 문화에 적응하며,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통일 한국 사회의 통합 주체는 남북한 주민이 될 것이며, 이

들이 꿈꾸고 만들어가는 사회가 결국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지역, 북한 지역 모두에서 각각의 주민들은 성숙한 시민 의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살아나가야 할 미래 사회에 대해 토론하고 설계하며 채워나가야 한다.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은 이러한 시민 역량의 강화와 그 역량의 집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난 50년간의 분단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상호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어 남북간의 이질성도 심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과 남한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 방식과 태도에서 생소함과 격차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의 경우, 기본 합의서와 몇 가지 문서들이 노력의 전부이고, 더욱이 동족 상잔의 전쟁 경험, 그로 인한 반목과 불신의 요소가 뿌리 깊게 개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 통합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남북한 주민은 서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간의 냉전 체제 하에서 형성되었던 부정적 이미지들이 잠재화 되어 있거나, 최근의 감상적 인도주의 정서가 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왔고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정보에만 접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많은 조사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한 주민의 경우 북한 변경에 흩어져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난민 지위 부여 문제라든가 북한 수용소 내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와 같이 그들을 우리 사회와 독립된 따로 떨어진 집단으로 볼 때는 동정심과 민족 감정이 살아 있으며, 열의가 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남한 사회로 편입되어 남한 주민과 같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생활하게 되면 다르다. 단지 도와야 할 대상만으로 바라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들 주변에는 10만을 넘어가는 결식 아동이 있고, 경제적 이유로 보육원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넘쳐 나고 있기 때문이다³¹⁾.

서로의 사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드러나는 차이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며, 서로의 언어로 상대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만나며, 협력하는 일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이 너무나 빈번하여 일상적인

31) 두 편의 논문은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기선(1998)은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활용한 연구에서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4.91로 김혜숙(1988)의 연구에서 나타난 서울 4.05, 경상도 4.03, 충청도 4.07보다는 높지만, 전라도 5.29에 비해서는 낮아 호남권과 비호남권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기선(1999)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친구나 직장 동료로 받아들여려는 심리적 수용도가 동일한 응답자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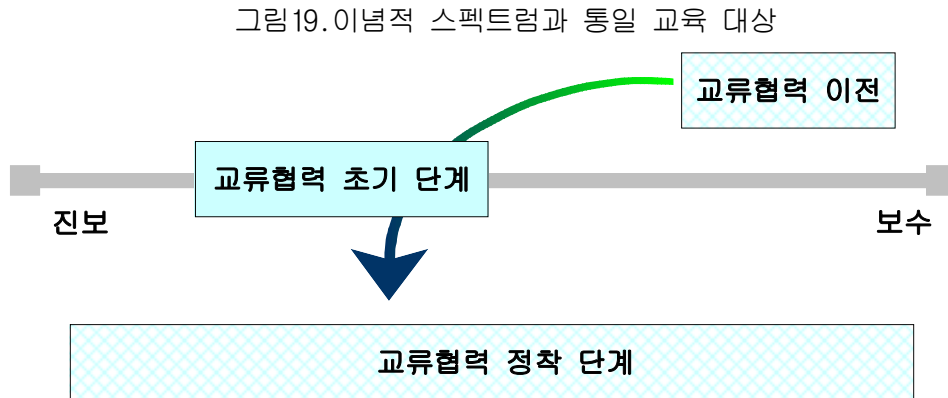
것이 됨으로써, 소용돌이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확장된 능력을 갖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4. 통일교육원의 사회 통합 교육 정책 발전

(1) 단계별 통일교육원의 역할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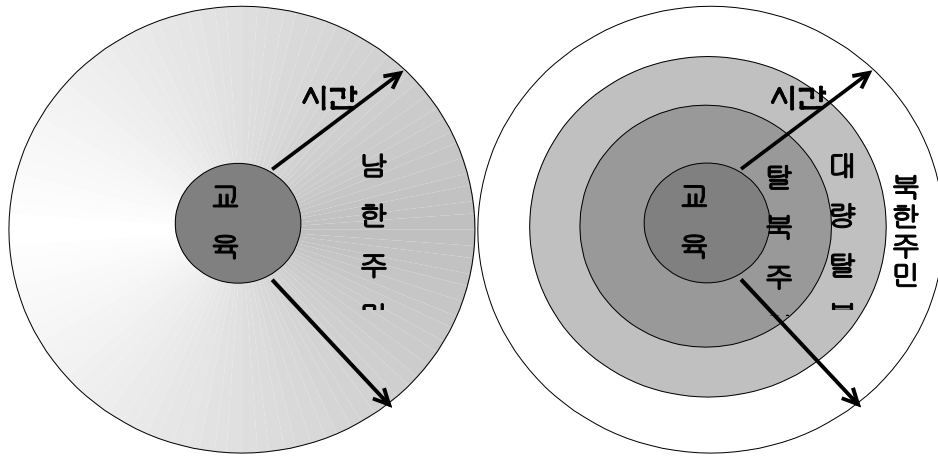
과거의 통일 교육은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연령층이 높은 평화 통일 자문 위원 등 주로 사회 보수층을 주 교육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도 그간의 냉전 체제를 반영하듯, 남북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립적인 통일 정책을 비교하거나, 남한 사회의 우위성을 인식시키려는 차원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통일 교육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보수와 진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남 갈등이 극복되고 국가 차원의 사회 통합 진전이 가속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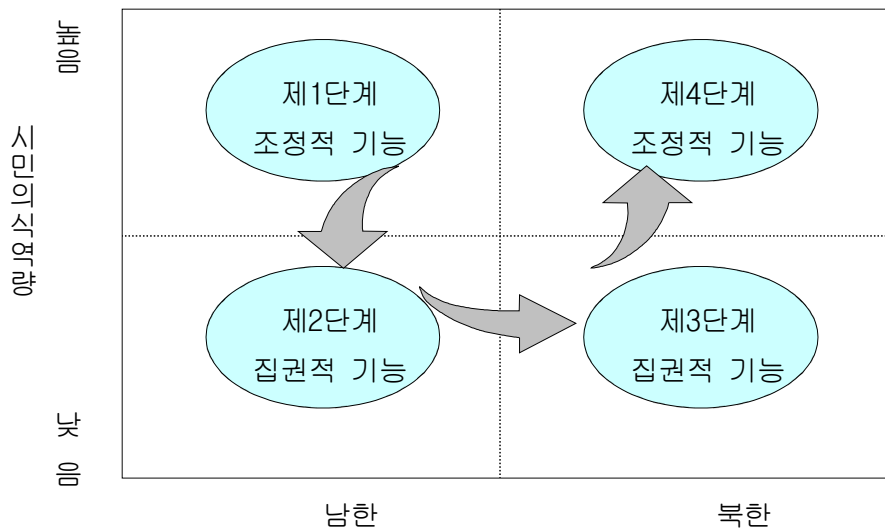
앞에서 논의된 시기별 통일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와 중점의 변화에 걸맞도록 이제 통일교육원의 통일 교육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체적인 구상과 기획이 필요하다. 먼저 통일 교육의 대상은 현재의 남한 주민과 일부 북한 이탈 주민 위주에서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규모의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북한 주민 전체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림20. 사회 변화에 따른 통일 교육 대상의 확대



또한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은 통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민 의식의 수준과 민간 부문의 역량에 따라 때로는 조정적 기능에서, 때로는 집권적 기능으로 융통성 있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83. 통일교육원의 기능 변화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대상과 교육 목표의 중점 이동, 시민 의식 및 민간 부문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84. 탈북(북한) 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원의 역할

시기	교류 협력기	예비 통합기	통합 초기	통합 안정기
주 교육 대상	·북한 이탈 주민	·대규모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지역 주민	·북한 지역 주민
교육 목표와 중점	·남한 사회 적응력 제고	·단기간내 체제 이해, 생활안내 교육	·새로운 체제 이해 및 적응력 제고	·사회 통합 구성 능력 강화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	교육 집행 및 조정적 기능 ·교육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통일 대비 교육 수요자, 각종 통일관련 단체, 기관, 남한주민과 탈북주민 연계 ·교육기관과의 피드백(정보, 프로그램제공, 평가, 예산지원)	동화교육에 대한 집권적 기능 ·체제동화를 위한 단기교육 -체제이해교육 -생활안내교육 -시민기본교육 -직업안내교육	적응교육에 대한 집권적 기능 ·체제이해교육 -법,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민주시민교육 ·문화적응교육 ·타 교육기관에 대한 조정 및 지원	교육의 종합적 조정적 기능 ·교육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교육기관과의 피드백(정보, 프로그램제공, 평가, 예산지원)
주요 교육 방법 및 수단	·하나원 등 사회 적응교육기관 ·민간단체와연계 ·체험학습등 ·행정 기관 활용 등 주기적 관리 프로그램	·대규모 수용 기관에서의 집중교육(강의위주) ·지역 행정 기관 또는 군 기관 및 인력 활용 ·언론매체활용	·지역 행정 기관을 통한 집중 교육 ·민간단체와연계 ·언론매체활용 ·원격통일교육 ·인터넷방송	·남북한 지역 민간단체의 주도적 역할 강화 ·원격통일교육 ·인터넷방송

(2) 통일 교육 발전 여건 조성

1) 통일 교육의 기본 운영 개념 재정립

먼저 앞에서 언급한 통일 교육 단계에 따라 교육 대상 및 지원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 사회 통합의 조기 실현이 되겠지만, 개별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 적응력 제고와 자기 개발을 통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이 최종 목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단계별 주 교육 대상, 교육 목표와 중점, 교육 방법과 예산 우선 순위 설정,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기준들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관련 부처간 협력 기반 구축

통일 교육과 연계되어야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할 정부 부처로는 노동부와 교육부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될 때 안착된다고 볼 때, 자본주의 체제에 걸맞는 직업 의식과 능력 또는 기술을 보유하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랜 동안 생활해 온 탈북(북한) 주민들을 이 사회의 문화와 요구 수준에 부합되도록 교육 훈련하는 일은 단지 직업적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현재 연계되어 있는 통일부와 노동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적 측면 뿐 아니라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부와도 연계하여, 특히 북한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체계 기반을 구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표85. 관련 부처간 협력 기반 구축

노동부	통일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정책 발전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정책 발전 ·직업 훈련 관리 공단 조정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통합 교육 정책 도입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제 지원 ·각급 통일 교육 제도 조정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평생 교육 정책 발전 ·민간 대학과 협조/정책 조정 ·교육과정위원회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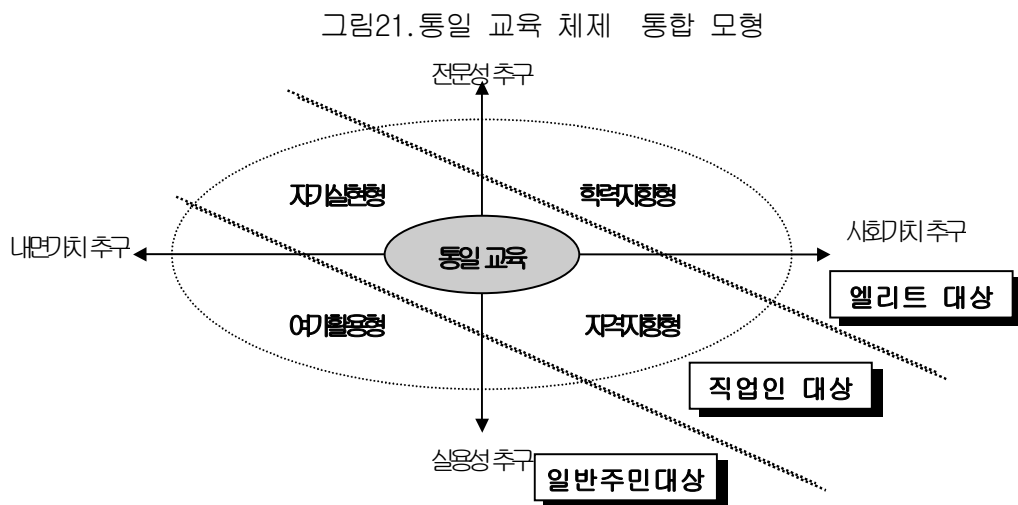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연구 기관, 대학간 협력 체계도 구축하여 교육 여건이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통일 관련 평생 교육 체계 구축

50여년 이상의 분단 상황과 그간의 교류 없음으로 인해 대부분 북한 지역의 성인들은 의식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통일 사회에 대한 적응은 성인의 경우 더욱 더디고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성인들의 재사회화를 유도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자율적 교육 여건 조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회 제공, 그리고 행정 타부처와 민간기구/기관의 제공 프로그램 최대 활용, 평생 교육 체계의 지원과 총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될 것이다.

평생 교육은 교육 대상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점 영역을 차등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문성과 실용성, 내면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두 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실용적이고 내면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교육을, 직업인을 대상으로는 자격 지향적 교육이면서 동시에 자아 실현형 교육을, 그리고 엘리트 층을 대상으로는 학력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줌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원격통일교육시스템, 인터넷 통일방송시스템, 위성통일방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4) 문화 통합 요원의 교육 관리 체계 필요

남북한 문화의 차이와 갈등에 대해 남한 주민의 59.5%, 북한 이탈 주민의 50.5%가 남북 문화 차이가 커 갈등이 심하리라고 보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람에 대해 개인 이기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20.8%), 겉과 속이 다르고 사기 성향이 있다(11.3%)고 응답한다. 남한 주민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동정적이거나 무관심하다.

문화 통합 요원의 육성과 주민간 의사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대학에 설치된 북한학과나 대학생 동아리,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남북한의 문화를 매개할 수 있는 소양이 발견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문화 통합 요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북한 인권 시민연합 등과 연계하여 대학생들을 상대로 방학 중 통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들을 통해 자발적 봉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준비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민간 의사 소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통일 교육 수월성 추구

1) 가치 체계 공유를 위한 기본 지식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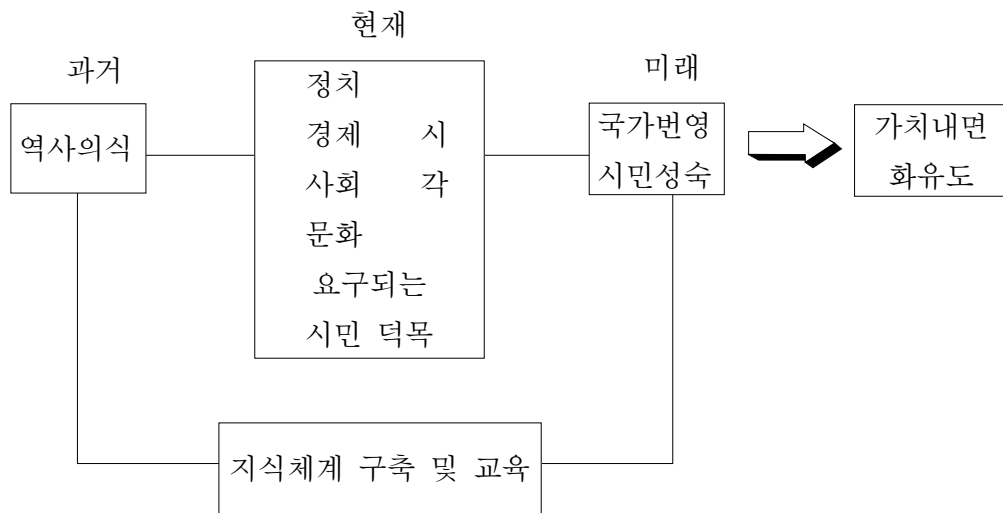
통일 교육의 방향은 관념적 이상을 강조하는 교육 방법보다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 판단을 길러주고, 그에 기초한 합의된 신념을 공유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부문에 대한 합의된 지식과 신념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신념 체계의 내면화를 위하여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지식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 바탕은 현재의 북한 이탈 주민에게 실시되고 있는 강의 내용이 기본이 되겠으나,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 이탈 주민과는 달리 북한 주민의 경우 정서적 안정보다는 통일 사회 시민으로서의 전반적인 사회 이해가 교

육 목표가 되어야 하므로 교육 내용의 구성은 단계별 교육 중점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국민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일반 국민들이 현재 공유하고 있는 가치 정향들은 어떠하며,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실효성있는 교육안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표86.가치 체계의 내면화를 위한 개념틀



역사 의식은 역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관심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해명하여 현재를 이해하는 동시에 장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그동안 우리의 역사 교육은 이러한 역사 의식을 고양하는 데 부분적으로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복 이후 식민지 통치를 위한 식민지 교육 제도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채 실증주의 사관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식 교육 제도와 교육 이념이 수입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역사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식민사관과 실증사관의 중첩 하에서 역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입시를 위한 암기 위주의 교육이 시행된 까닭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빈번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주체 사상 관점에서의 역사 평가 등은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큰 과제이다. 단일 민족으로서 어떻게 역사적 시련들을 극복해 왔는지를 조명해 주고 단절되고 왜곡되어 온 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치 의식은 일반적으로 정치 체계 일반 또는 특정한 정치 문제나 정치 대상에 대한 감정과 평가 등에 관련된 정향과 태도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국가적 상징에 대

한 태도, 정치적 권위에 대한 태도, 정치적 신뢰감,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 의식 등이 포함된다.

남한 주민을 상대로 한 많은 조사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치 의식 양상은 관심도와 국가 소속감 측면에서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정치인, 현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국민의 국가관, 그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현 정치 체제 및 정치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정치 효능감의 저조로부터 발생하는 패배주의적 가치관을 불식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현안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정치 제도, 권리와 책임과 같은 소개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주인 의식과 공동체 참여 의식 함양까지를 목표로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만큼 올바른 경제 이해와 경제 의식 함양은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의 개인적 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경제 흐름의 핵심적인 내용과 통일 경제의 기반에 대해 인식시킴으로써 국제 경제 질서와 통일 대북 경제 구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의 개인적인 경제 윤리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과 격차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과 가치문화의 변화 내용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의 적응력을 높이고 개인과 사회 생활의 융화를 도모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규범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가치관 형성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체계는 넓게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임과 동시에 국제적 경쟁 속에 있는 국제적 인간이라는 한 차원 높은 관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시각을 국제적으로 넓히고 이에 따른 국제적 경쟁 의식을 내면화하여 이 경쟁 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국내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집단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문제 등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시각을 견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 체계라 하겠다.

표87.가치 체계 공유를 위한 기본 지식 체계

국민의식 측면	내용
역사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련 극복의 역사 인식 · 단일 민족 정신 · 분단 과정과 왜곡된 인식의 교정
정치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치 참여 의무와 권리 ·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 · 민주 시민의 생활 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 의식, 준법 정신 - 권리와 책임 의식, 공동체 참여 의식
경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통합, 북남미 통합, 동북아 경제권 형성 · GATT, UR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개방과 국내 산업 보호 -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경제 성장 전략으로 · 동북아 경제통합과 남북경제협력
사회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산업 사회의 특성과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사회, 다원화 사회와 그 윤리 - 소비 사회, 광고 사회와 문화 ·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향락 문화, 마약, 범죄, 청소년 문제들 · 가치 문화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적, 상대적 가치관의 형성 - 권위주의, 연고주의 등의 독선적 가치관 지양 · 개인과 사회 생활의 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윤리 의식, 사회적 실천 의식
국가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 안보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개별 강사나 자원봉사자, 민간 단체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 일은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맡겨두기보다는 꼭 챙겨야 할 일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장할 필요가 있다.

2) 남북한 주민의 의식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체계 구성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하여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불평등이나 서열에 따른 특권을 받아들이면서 보다 경쟁적인 성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마디로 '성취 지향적'이라 요약할 수 있다(Triadis, 1995: 44-52). 북한 이탈 주민의 이러한 성취 지향적 태도는 초기 적응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적극적 의지가 적절한 적응 조건과 결합되어 자신에게 어느 정도 걸맞는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형성 유지하는 일일까지 원만하게 이어진다면 매우 성공적인 적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성공적 경우에도 적응에 관한 생각과 자신감은 적응 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침하게 될 것이며, 2-3년째가 가장 힘든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적절한 생업을 찾지 못하거나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의해 적응 과정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경쟁적 성향을 지닌 북한 이탈 주민들로서 이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나 반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자신의 높은 자신감이나 의욕이 좌절되었을 때, 남한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보다 극단적 반응이 나타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 그간 북한 사회에서 익숙하게 학습해 온 투쟁성이나 공격성 등도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 적절한 적응 수준이 유지되기 어려울 때, 이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이나 불만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한 주민들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니는 문화적 특성들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또 그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주민이 사회 적응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개척자적 정신'을 가지고 사회 생활에 임했을 경우, 바

로 이 때문에 자신이 속한 주위로부터 배척 당하고 거부 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회 적응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이러한 성취 지향적 성향이 성공적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적응 조건을 마련하는 일과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경쟁적 성향이 북한 이탈 주민 내부적으로, 또 남한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이후 이를 완화하고 여유를 갖게끔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소 지루한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현대 사회의 조직 원리로서 개인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다수의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있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동일시되어 척결되어야 할 매우 부정적 문화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집단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의 지속적인 사회화의 파생적 결과이기도 한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경제는 남한이 앞섰어도 문화는 북한이 낫다'거나 '문화는 우열이 있을 수 없으며 다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남한 주민의 이해 타산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남한 사회의 개인주의 문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남한 주민들이 보이는 부정적 측면들이 그들의 개인주의 인식에서 특정 측면들을 강화시켰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한 사회의 조직 원리로서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와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차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꼭 문화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운영되는 조직 원리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의지, 개인이 추구하는 관심과 이익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는 그렇게 존중되어야 할 개인의 집합이며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이익 추구가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에 합치할 것이라는 가정을 갖는다는 점도 인식되어야 하겠다.

많은 경우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에서의 방출 요인이 컸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 남한 사회로 건너 온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북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이제 탈북이라는 사안이 더 이상 희귀하고 생소한 일이 아니며, 북한 내부에도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에서 나타난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 특성이 근본적인 가치 정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이상의 논의들은 비단 북한 이탈 주민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남북한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토론될 수 있는 논의라고 본다.

또한 적응의 전체적 과정에 대한 인식은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을 여러 측면에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착 초기에 높게 나타나는 이해의 적합성 수준은 1년 이후 2년 6개월까지 점차 낮아지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적응 과정에 대한 전체적 이해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적응에 관한 일정한 기대치를 제공해 주어 적응을 촉진시켜 줄 것이며(Brislin, 1993), 교육 기관에는 적절한 개입 시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효과적인 교육은 교육 내용과 방법 못지 않게 적절한 시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개별 프로그램을(예: 적응 유형은 학력과 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그것에 따라 남한 사회에서의 삶과 적응의 목표에 차이를 두고 교육), 차이가 없는 영역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과 남북한의 문화적 통합에 대한 보다 세부적 내용들을 밝힐 수 있도록 연구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3) 통일 교육의 성과 측정과 피드백 기능 강화

현재 북한 이탈 주민에게 실시되고 있는 사회 적응 교육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교육 정책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적응은 언어 습득, 관습에 관한 지식, 만족 정도나 편안함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북한 이탈 주민 적응은 만족감 등, 주관적인 적응 정도에 초점을 두어, 관찰자 시점에서의 평가보다는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다. 적응 측정시 북한 이탈 주민의 주관적 평가는 직업이나 수입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한 측면으로 경도되기 쉬우며 또한 남한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올바른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를 따져보고 또 피교육생의 특성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원활한 피드백을 통한 적응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성 도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VI. 통일교육원 조직 발전방안

1. 통일교육원 조직체계 변화 요인

현재의 통일교육원 운영조직은 오프라인 통일교육(집합교육)을 중심으로 짜여진 것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서 통일교육원의 기능이 확대될 경우 이에 부합되도록 조직도 재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통일교육의 내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전제로 할 때 통일교육원 조직의 재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라인 통일교육 중심에서 온라인 통일교육을 비롯한 디지털 통일교육으로 발전한다.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원격통일교육, 인터넷 통일교육방송, 통일위성방송 등의 출현은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역할과 기능이 인터넷과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시스템 환경으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통일교육 대상자가 달라지게 된다. 1단계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초기단계로 남한주민 대상 통일교육이 핵심이며, 북한이탈주민 교육이 보조적으로 이루어진다. 2단계는 남북교류 협력의 본격적인 확대과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발생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 비중이 대폭 증가한다. 또한 남북교류담당인, 방북교류인원에 대한 교육이 핵심으로 부상한다. 제3단계는 통일초기 혹은 통일시기로 북한주민을 상대로한 통일교육이 핵심이 되며,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남한주민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은 보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통일교육의 전달매체가 인터넷, 방송, 오프라인 등으로 다양화 될 경우 오프라인 통일교육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통일교육원 조직을 기능별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과 방송시스템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콘텐츠 혹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인력과 부서의 확충이 필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모와 인력, 예산 측면에서도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재 하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남북한 사회통합교육, 북한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이라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고, 이에 대한 준비과정으로서 통일교육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일교육 역할을 제고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시스템의 네트워크화를 구축한다. 인터넷 통일교육방송이나 기존 방송사와의 공동협력체제구축, 통일위성방송국 등이 실현될 경우 여기에 필요한 통일프로그램의 제작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통일교육에 필요한 동영상, 텍스트, 자료, 방송용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시민단체, 방송사,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일교육원 조직을 새로운 통일교육 환경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2. 현단계의 통일교육원 조직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남북교류가 초기단계에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통일교육원 조직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통일교육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상황에 부합되도록 짜여져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통일교육이 주를 이루며, 온라인은 사이버통일교육센터라는 명칭으로 기획과에 소속된 팀에 의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통일교육원 조직은 크게 교수부와 개발지원부로 나누어지고, 교수부는 다시 기획과, 교육과, 지원관리과로 구성되며, 개발지원부는 교육지원과, 연구개발과로 이루어져 있다. 동 조직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교육, 남북교류협력 요원, 방북자교육 등이 초기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통일교육원 조직부서의 주요업무도 오프라인 통일교육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진행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필요한 교재개발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지원법의 실행으로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정도로 통일교육의 중심에 있게 되었으며, 통일교육의 내외부적인 환경이 온라인과 방송 등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새로운 역할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다음 단계의 통일교육원은 사이버통일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사이버대학 시스템이, 통일방송과 관련되어서는 방송통신대학 시스템이,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관련되어서는 기존의 일반대학교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회통일단체,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다.

그림22. 현행 통일교육원 조직 체계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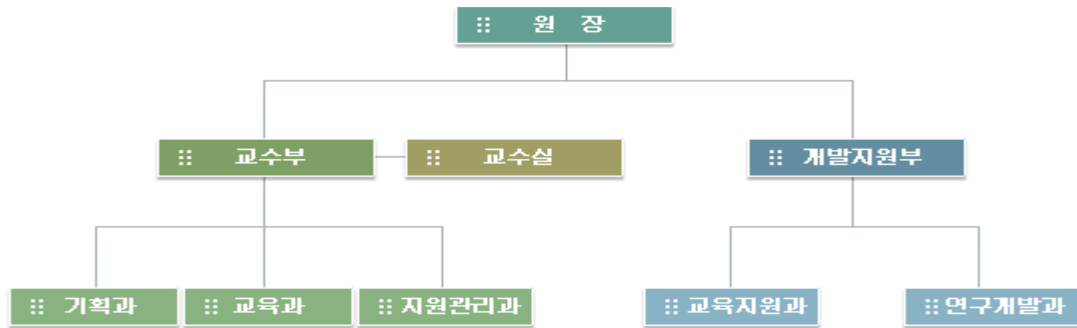


표88. 통일교육원 주요 부서 업무내용

기획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 조정 및 평가 통일교육기본계획중 통일교육원 소관분야 집행계획수립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통일교육계획 수립 및 ·통일교육 이수자의 관리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과
통일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교육진행 및 강사섭외와 분임활동 및 합숙생활의 지도 교육수료증의 발급 및 교육실적의 통계관리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국내외 순회연수의 실시
지원관리과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 · 관리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연구개발과
각급학교의 통일교육교재 · 자료의 개발 · 보급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교재 · 자료의 개발 · 보급 통일교육 전문인력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통일교육교재 · 자료의 조사 · 평가 및 조정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통일교육기법의 개발 · 보급
교육지원과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지원 통일교육실태의 조사 · 평가 및 시정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 · 운영 및 통일교육전문위원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통일전망대 및 북한관의 운영지원

3. 미래 통일교육원 조직 예상 체계

기존의 통일부 조직의 경우 향후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 기능이 강화 확대되어 갈 경우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즉, 앞에서 분석한 남북관계의 2단계, 3단계의 진입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교육, 남북교류요원 교육, 방북자 교육, 인터넷 통일방송 교육, 통일위성방송 교육, 원격통일교육, 북한 주민 대상 인터넷 혹은 위성방송 통일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기존 지상파 방송국과의 네트워크 협력관계 구축 등의 업무가 새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일반대학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모델인 것이다. 이러한 역할 변화가 필요한 통일교육 시스템으로의 수용 내지 적응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인터넷 환경과 방송 시스템과 같은 전문분야로의 적응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분야이며,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단계별 적응과 수용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의 준비와 훈련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가상적으로 구상해볼 수 있는 통일교육원 조직과 역할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의 기능확대와 원격통일교육시스템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과 인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통일방송국, 통일 위성방송, 기존 지상파 방송국과의 프로그램 기획제작, 활용의 공동협력과 네트워크화를 담당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 대상 통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에 따른 방북자 교육, 남북교류협력 요원에 대한 교육역할을 준비한다. 넷째, 오프라인 교육의 디지털화, 온라인 시스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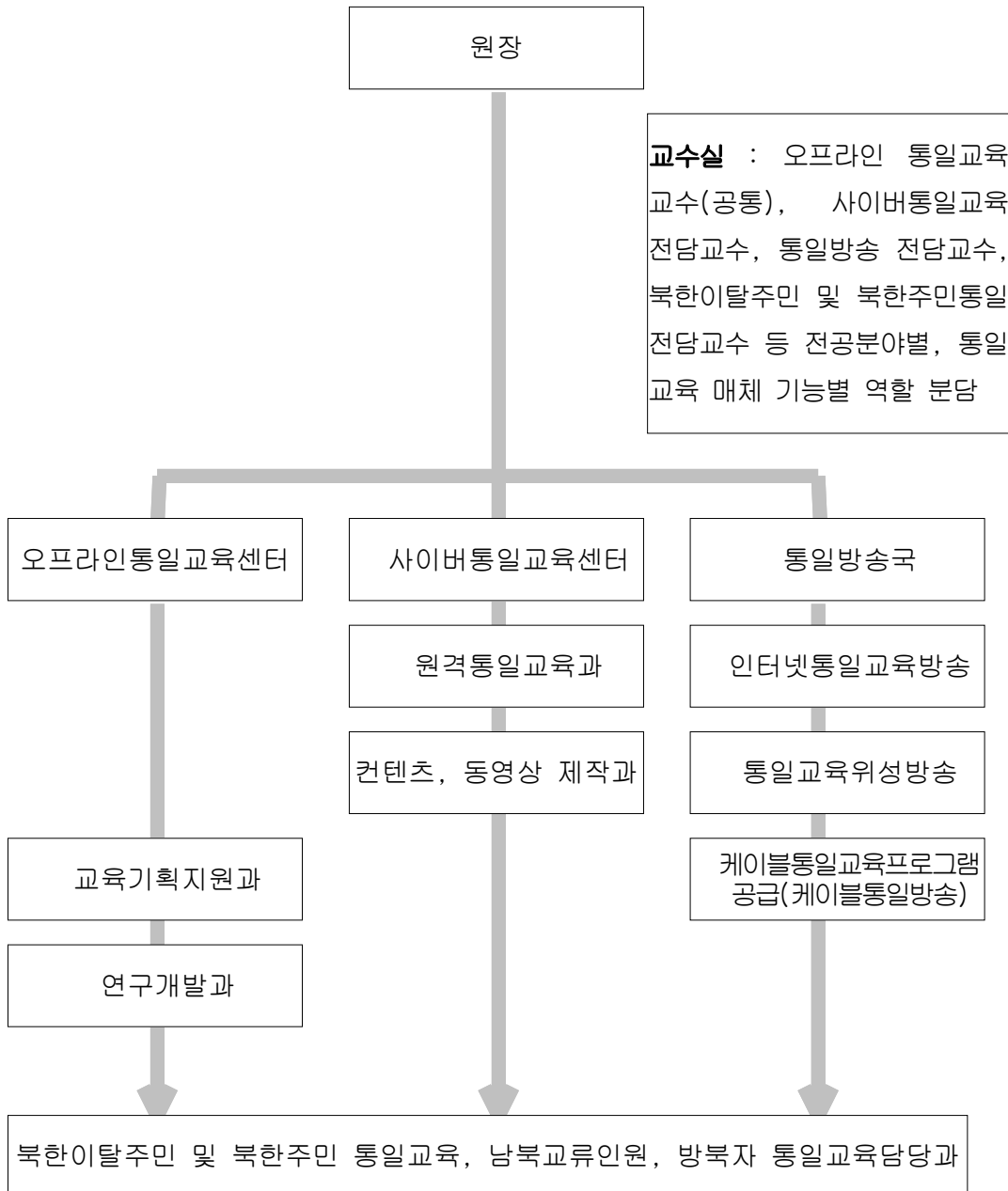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이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원 조직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기획과에 팀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분리독립시킨후 원격통일교육 업무를 포함하여 사이버통일교육과 혹은 사무국으로 확대한다. 여기서는 사이버통일교육 홈페이지관리, 콘텐츠 기획제작, 원격통일교육 교과목 개발과 제작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통일교육방송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통일교육방송국은 인터넷 통일방송교육국, 위성통일교육방송국 등이 소속된다. 초기 인터넷 통일교육방송국은 이미 인터넷통일방송국 편에서 분석된 것과 같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출발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통일교육방송국은 프로그램 기획국, 편집국, 촬영 및 제작국 등으로 다시 확대개편한다. 기존의 지상

과 방송국과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제작을 위해서는 영상제작팀(가칭)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통일교육방송과 위성통일교육방송국이 필요로 하는 영상제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층적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23.미래 통일교육원 조직 체계(예상)



셋째, 교수부는 조직형태는 그대로 두되 교수의 기능과 역할을 특화하여 통일방송 교수팀, 원격통일교육팀, 콘텐츠 기획제작팀 소속 교수 등으로 나누고, 오프라인 통일교육은 기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수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방송대학 교수와 사이버대학 교수, 기존 일반대학교수 기능이 모두 필요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수부내의 기존조직도 이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넷째, 통일교재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과는 통일교육 멀티미디어제작부(가칭)로 확대개편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기존 교재개발 업무이외에 인터넷 통일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통일교육의 디지털화 등을 담당한다. 여기에 영상제작팀을 소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육과와 교육지원과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역할이외에 남북교류협력요원, 방북자교육,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통일교육 등의 역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상태에서도 네트워크 관리, 후속관리 등을 포함한 관리내용의 심화를 위해서는 인력 및 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의 통일교육원 조직하에서의 교수들의 활동은 오프라인 통일교육을 핵심으로 하면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통일교육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오프라인 통일교육에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통일교육원 교수의 역할이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변화에 따라 새롭게 확대되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통일교육원의 교수의 역할은 통일교육환경과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되어 오프라인 통일교육, 사이버 및 원격통일교육, 통일방송 교육 전담 교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되어 교육전달 매체별 특성과 통일교육 내용이 결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 통일교육 강의 내용을 기초로 하되 전달방법이나 수단이 크게 바뀌게 됨으로써 교육전달수단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통일교육원 교수중 통일교육원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특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등 새로운 통일교육 조직이 실현될 경우 이를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새로운 신분으로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나아가 통일교육원의 역할이 북한주민대상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등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사회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도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남한사회만을 알고있는 외부의 전문가나 교수들에게 교육의 역할을 맡기기보다는 북한사회를 잘 알고 있으면서 남한사회를 소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

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환경에 적응해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원 교수에 대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89. 통일교육원 교수 역할 모델의 다원화와 유형별 특징

교수 역할 모델의 유형	주요 활동 내용
오프라인 통일교육 교수모델 (일반대학교수모델)	-기존의 오프라인 통일교육 강의 담당 -통일교육원 발간교재 집필 -외부 통일교육강의, 회의 및 토론 참여
원격통일교육 교수 모델 (사이버대학 교수 모델)	-교육강의안의 디지털 콘텐츠화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참여(토론, 게시판 답변 등) -담당 강의교과목의 콘텐츠 구성, 디지털화 기획 제작에 참여 -강의콘텐츠 올림과 제거 등 자체적으로 관리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통일위성방송국 통일교육 교수 모델 (방송통신대학 교수모델)	-담당 강의교과목의 텍스트 콘텐츠화 -강의내용의 동영상 촬영 -시민단체 등 인터넷 통일교육 참여 기관, 시민, 전문가의 교육내용 조정 및 협력 -방송시스템에 대한 개략적 이해

또한 기존 지상파 방송국과의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공동기획과 제작 등 협력관계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통일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방송분야의 전문성과 결합된 통일교육 교수의 배정도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 확장되어 나감에 따라서 이를 기능적으로 담당하는 인력과 내용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동시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통일교육원 교수의 역할모델을 새롭게 확대보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적응과정은 교육매체 운영방식에 대한 재교육, 방송시스템과 관련된 지식의 보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에 대한 충분한 인센

티브와 재교육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법으로 방송아카데미와 같은 교육전문분야에 대한 재교육 과정 참여기회와 연구년의 제공,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 종합적인 교수 역할모델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통일교육원 예산

통일교육원의 예산규모와 예산추이를 보면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이 잘 드러난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의 뒷받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받으라고만 하였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적 뒷받침은 하지 않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예산은 1990년을 정점으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인 1997년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97년의 통일교육원 예산은 울진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하여 전시관 설립을 위하여 특별 편성된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표90. 통일교육원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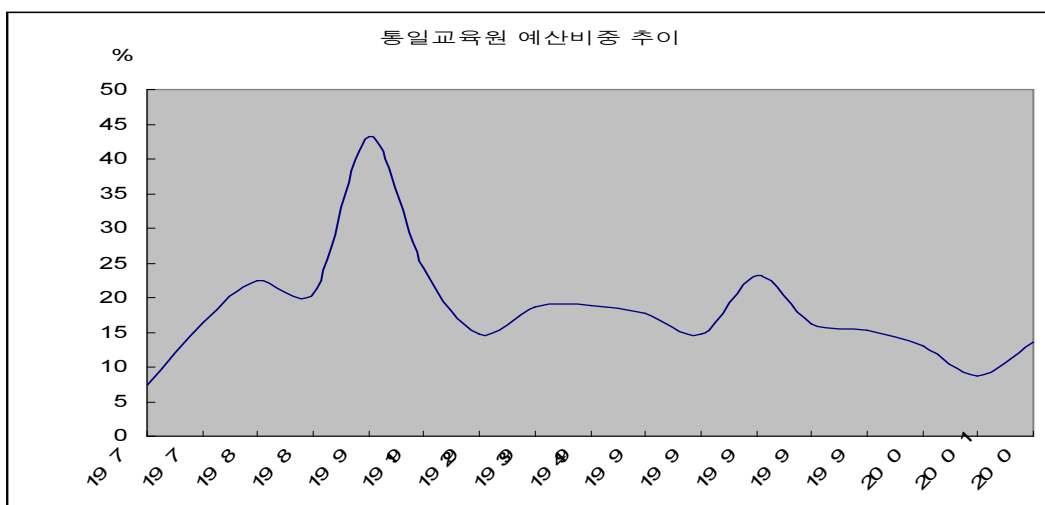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연도	통일교육원 예산(A)	통일부 예산(B)	비중(A/B)
1972	29,819	405,032	7.3
1975	96,498	582,102	16.5
1980	549,145	2,449,223	22.4
1985	1,234,434	5,999,614	20.5
1990	7,412,409	17,126,099	43.2
1991	6,252,163	25,590,076	24.4
1992	4,251,221	28,608,716	14.8
1993	4,343,620	23,289,933	18.6
1994	4,568,186	24,174,189	18.9
1995	4,737,056	26,740,000	17.7
1996	5,355,744	36,183,442	14.8
1997	10,776,865	46,343,314	23.2
1998	8,856,992	54,093,483	16.3
1999	7,492,810	49,177,022	15.2
2000	4,718,653	36,199,020	13.0
2001	5,486,930	63,015,087	8.7
2002	5,913,690	43,185,318	13.6

그 결과 통일교육원의 예산은 1998년 88억원, 1999년 74억원, 2000년에는 47억원으로 급감하였다. 이 시기가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갈등이 가장 증폭되었던 시기이며, 국민적 합의와 여론조성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통일교육원의 예산은 반비례하여 최소규모로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이론적으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언급하였을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상의 예산적 지원은 오히려 삭감하도록 결정하였다. 최근 2000년 들어오면서 통일교육원 예산은 증액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59억원의 미미한 증가수준으로 통일원의 예산증액분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부 예산에서 통일교육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1990년 43.2%를 정점으로 하여 계속 하락해왔으며,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는 기간에 동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1998년 16%에서 2002년 13% 수준까지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통일부 자체에서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기에 급급하였지, 국민적 여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집행이 소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반대여론이 급증하던 시기와 통일교육원의 예산삭감시기가 일치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가지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내용과 방식의 정책결정이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대북정책의 여론악화를 불러왔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24. 통일교육원 예산비중 추이



향후 통일교육원이 남북관계의 교류협력 발전,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기능의 확대, 원격통일교육시스템의 도입, 인터넷 통일교육방송, 통일위성방송, 지상파방송국과의 통일교육 연계 프로그램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원의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미래 남북한 교류협력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뒷받침되어야 할 통일교육의 시스템의 구축이 힘들어지며,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악화,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증폭, 남북한 주민의 갈등 심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제화 등 남북교류협력의 제약조건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교류협력 단계에 따라서 설정된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표91. 통일교육원 단계별 추진내용과 잠정 소요 예산

	교육원의 조직과 역할	인력 및 소요예산
1단계(2004-2006)	<p>사이버통일교육센터 기능보강 (홈페이지개편, 원격교육기관인가획득, 자체 메일링 시스템 구축, 인터넷통일뉴스메거진 발간 등)</p> <p>원격통일교육 실시</p> <p>원격통일교육용 콘텐츠 개발(교육생별 최소 10개 총 100개 정도)</p> <p>시민단체, 사회통일기관 등 인터넷 통일교육 영상자료 공동기획제작을 위한 인터넷 통일교육 연대(가칭) 구성</p>	<p>소요인력 : 전담교수 2인 행정인력 2인</p> <p>추진기간 : 2-3년</p> <p>소요예산 : 10억원</p>
2단계(2007-2008)	<p>인터넷 통일교육방송 설립</p> <p>영상제작팀,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팀 등 구성</p> <p>기존 지상파방송국 프로그램 기획제작,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p> <p>케이블통일방송 프로그램 공급사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p> <p>통일교육위성방송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p> <p>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적응교육 전담과 설립</p>	<p>소요인력: 전담교수 2인 웹 PD 1인 행정인력 2인 등</p> <p>추진기간 : 2년</p> <p>소요예산 : 9억원</p>
3단계(2009-2015)	<p>지상파 방송과의 통일교육 시스템 공동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p> <p>통일교육방송센터 설립</p> <p>케이블통일방송 프로그램공급사(PP) 설립</p> <p>인터넷통일교육방송, 통일교육위성방송 등 종합적인 통일방송시스템 구축</p>	<p>통일교육 방송국 전반관리 팀장, 촬영스케줄 관리 및 통일교육 강좌 방송담당 PD, 방송편집 및 오프라인 통일교육 방송 담당 PD, 통일교육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통일교육정보공유체제 담당, 홈페이지 운영 및 서버관리담당자, 기술감독 방송장비 및 스튜디오 관리자, EOD편집과 통일 및 남북관계 강좌 혹은 각종 활동 현장 담당자, EOD편집보조, 방송장비 관리자, 방송보조 및 문서업무 담당자 등</p> <p>소요인력 : 전담교수 3인 웹PD3인 행정인력 5인</p> <p>추진기간 : 3-5년</p> <p>소요예산 : 약 150억</p>

참고문헌

- 고정민, 2000, 인터넷 방송의 현황 및 전개방향, 삼성경제연구소
- 고영복, 1978.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추세".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187-256
- 교육인적자원부, 2002, 탈북 학생 사회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 권오정,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탐구당, 1987)
- 김성윤 외, 2001, 사이버통일교육: 분석과 전망, 통일교육원
- 김용섭, 1997, 인터넷방송 기획실무,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운, 윤여상. 1997. "탈북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통일원. 통일 교육홍보(V). '97 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 김창환 외, 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분석, 통일부
- 김창환, "통일 전 독일의 통일교육", 『통일 그리고 북한과 독일의 교육현실』 (한국 교육 개발원 세미나 발표 논문집, 2002. 11. 28)
- 김학성,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김학천, 2000, 한국통일후 방송체제와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통일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KDI주관 1997년 국가정책개발사업, 1997. 11. 30)
- 박종철·김영운·이우영. 1996.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박찬석. 『남남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서울: 인간사랑, 2001)
- 방정배외, 2002, 위성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백영옥. 1998. 북한 이탈 주민 대책 연구. 세종연구소, 연구 논문98-11
- 손호철, "대북포용정책과 남남갈등", 『남북한관계의 회고와 전망』 (200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02. 7. 25~27)
- 신수범 외, 2001, 교원 원격교육연수원 운영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오기성 외, 2001, 북한영상자료의 통일교육 활용을 위한 분석, 통일부
- 오일환,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2호(1995)
- 유석렬,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한국정치교육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2호(1986)
- 윤덕룡. 1999. "탈북자 적응의 사회 경제적 문제-보호 경찰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통일 연구원 학술 발표회 자료(1999. 12. 8)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와 정착 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집, 511-549
- 이근철·오기성, 『통일교육론』 (서울: 엑스퍼트, 2000)
- 이만제 외, 1998, 인터넷 방송현황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 이만제 외, 2000, 인터넷방송 공동송출시스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이상만, 200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개선방안 연구, 통일부
- 이수영 외, 1998, 케이블TV 산업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 이수영 외, 1999, 위성방송 운영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이우승, 2000, 북한, 통일관련 프로그램의 제작방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 이우승 외, 2001,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이우영 외, 1997,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민족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이우영,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사회통일교육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통일부, 제7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2002. 12. 13)
- 이장호. 1993. "남북 통일의 문화 심리적 장애 요인", 한국심리학회,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125-133
- 이장희 외, 2001,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중장기 통일교육 발전계획, 통일부
- 이종석, 김연철. 1996. 북한주민 의식 구조 및 가치관 조사. 서울: 통일연수원
- 임희섭. 1984. 한국의 사회 변동과 문화 변동. 서울: 현암사
- 장경섭, "통일 한민족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합'", 박기덕 · 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서울: 세종연구소, 1995)
- 장익 외, 2002, 대학교육정보화 활성화 지원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장익 외, 2002, 사이버대학 모니터링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전복희,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아태평화재단, 정책연구 시리즈 00-02, 2000. 9)
- 전우택. 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 전우택외, 200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 보고,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정진위·김용호, 『북한 남북한관계 그리고 통일』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정현백 외,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 조동기 외, 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성훈, 2001, 인터넷 방송의 이해, 나남
- 조용권, 2000, 인터넷 방송의 현황 및 전개방향,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원
- 추병완 외, 『통일교육』 (서울: 하우, 2002)
- 통일교육원, 2000, 사회통일교육지침서
- 통일교육원, 2001, 방송을 통한 국민통일의식 제고방안 연구

- 통일교육원, 2001, 통일/북한 관련 사이트 현황
- 통일교육원, 2002,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 창출을 위한 분야별 실천과제
- 통일교육원, 2002,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의 역할(2001년 1차 워크숍)
- 통일교육원, 2002, 사이버통일교육센터 활용핸드북
- 통일교육원, 2002, 통일교육원 30년사
- 통일교육원, 2002,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 통일부, 『2003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2002. 12. 26)
- 통일부, 『통일교육 3개년 계획』 (통일부, 2001. 12)
- 통일부, 2000, 남북한 여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구
- 통일부, 2003,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통일부. 2003.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관련 인터넷(www.unikorea.go.kr) 자료.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관련 보도 자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안내 자료
- 하버마스. 한상진(편). 1996.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서울: 나남출판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제5회 통일대비교육포럼, 1998. 8. 23)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통일교육 지도 지침 및 자료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99-41, 199. 12)
- 한만길 외, 1999,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 한응영, 2001, 인터넷방송 현황 및 전망, KISDI IT FOCUS 5월호
- 함인희 외, 2002, 통일교육 분야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통일부
- 허문영, “대남관”, 『김정일 연구: 리더쉽과 사상(I)』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홍용표, “한국과 미국의 포괄적 접근과 북한의 대응”, 『중소연구』 제26권 4호(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 황두환, “통일교육의 방향”, 이병희 외, 『민족의 분단과 통일: 한반도 통일과 통일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1998)
- 황병덕,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내용”, 『통일교육 활성화방안 탐색 워크숍』 (한국교육개발원, 1999. 9. 21)
-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황병덕, 1997, 통일교육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Bennett, Janet Marie. 1986. "Modes of Cross-cultural Training: Conceptualizing Cross-cultural Training as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10, 117-134
- Berry, J.W. 1989. "Psychology of Accultur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1990. Cross-Cultural Perspective*. Univ. of Nebraska Press. Vol.37
- Berry, J.W., Kim, U., Minde, T., Mok, D. 1986.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rislin, Richard W. 1993. *Understanding Culture's Influence on Behavior*. East-West Center, Honolulu: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Che, Wenbo. 1993. "A Tentative Psychological Approach to China's Unification", *한국심리학회,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28-35
- Department of the Army. 1986. *The Noncommissioned Officer Professional Development Study*, Vol.1, February, AD-A165 089
- Gordon, Milt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USA: Oxford Univ. Press
- Grinker, R. R. 1998.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USA: Macmillan Press
- Grove, Cornelius Lee & Torbiorn, Ingemar. 1985. "A new conceptualization of intercultural adjustment and the goals of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9, 205-233
- Hannigan, Terence P. 1990. "Traits, attitudes, and skills that are related to intercultural effectiveness and their implications for cross-cultural train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14, 89-111
- Kim, U., Triandis, H. C., Kagitcibasi, C. Sangchin, C., & Yoon, G.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Sage Publications
-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1990. *Cross-Cultural Perspective*. Univ. of Nebraska Press. Vol.37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중장기 통일 교육 발전 방안

발 행 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901-7051)

연구책임자 : 고정식(배재대학교)

공동연구자 : 오일환(한양대 아태연구소)

 독고순(한국국방연구원)

인 쇄 처 : 진명인쇄공사

인 쇄 일 : 2003. 12.

※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